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박사학위 논문

평신도의 선교적 환대에 관한 연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f Lay Christians'
Missional Hospitality
With Focus on the Settlements of North Korea
Defectors on South Korea

2023년 6월

승실대학교 대학원

기독교통일지도자학과

김민희

박사학위 논문

평신도의 선교적 환대에 관한 연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f Lay Christians'
Missional Hospitality

With Focus on the Settlements of North Korea
Defectors on South Korea

2023년 6월

승실대학교 대학원

기독교통일지도자학과

김민희

박사학위 논문

평신도의 선교적 환대에 관한 연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사례를 중심으로

지도교수 김 회 권

이 논문을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3년 6월

승실대학교 대학원

기독교통일지도자학과

김 민 희

김민희의 박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하충엽 인

심사위원 정승현 인

심사위원 박승민 인

심사위원 김의혁 인

심사위원 김희권 인

2023년 6월

승실대학교 대학원

감사의 글

나는 논문을 쓰면서 여러 번 가슴 뛰는 경험을 했다. 특히 평신도들을 인터뷰하고 그 내용을 분석해 결과를 도출할 때는 마치 내가 당사자가 된 듯해서 울기도 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일터를 환대의 공간으로 내어주며 애쓰는 귀한 사람들을 연구하고 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리고 나의 가슴 뛰는 경험과 눈물을 통해 ‘아! 나도 이제 내가 연구한 내용을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겠구나!’ 생각하게 되었다. 그렇다. 연구자는 본인의 연구를 수행하면서 뜨겁고 진한 눈물을 한 번쯤은 흘려보아야 타인의 삶을 담아낼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논문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커피 에이레네’의 창가 자리는 나의 아지트가 되어 주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많은 영감을 얻었고, 커피 한 잔만이 유일한 친구가 되어주었다. 나는 박사논문을 마치기 위해 수많은 외로움과 싸웠고, 매 순간 나의 자아와 고통스럽게 겨루었다. 그만큼 소중한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고, 또한 귀하고 값진 것들을 선물로 받았다. 주제넘게 온 거 같아 후회도 많이 했고, 앞으로 감당할 무게가 힘겨워 매 순간 흔들렸다. 그리고 더욱 더욱 하나님만 의지했다.

불가능한 사람이 논문을 완성할 수 있었던 것은 새벽을 깨우신 성령님 덕분이었다. 나는 매일 오전 5시 20분에 눈을 뜨고 교회로 달려가 맨 앞자리에서 예배를 드렸다. 새벽 시간을 통해 수많은 말씀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매일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면서 느낀 것은 ‘나는 연약하다’는 것이었다. 그러던 중 선포된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 앞에 나는 고꾸라졌다.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달

려울 수 있었다. 내가 연약한 것이 감사했고, 만족스러웠고,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다.

“연약한 피조물 중에서도 가장 연약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나의 아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부족한 딸이 얼마나 철이 없었기에 이 어려운 과정을 통해 당신의 사랑을 더 알게 하시는지요. 이제 ‘나의 약함이 나의 자랑’이 되었으니 내가 당신을 나타내도록 마음껏 사용하소서”

부족한 논문을 아름답게 빚어주신 교수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저의 삶을 걱정해 주시고, 작은 이야기에도 크게 웃어주시는 사랑하는 김회권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수님의 한마디는 영향력이 너무 커서 늘 저의 가슴을 뛰게 했습니다. 저의 상황과 상관없이 항상 저의 편이 되어 주시고, 한결 같이 저를 귀하게 여겨 주시는 하충엽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의 논문을 어머니의 손길로 섬세하게 살펴 주시고 길을 제시해 주신 박승민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늘 아낌없는 조언으로 독려해 주시고, 소소한 이야기도 잘 경청해 주시는 김의혁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선교적 교회와 평신도들의 삶을 함께 고민해 주신 주안대학원 정승현 교수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선교적 교회로서 본이 되는 나의 고향과도 같은 주안교회와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만나게 된 사랑하는 주승중 위임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목사님께서 매주 선포해 주신 ‘선교적 말씀’ 속에서 몸부림치다가 지금의 논문이 완성되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들을 삶에서 실천하며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몸 된 교회와 한국 사회, 그리고 통일 시대에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제가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장학금을 지원해 주신 기독교통일지도자훈련센터와 90세의 연세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학생들에게 학비를 후원해 주시는 김안순 권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에 기도와 물질로 섬겨주신 임병호 목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성래가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테너 진세현 선생님과 피아니스트 이고은 선생님께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 외에도 때마다 도움을 주신 많은 천사 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강한 의지로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 준 엄마에게 존경을 표합니다. 선교적 삶으로 본이 되어주는 대호와 민정이의 가정과 사업장을 축복합니다. 제주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나고 있는 두현이와 민욱이의 가정을 응원합니다. 선교적 기업을 꿈꾸며 새벽을 깨우는 춘호와 세진이 가정을 또한 축복합니다. 특별히 나의 사랑하는 7명의 조카들 시연, 태연, 명규, 로아, 봉규, 리아, 연준이가 훗날 이모/고모의 논문을 읽어주기를 소원(所願)합니다. 마지막으로 고3의 치열한 시간을 보내면서도 엄마를 이해해주고, 갖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많이 참아 준 '미래의 성악가' 아들 김성래에게 이 논문을 바칩니다.

이 시간에도 세상과 교회를 지탱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선교적 삶'을 응원하며...!!!

2023. 6. 10.

그리운 아빠의 23주기 기일 아침에

목 차

국문초록	vii
영문초록	x
제 1 장 서론	1
1.1 연구목적과 동기	1
1.2 기존 연구 검토	8
1.3 연구문제 및 연구범위	17
제 2 장 이론적 배경	21
2.1 하나님의 선교(<i>Missio Dei</i>) 이해	21
2.1.1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	21
2.1.2 선교적 교회(Missional Church)로의 부르심	24
2.1.3 선교적 공동체로서 평신도	27
2.1.3.1 평신도의 선교적 부르심	29
2.1.3.2 평신도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	33
2.2 하나님의 선교(<i>Missio Dei</i>)와 환대	36
2.2.1 선교적 방법으로의 환대	36
2.2.2 공간과 장소감의 환대	40
2.2.3 환대의 두 가지 양상	43
2.2.3.1 ‘자기성’(自己性)과 폭력적 환대	45
2.2.3.2 ‘타자성’과 상호적 환대	48
2.3 하나님의 선교(<i>Missio Dei</i>)와 북한이탈주민	51

2.3.1 북한사회와 북한이탈주민 환대	51
2.3.1.1 폭력적 공간의 북한	53
2.3.1.2 폭력적 공간으로부터 이탈	55
2.3.1.3 북한이탈주민의 다중정체성	58
2.3.2 한국사회와 북한이탈주민 환대	61
2.3.2.1 환대의 공간으로서 직장	62
2.3.2.2 환대의 장소감을 잃은 교회	64
2.3.3 북한이탈주민의 정착문제	69
2.3.3.1 일방적인 지원의 문제	69
2.3.3.2 언어사용의 문제	72
2.4 하나님의 선교(<i>Missio Dei</i>)와 선교적 환대(Missional Hospitality)	75
2.4.1 공감과 연대(連帶)	75
2.4.2 상호적 동등성과 친밀한 교류	78
2.4.3 타자 중심의 베품	80
제 3 장 선교적 환대의 실천 사례	83
3.1 연구방법	83
3.2 연구설계	86
3.3 연구자의 현장역할 이해	88
3.4 자료수집 방법	89
3.4.1 연구참여자 선정	89
3.4.2 면담시행	92
3.5 자료분석 방법	94
제 4 장 선교적 환대의 실천사례 분석 결과	97

4.1 평신도의 사례분석 결과	97
4.1.1 일터선교지 인식에 대한 3개 유형의 공통된 특성	99
4.1.2 선교적 교육 유형: 가찬미	105
4.1.2.1 친밀한 교제	106
4.1.2.2 공감과 수용	110
4.1.3 선교적 기업유형: 권하연	113
4.1.3.1 유연성 있는 태도	115
4.1.3.2 진정성 있는 노력	119
4.1.4 선교적 비즈니스 유형: 황진솔	123
4.1.4.1 그대로를 존중	124
4.1.4.2 수평적 협력	128
4.2 북한이탈주민의 사례분석 결과	132
4.2.1 선교적 교육 유형: 가찬미	134
4.2.1.1 지속적인 관심의 연결고리	136
4.2.1.2 진정성을 겸비한 부모역할	141
4.2.2 선교적 기업 유형: 권하연	145
4.2.2.1 포기하지 않는 기다림	149
4.2.2.2 품격 있는 언어 표현	154
4.2.3 선교적 비즈니스 유형: 황진솔	160
4.2.3.1 타자 중심의 자기성찰	163
4.2.3.2 지속적인 연결의 공급자	168
4.2.4 환대실천의 공통된 패턴 분석	173
4.2.5 환대실천의 공통된 상호관계 분석	174
4.3 연구결과의 타당성 검토	176
4.3.1 사실적 가치(truth value)	176

4.3.2 적용성(applicability)	177
4.3.3 일관성(consistency)	178
4.3.4 중립성(neutrality)	178
제 5 장 결론	180
5.1 연구요약 및 함의	180
5.1 선교적 교회를 위한 제언	186
참고문헌	192

표 목 차

[표 1-1] 심리·정서적 특성 주제별 연구 분석틀	16
[표 3-1] 연구절차	87
[표 3-2] 유형별 심층면담 대상	90
[표 4-1] 평신도가 경험한 환대 실천의 범주화 결과	98
[표 4-2] 북한이탈주민 인터뷰 범주의 구성	133
[표 4-3] 황진솔의 자아성찰 연결의 특성	167
[표 4-4] 평신도 환대실천의 공통된 상호관계	174
[표 5-1] 평신도의 선교적 환대에 관한 결론	178

그림 목 차

[그림 2-1] 2022년 북한이탈주민 남한생활 만족도	63
[그림 2-2] 북한이탈주민 사회단체 활동	64
[그림 2-3] 더 나은 남한생활을 위해 필요한 지원(1순위, 상위 5순위) ..	70
[그림 3-1] 에믹코딩과 에틱코딩의 특징	95
[그림 4-1] 북한이탈주민 언어사용 패턴 분석	157
[그림 4-2] 윤미희의 언어사용 변화	159
[그림 4-3] 사람을 통한 교회와 사회의 연결	161
[그림 4-4] 평신도의 환대실천 패턴	173

국문초록

평신도의 선교적 환대에 관한 연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사례를 중심으로

김민희

기독교통일지도자학과

승실대학교 대학원

본 논문의 목적은 선교적 교회의 핵심 구성원인 평신도의 삶을 추적해 환대의 실천사례를 분석하고 그것의 실천적 함의를 탐구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의 남한정착을 도왔던 평신도 선교사들의 선교적 환대를 심층적으로 연구했다. 이 논문에서 말하는 ‘선교적 환대’(Missional Hospitality)는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의 일환으로 평신도가 세상 한복판에서 보여주는 삶을 통한 복음 증언으로서 철저한 타자 중심적 자비사역을 가리킨다.

본 논문은 그동안 교회 중심으로 머물러 있던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삶의 현장으로까지 나아가기를 촉구하며, 성도들이 선교적 공동체로서의 임무를 감당할 때 지역과 사회가 생명력을 얻는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평신도는 교회와 사회를 연결해주는 유일한 통로로 자신의 삶의 현장과 일터가 선교의 중심지인 것을 인식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의 세속적 임무(*secular order*)는 ‘선교적 노력’으로 빚어져 ‘행동’으로 나타날 때 ‘복음’으로 전해질 수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실천이 사회

적으로 고립되고 연약한 사람들을 자신의 삶으로 초청해 마음·물질·시간의 공간을 내어주는 것으로 실행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해 연구자는 자신의 관점보다 평신도의 삶의 현장 중심 연구의 필요성을 느끼고, 그들의 경험을 관찰하고 분석해 재구성하는 질적 사례연구방법을 채택했다. 질적 연구의 장점 중 하나는 연구자의 관점과 연구 참여자의 관점의 부딪침에서 새로운 통찰을 제공해 또 다른 관점의 질문을 생성해주는 데 있다. 이러한 점에서 문화인류학적 사례연구 방법은 오늘날 선교적 공동체로서 평신도의 '실천적 행동 모델'의 특성을 분석하는 데 적합하다. 그것은 평신도의 일터 현장을 중심으로 공간적 의미와 행위로 나타나는 다면적 관계성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타자 중심의 선교적 방식은 참된 공동체로서 뿐 아니라,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유익한 연구로 강력하게 추천될만하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기존 연구의 이론적 틀에서 벗어나 참여자의 생생한 현장 이야기나 행동에서 발견되는 실제적인 연구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본 논문은 평신도의 환대실천 대상을 북한이탈주민으로 설정했다. 북한이탈주민의 정착문제를 돕는 일에 있어서 사회와 교회는 제한된 역할을 하는 데 비해, 세속 직업을 가지고 있는 평신도는 북한이탈주민을 정착시키기에 유리한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자신의 일터를 중심으로 북한이탈주민을 환대해 정착시킨 평신도 3명과 그 대상이 되는 북한이탈주민 3명의 삶을 탐색해 동시에 문화기술지면담을 실시했다. 이에 따라 인류학에서 발생된 에믹코딩(emic coding, 내부자·평신도)과 에틱코딩(etic coding, 외부자·북한이탈주민) 방법을 사용해 평신도의 선교적 환대 실천사례의 분석 결과를 도출했다. 이러한 분석방법은 이론적 연구에서 발견되지 못한 평신도의 내부적 관점을 도출해 줄

뿐만 아니라, 북한이탈주민의 외부적 관점을 포함시켜 결론적으로 타자 중심의 선교적 실천 방안을 모색하게 해준다.

오늘날 북한이탈주민은 1990년대의 식량위기로 인해 이주하는 세대를 지나 자신의 삶의 발전에 기반한 이주의 세대로 변화되고 있다. 그러므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기존의 집단적 인식 관점의 연구에서 벗어나 개인의 삶에 초점을 맞춘 질적 연구는 더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평신도를 통해 한국 사회에 잘 정착한 북한이탈주민 개인의 사례를 중심으로 평신도의 행동을 분석해 기존 정착 문제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더불어 북한이탈주민의 차별과 편견의 문제가 평신도의 환대의 실천적 삶을 통해 개선되기를 회구해 본다.

지난 4년간 지속된 코로나 19(COVID-19)는 일그러진 창조 세계가 우리에게 보내는 적신호였음이 밝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세상과 사회를 치유하기 위한 공동체로서 한국 교회의 무게가 막중해졌다. 그러므로 기존의 교회들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 ‘선교적 교회’로서 전환의 시대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할 것이다. 먼저는 교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성도들이 교회의 담장을 넘어 세상으로 나아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가정과 지역, 그리고 사회의 현장과 일터에서 선교사로 부름 받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선교적 삶으로 복음의 빛’을 비추어야 할 것이다. “진리로 고백하는 것은 말과 행동과 삶의 모든 방식에서 감연히 실천되어야 한다”는 존 칼빈(John Calvin)의 고백처럼 흠어진 성도들의 선교적 환대의 삶은 한국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치유하는 유일한 ‘선교적 도구’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ABSTRACT

A Study of Lay Christians' Missional Hospitality

With Focus on the Settlements of North Korea
Defectors on South Korea

Kim, Min-hee

Department of Unification and Christian Leadership
Graduate School of Soongsil University

The present dissertation seeks to analyze some examples of lay Christians' practice of hospitality and discuss their practical implications. To this end, it makes an in-depth exploration of lay Christians' missional hospitality, which helped North Korea defectors settle in South Korea. What is meant by the word "missional hospitality" in this thesis refers to the mercy ministry and others-centered ministry of lay Christians, who aim to present the Gospel to the unbelieving world through their life in midst of the world as a way of *Missio Dei*.

This dissertation challenges church-centered lay Christians to expand their Christian life to the larger world, claiming that the life

of believers will grow to be connected to the kingdom of God, which will enliven their living environment and society, only if they are able to form a missional community and perform their missional role. Lay Christians are those people who acknowledge that their everyday life and work place can serve as the sole channel that connects church with society and also function as a center of God's mission. It is believed that their secular order can develop into a missional enterprise and facilitate a Gospel-witness activity of lay Christians. The present dissertation aims to demonstrate that this missional practice can be implemented by both the hospitable invitation of lay missionaries to welcome socially isolated and weakened people into their life and their divine expenditure of heart, wealth, time, and space on their behalf.

This dissertation has been strongly motivated by the present researcher who felt the need to explore a field study of lay Christians' lives rather than put forth her own biased perspective. The present study has chosen a qualitative case studies, which is based on observation of lay Christians' lives and restructuring.

One of the advantages that one may enjoy by doing a qualitative research lies in both the insights that a researcher may find when the perspective of a researcher collides with that of a research participant and some subsequent questions that those insights may bring up. In this regard an ethnographical-anthropological study of case studies is helpful for analyzing some models of practical activity performed by lay Christians as a missional community in that it can

bring about various perspectives in multi-faceted relationships that are fashioned around the work place of lay Christians and its spatial meaning and action.

Relative to this observation, an others-centered mission strategy is highly recommendable in that it enhances the quality of an individual person as well as that of a community. By doing so, the present researcher could produce a substantial research result by being freed from some conventional theory frames and rather focusing on lively stories and behaviors of research participants.

The present thesis has posited North Korea defectors as beneficiaries of South Korea lay Christians' practice of hospitality for a couple of reasons. While church and society have been playing a limited role in helping North Korea defectors get adjusted to South Korea, lay Christians are better positioned to help them settle in South Korea through their secular occupations. Thus the present researcher has carried out an ethnographical-anthropological exploration of three lay Christians who showed hospitality to North Korea defectors in and around their respective workplace, who strived to settle in South Korea. Utilizing the emic coding(inner circle, lay christians) and etic coding(outsider, North Korea defectors) approach of anthropology, this dissertation has analyzed several examples of lay Christians' practice of hospitality for North Korea defectors and derived some meaningful principles. This analytical approach has produced an internal perspective of lay Christians that might be hidden otherwise and went on to lead us to put forward an

others-centered and missional practice by embracing North Korea defectors' outsiders angle.

Nowadays there has been a demographic change in North Korea defection from the 1990s hunger-stricken generation defectors to the new wave of defectors who left North Korea in order to pursue their own flourishing. Therefore, a qualitative study has increasingly been in more great demand, which focuses on North Korea defectors' individual and everyday life, departing from the hitherto conventional approach to North Korea defectors as a group. With this in mind, the present study has examined some examples of North Korea defectors who managed to settle in South Korea and sought to answer the question of what made their settlements successful. It has come to conclude that lay Christians' long term commitment and hospitality for them has played a vital role in helping them settle in Korea. It is hoped that some South Koreans' discrimination of North Korea defectors and their prejudice against them will be blotted out through lay Christians' hospitality and mercy for them.

The 4 years long Covid-19 pandemic has proved a red light for our modern civilization that has defaced the creation order. It thus has forced the Korean Church to shoulder the responsibility as a missional community to heal this wounded creation. Faced with this transitional period's challenge, the Korean Church should be awakened from the spiritual hibernation to become a missional Church. The Korean Church should encourage their lay Christians forming the majority of Church folks to cross over the high wall of Church

versus World dualism into the larger world in order to fulfill their missional duty. To achieve this task, lay Christians should submit that they themselves are called to serve the larger world beyond family and regional society by lighting up the light of the Gospel before the world at large, which constitutes lay Christians' missional task. Inspired by John Calvin who confessed that a confessed Truth should be acted and lived out in life and behavior, lay Christians should be called to be a unique missional instrument by performing missional hospitality, which will enliven the Korean Church and heal the shattered world.

제 1 장 서 론

1.1 연구목적과 동기

본 논문의 목적은 교회 밖, 평신도¹⁾의 삶의 현장에서 발견되는 현대의 실천사례를 연구하는 데 있다. 평신도는 자신의 일상을 선교지로 인식하고, 그 속에서 복음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교회와 세상을 연결해 주는 유일한 통로이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평신도는 자신의 선교적 소명(calling, 召命)을 잃어버리고, 신앙과 삶이 분리된 이중적인 모습을 띠고 있다. 더욱이 교회조차도 내부 중심으로 운영되어 ‘삶의 선교’를 가르치기보다 개인적인 신앙의 만족을 위한 프로그램을 구성해 교회를 유지하는 차원에 머물러 있다. 그 결과 성도들은 교회중심, 자기중심의 신앙생활에 치중되어 교회 밖, 세상과 사람들에게 무관심할 수밖에 없었다. 외부적으로는 세상에 속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파괴되어

1) 필자는 ‘평신도’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 받은 거룩한 백성(벧전2:9)을 뜻하는 ‘성도’의 정체성은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밝힌다. 그럼에도 평신도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이들의 역할에 대한 구분과 지금까지 연구된 관련 논문들이 대부분 평신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에 따라 필자 또한 평신도라는 용어를 가지고 관련 논문을 인용하며 이들의 선교적 역할을 연구하고자 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평신도라는 용어보다는 ‘성도’라는 단어 사용이 적절하다는 것을 앞서 밝히고자 한다. 평신도(平信徒)라는 단어는 한글로는 평범한 신도를 뜻하며, 다른 말로 하면 성직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만인제사장의 개념에 정면으로 대치되는 의미를 지닌다. 평신도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성도의 정체성을 드러내기보다 성직자가 아닌 사람, 비전문가나 그러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신도를 뜻한다. 다시 말하면 “평신도의 정체성을 드러나게 하는 단어이기보다는 평신도가 무엇이 아닌지를 말해주는 단어”로 볼 수 있다. 마르틴 루터(Martin Luther)의 만인제사장은 개혁교회의 평신도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준다. 루터는 믿음으로 성도된 평신도는 누구나 신자 됨의 영적인 권세(geistliche Vollmacht)가 있다는 것을 천명하고 있다. 이것은 개혁교회의 전통임을 선언했다고 할 수 있는데 평신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재자 없이 독자적으로 설 수 있는 영적 권세가 있는 사람”임을 뜻한다. 따라서 평신도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스스로 읽고 해석하며, 세상의 한 복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과 행동으로 또한 삶으로 선포하는 사람임과 동시에 이웃을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고, 그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제사장적인 소명을 가지고 부르 받은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양금희, “루터의 만인제사장 개념을 통해서 본 평신도교육 개혁,” 「장신논단」 49-1 (2017): 78-80.

갔고, 내부적으로는 교회의 팽창과 내부의 분열 등 교회로서의 본질적 사명을 잃어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 안으로 국한되어 있는 평신도들은 교회 밖으로 시선을 옮겨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중심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사회적 공동 임무를 감당해야 할 것이다.

세계인들이 바라보는 한국은 OECD 회원국이자 문화강국으로 경제 규모 또한 10위권 안에 드는 선진국이다. 한국의 문화는 각국에 큰 영향을 끼치면서 불과 80년 전만 해도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이제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되었다. 그러나 한국 사회 안을 들여다보면 자살률 세계 1위²⁾, 출산율 최저³⁾, 청년취업문제, 빈부격차, 대학입시 등 “경제적 양극화와 빈곤층의 집단양산으로 ‘공동체 연대’가 무너지는 재앙급 환란을 겪고 있다.”⁴⁾ 이와 관련해 이재열은 한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는 문제의 원인 중 하나를 ‘가족공동체’의 해체로 보았다. 그는 한국의 열 가구 중 세 가구가 1인 가구로서 이웃과의 관계 단절과 사회적 고립자가 증가하는 현상에 대해 공동체의 미덕이 사라진 것으로 평가했다.⁵⁾ 더욱이 코로나 19는 사람들의 일상생활로 깊게 침투하며, 한국사회의 물리적 거리두기로 인해 사람들의 모든 관계 단절에 힘을 실었다. 이러한 문제 앞에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는 교회 또한 내부의 성숙하지 못한 이기적인 민낯을 여실 없이 드러내기는 마찬가지였다. 이에 따라 “공공

-
- 2)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서 실시한 2021년 WHO의 Mortality database를 활용해 OECD 회원국 연령별 자살률 통계를 내린 결과 30대 이상 자살률에 대해 한국이 가장 높게 책정되었다. 『2022 자살예방백서』 (서울: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6.
 - 3) 한국 정부는 2006년부터 2021년까지 15년 동안 저 출산 극복을 위해 약 380조원의 재정을 투입했다. 그러나 2021년 기준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조사되어 홍콩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 순위를 기록했다. “380조 쏟았지만 출산율 세계 ‘꼴찌’…현실로 다가온 ‘인구제앙,’” 「복지타임즈」 (2022. 09.06). <https://naver.me/F9pJwgsR>.
 - 4) 김희권, 『자비 경제학: 구약성경과 하나님 나라 경제학』 (서울: PCKBOOKS, 2022), 13.
 - 5) 50년 전 한국은 100만 명이 넘나들던 출생자 수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제는 20만 명 대로 떨어져 최저치를 보이고 있다. 이재열, “포스트 코로나! 신학과 교회의 역할과 과제: 포스트 코로나 사회의 도래와 변화의 전망,” 한국기독교학회 2022년 10월 28일 발표논문(미간행), 14.

성의 부재가 한국교회의 취약성임이 분명해졌고, 저출산 및 고령화 등의 인구구조 변화와 플랫폼 사회의 도래는 중요한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다.”⁶⁾

한국은 역사적으로 공동체성을 가진 국가이다. 세계적으로 주목받기 전에 한국은 가난한 나라였지만, 오히려 마을공동체의 모습과 이웃 간의 정(情)이 살아 움직이던 곳이었다. 예컨대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제강점기 기간 한국은 외부의 강제침입에 맞서 전 국민이 참여하는 3·1운동을 일으켰고, 2002년 한일 월드컵(2002FIFA World Cup Korea/Japan)의 길거리 응원이 보여 준 공동체적 특성은 지역중심의 주체적이고 독자적인 참여가 있었다.⁷⁾ 이 둘의 공통적인 특성은 사회의 대표적 현상으로 나타나는 일들에 대해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는 것과 지역의 경계를 넘어 모두가 협력했다는 사실이다. 특히 일제강점기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사회의 문제를 교회의 문제,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며 공공성 구현으로 목숨을 잃으면서까지 한국사회를 지켰다.

1960년~1970년대 한국의 급격한 경제발달 시기에 국가가 과도하게 발달되면서 시민사회는 미발달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에 따라 사회적 상황의 공공성 담론이 국가로 독점되어 독재체제의 유지는 자유주의적 가치를 국민들에게 부여하지 못했고, 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적 가치만이 한국 사회의 전부였다고 할 수 있다.⁸⁾ 한국의 공공성 약화는 1997

6) “코로나19는 기술 진보가 가능하게 만든 미래를 오늘의 일상으로 끌어당겼다. 그간 ‘정보화 사회’나 ‘네트워크 사회’ 등 미래 사회를 일컫는 말들이 여럿 등장했지만, 초연결 네트워크, 빅데이터, 인공지능, 플랫폼 등이 결합하여 만들어낸 새로운 수요통합형 경제를 지칭하는 ‘디지털 경제’, 디지털 경제의 정점에 있는 플랫폼이 사회 전반의 구조와 사람들의 일상에 깊이 파고들어 만들어내는 효과에 주목하는 ‘플랫폼 사회’ 개념이 주목을 요한다.” Ibid., 21.

7) 당시 길거리 응원은 어느 한 특정의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국 곳곳에서 동시에 독자적으로 전개되었다. 이 경험은 세계화와 지역화의 시대를 맞이해 각 지역의 문화적인 자생력과 잠재적인 역량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회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되었다. 이윤희, “2002년 월드컵 길거리 응원의 축제 공동체의 특성,” 『사회와이론』 3-2 (2003): 131.

8) 1960-70년대에 지속되었던 독재체제 유지의 강화는 자유주의적 가치가 전혀 자리 잡을 여지가 없었다. 그만큼 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적인 가치가 한국사회에 공공성의 전부라고 해

년의 경제위기로 신자유주의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서 시장경제가 확산된 후이다. “공동체주의 입장에서 볼 때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새로운 공공성의 확립 시도는 심각한 공공성의 위기를 의미”⁹⁾한다. 그러나 한국의 전통적 가족중심주의적 형태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했다. 특히 전통적 유교문화에 비해 한국의 기독교는 개인주의적 특성을 많이 나타냈지만, 반면 이기적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기독교인들이 점차 교회 안과 밖을 구분하기 시작하면서 사회적 태도가 이중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자유주의의 개인적 개념에서 경제적 독립을 중요하게 여기듯, 교회공동체 또한 경제적 독립주체로서 성격을 강조하게 되었다. 특히 개교회 중심 지향으로 발생한 교단분열, 개교회 성장지향주의, 수평이동에 의한 개교회 간의 경쟁¹⁰⁾은 교회로서의 본질을 상실한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교회는 교회 내부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참여하는 공공성을 강조해야 한다. 사회의 전체를 선교대상으로 삼아야 교회의 공공성이 증대된다. 대럴 구더(Darrell L. Guder)의 표현에 의하면 “선교적 신학”은 “보편적인(universal)” 신학이 아니며, 항상 그리고 본질적으로 “지역적인(local) 신학”¹¹⁾이다. 그동안 공간적 의미로서 교회 중심으로 운영된 선

도 과언이 아니다. 그 정도로 공동체적인 가치는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전통적으로 공과 사에 대한 구분이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가 유일한 공적인 실체로서 개인 또는 가족과 같은 사적인 영역까지 자의적으로 침투할 수 있는 유교적인 전통의 지속으로 볼 수 있다. 김동노, “개인주의, 공동체주의, 그리고 한국사회의 공공성,” 『사회이론』 45 (2014): 95.

9) Ibid., 101.

10) 이경직의 논문은 한국 사회가 기독교의 수용과 더불어서 서구의 경제적인 자유주의를 받아들인 반면에 서구 자유주의의 전제가 되는 독립적 자아를 완전히 성취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것은 도리어 경제적인 독립의 단위를 개인이 아니라, 가족에 두는 것으로 서구 자유주의(자신들의 이윤 추구)를 유교적인 가족주의와 절묘하게 결합한 것이 된다. 한국 사회는 가족 등의 단위에서 자신들의 이윤추구를 위해 노력하며, 집단들을 이루는 하나의 사회도 이윤추구의 각축장에 머물게 되었다. 결국 우리 사회의 가족이기주의와 집단이기주의 등은 서구 자유주의의 수요를 가능케 했던 한국의 기독교 또한 집단이기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경직,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만남,” 『기독교사회윤리』 6 (2003): 140-141.

교방식은 성도들의 신앙표현 활동을 교회 안으로 국한시켰다. 이러한 현상은 교회 안에서의 오랜 정착으로 이어져 세상을 향해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아닌, 멈추어진 건물로서의 교회상을 낳아 급기야 세상의 분리를 초래했다. 그러나 오랜 기간 교회의 부수적인 사역으로 여겨졌던 선교가 결국 교회의 본질이라는 사실에 입각해 교회는 본래 선교적이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교회로서의 본질적 사명을 감당해야 마땅하다.

그동안 기존의 대부분의 교회들은 ‘선교가 있는 교회’(church with mission)로서 최선을 다해 선교의 사명을 감당했다. 이 시기에 교회들은 부흥을 경험했고, 그 과정에서 실행된 전도폭발과 각종 제자 양성 등의 프로그램들은 오늘날 교회의 핵심 구성원들을 형성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교회의 계속되는 성장과 교회 내부 중심으로 운영되는 방식에만 치중하다 보니 정작 복음이 필요한 세상과 담을 쌓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 결과 세상에 파송되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야 할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교회 안에 감추어져 세상의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일도 한국교회 대부분의 평신도 운동이나 목회 패러다임은 교회의 성장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며, 교회의 구성원들이 “자신의 진정한 소명에 근거한 사역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의 열심과 노력의 대부분이 종교적 범주에 머물고 있으며 세속적 관점에 무의식적으로 길들여져 있다”¹²⁾는 매우 중요한 말을 남겼다. 결과적으로 사회의 신뢰를 잃어버린 교회는 세상의 질타를 받으며, 사회가 오히려 교회를 걱정하는 상황까지 직면하게 되었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인 오늘날 교회의 사명은 “지구 피조물 공동체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교회 정체성을 회복”¹³⁾하는데 있는데도 교회는 아직도 세상을 향

11) Darrell L. Guder/ 허성식 역, 『증인으로서의 부르심: 총체적 구원을 위한 선교적 교회론』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6), 53.

12) 한국일, 『세계를 품는 교회: 통전적 선교신학』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2010), 129.

한 총체적 선교과업에 눈을 뜨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교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성도들의 제사장적 소명 회복은 가장 시급한 문제로 남는다.

본 논문은 이러한 본질적 의미로서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교회(마 5:13, 막9:50, 눅14:34, 골4:6)의 ‘선교적 교회’(missional church)로서의 부르심에 따라 교회의 핵심 주체인 성도들에게 초점을 맞추어 그들이 ‘세상의 빛’으로서 삶을 되찾기를 촉구하고자 한다. 필자가 정의하는 평신도는 교회 밖 사회의 현장을 선교지로 인식하는 사람들로서 자신의 삶 자체를 거룩한 산 제물(롬12:1)로 드리며 살아내는 사람들을 말한다. 필자는 그동안 주목받던 목회자나 특정 선교사가 아닌, 평신도의 실제 삶의 현장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선교적 행동을 관찰하고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질적 연구를 시행했다. 특히 사회적 약자,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나그네 환대사역’을 실천하고 있는 성도들의 삶을 추적해 평신도의 일터가 충분히 선교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밝히고자 했다. 이와 관련해 평신도의 환대가 실천되고 있는 현장 사례의 자료를 수집해 그들의 행동에 나타나는 특성을 분석하고, 그 중 모범적 사례를 발췌해 구체적으로 분석했다. 필자는 성경 속 ‘나그네’로서의 정체성이 강하면서 우리 민족과 가장 가까운 북한이탈주민을 환대의 대상으로 선정하고 그들을 선교적으로 환대해 한국 정착을 성공시킨 평신도들의 실천적 행동을 집중적으로 관찰했다.

북한이탈주민의 정착문제와 관련된 기존의 논문들은 차별과 편견이라는 부정적 인식에서 기인해 정착 성공사례를 찾는 데 인색했다. 그러나 점차 북한이탈주민들의 한국정착 성공 사례들이 연구되어 언론과 저널을 통해 접할 수 있다.¹⁴⁾ 비록 연구되지는 않았지만, 실제 북한이탈주

13) 김희권,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회의 선교전략: 지구 피조물 전체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교회,” 『선교와 신학』 59 (2023): 97-134.

14) 대표적으로 남북하나재단의 정기간행물 『동포사랑』은 북한이탈주민들의 남한정착 성공사례들을 정기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남북하나재단 공식 홈페이지] www.koreahana.or.kr.

민의 일상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남한사회의 성공적 정착을 돕는 평신도들의 현장 사례¹⁵⁾들도 찾아볼 수 있다. 그들의 선교적 목적은 각자의 ‘선교적 기지’라고 할 수 있는 자신의 일터에서 북한이탈주민을 오랜 시간 정착시키거나 준비시켜 그들이 능숙하게 남한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적인 삶’을 돕는 것에 있다. 이러한 실천은 그동안 사회나 교회의 정착제도나 프로그램에 입각한 제한적이고 한시적인 도움이 아니라, 북한이탈주민들이 사회에 적응하고 자신의 꿈을 키우고 살아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역량을 길러준다는 점에서 기존 정착 방법과 차별성을 가진다. 평신도의 선교적 접근 방법은 우선적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의 삶의 방식을 존중하는데서 시작해 철저히 타자 중심에서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사회 진출에 있어서 수동적 참여가 아닌,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그들 스스로가 자립하는 방법을 길러낼 수 있도록 돕는다.

본 논문의 연구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평신도의 일터 현장은 중요한 연구장소가 된다. 구더는 이 지속적인 연구를 현장화(contextualization)라고 정의한다.¹⁶⁾ 연구자는 현장을 깊이 있게 관찰하고 연구하는 것으로 특히 북한이탈주민이 가지고 있는 문화의 독특성을 수용하고, 이해할 때 다양한 관점의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다. 이러한 연구자의 시각은 우선적으로 남한사회의 방식에 북한이탈주민을 흡수·동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개인으로, 즉 존재 자체로 바라보고 존중하는 것이다. 다중적 정체성을 지닌 북한이탈주민은 우리와 같은 민족이지만, 가장 가까운 외국인이기 때문이다.

15) 필자는 인터뷰 대상자들을 탐색하던 중 다수의 평신도들이 인터뷰를 거절하는 것을 경험했다. 그 이유는 이름이 밝혀지거나 자신이 하는 일이 알려지는 것을 꺼려했기 때문이었다. 필자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많은 ‘평신도 선교사’들이 북한이탈주민들의 정착을 돕고 있었다.

16) 이와 관련해 구더는 교회가 책임 있게 ‘현장화(contextualization)’하기 위해 자신이 속해 있는 문화를 비평적으로 검토하고, 그 문화의 철학적인 토대와 가치를 분별해 밝혀야 한다고 언급했다. Darrell L. Guder, 『선교적 교회: 북미 교회의 파송을 위한 비전』 (인천: 주안대학원 출판부, 2013), 48.

북한이탈주민은 우리와 동등하게 자유와 행복을 누리며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적 차별과 배제의 그늘 아래 놓여 있다. 문제는 교회조차도 사회와 별반 다르지 않게 북한이탈주민을 대한다는 것이다. 반복되는 예배와 형식적인 프로그램, 그리고 일방적인 지원체계 등 북한이탈주민을 따로 구분 짓는 차별적인 환경은 사회와 마찬가지로이다. 이러한 운영방식은 타자 중심의 환대가 아니라 자기중심적인 환대에 가깝다. 다시 말해 북한이탈주민은 교회의 일방적인 운영방침 아래 그저 수동적으로 따르는 사람들로서 부서의 운영과 유지 차원에 머물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 뿐 아니라, 한국교회와 구성원들은 우선적으로 북한의 특성을 이해하는 태도로 같은 민족으로서의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이것은 일방적인 환대 실천이 아니라, 타자 중심의 환대로 실행되어야 하는데 북한이탈주민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정착하고, 그들 또한 선교적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상호적 관계 안에서 환대를 실천해야 한다. 이러한 사실을 인식한 평신도들이 사회와 교회 곳곳에서 깨어나 심겨질 때 그들의 일터와 일상의 현장은 타자 중심의 진정한 환대의 공간으로 다시 꽃피우게 될 것이다.

1.2 기존 연구 검토

본 논문의 이론적 배경은 크게 하나님의 선교에 입각해 논의된 구더의 선교적 교회론과 그것에서 파생된 선교방법론이다. 필자는 평신도를 주체로 이와 관련된 논문을 탐색하고, 기존에 연구된 환대에 관한 자료를 수집해 그 대상이 되는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내용을 연결해 분석하고자 했다. 따라서 본 장의 기존 연구 검토는 평신도와 환대, 그리고 북

한이탈주민으로 나누어 정리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나열했다.

먼저 평신도와 관련된 논문을 세 가지로 분류해 조사하고, 본 연구의 주제와 연결된 내용들을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첫째, 평신도의 선교적(일터·일상) 역할 관련 연구조사이다. 헨드릭 크래머(Hendrik Kraemer)는 평신도의 역할을 재정립하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선교적 공동체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크래머는 평신도를 볼 때, 객체(objects)로서의 평신도가 아니라 ‘주체자’(subjects) 또는 ‘행위자’(agents)로서의 평신도로 보고자 하였다.”¹⁷⁾ 크래머는 교회에 대해 세계를 위해 존재하는 곳으로 정의했다. 따라서 교회는 어느 곳에 있든지 선교의 목적을 가지고, 파견된 그 곳에서 ‘보냄 받은 공동체’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따라서 교회의 본질적 면모는 교직(Ministry)이라고 할 수 있으며,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향해 부름 받은 봉사자들(diakonoi)일 뿐이다.

평신도의 선교적 삶이 그대로 증명될 수 있는 곳은 일터 현장이다. 이와 관련해 박보경은 “한국적 일터사역의 형성모색” 연구를 통해 평신도들의 일터를 선교적 삶의 현장으로 정의한다. 그는 로잔운동에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선교 전략 패러다임인 일터사역(Workplace Ministry)을 중심으로 한국적 형성을 모색하는데 평신도들의 일터야말로 복음을 삶으로 전할 수 있는 현장인 것을 주장하고 있다. 최형근도 마찬가지로 “로잔운동에 나타난 일터신학의 선교학적 함의”라는 연구를 통해 선교적 교회론에 입각한 교회의 본질적 회복과 만인제사장직과 제자도에 근거해 평신도를 일터사역자로 구비시키는 목회의 리더십 등의 전환을 요청한다. 최형근은 선교적 교회의 존재 방식을 평신도들의 성육신적 삶과 연관된다고 보았는데 박보경과 마찬가지로 로잔신학이 추구하는 평신

17) Hendrik Kraemer, *A Theology of the Laity*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58), 19.

도의 일터와 일상을 통해 성육신적 삶이 구현된다고 보았다.

둘째, 평신도의 ‘사회적 역할 관련 연구’(지역·환대)이다. 정현곤의 박사학위 논문인 “다문화사회의 이해와 선교적 접근 연구: 다중적인 정체성을 품는 신적 포용을 중심으로”는 성경이 다문화사회에 주는 통찰력을 얻고, 사회과학적 이해를 통해 문화적 특성을 파악하고 있다. 연구자는 우리 주변에 머물러 있는 이주민들을 환대하는 것과 특히 디아스포라 한국인들과 선교사들이 국경을 넘어 초국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것을 촉구한다. 단일민족 관념을 넘어 단일민족사회에서 다문화사회로 성숙하는 과정에서 요청되는 덕목은 존중과 포용, 즉 신적 포용(Divine Inclusiveness)¹⁸⁾이다. 이러한 태도 변화는 기존의 사회적 배제와 차별적 행동을 넘어 다문화 시대 복음의 담지자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한다. 연구자는 다문화사회의 ‘초국가적 다중적 정체성’의 이해와 메타 프레임(meta frame)으로서의 ‘초국가적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핵심적 이슈로 타자 중심의 정체성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실존적인 경험에 접근하기 위해서 남북한의 모든 개인들은 일상적으로 공생할 수 있는 실천적인 관점을 가지게 된다. 이와 관련해 모춘홍·이상원의 논문 “타자와의 조우”는 북한이탈주민을 독립적 개인으로 인식하고, 타자적 접근법을 통해 그 가능성과 한계를 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특히 일상적인 교류가 벌어지는 공적 사회영역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의 개별적 욕구를 존중하고 이질감을 좁히려는 시도는 본 논문의 평신도 현장 사역 연구와 공통된 특성을 지닌다. 다시 말해 남한 사람들이 일상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을 맞이하고 대면할 때 한 개인에게 있는 개별적인 욕구와 특성을 바라보고 수용하는

18) 정현곤이 정의하는 신적 포용(Divine Inclusiveness)은 “하나님의 기준에 의한 신율적(神律的)인 차원”을 말한다. 정현곤, “다문화사회의 이해와 선교적 접근 연구: 다중적인 정체성을 품는 신적 포용을 중심으로,”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6.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셋째, 평신도의 ‘실천적(관계·인성) 역할 관련 연구’이다. 이러한 실천은 선교적 행동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평신도가 사회적으로 행할 수 있는 실천적 측면을 통해서 선교의 제한적인 테두리를 벗어나게 하는데 초점을 둔다. 이러한 실천에 대해 박태순의 논문¹⁹⁾은 신앙적인 활동을 넘어 일상생활을 유지하며 바른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는 모든 선교적 실천이라고 정의한다. 또한 정현곤의 박사 논문은 평신도를 선교적 제자로서 두 가지 차원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것은 ‘부르심’과 ‘보냄’이다. 이들은 세상에서 부름을 받았고, 또한 세상 가운데로 보냄 받은 사도로서 살아야 한다. 연구자는 이러한 부르심과 보냄을 요한복음 20장 21절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고 있다.

평신도의 실천적 역할은 사회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이것은 평신도가 보냄 받은 사회와 역사, 지역, 문화 등의 모든 곳에서 만나는 이들과의 사귄과 연대에 헌신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부르심을 받은 모든 평신도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받은 은사에 따라 선교적 삶을 살아내야 한다. 성석환은 선교적 교회 평신도들에게 폭넓은 신학훈련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며, ‘만인사제직’²⁰⁾에 대한 확고

19) 선교실천의 형태는 선교의 전문성을 갖춘 타문화권 선교사의 전통적 선교와 직업적인 전문성을 갖추고 평신도의 신분으로 복음을 전하는 전문인 선교이다. 여기에 박태순은 제3의 선교실천의 형태를 요청하고 있는데 이들은 삶의 현장을 토대로 선교를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범적인 삶을 통해 자신의 주변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따르고 싶은 사람, 함께하고 싶은 사람, 흠모의 대상이 되어야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다.” 박태순, “로잔운동으로 바라본 주안교회 ‘선교적 교회’의 사명선언: 평신도들의 실천적 삶의 정의,” 『미션네트워크』 8 (2020): 105-140.

20) 루터의 만인사제론은 단지 직제에 대한 문제제기만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으로 삼위일체적 관점을 분명히 보여주는 신학적 투쟁이었다. 성석환에 따르면 이 만인사제직이 성도들과 교회공동체에 자신들이 보냄 받은 지역과 사회에 관심을 갖도록 요구한다고 언급했다. 성석환, “루터의 ‘만인사제론’의 공적 의미와 현대적 실천 연구: 영미의 ‘선교적(형) 교회’ 운동을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신학논총』 107 (2018): 170.

한 신앙고백을 갖게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연구자는 평신도들이 북한이탈주민에게 실천하고 있는 선교적 방법으로 환대로 논의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해 연구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나열한다. 미로슬라브 볼프(Miroslav Volf)의 포용의 관점으로 볼 때 환대는 타인을 껴안고 고통에 함께 참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의 책 「배제와 포용」은 적대적인 인류를 자신의 품으로 안으신 하나님의 환대의 모범을 경험할 수 있다. 엠마누엘 레비나스(Emmanuel Levinas)의 타자 중심의 환대는 외재적 타자에 의해 촉발되어 행해진 것을 강조하며, 나 중심의 환대를 경계하고, 타인에 대한 윤리적 관계가 잘 맺히도록 독려하고 있다. 한스 부르스마(Hans Boersma)의 「십자가, 폭력인가 환대인가?」는 폭력(전통적)과 십자가(환대) 사이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발견해 신적 환대를 제시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공공의 정의를 위한 책임을 가지고, 환대를 실천해야 함을 말하고 있다.

현한나는 환대의 문제에 관한 윤리적 신학적 작업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지적했다. 선교적 교회의 학자들이 발표한 것들과 비교할 때 환대의 연구가 비중 있게 다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에는 이민과 난민 신학을 토대로 이들과 함께 나아가는 선교적 모델로서의 환대 선교적 분석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았다.²¹⁾ 이와 관련해 본 연구는 평신도의 현장 사례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환대의 실천 방안을 가지고 선교적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필립 셸드레이크(Philip Shelldrake)의 「도시의 영성」은 매우 흥미로운 연구 주제로 현대 도시의 문제점을 드러내 건강한 환대의 공동체에 관한 통찰을 제공²²⁾한다. 특히 향후 창조될 도시의 비전을 갖게 해주는

21) 현한나, “‘이주와 난민 신학’ 기반 세우기: 그루디(Daniel G. Groody)의 신학과 메타포로서 환대적 선교,” 「선교신학」 55 (2019): 449.

22) 필립 셸드레이크(Philip Shelldrake)는 도시를 화해의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환대를 기반으로 한 영적 비전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러한 장소는 도시에 기여하는 공동체를 배출하

것으로 본 연구와 관련해 공간과 장소에 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다. 최형근의 “삼위일체 개념에서 본 타자성과 환대”는 하나님의 선교의 핵심인 삼위일체를 중심으로 세계화로 인해 직면하게 된 이주민과의 사회적 관계 안에서 환대의 참된 의미와 타자성을 발견하게 해준다.

본 논문은 평신도들의 선교적 실천 대상을 북한이탈주민으로 정하고 이와 관련해 북한의 이해를 돕기 위한 문헌들을 찾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이와 관련해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정착의 문제점을 탐색해 다양한 연구자들의 문제 분석의 초점을 이해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그동안 북한이탈주민의 정착과 관련된 연구는 정치, 사회과학적 분야를 포함해 사회적 제도나 프로그램 법적 방안, 적응교육, 지원 또는 심리적 요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보다 큰 구조의 틀에서 남한 사회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도출하는데 이와 관련해 김성경은 북한이탈주민의 특수한 이주 현상의 파악에 치우쳐 있거나, 남한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는 방안에만 집중되어 있다 보니 그들이 남한사회에 ‘어떻게’ 동화되고, 구별되는지 그들만의 문화와 경험, 언어와 가치관 등은 이동과 정착 단계에서 어떻게 변화되고 재구성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론적 고민은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이것은 암묵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을 구조에 적응하는 수동적인 존재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행위자)과 구조 속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이다.²³⁾

반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구조적 접근과 집단적 편견을 벗어나, 개인의 정체성과 일상에 관한 아래로부터의 연구들도 점차 진행되고 있다.

며, 환대의 도시의 미덕에 대해 알려준다. 이러한 이방인 중심의 환대 연구는 삼위일체와 성육신의 성찬과 교리 등의 기독교 전통에 입각해 도시의 비전을 통찰할 수 있게 해준다. Philip Sheldrake/ 김경은 역, 『도시의 영성: 공간 공동체 실천 환대』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2018), 153-220.

23) 김성경, “북한이탈주민 일상연구와 이주연구 패러다임 신고찰,” 『아태연구』 18-3 (2011): 7.

이러한 측면의 연구는 북한에 대한 집단적 인식 변화와 개인의 삶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남·북한의 이질감을 좁혀 정착과정에 있어 그들의 실제 삶에 대해 중점적으로 관심을 갖게 해준다. 이와 관련해 엄태완은 북한이탈주민의 ‘개별적 주관성’을 강조하는데 이러한 관점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이 사회적 역사적으로 어떠한 조건에서 살았는지, 그들의 삶의 맥락이 어떤 것인지를 통찰²⁴⁾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한국 사회는 아직까지 북한이탈주민을 집단적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을 한국 사회의 구성원 한 사람으로 보고, 개인의 독특한 특성을 존중하며 그들의 일상을 통해 정착의 필요성을 관찰하도록 했다.

노먼 덴진(Norman Denzin)은 연구자가 “누구를 위한 연구”인지 스스로 질문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는데 특히 소수집단을 연구할 경우 연구자가 듣고 포착하는 모습은 부분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전체를 바라보는 신의 관점은 연구자에게 없다. 비록 사회과학적인 연구를 통해 나온 결과라도 연구 대상을 고통스럽게 하는 연구는 누구를 위한 연구인지 생각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와 관련해 윤보영도 북한이탈주민을 연구할 때 집단으로 규정된 연구가 비판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²⁵⁾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집단적 인식을 벗어나 개인적 삶을 중심으로 그 범위를 정해 소수 중심으로 집중적인 연구를 시행하고자 노력했다.

먼저 북한이탈주민 정착문제 연구를 주제별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정착 지원을 위한 연구(제도, 교육 등)가 있다. 최은석의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제도 변천과 사회적응교육의

24) 엄태완은 북한이탈주민의 개별적 주관성에 대해 연구하면서도 집단의 문화와 연결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엄태완, “일반논문: 남북통합 과정의 심리사회적 위기분석: 북한이탈주민의 생애위기에 대한 질적 연구를 통해,” 『북한학연구』 7-2 (2011): 8.

25) Norman K. Denzin/ 최옥 외 역, 『증거의 정치』 (서울: 아카데미프레스, 2014), 937-952; 윤보영, “규범화된 조건적 환대와 도덕적 주체들의 부딪침,” 『현대북한연구』 25-3 (2022): 262.

개선 방향”에 의하면 정착 관련 연구는 정책적인 측면을 넘어 북한이탈주민의 국가정체성과 법적지위를 발견하고 한국사회의 일원으로서 자긍심을 갖도록 하기 위한 사회적응교육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권숙도의 “사회통합을 위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체계 개선방안 제안”은 그동안 북한이탈주민 정책 지원이 재정 지원과 자립에 중점을 두다 보니 한계가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며, 한국의 국민들 또한 북한이탈주민에게 갖는 인식 또한 변화되어야 할 것을 말하고 있다.

둘째,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정착 적응(문화적·심리적·경제적)을 위한 연구이다. 이러한 정착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경제적인 측면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무엇보다 경제적인 소득이 보장되도록 다각적 지원프로그램이 필요하다.²⁶⁾ 강동완의 “북한이탈주민의 사회 적응과 정착 지원 방안”에 의하면 경제적 측면의 문제는 심리적 요인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매우 취약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특히 보건의료 분야에서 북한의 열악한 의료 문제와 중국에서의 장기생활로 인해 충분한 의료혜택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다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정신적 스트레스와 같은 심리적 문제에 따르는 올바른 처방과 신체적 정신적인 증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북한이탈주민의 정서적 결속과 심리적 안정감, 그리고 정체성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연구방향의 대안은 중요하다. 이와 관련해 심리분야 학회의 연구들은 북한이탈주민들의 남한사회 적응 과정에서 나타나는 심리·정서적 특성을 9개로 분류해 타문화권의 적응을 위해 고려해야 하는 심리 정서적 특성을 분석하고 있다.²⁷⁾

26) 이와 관련해 연구자들은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교육적·행정적 요인 만족도가 정착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했다. 그 중 경제적 요인의 정착 수용성에 대한 사회적인 상호작용 변수의 조절효과는 이탈 변수에만 나타났다. 다시 말해 정착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중에 한국사회로부터 재이탈하고자 하는 심리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경제적인 소득이 주요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김영택 외 공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요인 연구: 사회적 관계 적응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평화학연구』 21-4 (2020): 292-294.

[표 1-1] 심리·정서적 특성 주제별 연구 분석틀28)

분석항목	분류 틀
학술지· 연도별 발표 수	일반적
연구방법	
연구대상	성역할
연령별	세대별
인지	인지적
행동적 건강, 신체적 건강	행동적
가치추구, 삶 만족	삶의 가치추구 및 만족도
정신적·사회적 건강	정신건강
진로	진로 및 직업
거주 기간별	

셋째,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정착 생활(일상·인간관계)을 위한 연구이다. 특히 북한이탈주민 중 여성의 경우 남한사회 적응 및 정착은 직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연구된 질적 사례연구는 8명의 북한이탈주민 여성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이 연구는 남한 사회적응과 관련해 중요한 부분이 직업생활의 경험에 있다는 것을 심층 면담을 통해 담아내고 있다. 연구 참여자들은 남한사회의 적응을 위해 직업을 선택하지만, 과정 중에 반복되는 차별과 편견의 문제를 겪는다. 따라서 북한이

27) 서울대 교육연구소 조수연과 남북하나재단의 원지현이 발표한 본 논문은 심리 상담 분야의 학회인 한국상담학회, 한국기독교상담학회, 한국심리학회에서 발간된 학술지 연구 중에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남한사회의 적응 과정 관련 논문들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해 분석한 것이다.

28) 조수연·원지현,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 과정 관련 연구 동향: 심리 정서적 특성 중심으로,” 「한국상담학회」 2018년도 연차학술대회 논문집 (2018): 3쪽의 표2를 참고함. 연구 주제 분석의 틀 대조 추출표의 논문은 다음과 같다. 이민영,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한 정착지원에 관한 연구 동향 분석: 통합적 문헌 고찰 방법을 활용하여,” 「한국가족복지학」 49 (2015): 39-69; 박광택,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에 대한 연구 동향의 과제,” 「직업과고용서비스 연구」 2-9 (2014): 15-29; 금명자, “한국심리학회의 북한 및 북한이탈주민 관련 연구 동향: 한국심리학회지 게재논문 분석(2000~2003),”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4-2 (2015): 541-563; 임현주·이건아·양숙자, “북한이탈주민의 건강 관련 연구 동향,” 「지역사회간호학회지」 28-2 (2017): 144-155.

탈주민의 직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지원제도를 세분화해 더 구체화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²⁹⁾ 특히 일상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의 직접적인 경험을 ‘내부자 관점’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와 관련해 엄태완의 “이주민으로서의 북한이탈주민 경험 연구”는 근거이론방법을 통한 자료 분석을 가지고 남한사회에서의 〈불만족스러운 상황에서도 일상적 삶에 최선을 다하는 과정〉이라는 핵심범주를 발견했다. 북한이탈주민의 이주민으로서의 경험은 3가지 유형으로 ‘희망 연계-개척형’과 ‘무목표-유지형’, 그리고 ‘절망 지배-무기력형’으로 나타났다.

넷째, 북한이탈주민 정착과 자립에 관한 연구로 임영섭의 박사논문 “북한이탈주민 일자리 전환 과정에 관한 질적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립의 과정과 유형, 그리고 자립의 성공이라는 현상을 근거이론에 입각해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일자리 전환 과정을 통해 정착에 이르기까지 만족할 만한 요인과 유형을 탐색하는 연구로 북한이탈주민의 일자리 전환 과정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논문이다. 또한 박남태의 박사논문 “북한이탈주민의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에 관한 실증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사회 정착과 관련해 경제적 자립에 초점을 맞추어 이들의 경제적 자립과 정착을 위한 창업 지원제도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연구 목적의 구체화를 위해 북한이탈주민의 특성과 창업의 동기 등의 상관성과 사회적응에 나타나는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한 실증 분석 연구이다.

1.3 연구문제 및 연구범위

29) 연구에 참여한 북한이탈주민 여성의 연령은 20대~40대, 거주기간은 10년 이하이다. 김명희 외 공저,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직업생활을 통해 바라본 남한 사회적응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사회과학논집』 53-1 (2022): 49-76.

본 연구는 기존에 진행된 북한이탈주민 관련 연구들을 토대로 조금 더 구체적인 삶의 현장으로 접근하고자 질적 연구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연구의 현장성(contextuality)³⁰⁾을 강조하되, 그 범위를 제한된 공간(일터)으로 정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정착 사례를 토대로 평신도들의 선교적 접근 방식을 도출했다. 결론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 정착은 세속 직업을 가지고 있는 평신도들이 유리하며, 이러한 선교적 방식은 집단적 제도나 프로그램이 아닌 한 개인과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관계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극히 드물지만, 평신도의 현장 사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실제적인 선교적 상호관계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이를 통해 우리가 생각하는 환대의 실천 방법 뿐만 아니라, 타자, 즉 북한이탈주민이 생각하는 환대의 실천 방법이 융합되었을 때 평신도의 환대 사역이 더 유리해질 수 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 결과를 도출했다.

본 논문의 중심논지는, “선교적 공동체의 구성원인 평신도의 환대실천 방법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돕는 실제적인 접근법이다”라는 명제로 집약된다.

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평신도의 일터 현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실제 삶과 연결된 중심지이기 때문이다. 둘째, 사회나 교회의 제도와 프로그램은 일방적인 도움으로 상호관계 형성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집단적 인식을 강화하고 개인의 정체성을 발견하기 어려워 북한이탈

30) 구더는 선교적 교회론의 현장성을 강조했다. 모든 교회론이 특별한 문화적 현장 가운데서 발전하였기 때문에 참된 교회가 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구체적인 장소 가운데 성육신하는 것이다. 복음은 어느 때이나 문화의 옷을 입으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문화 안에서 해석되고 성령 충만한 말씀에 응답하는 것으로 조직되어진다. 그러므로 모든 교회론적인 기능은 그들의 현장에 적합해야 하며, 교회들의 진실함·신실함은 그들이 선포한 복음과 모든 문화에서 그들이 양육한 증인들과 연결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구더가 강조한 구체적인 장소를 통해 발전된 북한이탈주민들의 정착 과정을 모색했다. Guder, 『선교적 교회』, 39.

주민에 대한 인식 변화에 지속적인 편견을 가져온다. 셋째, 평신도의 선교적 행동은 북한이탈주민의 자발적 사회 참여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연구문제를 설정한다.

[연구문제 1] 선교적 교회의 평신도들은 교회가 아닌 일터(삶의 현장)에서 선교적 실천을 경험하고 있는가?

[연구문제 2] 선교적 교회의 평신도들은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한 외국인들을 집단이 아닌 개인으로 인식하고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는가?

[연구문제 3]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위한 평신도의 환대실천의 다양한 방법은 북한이탈주민의 관점에서 타당한가?

위의 연구 문제 분석을 위한 연구범위는 특정 목회자나 선교사가 아닌, 평신도들을 대상으로 하며, 교회 봉사나 사역이 아니라, 평신도들의 생활·생계와 직결되는 직장 또는 일상으로 제한한다. 또한 여러 외국인들을 환대의 대상으로 설정할 수 있지만,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을 선정했다. 이러한 연구의 범위를 통해 기존의 소수 중심의 목회자·선교사의 교회나 선교현장 중심의 정착 성공사례가 아닌, 교회의 대다수에 포함되는 평범한 성도들의 삶의 현장의 생생한 경험을 가지고 정착 성공사례를 추적한다는 데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

본 연구에서 조사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정착’ 사례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설정해 진행한다. 첫째,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정착은 장소적 의미의 공간적 측면을 요구하고, 이에 따라 평신도들이 개입하고 있는 기업이나 사업장 등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둘째,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사례는 정착과정 기간을 최소 1년 이상으로 정하고, 이후 현재 스스로 자립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제한한다. 셋째, 평신도와 북

한이탈주민의 면담은 집단이 아닌 개별면담(individual interview)³¹⁾으로
진행되며, 평신도 한 사람에게 북한이탈주민 한 사람만 연구 참여자가
될 수 있다. 그 이상의 인원은 포함하지 않는다.

31) 개별면담(individual interview)은 특정 질문에 대하여 개인의 응답 내용을 기록하는 면담형
식이다. 연구자는 보통 1인의 개별 사례들을 면담하게 된다. 조영달·박선운, 『문화적 민감성을
높인 질적 연구의 이론과 실제』 (과주: 교육과학사, 2021), 209.

제 2 장 이론적 배경

2.1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 이해

본 장에서는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 관점에서 평신도의 선교적 소명을 모색하고, 그들의 세상에서의 삶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에 기인해 실행된다는 것을 밝힌다. 따라서 평신도를 선교사로 준비시키고 세상으로 파송하는 선교적 교회의 목적은 복음, 즉 하나님의 선교의 연장에 있다는 것을 우선적으로 강조한다. 하나님의 선교는 선교적 교회의 본질이며, 여기에 속한 평신도는 그분의 선교를 성실³²⁾하게 수행하는 본질적 사명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평신도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과 결국엔 그들의 선교적 삶이 하나님의 선교의 연장이라는 것을 밝히고자 한다.

2.1.1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는 1952년 빌링겐(Willingen)에서 개최된 국제선교사대회에서 처음으로 언표되었다. 국제선교사협의회(International Missionary Council)의 발표는 “선교가 사랑, 공의, 은혜, 그리고 거룩 등과 마찬가지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성(the very nature of God)임을 천명”³³⁾했다.

32) 구더는 선교적 신학을 에큐메니컬하게 하는 방식은 신학함에 있어서도 ‘성실함’을 요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러한 신학은 성도들을 지켜보는 세상 앞에서 그들의 공동체적인 삶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사랑의 역사를 드러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의 삶과 방식이 얼마나 값진 삶인지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Guder, 『증인으로서의 부르심』, 61.

33) 정승현, 『선교하는 교회에서 선교적 교회로』 (인천: 주안대학원대학교출판부, 2021), 17.

우리가 속한 선교 운동은 삼위일체 하나님 자신 안에 그 근원이 있다(its source in the Triune God Himself). 성부께서는 우리에게 대한 깊은 사랑에서 만물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려고 자기의 사랑하는 성자를 보내셨으니, 이는 우리와 모든 사람이,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본성인 완전한 사랑 안에서 성부와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³⁴⁾

하나님의 선교와 구원은 먼저 창조로부터 이해³⁵⁾되어야 한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동적인 관계를 통해서 피조물들은 무에서 유로 창조되었다. 따라서 하나님의 고유한 성품으로서, 피조물인 자신은 하나님의 역동적인 상호관계를 반영해야 한다.³⁶⁾ 구더는 이러한 사실의 본질과 목적을 피조물이 근본적으로 혹은 내재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로 보았다. 다시 말해 책임과 통치가 피조물인 사람에게 주어진 것은 ‘관계적으로 창조된 피조물’로써 그 부르심 안에서 창조주와 연합하라는 것을 뜻한다.³⁷⁾ 그러므로 선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역동적인 상호관계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는 먼저 ‘보내시는 하나님’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은 “성부가 성자를 보내시고 그분들이 성령을 보내신다는 의미”³⁸⁾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단일한 본질(essence)과 그 안의 삼위(persons) 또는 세 본체(hypostases)가 계신 것을 뜻한다.³⁹⁾ 즉 하나님은 존재 자체(ipsum esse)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34) Ibid(재인용).

35) Scott Sunquist/ 이용원·정승현 역, 『기독교 선교의 이해: 고난과 영광에의 참여』 (인천: 주안대학원대학교출판부, 2015), 364.

36) 구더에 의하면 하나님의 미래와 현재적인 통치에 대한 교회의 종말론적인 비전은 우주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언제 어디서나 창조된 존재의 특정한 현장 안에서 실행된다. 창조된 질서는 사람들을 특정한 문화 속에 거하게 하고, “하나님은 선교적 공동체를 그들의 특정한 지역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지속되는 사역과 함께 공조하도록 초대하신다.” Guder, 『선교적 교회』, 279.

37) Ibid.

38) Christopher J. H. Wright/ 정옥배·한화룡 역 『하나님의 선교』 (서울: Ivp, 2011), 74-75.

게는 모든 속성(perfectiones)이 곧 그분의 존재와 동일한 것이다.⁴⁰⁾ 삼위 일체 하나님은 자신의 속성을 지닌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가장 ‘은혜로운 결정’을 내리시고,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스스로 내려오셨다.⁴¹⁾ 보내시는 하나님은 나사렛 예수로 대표되어 피조물과 언약을 맺고 그들 중에 존재하며 백성들 가운데 행동하는 하나님⁴²⁾으로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은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화해하고 다른 사람들과 화해할 수 있는 길”⁴³⁾을 열어주셨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의 실천으로 완전한 사랑을 이루셨고, 성령을 또한 보내심(요14:17; 요20:22; 행2:1-4)으로 지속되었다. 선교적 공동체는 모든 장벽을 허무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도록 능력을 부여 받게 된 것이다.⁴⁴⁾ 성령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모든 경계’를 넘어 ‘모든 곳’에 존재하신다. 오늘

39) Jean Calvin/ 원강연 역, 『기독교 강요 (상)』 (과주: 크리스천다이제스트, 2017), 173.

40) Augustinus/ 성염 역, 『교부 문헌 총서 21: 아우구스티누스 삼위일체론』 (왜관: 분도출판사, 2015), 50-51.

41) 칼 바르트(Karl Barth)는 이러한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 ‘은혜로운 결정’이라고 표현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가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신적 선행은 비천함 속에 놓인 타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높은 곳에서부터 내려와서 친교를 근거 짓는 것이 된다. 바르트는 “이 결정으로써 그가 필요로 하지 않고, 그가 속박당하지 않는 그런 일, 그가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의무를 지울 수 있는, 그러나 실제로 자신에게 의무를 지운 그런 일을 행한다”고 언급했다. Karl Barth/ 박영범·황덕영 역, 『교회교의학 II/2: 하나님에 관한 교의 2-2-2』 (서울: 대한기독교회, 2007), 22.

42) Ibid., 19.

43) Daniel Migliore, “The Missionary God and the Missionary Church,” *The Princeton Seminary Bulletin, new series*, 19, no. 1 (1998): 18.

44) 구더는 시편 33편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의 활동은 주권자 하나님의 자유로운 활동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하시고 그분의 영, 혹은 호흡, 혹은 바람은 그것을 수행한다”고 말하고 있다. 구더는 성령에 대한 보편적인 이미지들에 대해 역사적 사건과 자연에 성령이 개입하는 것의 가능성을 축소시키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며 이것이 주관적인 경험에서부터 나오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결과적으로 성령이 거하는 곳으로 추정되는 영적 세계와 평범한 일상의 물질적 세계 사이에 잘못된 구분이 생겨나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Guder, 『선교적 교회』, 217, 242.

날도 마찬가지로 성령께서는 교회 안팎의 모든 영역에서 활동하신다. ‘교회 안’으로는 성도들을 거룩하게 준비시키고, ‘교회 밖’에서는 그들의 일상과 삶을 통해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도우신다. 다시 말해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는 교회 뿐 아니라, 세상의 문화와 사회 속에서도 성령님을 통해 확장되고 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선교적 본성은 교회의 본질이 기 때문에 모든 성도의 삶을 통해 교회 안팎으로 동일하게 나타나야 한다.⁴⁵⁾

2.1.2 선교적 교회(Missional Church)로의 부르심

다니엘 미글리오리(Daniel Migliore)는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선교 중심으로 잘 요약했다. 그가 말하는 교회의 사명은 세상과 하나 되는 것으로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자들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을 강조한다. 그는 교회의 부르심과 사명이 결국엔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질에 근거해 실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회의 본질과 사명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질과 선교적인 활동에 근거한다. 교회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타락한 세상을 향해 손을 뻗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방인과 원수 되었던 자들을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 변치 않는 공동체로 인도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화해시키는 사랑에 동참시키는 것⁴⁶⁾

처음부터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의 선교를 실천하는 것이다. 교회는 세상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구더는 뉴비긴(Lesslie

45) 정승현, 『선교하는 교회에서 선교적 교회로』, 18.

46) Migliore, “The Missionary God,” 14-15.

Newbigin)의 “교회는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다”라는 정의에 따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는 사도적 교회를 보내신다⁴⁷⁾는 것을 강조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세상과 철저히 분리되어 하나님의 선교를 확장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데이비드 보쉬(David J. Bosch)는 “선교하는 교회는 세상 모든 곳에 있는 지역교회”⁴⁸⁾라는 말을 남겼고, 주승중 또한 교회가 세상과 분리되거나 상관없는 폐쇄된 존재가 되지 말아야 할 것을 강조하며, 교회는 이 땅에서 신음하고 있는 영혼들을 구원해야 할 시대의 방주 역할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특히 지역사회를 위한 공적 책임을 인식해야 한다⁴⁹⁾고 언급했다.

오늘날 신실한 교회는 세상, 즉 지역과 사회로 보냄 받은 사도적⁵⁰⁾인 존재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지역과 협력하려면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복음이 사회의 문화(가설 관점 선택)를 구체화 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특히 문화적 환경과 구체적으로는 지배적인 문화를 비판하며, 복음에 반대하지 않는 문화들을 긍정하고, 주변 문화들 속의 언어로 복음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더 나아가 지속적으로 주변 문화들 안에서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세상의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 문화를 육성하고 형성해 나가야 할 것이

47) 뉴비긴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말과 행동을 서로 대립시키거나 혹은 설교와 정의를 위한 행동과 설교를 서로 대립시키는 장난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했다. 교회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며, 교회 성장 또한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님을 언급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표지와 도구, 그리고 선취가 될 때만이 자신의 소명에 충실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Guder, 『증인로의 부르심』, 128(재인용).

48) David J. Bosch/ 김만태 역, 『변화하는 선교』 (서울: CLC, 2017), 588.

49) 주승중, “주승중 위임목사님과의 신년대담,” 『주안기쁨의샘』 308 (2023): 6.

50) 사도적이란 것은 보냄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것은 교회와 교회가 보냄 받은 것과의 구별을 의미한다. 교회는 다른 왕국과 공동체, 그리고 우리 현실에 대한 이해를 조장하려는 권력의 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공동체로서 또한 중으로서, 소식을 전달하는 메신저로서 존재하게 된다. 이러한 왕국이나 공동체 등의 권력의 세계는 자주 하나님의 통치에 반대되거나 또는 그것을 외면하거나, 다른 우선순위를 갖는다. 이러한 세상에 대해 선교적 교회는 사도적인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해 보냄을 받았다. Guder, 『선교적 교회』, 170.

다.⁵¹⁾ 그런 의미에서 교회와 문화는 동떨어진 관계가 아니라, 서로 협력하는 관계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구더는 “만일 문화 안에 문제들이 있다면,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고칠 책임”이 있다는 매우 중요한 말을 남겼다. 교회가 문화적인 현장에 변화를 주는 것은 하나님의 비전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이다.⁵²⁾ 구더에 따르면 세상에 대한 선교를 위해 교회의 성육신은 필수적이 된다.

교회는 성육신적이기에 언제나 복음을 사회적 현장에 적합한 용어, 스타일, 그리고 관점 안에서 표현하도록 요구받는다. 복음은 지속적으로 현장에 도전과 변화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현장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교회는 이러한 일들을 감당해야 하고, 그것이 부르심의 본질임을 확신해야 한다.⁵³⁾

하나님의 선교를 실천하는 선교적 교회는 사회의 현장 안에서 마주하는 문화들과 대립하지 않는다. 선교적 교회는 세상과 지역과 대립하는 교회가 아니라, 서로 협력하는 공동체로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적인 성품과 일치로 복음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육신적 삶을 계속해서 표현”하기도 하지만, 언제나 문화적이고 역사적인 현장 안에서 형성된 특정 형태를 취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⁵⁴⁾ 따라서 교회는 사회의 현장에서 요청하는 소리들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응답해 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가깝게는 지역사회와 교회가 서로 상호적인 관계를 이루며 교회의 존재를 신실하게 이루어 나가야 할

51) 구더는 교회와 문화에 대해 리차드 니버(Richard Niebuhr)가 주장한 그리스도와 문화에 대한 차이를 말하고 있다. 특히 니버가 제시한 그리스도와 문화 간의 가능한 관계 다섯 가지(문화와 대립하는 그리스도, 문화에 속한 그리스도, 문화 위에 있는 그리스도, 문화와 역설적 관계에 있는 그리스도, 문화의 변혁자인 그리스도)로 설명했다. Ibid., 42, 176-177.

52) Ibid.

53) Ibid., 42.

54) Ibid.

것이다. 분명 선교적 교회는 세상 속에 존재하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거룩한 구별된 공동체로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대로 ‘시대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해 교회 안에서 밖으로, 지역으로, 사회의 현장으로 뻗어 나가야 한다.

2.1.3 선교적 공동체로서 평신도

구더의 선교적 공동체론에 따르면 세상 속에 파견되어 일하는 평신도들이야말로 선교적 공동체를 이루는 데 최적화된 신자임을 알 수 있다. 구더는 이들의 정체성과 소명이 그들의 힘과 노력을 넘어 하나님의 권능의 임재하심으로 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강조한다.

선교적 공동체는 하나님의 통치의 자비, 정의, 그리고 평화를 나타내기 위한 소명을 받았다. 이러한 공동체들의 구별되는 특성은 성령이 그들을 만들고 지속되게 한다는 것이다. 그들의 정체성(그들이 누구이며), 그들의 특성(어떤 모습이며), 그들의 동기(왜 그것을 하는가), 그리고 그들의 소명(그들이 하는 것)은 신학적이고, 그래서 선교적이다. 즉 그들은 오로지 개인적이거나 집단적인 인간의 의도와 노력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의 임재하심에 의해 만들어 진다.⁵⁵⁾

성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시작하셨다. 제자들을 부르셔서 선교적 공동체를 형성하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는 선교적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셨다.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확산을 위해 계속해서 일하신 것이다. 따라서

55) “하나님의 영은 역동적이고, 교회에 생명을 주는 권세이며, 보이지 않는 주님, 주인, 인도자, 그리고 기독교 공동체의 격려자이다.” 성령의 이러한 능력 안에서 ‘보냄 받은 사람들’은 선교적 공동체로 만들어지고, 훈련되고, 준비되어 동기를 부여하는 실천들을 통해서 육성된다. Ibid, 216.

선교적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선교적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사명을 성취하는 ‘성령의 공동체’⁵⁶⁾로 정의할 수 있다. 이들에게 주어진 임무는 믿는 자들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리스도의 부름을 듣고, 받았다는 사실에 근거한다.⁵⁷⁾ 특히 사도행전 2장 42절⁵⁸⁾은 공동체 안의 성도들의 교제를 강조하고 있다. 거룩한 생활과 상호지지, 그리고 희생적 봉사의 공동적인 실체는 코이노니아(koinonia)이다. 성령 안에서의 교제는 독립성과 자기관심, 그리고 개인의 특권(idios) 등의 오랜 경쟁적인 질서에 도전한다. 이를 위해 기독교 공동체는 상호의존과 책임분배, 그리고 상호지도와 공통성(koinos)이라는 새로운 공동의 질서를 보여줄 수 있다.⁵⁹⁾ 여기에 속한 선교적 공동체로 모인 구성원들은 성령 안에서의 상호적 관계를 통해 이타적 삶에 기인한 사랑의 행위를 배우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 선교를 실천할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의 선교의 실천적 행위를 통한 성도들의 교제는 철저히 타자 중심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평신도는 타자와의 상호적인 관계 속에서 발견된 자신을 성찰해 재정비하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때 타자 중심의 선교적 삶을 살 수 있다. 구더의 말에 따라 우리가 누구이며,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으며, 왜 그것(선교)을 하는지, 우리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공동체에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⁶⁰⁾를 통해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성령은

56) 주승중, “주승중 위임목사님과과의 신년대담,” 8.

57) Jürgen Moltmann/ 이신건 역,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 메시아적 교회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7), 438.

58)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행 2:42)

59) 구더의 말에 따라 교회는 그 본질과 운명, 그리고 구조와 그것의 계속되는 생명, 그 사역을 생명과 진리, 거룩함과 성령의 은혜를 입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오순절 날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약속을 현실이 되어 하나님 사랑과 희망, 그리고 연민과 화목, 조화와 정의의 약속된 통치는 새로운 인류로 성육화 됐다. 따라서 성도들은 세상 속의 고립되고 적대적인 권세들에 대해 평화의 복음을 나타내도록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다. Guder, 『선교적 교회』, 220-221.

교회 공동체 안에서 뿐 아니라, 선교적 교회의 공동체 구성원들이 속한 교회 밖의 모든 곳에서도 동행하시며, 그들이 세상 가운데로 흩어져 각각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신다. 그러므로 교회는 단순히 구별되고 독특한 공동체가 되는 것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의 화목과 치유를 구현해 내는 사회적 관계 또한 육성해야 한다.⁶¹⁾

볼프는 교회 공동체의 공적 영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칼 바르트(Karl Barth)의 말을 인용해 그리스도인들이 ‘바깥 원’에서 활발하게 활동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도들이 자신들의 삶 전체에서 그분을 따르고, 그리스도가 일하시는 곳은 어디든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도록 부르고 있기 때문이다.⁶²⁾ 이러한 부르심은 성도들의 교회 안에서의 봉사와 섬김 뿐 아니라,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적 역할 또한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공동체로서 “지역교회는 교회의 미래적인 소망”⁶³⁾인 것처럼 선교적 공동체는 먼저 성령 안에서의 선교적 모임을 통해 선교적 소통을 이루고, 비전을 나누며 교회가 속한 지역을 중심으로 책임 있는 사명을 다해야 한다. 교회는 이 땅에 세워진 방주로서 구원의 역할, 즉 복음명령(Gospel Mandate)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 감당해야 하는 선교적 공동체이기 때문이다.⁶⁴⁾

2.1.3.1 평신도의 선교적 부르심

60) Ibid., 216.

61) Ibid., 225.

62) Miroslav Volf·Ryan Mcannally Linz/ 김명희 역, 『행동하는 기독교: 어떻게 공적 신앙을 실천할 것인가』 (서울: Ivp, 2017), 26.

63) Jürgen Moltmann, *Hope for the Church: Moltmann in Dialogue With Practical Theology*. Nashville, Abingdon (1979): 21.

64) 주승중, “주승중 위임목사님과의 신년대담,” 6.

존 스토틀(John Stott)는 “성도들이란 평신도들, 곧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의미하며, 평신도의 소명은 봉사하는 일, 즉 그리스도를 위해 세상에서 사람들을 섬기는 것⁶⁵⁾이라고 언급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성도(聖徒)는 하나님의 선교에 부름 받고, 보냄 받은 자들로서 오직 하나님께만 소유된 백성(행9:13; 고전16:1)들이다. 이들은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에 따라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인격과 사역, 복음의 희망, 사도적 선교 안에서 이미 시작된 약속하신 하나님의 통치에 집중함으로써 전체 교회의 화목(reconciling)에 기여”⁶⁶⁾하며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의 정체성은 중세시대 성도와 사제의 분류로 구별되면서 평신도라는 명칭이 등장했지만, 마르틴 루터는 만인제사장 개념에 따라 성직자와 평신도가 동등한 존재인 것과 평신도는 “세상의 한복판에서 제사장적 리더십을 수행하면서 살아야함”을 천명했다. 다시 말해 평신도는 가정과 직장, 사회와 하나님의 창조세계의 한복판에서 사람들을 섬기고 사회를 섬기는 목회적인 소명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다.⁶⁷⁾

평신도(Lay) 어원은 그리스의 단어 ‘라이코스(Laikos)로 이 단어의 라틴어 형태(laicus)는 여러 서양 언어에 진입했다. ‘라이쿠스’(laicus)는 철저히 종교적인 단어이고, 거대한 서양전통의 한 일부가 되었다. 본래 라오스⁶⁸⁾(laos)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에 속한다는 것을 뜻했다. 따라

65) John Stott/ 정지영 역, 『존 스토틀가 말하는 목회자와 평신도』 (서울: 아바서원, 2017), 51-52.

66) Guder, 『선교적 교회』, 369.

67) 양금희, “루터의 만인제사장 개념을 통해서 본 평신도교육 개혁,” 79.

68) 존 스토틀(John Stott)의 말에 의하면 헬라어 라오스(laos)는 본래 사람들이나 어떠한 무리를 뜻하는 단어로 세속적인 헬라어에서 도시국가의 시민을 지칭할 때 사용되었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킬 때 쓰이게 되었다. 처음에는 이방인과 대조되는 이스라엘(행4:10)을 가리킬 때 쓰이고, 후에는 새 이스라엘인 교회를 가리킬 때 사용(행15:14)되었다. 라오스는 폭넓은 의미의 단어로 모든 구성원을 가리키는 단어였다. 라오스는 관직을 뜻하는 클레로스과 구별되어 사용되었는데 복음서에 등장하는 대제사장들과 관원들, 백성들이라는 문장을 통해 전자와

서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라이코스이고, 오직 이것이 기초가 되어 다른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⁶⁹⁾ 초창기 교회는 평범한 사람들의 증언과 그들의 활동으로 출범했다. 특히 고린도전서 12장의 “봉사” 또는 “사역”(ministry)이 은사와 깊은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볼 때, 에베소서 4장 11절의 많은 사도와 선지자, 교사와 복음전도자 등이 평신도였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⁷⁰⁾ 문제는 오늘날 ‘사역에로의 부르심’이 소수의 특별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2차적 경험이라는 오해가 교회 안에 팽배하다. 예컨대 하나님이 영적 엘리트에게만 사역을 맡기고, 나머지 성도들은 사역자의 행사에 열심히 참여하고 돈을 내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이다.⁷¹⁾ 그러나 “평신도는 목회자와 더불어 세상에 파송된 하나님의 선교 동역자로 목회자와 함께 사도직을 부여받은 존재이며, 교회와 사회를 연결해주는 유일한 통로이다.”⁷²⁾ 뉴비긴의 주장과 같이 어떤 사회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열쇠는 평신도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이다.⁷³⁾ 따라서 평신도는 단지 자신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동역자로서 부름 받은 것이다.⁷⁴⁾

후자를 구별되게 사용하고 있다. 오늘날 라오스는 더욱 전략해 프로와 대비되는 아마추어 또는 전문가와 대비되는 비전문가의 동의어로 쓰인다. Stott, 『존 스토틀가 말하는 목회자와 평신도』, 51-52.

69) Hendrik Kraemer/ 홍병룡 역, 『평신도 신학』 (서울: 아바서원, 2014), 55.

70) 바울의 동역자들 역시 대부분 헌신적인 평신도들이었다. 남성들뿐만 아니라, 여성들도 평신도 사역자들이었다. (행18:26, 21:9; 롬16). Ibid., 22-23.

71) 그리어(J. D. Greear)는 평신도 리더가 하나님 팀의 2군이 아닌, 1군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종교개혁의 성과 중 하나는 직업적 사역자인 성직자와 보통 그리스도인인 일반 성도를 구분했던 담을 없애는 것이었다고 언급하며, 루터의 말에 따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동등하다고 설명했다. J. D. Greear/ 정성목 역, 『담장을 넘는 크리스천: 교회 밖으로, 세상 속으로』 (서울: 두란노, 2016), 87.

72) 김민희, “증언의 도구로서의 평신도 사도직의 사회적 소명: 대럴 구더(Darrell L. Guder)의 ‘선교적 공동체’를 중심으로,” 43.

73) Lesslie Newbigin, One Body, One Gospel, One World: The Christian Mission Today, London: Wm. Carling & Ltd. (1958): 17-27.

74) Lesslie Newbigin/ 홍병룡 역, 『죄와 구원』 (서울: 복있는 사람, 2013), 177.

크리스텐덤(Christendom) 안에서 형성된 성직주의와 목회 신학은 성직자와 평신도를 엄격히 구분⁷⁵⁾하려는 시도로 성직자와 평신도 사이에 수직적 관계를 형성했다. 이에 따라 평신도는 교회의 권력과 주도권을 가지게 된 성직자들 아래 수동적으로 따르는 모습으로 고착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이다. 목회자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성도들은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수동적인 모습은 사회의 현장에 파송되어야 할 선교적 공동체를 정립해 나가는데 큰 장애물이 된다.⁷⁶⁾ 이와 관련해 크래머 또한 평신도들의 생활환경이 성도다운 삶을 살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지적했다. 이러한 위계적인 교회의 개념과 ‘거룩한 것’(완전하다는 의미에서의)과 ‘성례적인 것’을 동일시하는 관념 안에는 평신도를 부정적으로, 즉 성직자와 구별되는 존재로 규정하는 태도가 내재되어 있다. 즉 평신도들은 세상에 존재하므로 성직자의 특별한 영역인 ‘신성한’ 세계에는 속하지 않는다⁷⁷⁾는 것이다.

그러나 평신도와 성직자 모두는 하나님의 선교의 부르심(엡4:4)에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들이다. 모두가 부르심을 받았으며, 모두가 함께 부름 받았다. 또한 모두가 일상생활 속 총체적인⁷⁸⁾ 면에서 부름을 받았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고 고백하는 모든 평신도는 자신이 속한 곳에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부름 받았다는 사실을 매 순간 인식해야 한다. 더 나아가 그 분의 뜻대로(롬8:28),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롬1:6), 또한 평신도(성도)로(롬1:7),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도록(고전1:9), 거룩해지도록(롬1:2), 위를 향하도록(빌3:14) 구원과(살후2:13), 영생과(딤후6:12), 소망으로(엡1:18)⁷⁹⁾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구현해야 할

75) 정승현, “윌버트 쉥크(Wilbert R. Shenk)의 선교적 교회론과 목회 선교학에 관한 연구,” 『선교신학』 58 (2020): 335-336.

76) 김민희, “증언의 도구로서 평신도 사도직의 사회적 소명,” 52.

77) Kraemer, 『평신도 신학』, 65.

78) R. Paul Stevens/ 홍병룡 역, 『21세기를 위한 평신도 신학』, 106.

것이다.

2.1.3.2 평신도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

기독교 신앙은 세상과 교회를 경직되게 구분하기보다는 세속사회야말로 기독교신앙의 위력이 유감없이 발휘되어야 할 선교지라고 바라본다. 아브라함 카이퍼(Abraham Kuyper)가 잘 지적했듯이, 기독교 신앙은 세상의 모든 영역에 관철되는 하나님 나라의 이상에 복무하고 있다.

기독교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신생 보화를 간직하고 있다. 지금까지 기독교는 주로 개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왔으며, 국가에 대해서는 간접적인 영향력을 미쳤을 뿐이다. 하지만 신자든 불신자든 기독교의 감추어진 힘을 발견한 사람은 기독교가 사회에 막강한 조직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힘이 밖으로 표출될 때, 십자가의 종교는 비로소 그 안에 깊숙이 간직하고 있는 매력을 온 세상 앞에 밝히 드러낼 것이며, 그 안에 담긴 풍성한 축복을 만천하에 전하게 될 것이다.⁸⁰⁾

평신도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감추어진 보석을 세상으로 뿌리는 것과 같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회와 교회의 불일치 해소, 파괴된 자연 생태계의 복원, 가족공동체의 분열 치유 등 모든 영역의 과업들은 준비된 평신도들을 필요로 한다. 평신도는 사회의 곳곳에 필요한 다양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선교의 영역을 확장시킬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되기 때문이다. 앞서 논의한 대로 “창조자 하나님은 피조물로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는 존재”⁸¹⁾가 되길 원하신다. 하나님의

79) Ibid., 104-105.

80) Abraham Kuyper/ 조계광 역, 『기독교와 사회문제』 (서울: 생명의말씀사, 2005), 29.

81) Karl Barth, 『교회교의학 III/4: 창조에 관한 교의 4권』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7), 73.

선교의 동역자로 부름 받은 평신도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존재들로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처럼 일하도록 부름 받았다.⁸²⁾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책임을 수행하며,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평신도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교회의 예배 이후의 예배(Liturgy after Liturgy) 즉, 축도가 끝난 이후부터 구체적으로 실천⁸³⁾될 수 있다. 이들은 가깝게는 지역으로 시작해 사회의 곳곳으로 흩어지는 특성을 지닌다. 세상으로 파송된 성도들은 창조 세계를 회복시키고 다스리는 선교적 사명을 수행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카이퍼는 창조세계의 다양한 영역에 나타나는 근본적인 삶의 원리, 즉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에 복종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이러한 실천은 특정한 교회활동의 영역뿐만 아니라, 모든 삶이 종교적이어야 하며,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위한 삶이 실현되어야 하는 것을 강조한다. 이것은 평신도 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각각 실행해야 할 다양한 소명과 책임이 존재하기 때문이다.⁸⁴⁾ 특히 평신도의 다양한 직장과 삶의 자리는 그들의 일터 공간으로서 세상과 직결된 하나님의 선교의 장소가 된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부름 받은 평신도는 자신의 일터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의 사명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교회 공동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성도들의 다양한 일터가 선교지로 변화되는 것만큼 복음을 확장하기에 좋은 방법은 없다. 이들에게 가장 유리한 특성은

82) Paul R. Stevens/ 주성현 역, 『일의 신학』 (서울: CUP, 2021), 25.

83) 선교적 공동체의 공적인 예배는 언제나 보냄으로의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한다. 부름 받은 공동체는 동시에 보냄 받은 공동체이며, 이들이 매번 드리는 공적 예배는 파송의 의식이 되어야 한다. 전통적인 예배는 선교적 예배의 비전을 실행하기 위한 광대한 자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다. 이것은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어떠한 예전적인 혁신이나 복음주의적 부흥집회로 전환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선교적 공동체의 선교적 예배는 공동체가 그리스도인의 증인이 되기 위해 그 소명을 부여받고 그 부르심을 실천할 때 시작될 수 있다. Guder, 『선교적 교회』, 351.

84) Kuyper, 『기독교와 사회문제』, 18.

다양한 영역에서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아직까지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창조시점부터 계속적으로 일을 하였고, 현재에도 창조와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데⁸⁵⁾ 하나님은 평신도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직업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신다. 그러므로 평신도들이 더 많이 흠어져 자신의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활동할 때 하나님의 선교는 더 활발하게 성취될 수 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교회 자체로 처음부터 다문화적이 되도록 위임받았다. 따라서 오늘날의 사도공동체가 세계 속으로 확장되어 각각의 특정한 문화 속으로 들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러한 흠어짐은 공동체에 권능으로 임하신 성령의 능력⁸⁶⁾을 의지할 때 가능한데 성령은 교회 안에만 활동하시지 않고, 교회를 넘어 세상 모든 영역에서 활동하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평신도들 또한 “공동체의 내적인 생활을 형성하고 인도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세상 안에서의 교회의 활동 또한 규정”⁸⁷⁾해야 할 것이다.

“선교적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의 결과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성직자와 평신도 모두가 일상에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것을 본질로 이해하는 교회다.”⁸⁸⁾ 따라서 교회는 목회자 뿐 아니라, “평신도들도 이민자들에게 환대를 베풀 수 있는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

85)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요5:17); 성경 속 다양한 일꾼의 모습을 지니신 하나님은 정원사(창2:8), 목자(시23), 용기장이(예18:6), 의사(마8:16), 교사(시143:10), 포도원지기(사5:1-7), 대장장이(말3:2-3, 겔22:20) 등으로 표현된다. Stevens, 『일의 신학』, 24.

86) Guder, 『선교적 교회』, 335.

87) 구더가 말하는 선교적 공동체의 삶의 구체화된 실천은 ① 모든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창조적 의도를 증언한다. ② 가시적인 세상에서 본보기가 되고 삶의 다른 방식을 선포한다. ③ 연합을 실천하므로 이전의 계급화와 계층화를 상대화해서 분열하는 것에 어떻게 맞설 수 있는지 보여 준다. ④ 기본적으로 경제적인 생필품을 나눔으로 물질주의와 소비주의와 겨룬다. ⑤ 상호적인 책임과 애정 어린 인도함의 과정을 통해 도덕적인 상대주의와 사회적인 갈등에 맞선다. ⑥ 열린 대화와 지혜들을 공유하는 자리에 참석하는 것으로 경쟁과 권력정치에 도전한다. ⑦ 이방인들을 환영하고 존중하는 안전한 공간을 창조해 적개심과 두려움을 변화시킨다. Ibid., 269.

88) 정승현, “크리스텐덤 이해와 선교적 교회,” 『선교신학』 43 (2016): 191.

인 조치들을 취할 수 있다.”⁸⁹⁾ 그렇게 행할 때 “교회의 선교적 목적은 신앙 공동체의 실천들에 의해 분명”⁹⁰⁾해진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 안에서 주로 활동하는 평신도는 우선적으로 자신의 삶의 공간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한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직장에서 부르시고,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이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고, 그렇게 행할 때 우리는 거룩한 산 제물(롬12:1)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다.

2.2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와 환대

본 장에서는 하나님의 선교의 방법으로서 환대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존 환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선교적 방법으로서 타당한 환대의 의미를 재해석 한다. 그동안 교회 안에서 실행된 환대는 사회로 확장되거나 타자 중심에서 실행되기보다 일방적인 경우가 더 많았다. 그러나 선교적 환대는 교회 밖의 타자(낯선 사람)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다수의 사람들에게까지 확장되는 더 넓은 의미를 지닌다. 이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두 팔로 안으시는 하나님의 선교에 입각한 복음의 방법으로서 가장 중요한 선교의 미덕(美德)으로 꼽을 수 있다.

2.2.1 선교적 방법으로서의 환대

21세기 이후 더욱 두드러진 세상살이의 한 요소는 이 세상에 뿌리 뽑힌 난민이나 이주민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러 가지 이유로

89) Joshua W. Jipp/ 송일 역, 『환대와 구원: 혐오·배제·탐욕·공포를 넘어 사랑의 종교로 나아가기』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9), 249.

90) Guder, 『선교적 교회』, 267.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본거지를 떠나 낯설고 고독한 외지로 내몰리게 된다. 이런 끈고한 사람들은 이미 기존사회에 뿌리를 내린 사람들에게 외지인으로 천대받거나 차별받기 쉬운 존재이다. 이러한 황량하고 삭막한 세상을 살만한 곳으로 만드는 미덕이 환대이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환대신앙의 원조였고(창18:1), 초대교회도 나그네와 난민들에 대한 환대가 기독교신앙의 본질(마25:31-46; 히13:1-2)이라고 이해했다. 구더는 일찍이 환대가 있는 곳에 선교가 이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독교의 환대의 실천을 통해 교회는 하나님의 평화로운 나라에 참여한다. 이러한 환대는 열려있으며 다른 이들을 환영함을 통해 경계들(인종적 태생, 경제적 조건, 정치적 성향, 성별 신분, 사회적 경험, 교육의 배경)을 초월하는 것을 나타낸다. 이러한 공동체의 환대 없이는, 결코 세상은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이 평화롭게 살도록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 없을 것이다.⁹¹⁾

한국은 국내에 입국해 있는 외국인들의 이주 현상으로 다문화·다인종으로 인한 문화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법무부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월보」에 의하면 2023년 4월 기준, 체류외국인은 총 2,354,083명으로 집계되었다.⁹²⁾ 이제 한국은 주변국을 포함해 다양한 국가들과 서로 공존하는 다문화 지역의 중심지로서 그들을 환대하고 돕는 다양한 방법들이 요구되고 있다.

“환대의 신학”에서 정의한 환대는 육체적으로 볼 때 편안함과 안전함, 그리고 원기회복 등과 관련해 호의를 베푸는 행위를 말하며, 정신적으로는 마음을 회복시키는 장소나 공간, 피난처 등이 있고, 내용적으로는

91) Guder, 『선교적 교회』, 262.

92) 그 중 중국인이 37.7%(886,405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베트남 10.9%(256,750명), 태국 8.8%(207,169명), 미국 7.2%(169,653명), 우즈베키스탄 3.5%(81,972)명 등의 순이다. 『출입국 외국인 정책 통계월보』 4 (서울: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통계청, 2023), 3. <https://kostat.go.kr/portal/korea/index.action>.

관대함, 호의적, 은혜로움 등의 형용사적 내용과 관련이 있다.⁹³⁾ 환대와 관련해 임희모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로서 자기비움과 자기희생을 통하여 섬김과 나눔을 이루는 선교,”⁹⁴⁾라고 정의했으며, 김의혁은 “선교가 이미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에 참여하는 것이듯, 환대는 다른 이들을 온전하게 받으시는 삼위 하나님의 환대에 참여하는 행위”⁹⁵⁾라고 언급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의 관점에서 환대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는 로마서 15장 7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환대에 우리도 참여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또한 그 환대에 참여하도록 서로가 서로를 받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환대의 진정한 의미는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 정의는 주변부로 밀려나 있는 타자들을 중심에 세우는 것⁹⁶⁾으로 환대는 타자 중심으로 실천되며, 지속적인 자기성찰을 요구한다. 예수 그리스도와 한 일원이 되는 것은 경쟁적이고 이기적인 개인주의의 독립성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환대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 준 순종과 자기희생에 그 뿌리를 두고, 공동체적인 상호의존을 확신하는 움직임일 수만⁹⁷⁾한다. 그러므로 선교적 의미에서 환대는 개인의 이기적인 욕망을 버리고 타자 중심으로 실행될 때 교회 안에서 뿐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수평적 관계를 이루며, 복음을 확장시킬 수 있게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환대를 먼저 경험한 자들이지만, 타자를

93) John Koenig/ 김기영 역, 『환대의 신학』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2), 17-18.

94) 임희모, “타자와 환대의 선교: 레비나스 철학과 선교신학이 만남,” 『한국기독교신학논총』 56-1 (2008): 205.

95) 김의혁, “북한이주주민을 향한 환대의 선교,” 『선교신학』 47 (2017): 165-166.

96) 이영미, “공정한 환대를 위한 열린 마당(레호브, ארץ)으로서의 교회,” 『신학연구』 73, (2018): 156.

97) Guder, 『선교적 교회』, 241.

대하는 모습을 볼 때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경우가 많다. 특히 환대의 중심지가 되어야 할 교회는 내부 중심으로 운영되어 교인들끼리의 친밀함을 우선적으로 유지하다보니 교회 밖 사람들을 구별시키는 오류를 범했다. 믿는 사람들끼리 지나치게 ‘친목 과다신드롬’⁹⁸⁾을 일으킬 정도로 교회는 자기중심적 공동체가 되어버렸다. 이러한 과도한 친목은 외부,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교회 밖’의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접근할 수 없게 높은 벽을 만들었다. 교회는 외부 사람들이 보기에 거리감이 느껴지는 낯선 공간이 되어 버리고 만 것이다. 그러나 선교적 의미에서 환대는 다양한 사람들을 수용하는 특성을 지닌다. 구더는 “환대의 개방성과 수용성은 그 안의 많은 표현들 중에서 다름(otherness)에 주목한다”⁹⁹⁾는 것을 강조했다. 다시 말해 성도들이 교제 밖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맞아 주는 것이 바로 환대¹⁰⁰⁾이다. 환대는 낯선 타자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맞이하며 실천될 때 진정한 환대의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환대를 실천하는 선교적 공동체는 모더니티의 동질적인 집단의 일치를 추구하거나 또는 포스트모더니티의 분열되어 있는 다양성을 찬양하지 않는다. 그들의 관점과 배경, 은사의 놀라운 부유함에 집중해 그러한 독특함을 환영하고 육성하지만,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의 연합과 받아들임 안에서 진행¹⁰¹⁾할 뿐이다.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에 입각해 환대를 실천하지 못했다. 더욱이 자기중심적인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교회 밖 외부에 있는 사람들에

98) 한기채가 말하는 ‘친목과다신드롬’은 본질을 잃어버린 교인들끼리의 ‘친목’을 말한다. 교회에서 성도의 교제는 말씀 중심의 온전함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 이와 관련해 한기채는 성도들이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한기채, 『한국 교회의 7가지 죄』 (서울: 두란노, 2021), 81-98.

99) Guder, 『선교적 교회』, 263.

100) 한기채, 『한국 교회의 7가지 죄』, 164.

101) Guder, 『선교적 교회』, 265.

게 관심을 갖지 못해 다양한 복음의 기회들을 망각하고 말았다. 그러나 교회는 가장 먼저 세상을 향해 열려있는 공간으로서 환대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장소이다. 더 나아가 성도들을 사회의 현장으로 보냄으로서 삶 속에서 환대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하나님의 선교의 관점에서 선교적 교회 공동체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공동체이며, 많은 세상 사람들을 환대하는 공동체이며, 교회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회는 외부 중심, 타자 중심의 환대의 실천을 통해 교회의 높은 벽을 허물고 세상을 향한 화해의 손길을 끊임 없이 펼쳐야 한다.

2.2.2 공간과 장소감의 환대

환대는 타자에게 내어주는 시간, 공간, 물질의 공여이다. 환대를 받는 사람은 아늑하고 친절할 공간 속에서 영접되는 환회를 감득한다. 하지만 환대는 오오현이 지적하듯이 영적인 지지를 내포하고 있다.

(환대는) 낯선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타인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 그를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여 그의 필요를 제공하여 주고 그를 존중하여 타인이 즐겁고 편안한 마음을 갖도록 해주며, 그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것을 말한다.¹⁰²⁾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의 모임으로 실제 환대를 실천할 수 있는 공간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조슈아 지프(Joshua W. Jipp)는 “환대라는 용어는 외인들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과정을 가리키는 말”¹⁰³⁾

102) 오오현, “목회적 돌봄과 상담의 공간으로서 환대에 관한 소고,” 『신학과 실천』 38 (2014): 342.

103) 이와 관련해 지프는 “외인들에 대한 교회의 환대 관행의 중요성은 초기 교회가 스스로를 하나님의 환대를 받은 자이고 따라서 서로에게 환대를 베푸는 주체로 이해했다는 데 의존”하고

이라고 언급했다. 다시 말해 외부적 의미에서 환대는 “공간적 측면에서 문, 문턱, 이들이 위치한 집이라는 이미지로 형상화”¹⁰⁴⁾할 수 있다. 그러므로 환대의 실천적 장소는 외인 된 사람들이 친구로 변화되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와 같이 민족 간의 경계와 차별이 없이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활짝 열려있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환대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의 정체성이자 사명의 핵심이다.

초대교회를 거슬러 올라가면 당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환대를 받은 자들로서 서로에 대해 환대를 베푸는 주체로 이해했던 것을 볼 수 있다.¹⁰⁵⁾ 이러한 점에서 환대는 외인들을 향해 열려 있는 통로로 상호적 관계를 형성하는 근본적 토대가 된다. “히브리 성경과 기독교 성경의 강조점은 모두 이방인에 대한 환대”¹⁰⁶⁾에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대와 우정을 베푸셨고 교회는 서로에게 또는 신앙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환대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¹⁰⁷⁾ 따라서 환대는 실제로 세상 안팎의 혼합이다. 이러한 경계의 공간에서, ‘타자’인 이들이 서로 조우할 때 특정한 시간과 공간에 발생한 사회적 차이점들은 단지 잠깐이라도 초월¹⁰⁸⁾할 수 있게 된다.

윌터 브루그만(Walter Brueggemann)에 의하면 장소감과 공간의식은 아주 예민하게 구분되어야 한다. 먼저 ‘공간’은 강제나 책임이 없고, 압박에서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권위가 배제되어 있는 자유로운 영역이

있다.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교회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환대로, 다시 말해 이스라엘과 교회를 하나님과 연합시키는 신적인 환영에 기초를 두는 것으로 이해한 것이다. Jipp, 『환대와 구원』, 23.

104) 최진우, 『다양성의 시대, 환대를 말하다: 이론, 제도, 실천』 (서울: 박영사, 2018), 269.

105) Jipp, 『환대와 구원』, 23.

106) Sheldrake, 『도시의 영성』, 217.

107) Jipp, 『환대와 구원』, 22.

108) Sheldrake, 『도시의 영성』, 221-222.

다. 다시 말해 공간은 장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공간에 머무는 자들, 그리고 자신들의 신앙적 기업과 공동체에 대한 내러티브가 축적될 수 있는지, 결국엔 좋은 공동체의 기억을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¹⁰⁹⁾ 반면 ‘장소’는 역사적 의미를 갖는 공간으로 지금 기억되고 있는 곳이다. 장소는 세대를 넘어 연속성과 정체성을 제공하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 곳을 말한다. 그 곳에서 정체성 확립과 소명을 확인하며, 운명감을 갖도록 하는, 의미 있는 말들이 전해지는 공간이 장소이다.¹¹⁰⁾ 이와 관련해 현한나는 환대의 장소에서 의미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형성되어 장소감(a sense of place)을 느낄 수 있도록 소속감을 주는 환대가 실천되어야 할 것을 강조했다.¹¹¹⁾ “장소에 대한 감각은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고 우리 자신을 그 안에 위치시키는 방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인간 경험의 범주들 가운데 하나”¹¹²⁾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환대는 베푸는 것을 넘어 그 자리의 가치를 알고(*Imago Dei*) 같은 식탁에 앉고자 하는 실천과 태도가 더욱 중요”¹¹³⁾하다.

미글리오리는 “타자에 대한 환대는 영원 속에 거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까지 그 외면을 넓혀서 드러난 것”¹¹⁴⁾이라고 말했다. 하나님의 선교적 환대는 확장되는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까지 전해져 그들도 하나님의 환대를 경험해야 한다. 그동안 우리가 실천한 환대는 교회 공간 안에 한정되어 있었다고 해도

109) 현한나, “지역교회와 다문화 가정을 연결하는 '이주와 난민 신학' & 이주민 사역을 향한 환대 선교의 실천,” <https://youtube.com/watch?v=UsSBChzcFck&feature=share>. (2023. 06.20.) 접속.

110) Walter Brueggemann/ 정진원 역, 『성경이 말하는 땅: 선물·약속·도전의 장소』 (서울: CLC, 2005), 46.

111) 현한나, Ibid.

112) Sheldrake, 『도시의 형성』, 153.

113) 현한나, “‘이주와 난민 신학’ 기반 세우기,” 454.

114) Migliore, “The Missionary God,” 18.

과연이 아니다. 공간과 장소 등, 교회 공동체의 모임 안에서 많은 이웃을 수용하긴 했지만, 그 공간에 대한 장소감은 현저히 떨어졌다고 볼 수 있다. 구더는 “선교적 공동체들은 사회의 경계들을 넘고, 예수님이 드셨던 것처럼 먹으며, 감사와 자비 그리고 개방과 수용의 사람이 되도록 부름 받았다¹¹⁵⁾고 언급했는데 정작 환대의 공간에는 장소감이 떨어지는 형식만 남아 있다. 그러나 진정한 공간에서의 장소감은 낯선 외부인들까지 참여할 수 있는 성만찬적 공동체로서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완성 그 자체가 되어야 한다.¹¹⁶⁾

2.2.3 환대의 두 가지 양상

환대는 자기성과 타자성의 두 얼굴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환대의 실천이 타자와의 관계에서 폭력적으로 드러나는 지, 상호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나누어진다. 환대의 자기성은 자기중심적인 것으로 환대의 실천자는 타자에게 환대를 실행하지만, 자신의 만족을 위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타자에게 상처와 트라우마를 남긴다. 반면 상호적 관계로 드러나는 환대는 철저히 타자중심에 있기 때문에 자기희생으로 실현되어 타자의 삶에 안정과 만족을 주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115)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환대이다. 이들의 환대는 방문자나 외부인에게 제한이 없다. 누구에게나 도움과 위안을 제공할 수 있다. 구더는 이방인들에게까지 확장되는 복음의 방식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익숙한 것들을 무너뜨리는 것이라 주장한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방식, 가장 친밀한 관계들을 강회시키거나 변화시킬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을 그들의 다름 안에서 바르게 존중하는 것을 통해, 우리는 새롭고, 신비로우며, 그리고 기대하지 않은 것들을 받아들인다.” 이것은 히브리서 13장 2절의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의 말씀을 설명하고 있다. Guder, 『선교적 교회』, 264-265.

116) Dietrich Bonhoeffer/ 정지런·손규태 역, 『신도의 공동생활: 성서의 기도서』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0), 125-126.

2022년 기준 세계 이주자 수는 2억 8,100만 명으로 2000년도 기준 1억 7,300만 명 대비 1억 800만 명 증가했다. 지난 50년 동안 국제 이주자는 계속 증가되고 있으며, 1970년대(8,400만 명)에 비하면 3배 이상 늘어났다.¹¹⁷⁾ 한국 또한 다양한 이주민들과 함께 살아가는 다문화 공동체가 된 것이다. 「2021 국가인권실태조사」의 조사에 따르면 이주민(결혼이주민, 이주노동자)의 인권이 존중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37.5%로 나타났다.¹¹⁸⁾ 이와 같은 글로벌화는 국가 간 투자나 무역, 정치적 협력 또는 문화 교류, 이주 등에서 다양한 경제적·정치적·사회적·문화적 활동과 교류의 증가로 인해 상호 의존의 삶의 경험이 가중되고, 또한 지구촌(global village)이라는 의식이 심화되고 있는 과정¹¹⁹⁾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으로의 이주 현상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는 이주자들을 여전히 외부인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예컨대 우리 사회의 다문화 정책은 대부분 동화주의 시각에 의해 한국어 강좌, 다문화 가족 자녀의 언어치료, 그리고 한국 문화 습득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한국 사회가 서로의 다름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이주자들을 동화주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결국 다문화 이주자들을 영원히 외부인¹²⁰⁾으로 보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그 결과 이주 외국인들과 북한이탈주민은 한국 사람들과 동등한 관계가 아닌, 차별과 편견의 대상으로 구별되어 지속적으로 배제를 경험하고 있다.

부르스마는 예수님의 환대를 상징적인 것으로 표현했다. 그는 하나님의 환대가 인간이 상상하는 방식을 깨뜨린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117) “지난 20년 동안 국경을 넘는 사람들이 기록적인 수준에 도달했다.” 유엔(UN)에서 발표한 내용을 인용함. “세계 난민의 날: 이주자, 이민자, 망명 신청자 그리고 난민, 각 용어의 차이는?” 「BBC NEW 코리아」 (2022.06.15.)

118)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실태조사 연구보고서』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2021), 54.

119) 김혜선, 『글로벌 이주와 초국가적 가족유대』, 44-45.

120) Ibid., 299.

말했다. 예컨대 예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환대가 이전보다 더욱 막대해졌다는 것을 시사한다.¹²¹⁾ 예수께서 펼치신 환대는 인종차별이나 편견이 없이 모두에게 열려 있었다. 이것은 죄인과 종교인, 그리고 남자와 여자, 부한 자와 가난한 자,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환영하는 것으로 예시되고 있다. 예수께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려나 두려움의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서 사회의 낙인찍힌 사람들과 어울리셨다.¹²²⁾ 예수께서 실행하신 공동의 정체성(Communal Identity)은 땅의 주소지나 시민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 주소지(Spiritual Post Code) 즉, 하나님의 나라와 그 종말론적인 비전(하늘의 시민권)에 있었기 때문이다.¹²³⁾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세계 모든 지역은 환대의 장소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종말론적 비전은 각 나라와 인종과 특색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특징을 지닌다.

2.2.3.1 '자기성'(自己性)과 폭력적 환대

단일민족적 의식이 강한 한국은 다문화 사회 공표 이후 우리와 다른 다양한 사람들을 마주하게 되었다. 그러나 한국 사회는 우리와 다른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그들을 이해하고 포용하기보다 차별과 배제의 경험을 축적시켜 반복되는 상처를 안겨주고 있다. 특히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 개인의 존엄성이 손실되고 갈등이 증폭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이를 위해 문화 간의 대화가 시도되는 장소 뿐 아니라, 이것을 실행하는

121) Hans Boersma, 『십자가, 폭력인가 환대인가』 (서울: CLC, 2014), 369.

122)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풍성한 환대의 언어와 요소(음식, 식사, 집, 여행)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보여준다. 결국 “하나님의 환대가 잃어버린 바 되고, 깨지고, 궁핍하고, 종종 죄인으로 낙인찍힌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떻게 제공되는가를 표현”하고 있다. Jipp, 『환대와 구원』, 46.

123) 현한나, “‘이주와 난민 신학’ 기반 세우기,” 454.

사람들의 행동 측면 또한 더 다양하게 확장 될 필요가 있다.¹²⁴⁾ 차별과 편견, 그리고 증오와 혐오 등은 자연발생적이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사회적 소수에 대한 구조적 차별, 문화적 편견이 지속되고 있다면 사회는 이와 관련된 폭력을 끊임없이 재생산 또는 증폭시키는 기제들이 작동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¹²⁵⁾

도널드 버트(Donald X. Burt)는 폭력 행위와 관련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모든 행동이다. 그것은 또한 생명과 재산이나 인간, 자아, 타자의 인격에 상처를 유발하는 행동으로 설명될 수 있다”¹²⁶⁾고 언급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실행하고 있는 환대가 일방적일 때 환대는 폭력의 행위가 될 수도 있다. 자기 성찰과 타자의 수용, 그리고 다양성을 인식하지 못한 자아는 이기적인 환대의 행위로 나타나 간접적인 폭력을 가한다. 반면 상호관계 안에서 환대의 실천은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실현될 수 있는데 우리 안에 들어온 타자는 우리에게 새로운 자극이 되기 때문이다. 그들은 낯선 문화와 새로운 시각을 통해 우리가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해주며, 우리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는 성찰의 기회를 공급해 준다.¹²⁷⁾ 이것은 끊임없는 자아의 이기적 욕망을 잠식시키는 작업으로 새로운 타자를 수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러한 자기성찰은 일방적인 환대가 아닌, 자신을 낮출 수 있는 환대로 이어져 타자 중심의 실천적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

다른 국가와 다른 문화 간의 접촉이 빈번해지는 글로벌 시대에 한국은 외국인들과 특히 북한이탈주민들의 다양성을 얼마나 수용하고, 그들이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성숙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현

124) 최진우, 『환대 평화의 조건, 공생의 길』 (서울: 박영사, 2020), 86.

125) Ibid., 88.

126) Donald X. Burt, *Friendship and Society: An Introduction to Augustine's Practical Philosophy* (Grand Rapids: Eerdmans, 1999), 162.

127) 최진우, 『환대 평화의 조건, 공생의 길』, 46.

재와 같은 이주 시대 또는 글로벌 도시 환경으로 볼 때 개인은 서로에게 이방인이자 타자로서 존재한다.¹²⁸⁾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의 시선에만 그들이 낯선 것이 아니라, 이주한 사람들 또한 우리를 볼 때 낯선 이방인(The Stranger)이라고 느낄 수 있다. 문제는 한국으로 이주한 많은 외국인들은 한국에서 진정한 환대를 경험하기보다 폭력적 차별을 경험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이다. 특히 이방인으로서 북한이탈주민은 “이주자 그룹 중에서도 ‘가장 이질적인 타자(the most distant other)’¹²⁹⁾로 존재하게 된다. 북한이탈주민을 향한 한국의 폭력적 행위는 이들을 혐오의 대상으로 인식해 지속적으로 구별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폭력적 행위로서 이방인을 환대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책임을 폭력으로 거부하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많은 부분에서 나그네¹³⁰⁾들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율법이었으며, 나그네를 위한 섬김은 선교의 기본정신¹³¹⁾이기 때문이다.

자기성에 기인한 환대는 타자에 대한 폭력으로 나타나는데 대부분 자신을 성찰할 수 없을 때 일어난다. 이것은 자기중심적인 행위로 우리 또한 타자에게 낯선 이웃이 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할 때 발생한다. 폭력은 철저히 자기중심적이며, 특히 이방인에게 가해지기 쉽다. 그러나 하

128) 김지윤, “타자들의 공동체: 타자들로 구성된 공동체의 가능성,” 『공간과 사회』 32-2 (2022): 72.

129) 김성경, “분단체제가 만들어 낸 이방인 탈북자: 탈냉전 대량탈북시대에 남한 사회에서 ‘탈북자’라는 위치의 한계와 가능성,” 『북한학연구』 10-1 (2014): 44-45.

130) 크리스티아나 하우튼(Christiana Van Houten)에 의하면 구약성경에 등장하는 ‘게르’는 나그네(alien)로 번역된다. 게르는 다른 곳에서 이주해 정착했거나 아직 이동 중일 수도 있는 사람들로 자신들이 출신해 살던 곳을 떠나 다른 부족이나 도시 또는 관할지, 나라의 사람으로 관례적인 사회의 보호나 특혜를 받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스스로 다른 사람의 지배권 아래에 둘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말한다. Christiana Van Houten/ 이영미 역, 『너희도 이방인이었으니』 (오산: 한신대학교출판부, 2008), 21-22.

131) 나동광, “21세기 도시 나그네를 위한 선교,” 『선교와 신학』 10 (2002): 114.

나님의 선교는 이러한 폭력을 거부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환대하셨다. 그러므로 오늘날 선교적 환대를 실천하고자 하는 보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폭력에 기인한 환대의 행위를 버리고, 하나님의 선교에 입각한 타자 중심의 선교적 환대를 실행해야 할 것이다.

2.2.3.2 '타자성'과 상호적 환대

복음적 환대는 단지 개인적 친절이나 후의가 아니다. 기독교신앙이 교회를 통해 표현하는 환대는 공공연히 증시되고 표현되기에 공공성을 띤다. 한스 부르스마(Hans Boersma)가 잘 지적했듯이, 복음적 환대는 환대실천자의 자기만족적 나르시즘을 뛰어넘는 타자중심적 화목실천이자 용서¹³²⁾ 과시이다.

교회가 분명한 텔로스¹³³⁾와 더불어 공공의 것이 되게 만드는 것은 복음 자체이다. 복음의 환대가 중심성을 잃게 되면 교회는 공적공간과 구별된 특성을 상실하게 된다. 복음은 진정한 이타심을 위해 우리의 나르시즘을 포기하고 회개하라는 공적 초청이며 또한 타인 중심적인 용서와 화목의 복음적 실천의 모범이 되는 환대적 공동체가 된다.¹³³⁾

132) 교회의 거룩함은 어떠한 특정 공동체가 자신을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구별된 공동체로 이해하며 그 기능을 수행할 때 나타난다. 이러한 선교는 사도적이며, 이들에게 관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의 증거를 수반하는 것으로 공동체의 증언의 효과는 성화가 된다. 이것의 의미는 성령께서 깨어진 창조물을 회복시키고,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 완성하신 구원의 확장을 위해 공동체의 증언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선교적 공동체는 증언을 통해서 거룩하게 되며, 이로써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할 수 있다. 여기서 이 거룩함이 용서와 연결이 되는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와 더불어 “용서를 실천하고, 치유와 화목을 이루며, 평화를 만들고, 정의를 사랑하며, 모든 면에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를 때 입증된다.” Guder, 『선교적 교회』, 371.

133) Boersma, 『십자가, 폭력인가 환대인가』, 359.

예수께서는 이방인, 즉 머리 둘 곳이 없는 이로 오셨다(마8:20). 모든 사역의 현장에서 관습적인 경계를 넘으셨고, 이방인들의 삶 속에 자신을 던지시며 타자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보이셨다. 이러한 환대 속에는 여러 이방인들과 친밀하게 교제하시는 모습들이 등장¹³⁴⁾한다. 예수께서는 철저한 타자중심의 사역을 구현하시며 모든 삶의 방식을 타자에게 맞추셨다. 예수께서 실천하신 환대 사역을 우리가 따를 때 “이방인들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우리에게 익숙한 것들을 무너뜨리는 것” 뿐만 아니라 삶의 방식과 가장 친밀한 관계들을 강화시키거나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해준다. 즉 새롭고, 신비롭고, 기대하지 않았던 것들을 받아들이게 된다.¹³⁵⁾

우리는 흔히 타자에 대한 나의 관계는 나를 집단적 표상 속에 공동의 이상 또는 공동의 활동 속에 빠져들게 함으로써 나를 타자와 동일시하려 한다.¹³⁶⁾ 그러나 우리는 “환대를 통하여 동일함으로부터가 아니라 차이로부터 공동체를 이루어낸다.”¹³⁷⁾ 이와 관련해 볼프는 자아 안에 타자를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을 강조했다. 그는 타자의 존재에 자신을 비추어 재조정하므로 자신의 태도와 정체성을 상대방의 태도와 정체성에 대해서 상호보완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¹³⁸⁾ 다시 말해 환대는 존재의 동일성으로의 지향과 타자성 발현이라는 두 개의 연계된 움직임에 담겨 있는 주객(主客, hospes)관계의 역전 가능성(potis)을 반영하고 있다.

134) Guder, 『선교적 교회』, 265.

135) Ibid, 264.

136) Emmanuel Levinas/ 서동욱 역, 『존재에서 존재로』 (서울: 민음사, 2005), 160.

137) Letty M. Russell/ 여금현 역, 『공정한 환대: 서로 다른 사람들이 사는 세계에서 낮은 이들을 받아들이시는 하나님의 환영』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2), 109.

138) 이러한 상보성과 역동적인 정체성의 지속적 재조정이 없이 도덕적인 구속력만으로는 다원주의적인 맥락에서 언약에 대한 압력을 충분히 막아낼 수 없다. 결국 리마이어던이 되돌아오게 되는 문이 열리게 된다. 따라서 개인과 집단 사이에 언약을 지탱하고 갱신하기 위해서 서로가 “자아 안에 타자를 위한 공간을 만들어 타자의 존재에 자신을 비추어 자아를 재조정해야 한다. Miroslav Volf/ 박세혁 역, 『배제와 포용』 (서울: Ivp, 2018), 244.

이 관계는 단순히 주인의 손님에 대해 일방적으로 대접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환대의 근원적인 양가성의 맥락에서 볼 때 우리는 언제나 주인(主)이자 손님(客)이 될 수 있는 것¹³⁹⁾으로 해석된다. 만약 우리가 타자를 환대하는 일에 있어서 일방적인 것을 우선시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환대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핵심에는, 타자가 적으로 남아 있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며 자신 안에 공간을 마련해야겠다는 그리스도의 태도가 자리 잡고 있다.”¹⁴⁰⁾ 그러므로 레비나스의 주장처럼 환대의 실천은 자신으로부터 시작(commence par soi-même)할 수 없다. 이러한 자기중심적 환대의 행위는 내가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할 뿐이다.¹⁴¹⁾ “타인으로서 타인은 타아(他我)조차 아니며, 타인은 자아, ‘나’가 아니다. 자아, 즉 ‘나’는 강하지만 타인은 약하다. 타인은 가난한 자이며 과부이고 고아”¹⁴²⁾이다. 따라서 우리는 누구나 서로에게 환대의 대상이 될 때 헐벗은 타자가 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타자 중심으로 나의 자아를 성찰할 때 선교적 환대의 영역은 확장될 수 있다.

나와 다른 타자의 존재는 자아가 규정할 수 없는 문제이다. 나의 기준으로 타자를 대상화하는 세상에 갇힌 고립된 자아는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고, 존재의 가능성 또한 제대로 발현¹⁴³⁾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

139) 최진우, 『환대 평화의 조건, 공생의 길』, 54.

140) 볼프는 하나님은 인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 말해주는 가장 큰 정점을 십자가로 정의했다. 십자가는 하나님을 향한 인류의 명백한 적의에도 인류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을 강조한다. Volf, 『배제와 포용』, 199.

141) 레비나스의 윤리학의 핵심은 진정한 윤리적 행위가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게 될 경우 나에게 타자는 내가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한, 또 내 심성 안에 정초되어 있는 도덕법을 구현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레비나스는 오로지 외재적인 타자에 의해 촉발됨으로써 수행되는 행위만을 진정한 윤리적 행위라 주장했다. Levinas, 『존재에서 존재로』, 161.

142) Ibid.

143) 최진우, 『환대 평화의 조건, 공생의 길』, 57.

므로 환대는 일방적일 수 없으며, 이러한 행동은 그 속의 이기적인 민낯을 드러낼 뿐이다. 타자와의 상호관계 속에 환대가 실천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자아를 형성해 타자를 맞이하게 된다. 즉 매 순간 나와 다른 존재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타자성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호보완적 환대의 감각은 서로의 존재가 서로에게 의존적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다.

2.3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와 북한이탈주민

본 장에서는 하나님의 선교의 관점에서 환대의 실천 대상이 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선교의 방법으로 환대는 타자 중심의 실천을 말하며, 이러한 선교적 환대는 북한이탈주민에게까지 뻗어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이 살아 온 북한 사회와 문화, 그리고 개인의 고유한 특성을 이해하고, 그들의 관점에서 한국 사회의 정착 문제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북한이탈주민은 우리와 동등한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환대를 받아 누릴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또 다른 타자를 환대하는 선교적 환대의 실천자가 되기에 충분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2.3.1 북한사회와 북한이탈주민 환대

북한이탈주민은 우리와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을 환대의 대상으로 맞이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환대의 영성은 상황과 무관하게 모든 사람에 대해 한결 같이 우호적인 태도를 가져 달라고 요청하며, 환대가 그리스도인들의 소명이라는 것을 환기시킨다.”¹⁴⁴⁾ 레비나스

는 타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환대를 통해서 인간 주체의 진정한 자기성이 이루어진다고 믿었다.¹⁴⁵⁾ 레비나스의 관점으로 볼 때 분단 이후 남북한의 관계는 대칭적인 관계로서 ‘나와 너’가 아닌, 상대에 대한 책임이 의무로 이루어진 비대칭적 관계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¹⁴⁶⁾

우리 사회는 북한이탈주민을 ‘이주자 그룹’ 중에서도 가장 이질적인 타자(the most distant other)로 위치시켜 그들을 한 개인으로 존중하기보다 구분된 집단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더 많다. 그 결과 북한이탈주민들은 한국 사회에 동화되고 통합되어야 하는 대상으로 이중적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¹⁴⁷⁾ 이러한 집단적 인식은 북한이탈주민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반감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데 특히 “우리 사회가 이방인, 소수자의 ‘차이’를 인식하고, 그 ‘차이’를 질문하거나 ‘차이’에 대해 유감이나 동정을 표현하는 것은 그들의 입장에서는 과도한 관심이나 경계의 침범”¹⁴⁸⁾으로 느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반도의 통일 문제는 정치와 경제적인 차원에 앞서 윤리적 차원에서 살펴야 통일의 정당성이 확보되고 참된 평화의 길을 낼 수 있다.¹⁴⁹⁾ 따라서 한국 사람들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과 태도의 문제가 무엇보다 먼저 개선되어야 할 시

144) 김경은은 “레비나스의 환대 윤리가 그리스도교 환대의 영성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으며, 교회의 환대 사역과 영성을 위해 중요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김경은, “환대의 영성을 위한 레비나스(Emmanuel Levinas) 고찰,” 『신학과 실천』 78 (2022): 159.

145) 본문은 인간의 주체성에 대해 두 가지로 규정하는 데, 첫째는 향유하는 삶으로 거주와 노동을 통해서 삶을 지속하는 ‘자기성’과 ‘내재성’으로 이기주의적이면서 초월 불가능한 주체성이 있고, 둘째는 이기적인 욕망을 포기하고 오히려 타자에 대한 책임을 져 타자를 환대하는 것을 통해 자기성을 극복하는 주체성이다. 강영안, 『타인의 얼굴-레비나스의 철학』 (서울: 문학과 지성사), 41.

146) Emmanuel Levinas/ 김성호 역, 『우리 사이』 (서울: 그린비), 95, 160.

147) 김성경, “분단체제가 만들어낸 ‘이방인’, 탈북자,” 44-45.

148) 이형중, “마음의 연대를 위한 공감의 실천: 북한이탈주민의 공감경험에 대한 분석을 통해,” 『문화와 정치』 6-3 (2019): 137.

149) 심상우, “통일의 정체성 확립의 요건으로서 ‘우정’(philia)과 ‘환대’(hospitium): 데리다와 레비나스를 중심으로,” 『기독교사회윤리』 47 (2020): 174.

급한 문제로 남는다.

2.3.1.1 폭력적 공간의 북한

한국전쟁 이후 북한 사회가 형성되고 김일성(金日成)의 주체사상은 강제적 권력과 규범적 권력, 경제적 권력을 독점하도록 만들었다. 또한 북한주민들이 암송해야하는 북한 당국의 유일사상체계(惟一思想體系)¹⁵⁰⁾ 확립의 10대 원칙은 모든 인민이 수령에게 모든 것을 운영하고 위탁하며, “전체 사회를 일색화하기 위해 목숨을 바쳐 투쟁해야 했다.”¹⁵¹⁾ 권력 승계가 이념적으로 불가능한 사회주의 하에서 김일성의 정권이 김정일(金正日)의 세습으로 이어지며 변형된 북한식의 국가가 형성되었다.

김정일 통치기는 빈번한 경제정책의 변화와 철저한 개인주의 제한으로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¹⁵²⁾라는 집단주의 원칙을 내세워 국가 정치이데올로기를 습득시켜 북한주민들을 경제적, 심리적, 정신적으로 압박하는 강제 시스템을 동원했다. 이것은 자신이 누구인지 하는 개별적인 정체성 혹은 자식이나 형제·자매로서 구성원이 되는 정체성은 약화시키고, 집단의 구성원, 즉 사회주의 국가 체제의 일원으로, 혁명의 일꾼으로서의 정체성¹⁵³⁾을 가지도록 교화된 것이다. 북한주민들은 북한식 성분에 따른 철저한 계급구조 아래 놓여있다. 계급질서에 따라 핵심계층은 모든 사회적·경제적인 특권을 독점하지만, 피지배계층으로 분류되는 동요계층이나 적대계층은 사회적 상승 이동이 상대적으로

150) 유일사상체계(惟一思想體系)는 “김일성이 생각하는 대로 사고하고 가리키는 대로 행동하는 정신 행동 체계를 말하는 북한 조선노동당 건설의 기본원칙”이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https://encykorea.aks.ac.kr>.

151) “북한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 원칙' 전문,” 「데일리NK」 (2013.08.09).

152) “조선인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63조, (1998.09.05.)

153) 민성길, 『통일과 남북청소년』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2000): 159.

제한되거나 막혀 있다.¹⁵⁴⁾ 이러한 계층구조는 특권적인 지위에 집착하도록 구성되어 다수 일반주민들에게 열등감과 무력감을 내면화시키고, 일부에서는 문제행동을 표출하는 등의 체제외적 소외집단이 발생하기도 했다.¹⁵⁵⁾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은 극심한 경제난을 경험하면서부터 “국가가 인민의 생활을 책임지지 못한다는 점이 명확해져 경제적 권력은 물론 규범적 권력도 크게 약화”¹⁵⁶⁾되었다. 이에 따라 식량부족으로 배급이 중단되면서 수많은 아사자(餓死者)가 발생했고, 대량탈북이 일어나 많은 북한주민들이 중국과 제3국으로 흩어졌다. 사회주의권의 붕괴 여파로 맞이한 심각한 경제위기로 인해 북한의 중앙집권적 경제계획의 구조적인 모순은 북한이탈주민들의 노동의식 왜곡과 변화를 가져왔다.¹⁵⁷⁾ 다시 말해 경제난 이전에는 배급제와 직장 또는 지역을 중심으로 했던 조직생활 체계가 비교적 정상적으로 작동되었지만, 경제난 이후 생존의 위협을 경험한 북한주민들의 삶의 방식이 크게 변화된 것이다.¹⁵⁸⁾

154) 신호숙·김창환·왕영민, “북한주민, 탈북자, 북한이탈주민: 시공간적 경험 공유 집단 분석을 통한 북한이탈주민 속성 재해석,” 『통일인문학』 67 (2016): 59.

155) 서용석·문형만, 『북한사회론: 북한사회의 범죄』 (서울: 나남, 1994), 226-228; 신호숙, “북한사회의 특성과 북한청소년의 일탈행동,” 『교정담론』 3-1 (2009): 30-45; 신호숙·김창환·왕영민, “북한주민, 탈북자, 북한이탈주민: 시공간적 경험 공유 집단 분석을 통한 북한이탈주민 속성 재해석,” 59.

156) “김정일 시대의 북한체제는 과거로부터의 규범들과 새로운 규범들이 뒤섞인 형태의 단순한 과도체제가 아니었다. 체제 규범 하나하나에 기존의 규범과 변화된 현실이 절충된 형태로 반영되어 있었다.” 이상근, “북한체제의 지속과 변화: 김정일 시대 체제 규범과 통치기제 운용을 중심으로,” 『현대북한연구』 20-3 (2017): 74, 90.

157) 북한의 경제는 1950년, 60년대에 성장을 기록, 1970년대는 하강곡선, 1990년대는 심각한 경제위기, 국가 공급체계의 와해를 불러왔다. 신호숙·김창환·왕영민 “북한주민, 탈북자, 북한이탈주민,” 60.

158) 북한 사회는 여전히 통제 속에 있었지만, 북한주민들은 일상생활에서 직장 일에 충실한 대신 근무시간을 유용하면서 개인 장사에 몰두하거나, 관계망과 뇌물을 활용한 비법행위를 통해 부를 축적한다거나, 가까운 사람들끼리 모여 정치적 불만을 토로하거나, 또는 남한의 대중문화를 비밀리에 향유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와 관련해 신호숙은 북한주민들의 지배적인 가치는 정치적으로는 주체사상과 국가이데올로기를 충성하는 것과 당적으로 인정을 받아 출세하는 것일 수 있지만, 일상생활에서 북한 주민들은 물질주의와 소유주의, 그리고 배급주의에 기초하는 계

3대 세습으로 이어진 김정은(金正恩)의 권력승계는 거의 북한 당국의 “왕조적 권력세습”¹⁵⁹⁾으로 유지되었지만, 시장을 통해 통제외의 균열이 발생하면서 국가영역을 벗어나 사적 영역과 구조가 확산¹⁶⁰⁾되기 시작했다. 더욱이 외부 정보의 유입으로 한국산 제품과 정보들이 스며들어 한국에 대한 인식 변화와 개인의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도 인지”¹⁶¹⁾하게 되었다. 그러나 2019년 코로나19가 북한 전역을 엄습하면서 통제외 감시는 더욱 극심해졌고, 외부 차단으로 내린 봉쇄령으로 인해 식량 부족에 시달리던 일부 북한 주민들이 사망¹⁶²⁾하는 일들이 속출했다. 북한은 경제난으로 외부와 소통할 수 있는 틈이 생겼지만, 여전히 강압적 억압으로 체제를 유지하면서 북한주민들의 개인의 삶과 일상까지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

2.3.1.2 폭력적 공간으로부터 이탈

북한이탈주민은 “공간적 경계를 넘었다는 측면에서 분단체제의 메

인주의 가치가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Ibid., 61.

159) 이상근은 김정은의 승계와 관련해 왕조적 권력 승계에 가깝다고 언급했다. 왕조의 세습은 제도화되어 있으며, 후계자는 전통적으로 인정되는 자격을 갖춘 방식으로 권력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정당성을 인정받는다고 했다. 최고지도자의 아들이자 최고지도자가 직접 후계자로 정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왕조적 권력승계를 위한 최고 자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상근, “북한체제의 지속과 변화,” 77.

160) 강동완·박정란, “김정은 시대 북한사회 변화 실태 및 북한주민 의식조사,” 「북한학보」 39-2 (2014): 112.

161) Ibid., 139.

162) 북한의 코로나 발병 후 봉쇄조치로 인해 특히 농촌은 지역 간에 이동이 금지되고 시장도 문을 닫게 되었다. 실제로 황해남도 신원군 배천군 일대에서 20여명의 주민이 식량부족으로 사망하는 일도 발생했다. 이 외에도 격리환자의 식량지원 부족으로 인한 사망과 평양의 육아원에서 아이들의 집단 감염으로 인해 4명이 사망했다. 이것은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 통제외로 인한 아사자(餓死者) 발생으로 인해 바이러스보다 굶주림이 더 극심한 상황인 것을 시사한다. 이상용, “김정은식 코로나 봉쇄, 정말 인민을 위한 조치인가?” 「북한연구소」 607 (2022): 49-51.

커니즘과 이데올로기적 경계를 교란하는 경계 사이에서 이방인(the stranger)이 된다.”¹⁶³⁾ 북한이탈주민의 이주는 탈북한 동기와 성격에 따라 피난민(Refugees)으로서의 강요된 이주(Forced Migration)¹⁶⁴⁾와 이민자(Immigrants)로서의 자발적 이주(Voluntary Migration)로 구분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경제적 위기나 정치적인 억압으로 인한 사회구조적 환경에 기인한 난민으로서의 구조적 이주와 돈을 더 벌기 위해, 즉 더 나은 삶을 위한 경제적 이주의 측면에서 볼 때 자발적 이주의 속성을 포괄하고 있는 것이다.¹⁶⁵⁾

먼저 강요된 이주가 발생한 1990년대에 시작된 북한주민들의 대량탈북은 국경을 넘는 공간적 ‘경계 넘기’로 그동안 북한체제의 심각한 경제난과 식량난의 극복을 위한 시도로 볼 수 있다. 이 시기 북한의 중앙정부가 위치해 있는 평양을 제외하고 수송 체계가 미비했던 북부 산간 지역과 동부 지역부터 배급이 중단¹⁶⁶⁾되면서 북한주민들은 김정일의 교시에 따라 각자의 생계를 유지해야 했다. 이때 발생한 북한주민들의 대규모 이탈은 사회체제를 견디지 못해 발생한 극단적 이탈, 즉 구조적으로 강요된 이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2012년을 기준으로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에 나타나는 탈북 동기를 보면 식량부족과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높은 비율로 무려 52.8%이며, 2순위는 자유를 찾아서 32.0%, 3순위는 북한 체제가 싫다는 이유로 23.6%로 구조적으로 강요된

163) 김성경, “분단체제가 만들어낸 ‘이방인’, 탈북자,” 45.

164) 혹은 구조적으로 강요된 이주라고 불리기도 하며 줄여서 구조적 이주라고 불리기도 한다.

165) 북한이탈주민은 국경선을 넘었다는 이유로 정치범이나 불법체류자로 체포되거나 강제송환된다. 또한 그에 따르는 위협과 인신매매, 노동력 착취나 가족의 해체 등으로 인해 심각한 인권유린을 경험한다. 연구자는 이러한 점으로 비자발성의 측면을 강조한다. 이에 따라 난민의 성격에 가깝다고 설명되기도 하고, 반면 돈을 벌거나 자유로운 삶을 위해 국경을 넘는 것을 경제적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 따라서 자발적 이주의 측면으로 볼 때 이민자의 특성으로 분류되고 있다. 신호숙·김창환·왕영민, “북한주민, 탈북자, 북한이탈주민,” 64, 71.

166) 김병로·김성철, “북한사회의 불평등 구조와 정치사회적 함의,” 「민족통일연구원」(1998): 80.

이주에 가까웠다. 반면 ‘자발적 이주’는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2023년 현재 기준의 북한이탈주민 탈북 동기에 대한 조사를 참고하면 평가할 수 있다. 북한주민들의 이주와 관련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북한체제의 감시와 통제가 싫어서(자유를 찾아서)’가 22.6%로 가장 높고, ‘식량 부족’이 21.4%, ‘가족(자녀 등)에게 더 나은 생활환경을 주기 위해서’와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어서’가 각각 12.9%로 집계¹⁶⁷⁾되어 구조적 이주 외에 ‘자발적 이주’의 성격이 점점 높아지는 것으로 통계되었다.

북한이탈주민들의 구조적·자발적 이주는 대부분 중국을 통해 이루어진다. 중국으로 이주하는 북한 주민들의 동기는 한국을 가기 위한 목적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생계를 위해 잠시 머물기 위한 경우도 있다. 북한주민들은 중국으로 이주 후 최초의 환대를 경험하기도 한다. 특히 조선족 교회 또는 한인 교회는 북한주민이 중국에 잠시라도 체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초국적 민족적 공간과 경계문화의 장으로 작동¹⁶⁸⁾되어 북한이탈주민들을 환대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은 한국으로의 입국 후 다시 환대받지 못하는 존재가 된다. 공간적으로 볼 때 북한이탈주민은 북한과 남한 경계를 넘어 남한으로 이주한 자들이지만, 정착 후에는 훨씬 더 공고한 일상에서 수많은 분단의 경계들을 매순간 맞닥뜨리는 자¹⁶⁹⁾들일 수밖에 없다. 북한을 떠나 한국 사회로 이주하기까지, 또한 한국에서 마찬가지로 북한이탈주민은 여전히 환대 받지 못하는 존재로 남는다. 비록 자유를 찾아 한국에 왔지만, 또 다른 정착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경험하며 크고 작은 경계를 넘는 이주과정을 반복되게 경험

167) 남북하나재단, 『2022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서울: 남북하나재단, 2022), 27.

168) 김성경, “경험되는 북·중 경계지역과 이동경로 북한이탈주민의 경계 넘기와 초국적 민족 공간의 경계 확장,” 『한국공간환경학회』 40 (2012): 142.

169) 김성경은 북한이탈주민을 ‘경계를 서성이는 자들’로 표현했다. 이들의 일상은 “국경보다 더 강력하게 작동하는 수많은 일상의 경계가 남북의 내부와 외부에 공존하고 있고 이를 통해 각 체제는 유지되고 작동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김성경, “분단체제가 만들어낸 ‘이방인’, 탈북자,” 43.

하고 있다.

2.3.1.3 북한이탈주민의 다중정체성

2022년 9월 기준으로 남한으로 이주한 북한이탈주민은 33,857명(남 9,492명, 여 24,365)이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¹⁷⁰⁾을 말한다. 북한이탈주민은 이 법률에 의해 정착과 보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데 북한 출신이라는 이유로 간첩일 수 있다는 의심을 받기도 하고, 북한 정권의 희생양이라는 시선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 동정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들은 남한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북한을 철저히 부정할 때도 있다. 남한 사회에 대한 비판적인 모습은 북한 사회에 동조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¹⁷¹⁾

권수현은 북한이탈주민을 이민자 보다는 난민에 가깝다고 분류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1951년 유엔에서 채택한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¹⁷²⁾에서 정의하고 있는 난민에 해당되지 않는 위임난민(mandate refugees)에 해당된다. 이민자

170) 유사 개념으로 북한이탈주민이 아닌 사람은 ▪ 재북화교(華僑): 북한에 거주하나 중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 북한적 중국동포(소위 조교(朝僑)): 합법적인 체류자격으로 중국에 거주하면서 북한적을 가진 사람 ▪ 제3국 출생 탈북민의 자녀: 북한주민의 자녀로 중국 등의 제3국에서 출생해 북한에 거주한 사실이 없는 사람 ▪ 북송재일교포: 재일동포가 북한으로 영주귀국 후, 북한을 벗어나 다시 일본에 거주할 경우에는 북한이탈주민이 아님. 『202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편람』 (서울: 통일부 정착지원과, 2022), 8-9.

171) 김성경, “분단체제가 만들어낸 ‘이방인’, 탈북자,” 44.

172)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은 ‘난민협약’으로 불리며, 1951년 7월 제네바에서 채택되었다. 이 협약은 국제사회에 널리 적용되는 난민에 대한 조약으로 조약이 적용되는 시간적인 범위는 제한되어 있다. 이 협약에서는 조약이 적용되는 시간적인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 이 시간적 제한은 1967년 채택된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로 ‘난민의정서’로 부른다. 「위키백과」 <https://ko.m.wikipedia.org/wiki>.

들의 경우 언제든지 자신이 살던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지만, 북한이탈 주민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난민에 더 가깝다.¹⁷³⁾ 문제는 국내로 입국한 북한이탈주민들 가운데 이중국적자나 삼중국적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주 과정에서 제3국인 중국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신변의 안전을 위해 북한, 중국, 한국에서 각기 다른 신분을 사용하기도 한다.¹⁷⁴⁾

북한이탈주민은 다른 이주민과 다르게 이질적 사회에서 이주한 이주민인 동시에 남한의 주민과 역사적으로 한민족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는 이중적 지위를 갖게 된다.¹⁷⁵⁾ 북한이탈주민은 ‘남한’과 ‘북한’이라는 이원성(dualism)이 내재화된 존재들로 이러한 사실로 인해 이들의 정체성은 이중의식으로 구축되어 있다. 다시 말해 북한이탈주민은 북한과 남한의 정체성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어 내지 못한다. 이들은 제3국의 이탈 과정을 통해 또 다른 국적 지위를 소유할 뿐만 아니라, 한국으로 이주하면서 특히 남한 사회의 편견에 의해 구별된 존재로 학습되어 이들의 정체성은 지속적으로 변화되는 특성을 지닌다.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사회에서 수적으로 절대적인 소수집단이다. 다

173) 권수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남한국민의 태도,” 『한국정치연구소』 20-2 (2011): 132.

174) 북한에 있는 공민증(公民證)은 가족들을 통해 안전원에게 돈을 주고 새로운 신분증을 발급받아 유지할 수 있다. 반면 중국에서 만든 호구는 유지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는데 그 이유는 한국에서 국적을 취득 후 중국에 가면 중국 신분증으로 북한에 갈 수 있기 때문이다. 공민증(公民證)은 북한에서 17세 이상 된 성인(군인은 제외)에게 지급되는 증명서이다. “북한 내각의 사회 안전성에서 발급하는데, 누구나 17세가 되면 공민증 발급 신청서를 인민반장을 거쳐 이(동)주재 안전원을 경유, 군(구역) 사회 안전성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시민권을 제공하는 데 이들이 분단된 북한의 공민으로서의 지위를 버리고 한국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북한의 공민의 범주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은 한국에서 북한이탈주민이 될 수 없다. 결국 이들의 법적인 지위는 북한의 공민, 그리고 모국인 북한을 등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다. 김성경, “남한 사회의 새로운 구성원, 북한이탈주민: ‘환대’의 권리와 의무,” 『현대사광장』 6 (2015): 98; 조천현, 『탈북자』 (과주: 보리, 2021), 180;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

175) 정진리·유가현, “국민정체성 인식과 접촉 경험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다문화교육적 접근의 필요성,” 『다문화교육연구』 13-3 (2020): 104.

시 말해 사회적인 권력과 부, 지위 등에 있어서 다수의 남한 주민들과 비교해 볼 때 열등한 지위에 있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소수집단(minority group)이다.¹⁷⁶⁾ 북한이탈주민은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소수자로 분류되지만, 다문화와는 또 다르게 분류될 수밖에 없다. “북한이탈주민은 민족공동체의 일원이자 「헌법」이 규정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등 다문화가족과는 근본적으로 구분”¹⁷⁷⁾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이희영은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적·정치적인 정체성에 대해 남한과 북한이라는 이분법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비판했다. 북한이탈주민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환원되지 않는 시민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일상적인 인정투쟁을 전개’하고 있다는 주장이다.¹⁷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남한 사회의 지속적인 배제와 폭력은 사회적 환대를 실천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그들의 정체성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남한 사회는 여전히 북한이탈주민을 집단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강하다. 북한이탈주민이 경험하는 남한에서의 누적된 차별과 편견의 문제는 사회 부적응과 불평등의 감정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었다. 북한이탈주민은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스스로 고립되는 삶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북한이탈주민의 다층적 정체성과 개별자로서 주체성은 무시되고, 그저 남한적 자아로 환원되어 정치화된 단일적 집단¹⁷⁹⁾이 되어

176) 권수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남한국민의 태도,” 131.

177) 헌법 제 3조의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이탈주민들이 상이한 문화 또는 체제 아래에서 생활하였다는 점으로 볼 때 다문화적 성격을 일부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남북한 통합이라는 관점으로 볼 때 본질적으로 다문화 가족으로 보기엔 어렵다. 『202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편람』, 8.

178) 이희영, “새로운 시민의 참여와 인정투쟁: 북한이탈주민의 정체성 구성에 대한 구술 사례연구,” 『한국사회학』 44-1 (2010): 207.

179) 홍창현, “북한이탈주민과 한국교회: 윤리적 환대를 향하여,” 『기독교사회윤리』 50 (2021): 351.

버리고 말았다. 그러나 모춘홍·이상원의 “타자와의 조우”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북한이탈주민들의 존재성은 “다른 삶의 방식 속에 뛰어 든 다양한 정체성을 지닌 개인들로 우선 바라보고 맞이할 필요”¹⁸⁰⁾가 있다.

2.3.2 한국사회와 북한이탈주민 환대

한기채는 세상에서 가장 큰 비극을 ‘빈부격차(貧富隔差)의 심화’라고 지적했다. 자본주의가 안고 있는 빈익빈 부익부의 구조적 폐단은 공의 윤리를 확립할 때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그는 이기심에 기반을 둔 ‘자본주의 정신’은 이타심에 근거한 기독교 윤리의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¹⁸¹⁾했는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고통 받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자본주의 사회의 대표적인 희생자로 단지 생계적인 어려움만이 아니라, 심리적 갈등을 동반해 사회 부적응과 고립을 반복하고 있다. 특히 한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은 사회적 환대를 경험하기보다 지속적으로 배제와 편견의 대상이 되어 자립을 경험하지 못하고 경제적 어려움에 노출되고 만다.

북한이탈주민은 난민 또는 소수자, 동포나 민족, 국민 등으로 불리는 다중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다.¹⁸²⁾ 북한이탈주민은 우리와 같은 민족이지만, 다른 사상과 체제 아래 전혀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에게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을 이주해 건너온 낯선 이방인일 뿐이다. 이러한 다층적인 속성 때문에 북한이탈주민은 결혼이주여성이나 외국인 이주노동자 또는 귀환재외동포와는 구별된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들이 가지

180) 모춘홍·이상원, “타자와의 조우: 북한이탈주민의 존재성과 분단체제의 현실 이해,” 『문화와 정치』 6-1 (2019): 112.

181) 한기채, 『한국 교회 7가지 죄』, 193.

182) 윤인진, “탈북민의 사회통합 모델과 통합 실태,” 『문화와 정치』 6-1 (2019): 62.

고 있는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이주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민자로 보는 견해도 있다.¹⁸³⁾ 중요한 것은 사회가 얼마나 이들을 환대하며 이해하고 있는가이다. “한국 사회가 탈북민들(북한이탈주민들)에게 듣고자 한 건 늘 북한에 대한 이야기일 뿐, 어떻게 사는지 무엇을 원하는지는 관심을 갖지 않았다.”¹⁸⁴⁾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의 한국 생활은 환대의 경험보다 배제와 차별의 경험이 더 많이 축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2.3.2.1 환대의 공간으로서 직장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 사회에 정착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가장 큰 이유는 차별과 편견의 문제이다. 이들은 낯선 문화에 적응하며 차별의 경험이 축적될수록 특히 실제적인 삶의 문제에 부딪칠 때 자신감을 상실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신호숙은 북한이탈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법적 시민권을 갖고 있으나, 사회적으로 통합되지 못하고 구분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이들은 다수에 의해 차별과 배제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러한 구분과 차별과 배제는 북한이탈주민이 한국의 국민으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장애요인이 된다¹⁸⁵⁾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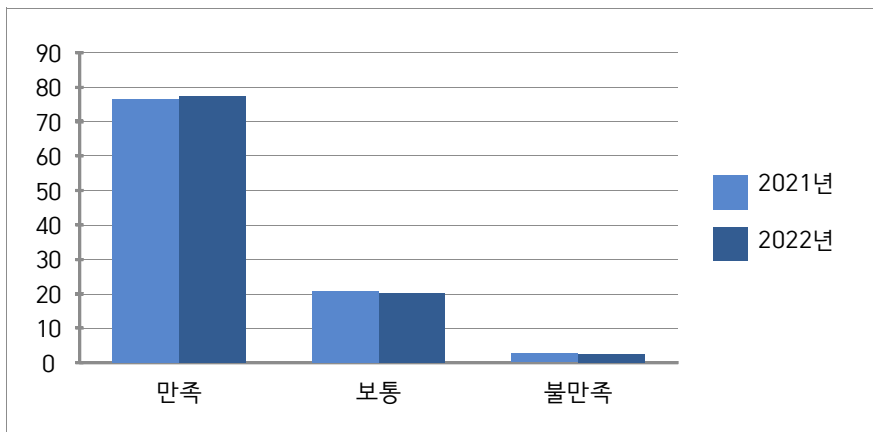
2022년 기준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차별과 무시당한 경험

183) 다음의 연구물을 참고하라. 윤인진, 『북한이주민: 생활과 의식, 그리고 정착지원정책』 (서울: 집문당, 2009); 김화순·최대석, “탈북이주민 정착정책의 인식과 과제: 정착지원을 넘어 사회통합으로,” 『통일정책연구』 20-2 (2011), 37-73; 권수현·송영훈, “피를 나눈 형제, 이웃보다 못한 친척?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남한주민의 사회적 거리감과 결정요인, 2007-2014,” QUGHTOPIA (*Journal of Social Paradigm Studies*) 30-2(2015); 123-160; 박영희 외, 『사회통합형 북한이탈주민 지원방안 모색』 (통일부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2016); 심양섭, “남한주민의 탈북민에 대한 인식에 관한 연구,” 『경찰학연구』 17-2; Ibid., 63(재인용).

184) 최중호 감독의 다큐멘터리 “북도 남도 아닌 2017”는 남한에 정착하지 않고 다시 제 3국으로 떠난 북한이탈주민의 삶을 통해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조명해 준다.

185) 신호숙 외 공저, “북한주민, 탈북자, 북한이탈주민,” 55.

에 대한 조사에서 ‘경험 있음’은 19.5%로 전년 대비 3.4% 증가했다. 그 이유로는 ‘문화적 소통방식이 다른 이유(말투, 생활방식, 태도 등)’가 75.0%의 가장 높은 비율로 통계되었다.¹⁸⁶⁾ 특히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정착과 관련해 이들이 심리적 압박을 느끼는 곳은 ‘직장’이다. 북한에서 전문직에 종사하던 고학력자의 경우라도 한국 사회에서는 북한의 학력과 경력 등을 인정받고 살아가기를 원하지만¹⁸⁷⁾, 대부분 그렇지 못하다. 북한에서 살아왔던 기존 삶의 방식이나, 생활습관은 존중받기보다 남한의 문화에 적응하며 새롭게 바꿀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림 2-1] 2022년 북한이탈주민 남한생활 만족도¹⁸⁸⁾

2022년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남한생활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생활에 ‘불만족’하는 주된 이유로는 가족과 떨어져 살아야 하는 것(29.1%)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다음으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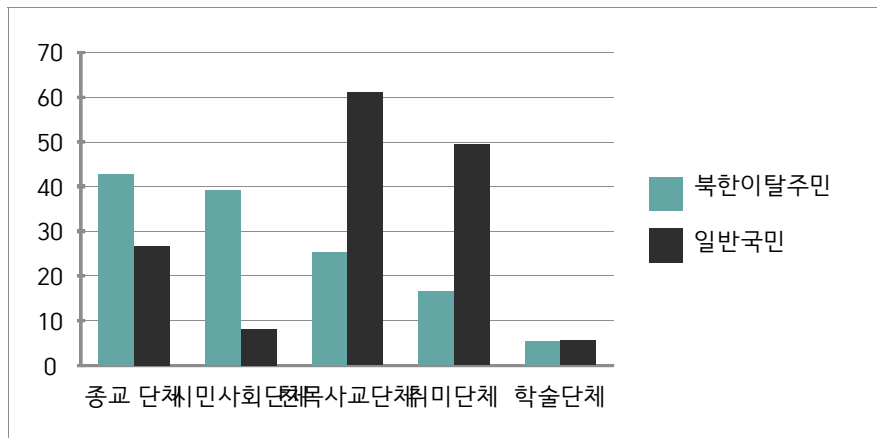
186) 『2022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조사』 (서울: 남북하나재단, 2022), 44.

187) 김화순, “고학력 북한이탈주민이 인지하는 차별과 직업계층 변화에 대한 인식,” 『통일과 평화』 2-2 (2010): 79.

188) 『2022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 31.

경쟁이 치열한 이유(20.2%), 그리고 다음은 차별과 편견(17.1%)인 것으로 나타났다.¹⁸⁹⁾ 반면 2022년 북한이탈주민들의 남한생활의 ‘만족 한다’의 응답은 77.4%이다. 연령대별로 보면 ‘만족한다’의 응답은 ‘15-19세’와 ‘60대 이상’이 84.8%로 가장 높게 측정되었고, ‘40대’는 79.7%, ‘20대’는 78.1% 등의 순서로 통계되었다.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생활에 만족하는 주된 이유는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으로 33.4%인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¹⁹⁰⁾ 이러한 통계 결과를 종합적으로 볼 때 북한이탈주민들의 정착에 대한 만족도와 불만족의 원인은 “제도나 정착지원금의 부족이기보다 우리 사회의 부정적 인식과 태도에 더 문제가 있음”¹⁹¹⁾을 추측해 볼 수 있다.

2.3.2.2 환대의 장소감을 잃은 교회



[그림 2-2] 북한이탈주민 사회단체 활동¹⁹²⁾

189) 2021년 대비 가족과 떨어져 살아야 하는 이유는 7% 감소했지만, 경쟁이 치열한 이유는 0.5% 증가하고, 차별과 편견의 이유 또한 0.6% 증가했다. Ibid., 33.

190) 작년대비 2.6% 증가했다. Ibid., 32.

191) 신호숙, “기획1: 북한이탈주민, 통일 미래의 동반자; “민주시민”으로 정착해야 통일 가교 될 수 있어, 「통일한국」 363 (2014): 27.

192) 북한이탈주민의 사회단체 활동은 종교단체가 42.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2021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북한이탈주민 통일의식 조사 2020」는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정착 과정 중 정부 이외에 가장 도움이 된 요인을 분석한 결과, 종교단체 지원이 33.0%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한 정보획득이 26.6%, NGO 등의 민간단체 지원이 24.8%이다.¹⁹³⁾ 문제는 북한이탈주민의 교회 정착과 관련해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이다. 전문가들의 조사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이 정착지원을 받는 5년의 기간 이후에는 대략 25%의 북한이탈주민들만 신앙을 계속 유지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통계는 실제 교회에 등록된 북한이탈주민의 수와 다르게 출석 성도는 1000여명 남짓으로 전체의 3%가량이라는 부정적 견해도 찾아볼 수 있다.¹⁹⁴⁾

그동안 대부분의 교회는 북한이탈주민을 교회 안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반복되는 예배와 프로그램, 한시적인 지원의 물리적 관계는 북한이탈주민의 실제 삶에서는 큰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북한이탈주민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에 대해 연구된 결과 절대적인 믿음에 대한 정립 불가능, 목회자 또는 성도들에 대한 실망, 이해할 수 없는 개신교의 교리가 믿어지지 않거나, 강요당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북한이탈주민들을 교회의 성장이나 선교의 대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한 불만으로 보고¹⁹⁵⁾되었다.

이와 관련해 북한이탈주민의 한국교회 경험에 대한 분석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①관계 설정의 문제 ②일방적 접근 ③잘못된 타협으로 꼽을 수 있다. 특히 잘못된 타협으로 인한 재정적 지원은 교회가 금전적 지원의 도구나 수단으로 전략¹⁹⁶⁾해 버리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이다. 이와 관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조사』 (서울: 남북하나재단, 2022), 46-47.

193) 『북한주민 통일의식 2020』 (서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20), 180.

194) “쉽지 않은 남한사회 정착, 종교단체 지원이 가장 큰 힘,” 「기독신문」 (2020. 11. 09)

195) 이 연구는 북한이탈주민 120명을 대상으로 7년 동안 추적한 실증연구이다. 유시은(외) 공저, “북한이탈주민의 소득 수준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통일정책연구」 (2008): 5

런해 김중석은 북한이탈주민에게 지급되는 교회 지원금이 오히려 신앙 정착에 장애가 있음을 언급했다. 교회는 ‘북한이탈주민을 돕는다는 성취감’을 위해서 북한이탈주민은 ‘지원금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즉 서로의 필요에 의한 결과물로 인식까지 한다고 지적했다.¹⁹⁷⁾ 이에 따라 “교회는 북한이탈주민을 남한적 주체의 동일성으로 포섭하려는 행동을 ‘북한 선교’라는 명분으로 강화하거나 정당화하는 경향”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 한 북한이탈주민이 토로한 아래의 고백은 북한선교라는 이름으로 이뤄지는 비기독교적 환대의 민낯을 잘 보여준다.

그게 어떤 데서 느꼈냐면. 주로 교회 있잖아요. 우리를 따뜻하게 대해주잖아요. 우리를 자꾸 끌려고 해요. 밥을 개양 사주네 자꾸 우리를 가까이 지내려고. 솔직히 말하면 미안해요 너무 해주니까. 그 목적을 놓고 이렇게 하니까 교회를 다니게 하려는. 그래서 더 멀리하게 되고. 교회 분들이 엄청 잘 대해주지만 우리는 아니까. 아, 오라고 이러는구나 반감이 들죠. 잘 해주고, 가깝게 지내고, 생활에 대해 물어보고 그래도 목적이 있구나 해서 피하게 되고..¹⁹⁸⁾

한반도의 이슈와 관련해 교회 교단들의 거대담론 중심의 정책들과 북한과의 관계 속에서 볼 때 북한이탈주민은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어 배제와 동화의 경험을 동시에 겪는다. 선교를 위해서 교회가 제공하는 경제적인 수혜자가 되기도 하고 교회의 논리적 강화를 위해 도구로 이용¹⁹⁹⁾되었던 어두운 면도 많았다. 사실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을 이탈하는 과정 중에 중국에서 교회를 찾아가면 보호를 받는다는 것을 이미 알고

196) 김의혁은 북한이탈주민의 한국교회 경험을 분석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 13명, 북한이탈주민 사역 경험이 있는 남한 교인 5명을 대상으로 사례연구를 진행했다. 김의혁, “북한이탈주민을 향한 환대의 선교,” 157-162.

197) “교회를 떠나는 탈북자들, 그 이유와 대책은,” 「크리스천투데이」 (2008. 06.09).

198) 북한이탈주민 윤금숙(여, 45세)이 한국 사회의 호의에 대해 저항감을 가지고 토로한 내용을 인용했다. 이형중, “마음의 연대를 위한 공감의 실천,” 128.

199) 홍창현, “북한이탈주민과 한국교회,” 350.

있다. 이러한 사실은 개신교가 북한이탈주민에게 첫 종교 경험의 대상이 되는 것을 시사한다.²⁰⁰⁾ 예컨대 북한에서 이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한국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우, 5년 이내에 교회를 방문하게 된다. 그러나 교회 안의 성도들과 북한이탈주민의 관계는 ‘도움을 주는 사람’과 ‘도움을 받는 사람’으로 인식되어 있다. 이에 따라 성도들은 일방적으로 베풀고 조언을 주는 위치²⁰¹⁾가 되어 상호적 관계를 올바르게 맺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한국 교회는 북한이탈주민 개인을 존중하기보다 집단적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다. 사회의 강력한 주체로서 교회와 사회문화적·정치적 타자인 탈북자의 조우는 나와 다른 존재를 마주하며 만나게 되는 신비로운 사건이 되기보다 타자를 대상화하거나 차별하여 전체성으로 종속시키는, 다시 말해 타자를 주체가 지배하는 모습을 띄었다.²⁰²⁾ 이에 따라 남한 성도들 또한 북한이탈주민을 개인의 존재로 인정하지 못하고, 북한이라는 정치적 이념과 사고를 가지고 바라보기는 마찬가지다. 따라서 남한사회와 교회에서 차별과 편견을 경험한 북한이탈주민들은 사회와 교회가 친절을 베풀려고 하는 것에서 의도를 발견하려는 경계를 보이며, 주체와 타자 사이에 심리적인 간극이 발생²⁰³⁾하게 되었다.

교회는 북한이탈주민들 뿐 아니라, 외국인들을 품어야 할 환대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한국교회와 북한이탈주민의 관계만 보더라도 어떠한 물리적 거래와 보상은 있지만, 진심어린 관계 형성은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환대가 단지 구호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환대의 관

200) 이순형·최연실·진미정, 『북한이탈주민의 종교경험』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5), 111.

201) 김의혁, [북한이탈주민의 이해와 한국교회 03] “낮설고 험난한 아랫동네 정착기: 북한이탈주민은 어떻게 정착하는가,” 『기독교사상』 753 (2021): 178.

202) 홍창현, “북한이탈주민과 한국 교회,” 337.

203) 이형중, “마음의 연대를 위한 공감의 실천,” 128.

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한국교회는 우선적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이야기를 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²⁰⁴⁾ 이와 관련해 채경희는 북한이탈주민의 교회 정착 문제의 원인을 “탈북민(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교회의 이해부족”으로 꼽았다. 물론 북한이탈주민들의 속성이 “주체사상의 강제적 내면화와 세습독재 체제로 인한 경험”²⁰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이해하며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쉬운 문제는 아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대부분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다. 그러다보니 눈높이에 맞는 대화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성경에 대한 배경지식이 전혀 없는 북한이탈주민들과 그들을 어떻게 교육할지, 훈련되지 않은 교회의 담당자들 간의 조화가 안 되다보니 점점 더 멀어지는 것은 당연하다.²⁰⁶⁾ 분명 교회는 영적인 예배와 훈련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을 양육해야 한다. 그러나 그 전에 먼저 북한이탈주민들을 ‘이해하는 태도’가 교회 공동체와 남한 평신도들에게 우선적으로 훈련되어야 한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진정한 환대의 선교는 그들을 일방적으로 규정하거나 동일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고유성을 온전히 수용하고 인정하는 데서 시작²⁰⁷⁾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로간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영적인 훈련과 프로그램만 강조된다면, 북한이탈주민들의 교회 정착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따라서 남한의 교회가 먼저 통일을 향해 연합적인 환대의 비전을 세워 그 비전을 가지고 향후 예상되는 북한 교회들과의 관계

204) 이지성, “한국 교회의 북한이탈주민 인식 전환에 대한 모색: ‘공감적 상상력’을 중심으로,” 『기독교사회윤리』 45 (2019): 112.

205) 북한사회의 주체사상은 지배적인 통치원리이다. 북한 주민 개인의 사고 체계와 생활 규범은 규제력을 갖는다. 이 주체사상은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의 독재체제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작동되고 있다. 여기서 “주체 형 인간의 핵심 덕목은 아버지 수령에 대한 ‘충성’과 ‘효성’으로 집약되는데,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제 1덕목으로 삼고,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로 무장하며, 집단을 위해서는 자신의 목숨을 내던질 수 인간”을 말한다. 신호숙 외 공저, “북한주민, 탈북자, 북한이탈주민,” 56-57.

206) “쉽지 않은 남한사회 정착, 종교단체 지원이 가장 큰 힘,” 『기독교신문』 (2020. 11. 09.)

207) 김의혁, “북한이주주민을 향한 환대의 선교,” 166.

와 교류를 통해 공유²⁰⁸⁾될 때 연합된 성숙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2.3.3 북한이탈주민의 정착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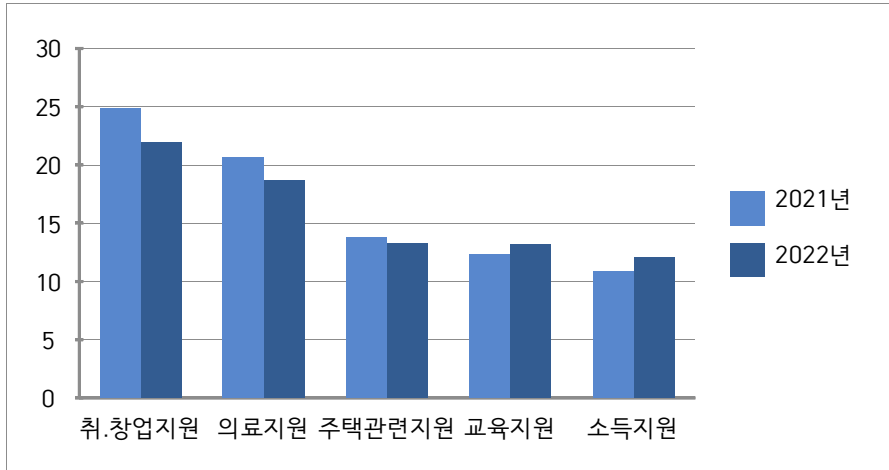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 정착문제는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한국사회의 환대의 문제와 관련해 일방적인 지원의 문제와 언어 소통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분명 북한이탈주민은 우리와 동등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혐오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여전히 존재한다.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의 정착 문제와 관련한 만족도를 보면 보건의료서비스 82.3%, 사회보장제도가 76.3%, 문화/여가 생활 향유 여건은 65.5%로 대체적으로 높은 만족도로 통계되었다.²⁰⁹⁾ 그러나 이러한 지원의 문제를 넘어 북한이탈주민은 실제 사회의 현장에서 적응하기 힘든 난관에 부딪치게 된다. 한국사회 뿐 아니라, 한국 사람들 또한 여전히 이들을 “안보를 위협할 수도 있는 존재로 의미화”²¹⁰⁾하기도 하고, 굶주림에 먹을 것이 없어서 탈북한 불쌍한 사람으로 취급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그러나 현재 이주세대는 고난의 행군 시대를 넘어 경제적 이주에 기반한 세대라는 사실에 입각해 한국사회의 환대의 방식과 더 성숙한 시민의식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교회 또한 이들을 진정으로 환대하는 방식을 새롭게 재정립해야 할 것이다.

2.3.3.1 일방적인 지원의 문제

208) 김선일, “통일의 시대를 위한 환대의 실천신학,” 『복음과 실천신학』 50 (2019): 31.

209) 『2021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조사』, 50.

210) 김성경, “분단체제가 만들어 낸 이방인 탈북자,” 38.



[그림 2-3] 더 나은 남한생활을 위해 필요한 지원(1순위, 상위 5순위)

2022년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에 따르면 “더 나은 남한생활을 위해 필요한 지원”에 대해 1순위는 취업과 창업 지원(21.9%), 2순위는 의료지원(18.7%), 3순위는 주택문제 지원(13.3%)로 2021년도 대비 취·창업 지원은 2.9%, 의료 지원은 1.9%, 주택문제 관련 지원은 13.3%로 0.5% 낮아졌다. 또한 취·창업 지원은 2021년 기준 24.8%이고, 2022년 기준 21.9%로 조사되어 작년 대비 2.9% 하락해 취·창업 지원이 작년대비 조금은 상승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남한의 거주기간별로 보았을 때 거주기간이 짧을수록 응답률이 높았다.

이와 관련해 북한이탈주민의 ‘직업교육훈련 수료 여부’를 살펴보니 90.3%로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²¹¹⁾ 이러한 통계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원하는 경제적 지원이 단순한 정착지원금이 아니라,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경제적 발판을 마련하는 취업과 창업에 대한 지원”²¹²⁾이라는 것이 주목할 만하다. 이와 관련해 북한인권정보센터 김가영 국장은 다음과 같이

211) 『2022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 39-42.

212) 『북한주민 통일외식 2020』, 178-179.

언급하며 북한이탈주민 스스로의 자립에 대한 중요성을 드러냈다.

실제 탈북민들(북한이탈주민들)에게 물어보면 정부 지원은 충분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만 탈북민분들(북한이탈주민들)이 원하는 건 물고기를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달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열심히 일한 탈북민(북한이탈주민)에게 포상이 있을 수 있지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조직 문화나 기회를 주는 회사가 너무 적기 때문에...²¹³⁾

그동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정부부처와 산하 공공기관에서 매년 국고를 투입해 북한이탈주민들의 공공임대주택 알선과 취업 촉진을 위한 취업장려금, 직업훈련장려금, 하나센터에서 직업훈련, 고용지원금 지급, 미래행복통장운영 등 많은 방법들을 통해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 정착은 여전히 어려움이 많고 북한이탈주민들의 만족도 또한 그다지 높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²¹⁴⁾ 위의 정착실태조사 결과도 마찬가지로 주택과 의료 지원이 전년 대비 감소한 반면, 취업과 창업의 필요도는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만큼 북한이탈주민들이 삶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시급한 문제로 남는다.

현재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취업지원정책의 실효성을 위해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지금처럼 북한이탈주민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나 능력, 북한에서의 직업배경을 고려하지 않은 직업훈련 프로그램은 그 성과가 낮게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

213) “차별로 적응 어려워 탈북민의 현실,” [MBC 생방송 오늘의 아침] (2022. 01.11).

214) 이지영·최경원, “북한이탈주민 직장적응 실태 분석과 제언,” 『대한정치학회보』 29-1 (2021): 56.

이다.²¹⁵⁾ 그동안 한국사회는 북한이탈주민을 환대했지만, 그들의 문화적 특성과 개인의 정체성을 존중하지 못했다. 그 결과 북한이탈주민을 그저 도와주어야 할 대상으로 여기며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일들이 우선시 되었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은 특수한 사람들이 아니라, 창의적 재능과 능력을 갖춘 우리와 동등한 사람들이다. 따라서 한국사회는 일방적인 지원 체계에 앞서 북한이탈주민의 고유한 문화적 특성을 존중하고, 그들의 역량을 개발해 자신의 독특성을 가지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2.3.3.2 언어사용의 문제

북한이탈주민의 한국 정착을 방해하는 큰 요인 중 하나는 언어의 문제이다. 남북한 사이의 어휘의 차이와 발음과 억양 차이, 그리고 남북의 화행(話行)의 차이와 심리적 타자화 문제는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정착의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주요 원인이 된다.²¹⁶⁾ 2014년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 322명을 대상으로 ‘국내에서 겪는 어려움’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중 23%는 ‘북한 사투리에 대한 남한 사회의 편견’으로 나타나 ‘외래어로 인한 의사소통의 문제’(41.4%) 다음으로 높은 응답을 보였다. 이와 관련해 김석향은 15세 이상 북한이탈주민 1,400여명을 대상으로 ‘북한이탈주민 노동권 실태조사(2015)’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북한이탈주민들이 일자리를 찾을 때 가장 어려운 점으로 인식하는 문제는 ‘북한식 억양’(1,193명 중 26.8%)이라고 밝혔다.²¹⁷⁾ 아래 인용되는 한 북한이탈주민

215) 권숙도, “사회통합을 위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체계 개선방안 제안,” 「통일연구」 22-1 (2018): 95.

216) 양수경, “북한이탈주민의 언어적응실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박사학위 논문, (2013), 20; 조완철, “북한이탈주민의 언어 적응을 위한 발음 억양 교육 실천사례 특성 분석,” 「현대북한연구」 21-1 (2018): 209-210.

217) “탈북민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 「전북일보」 (2016.08.25.)

의 언어적 고충토로는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보여준다.

나는 선배들한테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잘 정착할 수 있을까? 무슨 일을 하면 괜찮을까? 또 나이 대별로 다 다르니까 그래서 언니들은 그래요. 나이가 어리면 제일 먼저 와가지고 사투리부터 고치라고 왜냐하면 이게 말부터 (북한에서 온 것이) 티가 나니까(사례1-1)

북한이탈주민은 한국 입국 후 하나원에서 언어교육을 받는다. 2022년 기준 하나원의 교육과정(12주)은 한국사회의 이해를 돕고, 진로 직업 전문교육과 소통, 그리고 관계형성과 시민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에 언어교육을 포함시킨다.²¹⁸⁾ 문제는 언어교육 교재가 2007년부터 최근 2022년까지 16년째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 내용 또한 북한주민 억양에 대한 부정적 편견의 증폭을 우려내고 있다.²¹⁹⁾ ‘북한식 언어’를 그들의 문화적 특성으로 고려하기보다 억양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경계심을 촉발하는 것²²⁰⁾을 보게 된다. 그 결과 언어와 억양의 차이로 사회적 갈등을 경험하는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식 억양에 대한 수치심을 느끼고, 한국식 억양을 사용하기 위한 태도를 보이게 된다.

언어적인 문제도 있고 그리고 또 아무래도 지금 (한국에서) 10년을 살았다고 하지만, 태어나서 언어를 떼고 공부를 하고, 어린 시절 보내고, 고등학교까지 졸업한 데는 사실은 한국보다는 북한의 문화에 더 익숙했기 때문에 그

218) 하나원은 1999년 7월 안성(여성특화교육 운영)과, 2012년 12월 화천분소(제2하나원, 남성특화교육 및 직무교육 운영)에 개원되었다. 북한이탈주민은 남한 입국 후 보호결정 된 후에 12주간 하나원에 머물며, 사회 적응 교육을 받게 된다. 1999년부터 2021년까지 총 32,273명의 북한이탈주민이 사회적응교육 수료 후 사회로 진출했다. 『202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실무편람』, 24.

219) “하나원 탈북민 대상 교재 살펴보니...북한 주민 비하 수두룩,” 『경향신문』 (2022.10.06.)

220) 하나원 언어 교육 교재는 “북한 출신 사람들은 비교적 큰 성량의 음성을 가지고 있다. 전화 통화를 할 때도 마치 멀리 있는 사람에게 말하는 듯 큰 소리로 말한다든가, 옆의 사람에게 방해가 될 정도로 친구와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항상 조심해야 한다” 등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언어생활』 (서울: 통일부 하나원), 42.

래서 계속해서 적응을 해야 되는 과정인데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다.(사례 2-1)

북한이탈주민들이 한국에서 겪는 언어와 소통의 문제는 사회와 직장, 학교 등에 적응할 때 갈등이 제기될 뿐만 아니라, 남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큰 어려움을 초래한다. 이와 관련해 박요셉은 남과 북의 의사소통의 차이에 대해 북한사람들은 ‘관계 위주의 의사소통’을 하지 않고 ‘문제해결 중심의 의사소통’을 한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북한이탈주민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문제 중심’의 ‘직설법’을 사용하는 반면 남한은 문제가 있지만, 사람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고민하며 대화를 하다 보니 문제를 빨리 해결하지 못하는 차이를 두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결국 남한의 언어소통은 문제를 보고도 관계 때문에 방치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²²¹⁾

북한이탈주민들에게 남북한 언어의 이질화는 단순히 언어의 문제를 넘어 심리적 어려움으로까지 이어진다. 남한에서 소수민으로 살면서 사용하는 북한말투로 인해 “어디서 왔는지” 끊임없는 질문을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²²²⁾ 그러나 “세계 시장에서는 하나의 언어뿐만 아니라, 여러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221) 박요셉은 북한이탈주민의 언어사용에 대해 언급하며, 남북한의 의사소통 방식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 한국처럼 북한 또한 거주 이전의 자유는 있지만, 북한이탈주민은 한번 머무는 곳에서 평생을 살아야 한다거나 한번 직장에서 일하면 평생 일해야 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미움이 발생해도 ‘품고 살아가야 한다’는 신념이 강하다. 그러다 보니 북한사람들은 ‘관계 위주의 의사소통’을 하지 않고 ‘문제해결 중심의 의사소통’을 한다. 북한이탈주민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문제 중심’의 ‘직설법’을 사용하는 반면 남한은 문제가 있지만, 사람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고민하며 대화를 하다 보니 문제를 빨리 해결하지 못한다는 차이를 설명했다. 다시 말해 남한의 언어소통은 문제를 보고도 관계 때문에 방치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땅과 사람을 살리는 탈북민 사회적 사업가 박요셉 대표 간증, 「주빌리안 tv」

https://youtube.com/watch?v=3_tFjne0PEo&feature=share. (2022.10.11.) 접속.

222) 김석향, “남북한 언어 이질화 정도에 대한 집단별 인식의 차이 고찰,” 「현대북한연구」 8-2 (2005): 115.

따라 일상에서 여러 가지 외국 언어들과 그 언어 사용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가치가 생겨날 수 있게 된다.²²³⁾ 비록 북한이탈주민들이 한국 정착을 위해 한국식 언어 사용은 필요하지만, 북한식의 언어 사용 또한 존중 받아야 마땅하다. 따라서 남북한의 상호적 관계 안에서 우리 또한 그들의 언어를 이해하고 수용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2.4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와 선교적 환대(Missional Hospitality)

본 장에서는 사회 속에서 평신도가 경험하는 환대의 실천적 측면을 하나님의 선교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실제 삶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천 방안을 탐색해 본다. 본 장은 그동안 자기중심적으로 실행되었던 환대가 타자중심으로 재정립되어야 할 것을 강조하며, 그렇게 행할 때 환대의 실천자와 수혜자 모두가 동등한 하나님의 환대를 경험하게 된다는 함의를 가진다. 결과적으로 평신도는 타자를 마주할 때 자신을 성찰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선교에 입각한 환대를 실천할 수 있게 된다.

2.4.1 공감과 연대(連帶)

공감은 독일의 철학자 로베르트 피셔(Robert Vischer)가 1872년에 미학에서 처음 사용한 “감정이입”이라는 개념으로부터 유래되었다. 감정이입은 관찰자가 흥미하거나 관조하는 물체에 자신의 감정을 투사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감정이입(Einfühlung)은 “ein(안에)”

223) 강연회, “서울대 지식교양 강연-생각의 열쇠: 글로벌 시대의 언어 변화,” <https://tv.naver.com/snulectures>. (2023.06.01.) 접속.

과 “fühlung(느낀다)”이라는 단어가 결합된 것이다.²²⁴⁾ 이것은 “공감(Empathy)²²⁵⁾”으로 번역되었는데 공감은 다른 사람이 겪는 고통의 정서적 상태로 들어가서 그들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느끼는 것을 뜻한다.²²⁶⁾ 공감(empathy)은 수동적인 참여로서의 동정(sympathy)이라기보다는 관찰자의 타자를 향한 거리두기로 타자의 상황을 보고 나의 고통으로 이해하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능동적인 참여를 함축하고 있다.²²⁷⁾

공감은 모든 관계를 하나로 연결하는 연합적 특성을 지니는데 이에 관련해 구더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성령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을 지닌 공동체는 사회적으로도 연대를 이루며 낮은 타자를 그 안으로 환대할 수 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이야말로 서로에게 소속되는 것을 포함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은 서로의 짐을 짊어지는 것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에게 소중하고 서로에게 매여 있다. 결과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우리는 서로에게 조언, 때로는 교정과 용서에 의존하고 그에 대해 빛을 지고 있다.²²⁸⁾

환대는 내 안에, 우리 안에, 공간 안에 타자를 수용하는 행위로 타자를 향한 이해를 넘어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롬12:17) 공감적 능력을 필요로 한다. 주인이 손님을 환영하듯이 환대의 개념은 반드시 주인과 손님 또는 주체와 타자라는 관계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²²⁹⁾ 이

224) 박성희, 『공감학: 어제와 오늘』 (서울: 학지사, 2017), 17.

225) ‘empathy’는 ‘en(안에)’ 와 ‘pathos(고통, 열정)의 합성어이다.

226) 에드워드 티치너(Edward Bradford Titchener)는 Einfühlung을 “공감(Empathy)”으로 번역했다. Jeremy Rifkin/ 이경남 역, 『공감의 시대』 (서울: 민음사, 2010), 19.

227) 박성희, 『공감학』, 19-20.

228) Guder, 『선교적 교회』, 250.

229) 최진우, 『다양성의 시대, 환대를 말하다』, 269.

러한 공감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완전한 일치’를 경험하는 것으로 타자 중심의 공동체의 연대와 협력을 구축하고 회복시키는 데 중요한 덕목으로 꼽힌다.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진정성 있는 공감을 받게 되면 보다 적극적이며 진취적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 이것은 정서적인 결합을 촉진해 마음의 연대를 추동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으로 볼 때 공감이 개개인의 관계 안에서 미치는 치유의 속성은 사회적인 실재로 확산될 수 있다.²³⁰⁾ 그러나 타자를 동등하게 바라보지 못하거나 교류나 접촉 자체가 만남이 목적이 되지 않고 필요에 따라 대할 때, 공감은 실패하고 마음의 연대 또한 좌절되고 만다.²³¹⁾ 다시 말해 환대의 실천에서 공감은 타자와의 연대, 공동체와의 연대를 이루게 된다. 누군가에게 따뜻한 환대를 받으면서 어둠을 통과하는 사람은 고난 중에 있는 또 다른 사람들과 연대하며 그들을 위한 환대를 베풀 능력이 배양될 수 있기 때문이다.²³²⁾

환대에 대한 사도 바울의 문맥 중 로마서 12장~16장은 십자가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그 밖이나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에 패러다임이란 것을 강조하고 있다. 바울은 환대의 의의 중 하나는 ‘교회의 복음적 정체성’으로, 또 하나는 ‘교회의 윤리’로 꼽는다.²³³⁾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사회적 영성’으로 나타나는 “공감과 환대는 교회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삶의 방식이며, 기독교 고유의 가치를 담고 있다”²³⁴⁾고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공감적 환대는 사회적 활동을

230) 이형중, “마음의 연대를 위한 공감의 실천,” 113.

231) Ibid., 128.

232) 김경은, “환대의 영성을 위한 레비나스(Emmanuel Levinas)고찰,” 161.

233) 문시영, “바울의 제자도에 나타난 사회적 영성,” 『기독교사회윤리』 52 (2022): 29.

234) ‘사회적 영성’은 교회의 영성에 주목하는 내면적 요소인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외에 공감과 환대, 책임과 소통 같은 덕목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Ibid., 34.

펼치는 평신도들의 윤리적 행위로 나타나 세상에서 교회로서의 사명을 행할 수 있는 중요한 재료가 되어 준다.

2.4.2 상호적 동등성과 친밀한 교류

우리 사회는 다원화와 미시적 민주화, 그리고 소수자 배려의 이슈가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타자를 대하는 태도’로서 환대의 개념이 중요해지고 있다.²³⁵⁾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오랜 분단이 만들어 낸 이념과 갈등으로 인해 쉽게 그들을 무시하거나 차별을 일삼는다. 2021년 기준 국가인권실태조사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국민의 2명 중 1명(54.1%)이 이주민에 대한 혐오와 차별적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통계되었다.²³⁶⁾ 이주민 인권에 대한 인식 또한 이주민의 인권이 존중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중이 37.5%로 취약집단 중에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²³⁷⁾

한국으로 이주한 북한이탈주민들은 사회의 냉대로 인해 스스로 정착하고 자립하기에 어려운 환경에 반복적으로 부딪힌다. 이들은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사회와 교회에서 조차 구별되고 무시 받는 일들을 지속적으로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북한이탈주민을 개인으로 바라보고 동등한 상호적 관계를 유지하기보다 그들을 도움을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인식해 수직적 관계를 형성하는 오류를 범했다. 반면 북한이탈주민 또한 한국 사람들에게 편견을 가지고 있다. 한국에 들어와 살고 있는 이주민들은 한국 사람에 대해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란 편견을 가진다. 그들

235) 김선일, “통일의 시대를 위한 환대의 실천신학,” 10.

236) “‘우리 사회는 아직 이주민에게 차별적’ 54%...이주민과 공존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국일보』 (2022.12.03.)

237) 『2021년 국가인권실태조사 연구보고서』, 54.

은 한국인에 대해 ‘앞에서 예의를 차리지만 속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인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이질적 경험으로 인해 한국 사회를 일반화 하는 현상으로 나타났다.²³⁸⁾ 이러한 서로간의 편견은 상호간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기보다 지속적인 오해와 갈등을 불러 일으켰다.

북한이탈주민은 진실 된 환대를 실천하는 사람들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고 친밀하고 동등한 관계 안에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선교적 환대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먼저 그들을 존재 자체로 바라봐 주고, 친절할 태도로 자신의 몸을 낮추어야 한다. 오원환은 북한이탈주민을 정착시키는 개념으로 ‘친절의 정치학’을 제시했는데 이것은 다문화주의적인 시각으로 분단 이후 한민족의 내부 차이를 인정하고, 그들의 삶을 존중하는 것에서부터 친절함을 키워나가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²³⁹⁾ 이러한 친절함은 타자와의 관계 안에서 먼저 자신의 몸을 낮추며 스스로 작은 자임을 공언하는 사람들을 통해 가능해질 수 있다. 다시 말해 종이 되고자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예수님의 손길을 많이 경험하는 사람일수록 자기를 낮추는 유연성과 자기하강의 능력이 커지게 되어 있다.²⁴⁰⁾ 이러한 타자 중심의 희생적 행동은 낮은 북한이탈주민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되고, 서로의 다름 안에서도 친구처럼 친밀하고 동등한 관계로 변화될 수 있다.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는 하나님의 환대를 먼저 경험한 사람들이다. 환대와 관련해 김의혁은 다른 사람들을 온전하게 받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환대에 참여하는 행위로서 먼저 환대를 경험한 사람들이 다른 사

238) 이형중, “마음의 연대를 위한 공감의 실천,” 127.

239) 오원환, “탈북민의 탈남 현상에 대한 이해와 정과 친절의 정치학에 관한 탐색적 연구,” 『스피치와 커뮤니케이션』 18-10 (2019): 272.

240) 김희권, 『하나님 나라 신학으로 읽는 요한복음』 (서울: 복있는 사람, 2020), 525.

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환대에 참여하는 것이 선교적 삶의 본질이라고 정의했다.²⁴¹⁾ 따라서 하나님의 선교를 실천하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는 북한이탈주민 한 사람을 개인으로 존중하고, 동등한 눈높이에서 바라보며, 그들을 환대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환대를 함께 경험할 때 모두가 그분의 환대 안에서 친밀함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피조물 누구에게나 편견 없이 전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2.4.3 타자중심의 베품

크리스틴 폴(Christine D. Pohl)의 「손대접」에 의하면 역사적으로 기독교에서 환대의 실천은 교회 공동체의 어떠한 선택 사항이 아닌 것을 말한다. 그는 환대가 특별한 은사를 보유한 사람에게만 국한된 사항이 아니라, 공동체의 필수적 실천이란 것을 강조하고 있다.²⁴²⁾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들은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환대를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환대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먼저 환대를 경험한 사람들이 당연하게 실천해야 할 덕목이다.

환대의 구체적인 실천 방법은 베품으로 연결될 수 있다. “우리가 베푸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지어졌기 때문이다.”²⁴³⁾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타자의 입장을 존중하는 ‘상호적 관계 안에서의 베품’보다 ‘일방적인 베품’으로 오히려 타자에게 상처를 입히는 경우가 발생한다. 타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베품은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러므로 베품이 행동으로 이어질 때 그 사

241) 김의혁, “북한이주주민을 향한 환대의 선교,” 165-166.

242) Christine D. Pohl/ 정옥배 역, 『손대접』 (서울: 복있는 사람, 2002), 39.

243) Volf, 『베품과 용서』, 93.

이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감정의 가능성을 인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정주민이 이방인에게 주는 상하 관계에서 나타나는 상호작용은 편견을 만들고, 가르치려는 태도로 배태되어 호의를 베풀더라도 타자는 환대로 느끼지 않고 차별과 무시로 받아들이기 쉽기 때문이다.²⁴⁴⁾ 이형종이 잘 지적했듯이, 타자에게 환대를 베풀려고 할 때 타자가 자신의 환대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대한 예민한 감수성을 가지고 주의 깊게 성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타자에게 친절과 호의, 도움을 ‘베풀려’할 때 ‘주체’로서 부담되거나 불안한 요인이 있는지에 대한 성찰이 이루어져야 한다. 부담과 불안한 요인이 타자를 가르치거나 동정하는 식의 이타적 행동을 추동하므로 이를 경험하는 타자는 순수한 공감과 환대로 느끼지 못하는 자기지향적 속성을 지닌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²⁴⁵⁾

베픔은 철저히 타자 중심으로 실행되어야 한다. 아우구스티누스(Aurelius Augustinus)가 심오하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타자를 사랑²⁴⁶⁾하는 것만이 진정으로 타자를 존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타자 안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존중하고 그 마음으로 베풀 때 ‘운전한 베픔’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하나님이 없는 베픔은 조건적이거나, 많은 경우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힐 수 있다. 이러한 베픔에 대해 볼프는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기 위한 베픔이 아니라,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한 베픔이라고 정의했다.²⁴⁷⁾ 따라서 진정으로 타자를 위한 베픔의 실천은 환대의 대상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인정할 때 가능해 진다. 그들을

244) 이형종, “마음의 연대를 위한 공감의 실천,” 123-124.

245) Ibid., 132.

246) Volf, 『베픔과 용서』, 159-160.

247) Ibid., 155.

주님으로 맞이하고 영접(마18:6; 마18:10; 마25:24)할 때 ‘교만한 베품’에서 벗어나 ‘겸손한 베품’을 실천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볼프가 지적한대로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기 위한 베품이 아니라,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한 베품²⁴⁸⁾이 될 수밖에 없다.

개인주의가 만연한 현 시대에 환대가 베품으로 실천될 때 하나님의 선교는 곳곳에서 확장될 수 있다. 특히 타자 중심의 성숙한 태도를 가진 평신도들의 선교적 베품의 행위는 냉랭한 사회 속에 복음을 전해질 수 있다. 이러한 행위는 자신의 모든 것, 남김없이 전부를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철저한 타자 중심의 베품을 본 받을 때 가능하다. 분명 그리스도와 한 일원이 되는 것은 경쟁적이고 이기적인 개인주의의 독립을 상실하며,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자기희생에 그 뿌리를 둔 공동체의 상호의존을 확신하는 움직임일 수밖에²⁴⁹⁾할 뿐이다.

248) 볼프는 근본적인 선이 우리로 하여금 순수한 마음으로 선물하게 하지만, 그렇지 못하게 방해하는 세 가지 양상을 이기심, 교만, 게으름이라고 설명했다. Ibid., 153-155.

249) Guder, 『선교적 교회』, 241.

제 3 장 선교적 환대의 실천 사례

본 장에서는 앞서 논의한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사례연구의 이해를 돕는다. 필자는 연구 참여자들에게 인터뷰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분석해 최종적으로 평신도의 환대의 실천이 타자 중심에서 실행되고 있음을 밝힌다. 이러한 심층 연구는 연구 참여자가 속한 일터의 현장감을 생생하게 전달해 주고, 환대의 실천자와 수혜자 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선교적 함의를 도출해 준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선교의 방법으로서 환대는 평신도의 선교적 삶을 입증하는 ‘선교적 도구’임을 증명하고 있다.

3.1 연구방법

본 연구는 선교적 교회 공동체의 핵심주체인 평신도들의 삶의 현장을 추적해 그 속에서 발견되는 환대의 실천적 함의를 탐색하기 위한 문헌분석 및 질적 사례연구이다. 이 논문은 평신도들의 교회 밖 사회 현장을 큰 배경으로 그들의 일상에서 발견되는 타자, 즉 사회적 약자를 향한 ‘선교적 태도’와 ‘선교적 행동’을 중점적으로 관찰·분석한다. 이러한 “행위성 접근법은 사회학에서 구조와 행위의 이분법을 극복하고 구조와 행위의 상호작용을 강조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중 하나”²⁵⁰⁾로 평신도 일상의 실천적 측면을 연구하는 데 유리한 접근법이다. 이에 따라 연구자는 평신도 환대의 대상을 북한이탈주민으로 정하고, 그들의 상호적 관계 안에서 평신도가 환대의 방법을 실행할 때 북한이탈주민이 사회에 정착할 수

250) 인간의 행위는 개인이 활용할 수 있는 자원과 자본 또는 외적 구조를 체화한 개인의 동기(motivations)와 열망(aspirations), 의도(intentions) 등을 통해 분석될 수 있는데 이러한 조건들의 차이는 행위의 다양성을 가져온다. 김혜선, 『글로벌 이주와 초국가적 가족유대』 (과주: 이담, 2014), 60-61.

있다는 가설을 가지고 본 논문의 심층적 이해를 돕고자 한다.

본 논문의 연구 방법인 사례연구는 질적 연구의 접근법 중 하나로, 질적 연구는 타인의 세상에 대해 경험하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을, 같은 경험을 하지 않은 면담자(연구자)가 재구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주요 방법 중 하나이다.²⁵¹⁾ 사례연구에 대해 로버트 인(Robert K. Yin)은 “특히 현상과 맥락 사이의 경계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을 때, 실생활의 맥락 안에서 동시대의 현상을 조사하는 경험적인 연구”²⁵²⁾라고 정의했고, 존 크레스웰(John W. Creswell)은 연구자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다양한 정보원(관찰이나 면접, 시청각자료나 문서 또는 보고서 등)을 포함해 상세하고 심층적인 자료들을 통해 실제로 동시대 경계를 가진 체계(한 가지 사례)나 혹은 다양한 경계를 가지고 있는 체계(다수의 사례)를 탐구하는 것²⁵³⁾으로 정의했으며, 샤란 미리암(Sharan B. Merriam)은 “하나의 실례, 현상, 또는 사회적인 단위에 대한 집중적이고도 전체적인 묘사이며 분석”²⁵⁴⁾이라고 정의했다.

질적 사례연구는 사례분석의 목적에 따라서 구분될 수 있다. 이 목적은 세 가지 유형으로 나타나는데 첫째는 단일 도구적 사례연구, 둘째는 집합적, 또는 복합적 사례연구, 셋째는 본질적 사례연구이다.²⁵⁵⁾ 필자는 본 연구의 목적과 가까운 단일 도구적 사례연구를 채택해, 평신도의 사역 현장에 나타나는 선교적 실천 이슈들의 특성을 예증하고자 북한이

251) 조영달·박선운, 『문화적 민감성을 높인 질적 연구의 이론과 실제』, 202.

252) Robert K. Yin, *Case Study Research: Design and Methods*. (2nd ed.) (Thousand Oaks, Calif.: Sage, 1994), 13.

253) 이에 따라 사례 기술(case description)와 사례 주제(case theme)를 보고함으로 사례연구의 분석단위는 복합적 사례(multiple case) ‘다중 현장(multisite)연구’나 단일한 사례‘현장 내(within-site)연구’로 나타날 수 있다. John W. Creswell·Chery N. Poth/ 조홍식 외 역, 『질적 연구방법론: 다섯 가지 접근』 (서울: 학지사, 2021), 139.

254) Sharan B. Merriam, *Case Study Research in Education: A Qualitative Approach*. (San Francisco: Jossey-Bass, 1988), 21.

255) Creswell·Poth, 『질적연구방법론』, 142.

탈주민들의 남한정착 사례를 활용하였다. 이러한 현장 중심 연구는 연구자가 “상황과 환경의 맥락 안에서 행동과 상호작용에 참여할 때 인간에 대한 이해를 가능”²⁵⁶⁾하게 해주는 장점을 가진다. 이와 같은 연구는 현장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적합한 대화 면담 방법(conversational)²⁵⁷⁾을 적용해 면담을 시행했다.

연구 분석 방법은 에믹코딩(emic coding)과 에틱코딩(etic coding) 방법을 사용해 자료를 분석했다. “북한이탈주민의 구조와 행위수행의 관계성을 포착하기 위해서 인류학적 연구방법이 가장 적절”²⁵⁸⁾하게 쓰일 수 있기 때문이다. 에믹코딩은 참여자의 관점으로 원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한 방법이고, 에틱코딩은 기존의 문서와 연구자의 입장을 고려해 기반한 방법이다. 이러한 특성을 본 연구 분석에 적용하면 에믹은 연구참여자, 즉 평신도의 인터뷰 원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한 방법이고, 에틱은 평신도의 환대 실천 대상이 되는 북한이탈주민을 중심으로 그들이 바라보는 평신도의 실천적 행동에 관한 인터뷰 자료와 기존 문서, 그리고 연구자의 입장을 고려해 분석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평신도의 내부적 관점에 북한이탈주민의 외부적 관점을 포함시켜 최종적으로 타자 중심의 균형 있는 결과를 도출하고자 했다.

연구 분석 결과가 도출되면 최종 정리 후 이보나 링컨(Yvonna S. Lincoln)과 에곤 구바(Egon G. Guba)가 제시한 연구의 사실적 가치, 적용성, 일관성, 중립성을 토대로 연구의 신뢰도나 타당도를 확보했다.

256) Thomas W. Collins·George W. Noblit, *Stratification and Resegregation: The Case of Crossover High School* (Memphis: Memphis State University, 1978), 26.

257) 면담은 첫째, 구조화된 면담(structured interview)은 면담 내내 변화되지 않고 진행될 수 있다. 이것은 진행 전에 완벽하게 만들어질 수 있다. 둘째, 반(半)구조화된 면담(semi-structured interview)은 작업의 현장에서 질문이 변화될 수 있는 것으로 질문의 대체가 이루어질 수 있다. 셋째, 비(非)구조화된 면담(unstructured interview) 또는 대화 면담(conversational)은 연구자가 연구에 초점을 두고, 연구 참여자와의 면담을 진행할 때 질문을 만들어 낼 수 있다. Corrine Glesne/ 안혜준 역, 『질적 연구자 되기』 (과주: 아카데미프레스, 2017), 146.

258) 김성경, “북한이탈주민 일상연구와 이주연구 패러다임 신고찰,” 10.

3.2 연구설계

본 논문은 우선적으로 기존의 연구를 검토하고, 관련 내용을 추출해 이론적 배경을 가진다. 이와 관련해 문헌분석은 이전에 출판되어 있는 자료들의 조직화나 통합, 그리고 평가와 관련해 문제의 명료화를 향한 연구의 진척으로 여기는 특징이 있다.²⁵⁹⁾ 이 논문의 1차 자료는 기존에 검증된 선교적 교회와 평신도, 그리고 환대와 관련된 문헌과 연구 논문을 분석한 후 2차로 북한이탈주민 관련 문서들을 토대로 이론의 틀을 정하고, 이에 세부적인 내용을 정리해 나열했다. 먼저 기존의 연구는 선교적 평신도와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연구 조사로 평신도의 정체성에 입각한 선교적 역할·사회적 역할·실천적 역할과 관련된 논문을 찾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에 필요한 평신도의 선교적 접근 방식을 모색했다. 이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에 초점을 두고 지원·적응·생활 측면으로 분류해 정착의 문제와 필요 등을 분석했다. 필자는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정리된 분석 내용을 토대로 연구문제를 제시하고, 연구의 범위를 설정했다.

이론적 내용은 선행연구를 통해 취합한 논문들을 중심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해 설명하고 있다. 평신도 연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에 입각한 선교적 관점을 가지고 출발해 그동안 ‘선교하는 교회’(Church with Mission)의 문제점들과 여기에 속한 평신도들의 신앙생활 상태를 지적한다. 이와 관련해 필자는 구더의 문헌을 인용해 ‘선교적 교회’(Missional Church)로서의 전환과 선교적 공동체로서 평신도의 선교적 소명을 서론에서 밝히고 있다. 평신도 연구는 크래머의 「평신도 신학」 위에 평신도의 정체성과 사회적 역할까지 확대해 설명했다.

259) 강진령, 『APA 논문작성법』 (서울: 학지사, 2020), 37.

필자는 평신도가 교회 밖 사회의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선교적 방안을 고민하면서 이에 적합한 대상을 북한이탈주민으로 설정하고, 하나님의 선교의 방법으로서 선교적 환대의 연구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평신도의 환대에 적합한 이론적 내용을 탐색하고, 더 나아가 평신도의 선교적 환대의 실천적인 부분을 강조하고자 현장 중심의 질적 사례 연구 방법을 도입했다. 우선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 문헌을 탐색해 정리했다. 북한은 우리와 같은 민족이지만, 전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사회의 문화와 그들의 독특한 특성을 찾는 작업은 북한이탈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중요한 부분이다. 이와 관련해 북한이탈주민의 이주과정과 남한에서의 정체성, 그리고 정착과정에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기존에 이미 검증된 논문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추출해 분류했다.

마지막으로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질적 연구를 진행했다. 앞서 논의한 대로 사례연구는 대화 면담으로 진행하고, 최대한 공감하는 태도를 가지고자 했다. 특히 타자가 경험한 사례를 마주할 때 연구 참여자가 사용하는 언어에 집중하면서 필드 노트와 녹음 본을 활용했다. 이와 관련해 수집한 자료는 면담을 마친 직후에 전사(transcription)해 코딩 작업을 진행했다. 마지막으로 분석된 연구 자료를 평신도(에딕)와 북한이탈주민(에틱)의 관점으로 정리해 최종적인 결과를 도출해 냈다.

[표 3-1] 연구절차

연구 준비 단계	2022. 10~11	2022.11~12	2022.12~ 2023.01
	연구주제 선정 & 선행연구	연구설계 & 문헌분석	생명윤리위원회 심의 및 인터뷰 대상 조사
연구 실행 단계	2023.01~02	2023.02~03	2023.03~04
	이론적 배경 & 연구방법 채택 및 분석 방법 탐색	예비연구 & 인터뷰 대상자 결정	1차면담진행 후 전사 및 분석 (결과도출)
연구 마무리 단계	2023.04~05	2023.05~06	2023.06~07
	연구의 타당성 & 자료 분석(필요시 2차 면담)	결론 도출 및 정리 & 연구의 최종검토 및 수정1	연구의 최종검토 및 수정2

3.3 연구자의 현장역할 이해

연구자는 현장역할을 이해하기 위해 예비 연구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사례연구에서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의 라포(Rapport)형성은 연구의 방향을 결정할 만큼 중요하다. 라포는 면담에 참여하는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가 함께 만들어 가는 조화로운 관계(harmonious relationship)로서 기초적인 신뢰가 형성될 때 비로소 대화²⁶⁰가 잘 이루어 질 수 있다.²⁶¹ 이와 관련해 코린 글레스넨(Corrine Glesne)은 면담에서 이루어지는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의 상호작용에 대해 연구자의 역할, 라포, 성

260) 김성경은 북한이탈주민이 자신(연구자)을 주체로 만드는 존재라고 설명하고 있다. 연구자는 북한이탈주민과의 만남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아주 깊이 성찰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타자를 공감한다는 것은 그들의 경험과 고통을 감정이입하여 동일하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타자의 경험을 거리를 두고 관찰하는 것뿐이다.” 김성경 “공감윤리, 그 (불가능성): 필드에서의 연구자의 마음,” 『북한학연구』 12-1 (2016): 139.

261) 조영달·박선운, 『문화적 민감성을 높인 질적 연구의 이론과 실제』, 220(재인용).

찰성을 언급했다. 이에 따라 “연구자는 자신이 가진 편견, 가치관, 성별, 역사, 문화, 사회경제적 지위(SES)와 같은 개인적인 배경을 반성적으로 규명”²⁶²⁾할 수 있게 된다.

필자는 면담을 진행하면서 ‘성찰적 태도’를 가지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특히 이해되지 않는 타자의 삶에 대해 최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참여자의 입장을 반영해 문화적 선입견을 최소화 했다. 필자와 연구 참여자의 부딪치는 차이가 발생할 때는 그 속에서 발견되는 또 다른 질문을 통찰력 있게 도출해 새로운 면담의 질문을 형성해 나가는 방식을 사용했다. 이러한 면담의 대화 방식은 연구자의 섬세한 관찰력을 필요로 한다. 때로 면담 과정은 참여자의 민감한 부분을 마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참여자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면서 최대한 수용적 태도를 취했다. 특히 북한이탈주민과 같은 경우 면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감함을 직시하고, 되도록 참여자가 많은 말을 할 수 있도록 면담을 진행했다. 결과적으로 필자는 평신도와 북한이탈주민을 각각 마주할 때 자신 안에 인식되어 있는 스스로의 생각을 확장시킬 수 있었다.

3.4 자료수집 방법

3.4.1 연구참여자 선정

본 연구의 연구 참여자들은 교회가 아닌, 자신의 삶의 현장(일터)을 ‘환대의 장소’로 인식하고 북한이탈주민을 사회의 구성원으로 준비시키고, 정착시킨 평신도들이다. 이들은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삶을 잘 이끄는 것(leading life well)에 대해 세상에서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262) John W. Creswell/ 정종진 외 역, 『연구방법: 질적 양적 혼합적 연구의 설계』 (서울: 시그마프레스, 2018), 228.

관심을 가진다. 본 연구의 평신도 연구 참여자들은 교회가 아닌 사회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선물들을 잘 받아들이며,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제대로 판단할 뿐만 아니라,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²⁶³⁾으로 복음을 나타내고 있는 사람들이다. 연구 참여자 선정은, 현재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평신도로서 연구의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 평신도 참여자 모두 타 교회의 사람들로 정했다. 북한이탈주민 연구 참여자 또한 교회 내의 북한이탈주민이 아닌, 필자와 관계가 없는 사람들로 통일부, 남북하나재단의 블로그와 「동포사랑」 책자를 참고해 메일로 소통하며 최종 연구 참여자를 선정했다.

연구 참여자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환대의 실천자는 자신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평신도로서 교회가 아닌, 자신의 일터에서 북한이탈주민을 정착시킨 경험이 있는 대상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현재 교회에 출석하는 평신도로 제한하며, 목회자나 특정 선교사는 연구 참여자가 될 수 없다. 둘째, 나이에 상관없이 직업 유형에 초점을 맞추어 ‘환대 실천자’와 ‘환대 수혜자’의 면담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 자이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연구 참여자들은 유형별로 크게 평신도와 북한이탈주민이다. 여기에 조금 더 심도 있는 분석을 진행하기 위해 평신도들을 3개의 유형(교육·기업·비즈니스)으로 분류해 이들이 정착시킨 북한이탈주민을 각 유형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1차면담은 평신도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면담 자료의 전사와 분석 후 2차면담 질문을 구성해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했다. 본 연구의 연구 참여자는 총 6명으로 평신도 3명과 북한이탈주민 3명으로 구성되었다. 그 대상은 다음과 같다.

[표 3-2] 유형별 심층면담 대상

263) volf·Linz, 『행동하는 기독교』, 36.

구분	평신도	유형	구분	북한이탈주민 정착대상	정착대상 현재 직업
사례1	가찬미 대리 (38세, 여)	선교적 교육	사례 1-1	이다은(가명) (29세, 여)	대학생
사례2	권하연 대표 (39세, 여)	선교적 기업	사례 2-1	윤미희(가명) (33세, 여)	강사
사례3	황진솔 대표 (43세, 남)	선교적 비즈니스	사례 3-1	안윤희(가명) (32세, 여)	창업주

평신도의 첫 번째 유형은 ‘선교적 교육’ 유형으로 북한이탈주민 청년을 대상으로 입시 코칭을 진행해 대학입학과 사회 정착을 돕고 있는 가찬미 대리를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했다. 두 번째 유형은 ‘선교적 기업 유형’으로 북한이탈주민 여성을 자신의 기업의 특색에 맞게 강사로 정착시킨 권하연 대표를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했다. 마지막 세 번째 유형은 ‘선교적 비즈니스 유형’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취·창업 지원을 통해 그들의 실제 자립을 돕고 있는 황진솔 대표를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했다.

필자는 참여자 선정과 자료수집 단계 전, 면담 진행과 인권침해적인 문제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윤리에 관한 교육을 이수했다. 이와 관련해 연구계획서와 질문지 등의 서류를 작성해 숭실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RB: 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 후에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했다. 본 연구의 연구 윤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 절차, 연구 참여에 따르는 손실에 대한 보상, 개인정보보호, 그 외에 예상되는 사항을 충분히 설명했다. 둘째, 연구 동의서의 내용으로 연구 자료는 2025년까지 보관 뒤 폐기되는 것과 연구 이외에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을 것에 대한 설명을 하고 서면 동의를 받았다. 셋째, 보안에 관한 내용으로 면담

의 녹음파일은 타인에게 유출되지 않으며, 저장파일을 암호화해 연구자 본인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안·유지하는 내용을 전달했다. 넷째, 자료보관에 관한 내용으로 IRB최종승인서, 피험자 동의서, 연구 참여 동의서 2부를 준비해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하는 것으로 했다. 다섯 째, 연구자는 6명의 연구 참여자들에게 면담 2회 기준의 사례비를 지급했다.

3.4.2 면담 시행

평신도를 대상으로 한 면담방법은 사회적인 쟁점을 반영해 개인의 삶의 경험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것은 교육적이고 사회적인 쟁점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이다. 이와 같은 연구 방법은 공동체와 협력의 가능성을 폄하하지 않으면서 개인의 중요성도 강조²⁶⁴⁾ 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평가를 내리는 데 적절한 연구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자료 수집의 구성범주(category)를 시간의 흐름, 다루는 현상의 환경, 면담 장소의 참여자들의 사회적 행동, 연구 참여자들이 사용하는 용어로 나누어 반영하고자 했다.²⁶⁵⁾ 이러한 범주의 구성은 연구 대상자의 상황에 따라 조금씩 변경되었지만,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다. 본 연구의 면담 방법은 다음과 같다.

심층면담(in-depth interviewing)의 목적은 어떠한 가설을 검증하고, 평가하기 위한 것보다 연구 참여자²⁶⁶⁾가 체화된(lived) 경험으로부터 만

264) Irving Seidman/ 박혜준·이승연 역, 『교육학·사회과학 연구자들을 위한 질적 연구 방법으로서의 면담』 (서울: 학지사, 2022), 37.

265) 구성범주의 유형은 연구가 진행되면서 충분히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임시로 사용해 시간, 장소 맥락에 따라 각각을 기술하고 언어와 행동의 비슷한 상호작용의 범주는 유지하도록 했다. 조영달·박선운, 『문화적 민감성을 높인 질적 연구의 이론과 실제』, 175.

266) 면담 관련 문헌에 의하면 면담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한 명칭은 다양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어빙이 제시한대로 면담에 참여하는 대상의 명칭을 ‘연구 참여자(participants)’로 정해 연구

들어 내는 의미를 이해²⁶⁷⁾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화 면담의 실증적인 검증을 위해 개방적·심층적 문화기술지 면담(open-ended, in depth ethnographic interview)방법을 취했다. 이 방법은 “사회 구성원의 복잡한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 수행되며, 응답자로부터 그들과 그들의 문화와 언어, 그리고 삶의 방식을 배우기 위하여 수행되는 면담이다.” 이러한 면담 방법은 평신도들에게 나타나는 사회적 행동을 연구자가 이해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의 삶의 방식과 문화와 언어를 배우기 위해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는 면담이다.²⁶⁸⁾

필자가 시행하고자 하는 면담의 초점은 연구 참여자의 삶의 현장에서 펼쳐지는 생생한 경험에 있기 때문에 열린 형식의 면담을 진행했다. 따라서 필자는 연구 참여자의 삶의 공간에서 참여자가 세계를 정의하는 독특한 방식 또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었다. 더 나아가 필자가 사전에 계획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 제기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²⁶⁹⁾ 두었다. 질문지 작성은 반구조화 된 면담 질문을 설정하였으나, 준비된 질문 내용을 대부분 활용하지 못했고, 참여자의 응답을 이어갈 수 있는 새로운 질문을 통찰해 되묻는 방식의 대화 면담을 주로 사용했다. 특히 북한이탈주민 연구 참여자가 가지고 있는 북한식의 문화와 언어를 존중해 주고, 최대한 북한이탈주민 연구 참여자들의 독특한 삶의 방식을 도출해 낼 수 있도록 했다.

본 연구는 자료 수집을 위해 면담내용 녹취록과 필드노트, 연구 참

를 진행했다. 그는 연구 참여자라는 용어가 심층 면담에 있어서 필수적인 적극적 참여의 느낌을 가지고 있으며, 면담 관계에서 형성하고자 하는 공정성(equity)의 느낌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Seidman, 『교육학·사회과학 연구자들을 위한 질적 연구 방법으로서의 면담』, 32.

267) Ibid., 31.

268) 조영달·박선운, 『문화적 민감성을 높인 질적 연구의 이론과 실제』, 199.

269) Ibid., 176.

여자들의 인터뷰 기사, 문헌, 저널 등을 사용했다. 면담은 평신도 참여자들의 활동을 탐색할 수 있는 일터 현장 중심으로 진행했다. 1차면담 시간은 40분 정도를 유지해 대화방식을 형성하며 질문을 이어갔다. 1차면담 자료의 전사 후 대략 2주 정도의 간격을 두고,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2차면담을 40분 정도로 진행했다. 마찬가지로 자료 수집 후 전사해 결과를 도출했다. 모든 대화는 연구 참여자의 동의하에 녹음으로 진행되었으며, 대화의 전반적인 내용을 모두 녹취해 1차 프로토콜을 작업해 원본 파일과 2차 윤문 작업으로 문서화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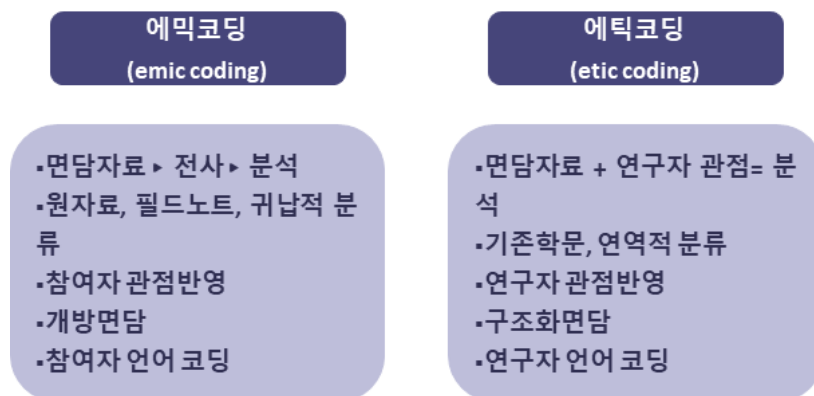
3.5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면담한 원자료에 대한 귀납적인 주제 분석을 시행하여 범주화하는 절차로 진행해 평신도와 북한이탈주민의 경험의 주요 주제를 도출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특히 에믹(emic)과 에틱(etic) 코드에 민감한 관심을 기울이며 시행하였다. 앞서 논의한 대로 에믹적 접근은 연구자의 이론적, 학문적 틀보다 연구 현장에서 실제 살아가는 사람들의 내부적 관점을 중요시한다. 반면 에틱적 접근은 연구 참여자나 자료가 드러내는 바를 찾아 읽어내려 하는 것 보다 연구자가 가지고 있는 학문적 또는 이론적 틀이나 관점, 체계 등을 활용해서 자료를 분석한다는 것으로 외부적 관점을 의미²⁷⁰⁾한다. 따라서 에믹·에틱의 구분은 이분법적이거나 서로 분류되는 것이 아니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예컨대 인식주체가 어떤 특수한 사회와 문화에 의해 문화화 된 두뇌를 소유하기 때문에 어떠한 현상을 관찰할 때 “있는 그대로”를 본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이것은 “관찰”이라는 것으로 거르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이다.²⁷¹⁾ 이 접근법에서는 보편적인 측면과 문화 특유의 측

270) 전현욱, “질적 연구에서 분석 작업의 성격과 과정,” 『교육인류학연구』 24-1 (2021): 17-18.

면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에믹 측면과 에틱 측면이 공존하고 함께 작동할 수 있다.²⁷²⁾

위와 같은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에믹·에틱의 결과 추출은 면담의 종합적 의미를 발견해주고, 사고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범주화 해주는 것으로 심도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둘째, 에믹 접근은 심층 면담을 통해 나타난 평신도의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내부적 분석이다. 이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을 정착시킨 평신도의 사례를 내부적으로 해석하는 데 그 목적을 가진다. 셋째, 에틱 접근은 심층 면담을 통해 나타난 평신도의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외부적 분석이다. 이에 따라 연구자의 해석과 북한이탈주민 관련 학자들의 검증된 논문을 토대로 분석해 객관적 입장을 가지고 문화적 중립을 시도할 수 있다.



[그림 3-1] 에믹코딩과 에틱코딩의 특징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의 1단계는 평신도의 면담 내용을 토대로 원자료 그대로를 문서화했다. 이에 따라 1차 에믹 코드를 형성해 코딩을 추

271) 전경수, 『문화의 이해』 (서울: 일지사, 1994), 123.

272) "Measures of Personality across Cultures: Emic-Etic/Universal-Culture-Specific"
<https://www.sciencedirect.com/topics/psychology/emic>.

출했다. 2단계는 북한이탈주민의 면담에서 추출한 에티크 코딩과 연구자의 이론적 관점을 종합해 재범주화 작업 후 상호보완적 분석 결과를 도출했다. 따라서 에믹·에티크 관점을 모두 가지고 관찰자의 접근 방식을 균형 있게 사용해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사례에 나타난 평신도의 환대 실천에 나타나는 관점을 모두 분석했다. 이러한 연구방법은 단순히 이분법적인 측면이 아닌, 다양한 관찰자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해석적 입장을 반영해 평신도의 사례에 나타나는 환대 행동의 특성을 최종적으로 도출할 수 있었다.

제 4 장 ‘선교적 환대’의 실천사례 분석 결과

4.1 평신도의 사례분석 결과

북한이탈주민들이 한국 사회에서 겪는 다양한 문제의 해결은 북한이탈주민들의 입장만 고려해서는 안 된다. 그들 못지않게 한국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태도, 의견 등도 반영될 필요가 있다.²⁷³⁾ 그러한 의미에서 연구자의 이론적 학문이나 틀보다 연구 현장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내부적인 관점을 중요시 하는 에믹 접근²⁷⁴⁾은 유용한 분석 방법이 된다. 이러한 연구 방법은 평신도들의 실제 삶을 추적해 그들의 행동에서 나타나는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는 연구로서 현장성을 강조한다. 참된 선교를 위해서는 겸허하게 그 사람들의 세계에 들어가 그들의 사회적 현실과 비애, 고통, 그리고 압제 세력에 항거하며 정의의 위해 투쟁하는 그들의 노력에 동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²⁷⁵⁾

평신도의 현장 중심의 ‘선교적 삶’은 분명 교회와 동일한 선교의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역할과 방법에 있어서 교회가 할 수 없는 실제적인 복음의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교회 밖으로 나아가 평신도의 일터 현장 사례를 내부적 관점으로 해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필자는 면담에 나타난 참여자의 전형적인 에믹 표현을 토대로 범주화 작업을 진행했다. 면담 내용을 전사 후 반복되게 나타나는 단어와 문장을 따로 분류해 비슷한 개념별로 묶어 하위범주를 구성했다. 결론적으로 평신도 인터뷰 범주 9개(‘일터선교지 인

273) 권수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남한국민의 태도,” 30.

274) 전현욱, “질적 연구에서 분석 작업의 성격과 과정,” 18.

275) Rose Dowsett/ 최형근 역, 『케이프타운 서약: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복음주의 현장』 (서울: Ivp, 2014), 242.

식'은 3개의 유형 모두 동일하게 생성됨)의 최종범주를 도출했다. 평신도의 면담 내용을 범주화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1] 평신도가 경험한 환대 실천의 범주화 결과

연구 참여자의 전형적 표현	참여자 경험	키워드	주요주제	유형
여기는 선교지이다, 기도로 돌파, 내 역할을 했다.	일터 공간감, 역할 이해, 선교 의식과 노력, 실제적 도움	공간감, 복음, 도움, 파송, 체계적	일터 선교지 인식	선교적 교육
만나서 밥 먹고,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고, 나누지 말고 섞어, 일방적이지 않게	경험의 중요성, 동등함을 추구, 눈높이 조정	친교, 기회, 환대, 소통, 도움, 의지, 눈높이, 함께	친밀한 교제	
돌이킨다. 이해한다. 섬기려 했는데, 공감을 해주어야지, 재미있다	자연스러움, 자기성찰, 니즈를 끌어줌, 적절한 조절	회개, 수용, 공감, 편견최소, 다양함, 친구, 절제	공감과 수용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모든 고객들에게 기회가 되면	복음전파, 예배하는 삶, 끝까지 인내, 차별 없는 용납	사명감, 책임감, 시간, 노력, 발전	일터 선교지 인식	선교적 기업
경험을 해보니, 그 사람의 방식이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다	경험의 기회제공, 버팀과 이끌림, 경험을 통한 겸손	통찰력, 끈기, 붙들음, 기다림, 경험	유연성 있는 태도	
모르면 솔직하게, 성공적인 경험을 해보면, 도와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기성찰, 성공적인 경험, 최선으로 역할 감당	진정성, 다스림, 냉철함, 동등함, 책임감	진정성 있는 노력	
연결해주고	확고한 사명감,	연결, 소통,	일터	

소통해 주는,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 잘 자립해서 살아가는 것	실제적인 방법, 공간 활용의 탁월성	순종, 탁월, 강인함, 활동적	선교지 인식	비즈니스
하나님 형상 회복, 그 사람의 존재 가치를 존중, 큰 나무가 되게 하는 것	인격체 존중, 타자 속 하나님의 형상 발견, 선교적 방식, 친구 되기	존중, 인정, 존재가치, 회복, 기대, 비전, 자립, 현실, 도움	그대로를 존중	
동등하게 친구처럼, 아끼는 친구면 진정성을 가지고, 어떻게 관계를 형성해야 하는지	진실한 친구관계, 동등함을 가지고 대함, 약속을 지키는 진정성	진정성, 동등, 진실, 수평적, 친구, 함께, 배움	수평적 협력	

4.1.1 일터선교지 인식에 대한 3개 유형의 공통된 특성

본 연구의 에믹분석 결과 3명의 평신도 연구 참여자 모두에게 나타난 공통된 특성은 일터를 선교지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평신도의 3개 유형인 선교적 교육·선교적 기업·선교적 비즈니스의 연구 대상자 모두는 자신의 일터를 선교지로 인식하고 있다. 일터의 공간은 유형별로 종류가 다르지만, 연구 참여자 모두에게 일터 선교지에 대한 인식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Q. 여기가 선교지라는 인식을 가지고 어떻게 실행하고 계신지 그런 부분을 조금 나누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신 것 같아요. ‘너 그러면 안 돼 지금 복음 전해야지 너가 기도해가지고 내가 기회 봤잖아’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기도로 돌파를 해야죠. 뚫어내야 돼요. 한 사람만 쓰면 되거든요. 제가 예전에 기도 모임 했을 때도 어느 때는 저 혼자 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거 상관없이 저는 하나님 은혜로 대학교 때도 그런 기도 모임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

혼자서라도 두 명이 와도 좋고 3명이와도 좋고 인원수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한다는 그 자리를 지키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니깐 또 그 이후에 또 막 애들이 더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 한 사람은 그걸 돌파를 하고 길을 내야 되는 사람이 있어야 해요.(사례1)

첫 번째, 선교적 교육 유형의 가찬미는 자신의 일터를 선교지로 인식하고 있다. 가찬미는 해외에 파송된 선교사들도 선교의 현장에서 치열하겠지만, 한국의 직장생활 또한 영적 분위기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러므로 교회와 마찬가지로 일터에서도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가찬미는 교회 안의 예배처럼 삶의 영역에서의 예배 또한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다시 말해 일터 현장에서 한 사람만 기도해도 그 곳이 변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가찬미는 직장이 곧 영적 전쟁터라는 것을 체감하며, 일터에서 “기도로 돌파”하는 것을 실천하고 있다.

가찬미는 크리스천 직원들과 기도 모임을 만들고 일주일에 한번 점심시간을 이용해 20~30분 함께 기도하거나, 가까운 교회에 가서 잠깐씩이라도 기도하고 있다. 즉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그의 이름을 알리는 증인²⁷⁶⁾의 역할을 수행하며, 세상에 속한 일터의 공간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을 섬기고, 우선적으로 기도를 통해 선교적 삶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가찬미는 “각자의 삶의 터전인 교회, 캠퍼스, 가정 등 곳곳에서 탈북민(북한이탈주민)들과 친구 또는 가족처럼 지내며, 무엇보다 눈물로 뜨겁게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²⁷⁷⁾이 일어나야 할 것을 또한 촉구하고 있다.

나의 발걸음이 가는 그 모든 곳에서 그런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276) 최형근 외 공저, “로잔운동에 나타난 일터신학의 선교학적 함의,” 『ACTS 신학저널(N/A)』 42 (2019): 239-240.

277) 가찬미, 『청년, 통일하자: 우리, 일어나 통일 마중 나가자!』 (서울: 홍성사, 2016), 130.

고 하는 것들을 알고는 있었지만, 또 요즘에 또 그게 되게 많이 오더라고
요. 그래서 내가 어느 곳에 강의장을 가든, 회사에 있던, 친구 엄마들을 만
나던, 어느 곳에 있던 그런 예배자의 마음으로 있으면 또 그런 향기를 풍
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야 될 것 같아요.(사례2)

두 번째, 선교적 기업 유형의 권하연은 자신의 삶과 직장, 그리고 모
든 생활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어느 자리에 있
던 내가 교회에서만 신실한 성도가 되는 게 아니라” 모든 곳에서 예배자
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승현은 호켄다이크
(Johannes C. Hoekendijk)의 평신도의 역할에 관한 주장을 정리하면서
평신도는 ‘하나님의 선교의 장’인 세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들은 당장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할 수 있기 때
문에 선교에 있어서 굳이 교회에 의존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평신도 스스로 하나님의 선교 최전방에 서 있기 때문에 매일의 삶의 터
전에서 자신의 일을 통해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면 된다는 것을 강조했
다.²⁷⁸⁾

권하연은 자신의 일터 뿐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배자의 마음
으로 환대를 실천하고 있다. “누구나 다 그냥 저한테 오는 그런 모든 고
객들한테 기회가 되면 그 안에서 다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
러한 선교적 마인드는 클라우스 보크뮤엘(Klaus Bockmuehl)이 정리한
로잔언약 5항의 “사회정의 추구를 위한 그리스도인들의 아홉 가지 행동”
중 모든 사람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것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것²⁷⁹⁾으로

278) 정승현, “하나님의 선교, 세상, 그리고 살림: 요하네스 호켄다이크의 선교신학,” 『선교와 신학』 24 (2009): 265.

279) 김회권에 따르면 사회 선교는 선교적 교회론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교회보다 더 넓은 사회에서 자신의 일을 수행하시며, 사회를 상대로 선교를 펼쳐나갈 동역자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말한다. 사회 선교의 수혜자는 전 사회의 구성원이며, 인류공동체이다. 그의 논문은 “교회의 선교는 개인의 회심을 넘어, 사회적 성화를 기도하는 사회선교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이에 뒷받침하는 성경적 근거, 선교 신학적 근거, 교회사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차별과 편견이 없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선교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 사역 자체가 이 일 자체가 ‘일터 사역’이라는 소명 의식은 되게 확실히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그 어떤 사역, 일터 사역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복음을 전해서 이제 년 크리스찬을 크리스찬으로 만드는 사역으로 저는 한정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게 이제 이 기관의 목적은 아니니까, 그냥 그 복음의 그 개념을 조금 더 광의적으로 생각해서 저는 이런(탈북민이라고 할게요) 탈북민 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잘 회복되어지는 것이 제가 갖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이었고..(사례3)

세 번째 연구 참여자 황진술은 복음의 의미가 단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해지는 것을 넘어 그들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복음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황진술은 자신의 일터에서 발휘할 수 있는 기관의 특성을 복음의 방법으로 제시해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립’을 실제적으로 돕는 일을 하고 있다. 그는 스토틀의 말처럼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께도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자신의 일을 통해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추진²⁸⁰⁾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를 위해 북한이탈주민들 안에 잠재되어 있는 가치와 가능성에 집중하며, 이들이 창업과 취업을 통해 경제적인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황진술은 북한이탈주민들이 통일한국의 주역으로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지원²⁸¹⁾하며 부르심에 합당한 일터 선교사로서 하나님의 비전을 실천

‘사회’는 월터 윈크(Walter Wink)가 정의한대로 하나님과 맞서려는 우상들, 다시 말해 신적 불변성을 고집하고 어떤 정당한 외침에도 자기 자신을 지키려는 정사와 권세들의 위계질서를 말한다. 김희권, “사회선교의 정당성과 전망에 대한 고찰,” 『신학과 실천』 73 (2021): 749, 779-781 참고, 757(재인용).

280) John R. W. Stott/ 정옥배 역, 『현대 사회 문제와 그리스도인의 책임』 (서울: Ivp, 2015), 264.

하고 있다.

위의 3개 유형의 연구 참여자들이 일터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자신의 일을 ‘복음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데 있다. 다음은 선교적 실천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에 관한 내용들이다.

경제 전쟁이 있더라고요. 이제 말을 해야 되는데 자꾸 못 만나게 막 애가 바쁘다든지, 막 상황이 안 돼서 이럴 때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또 기회가 안 되는데 또 어떻게든 복음을 듣게 해 달라 기도를 하죠.(사례1)

성경책이랑 해서 같이 복음 제시한 다음에 성경책 선물을 주죠. 그럴 때 그 친구들을 끝까지 내가 다 AS 해줄 수는 없지만, 어쨌든 내가 할 역할을 했다.(사례1)

첫 번째 연구 참여자 가찬미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또 이렇게 선교도 할 수 있는” 일터에서 자신을 선교사로 인식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청년들에게 5주간 입시 코칭을 진행하며 마지막 시간에는 복음을 전한다. 이러한 복음적 습관은 환대의 실천적 행동이 어떠한 선행이나 구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최종 목표가 복음에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복음은 기독교인의 신앙 뒤에 자리 잡고 있는 의미의 핵심이고, 기독교인들의 행동과 기독교인들의 사역 뒤에 자리하고 있는 의미의 핵심”²⁸²⁾이기 때문이다.

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내놓고 전도지 주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이미지 컨설팅을 하러 사람들이 오잖아요.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자기가 막 예쁘고 좋아서 오는 게 아니라, 지

281) “남북 청년들 함께 모여 북한 사회문제 해결 아이디어 모색,” 『데일리NK』 (2023.03.03.)

282) Howard W. Stone · James O. Duke/ 김상백·김용민 역, 『일상에서 신학하기』 (대전: 엘도론, 2015), 100.

금 내가 싫어서 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싫고 지금 나를 바꾸고 싶고, 그런데 이거를 내가 컬러를 바꾸면 내가 더 예뻐지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와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제가 말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앉자마자 저를 보고서는 저는 우울증을 한 4년째 겪고 있어요...(사례2)

두 번째 연구 참여자 권하연 또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뿌려진 씨”²⁸³⁾라는 디트리히 본회퍼(Dietrich Bonhoeffer)의 말에 따라 세상에서 ‘이미지 컨설턴트’로서의 직업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있다. 특히 우울증이나 백혈병 등의 아픔을 가지고 오는 어두운 고객들을 상담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공감해주고, 경청하며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한다. 실제 권하연은 “세상에 틀린 것은 없고 모두 다르다”²⁸⁴⁾는 신념을 가지고 다양한 사람들을 경험하며 그들을 강사로 양성하기도 한다. 자신을 찾아 온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거나 직장에 정착시키며 삶의 자리에서 선교적 환대를 실천하고 있다.

그 가치(하나님의 형상)가 회복되어지는 방법은 근데 그중에 하나가 이런 경제적 자립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한국의 이런 취·창업을 통해 잘 자립하는, 자립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들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의 모습이 회복되어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게 이제 저의 일터 사역인 거죠.(사례3)

세 번째 연구 참여자 황진솔은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역할을 선교적 도구로 사용하며 일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있다. 황진솔은 누군가 “왜 이런 일을 저한테 하냐고 물어보면 저는 저의 신앙적인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자연스럽게” 일을 통해 복음을 전할 수 있

283) Bonhoeffer, 『신도의 공동생활』, 11.

284) 권하연, “내외적 성장을 이끌어 컬러로 진정한 나를 만나다” 『위클리피플』 1075 (2021): 83.

게 된다고 말했다. 하나님께서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이미 자립할 수 있는 역량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해 주고, 끊임없는 섬김과 나눔을 위한 새로운 모델²⁸⁵⁾을 만들어가며, 선교의 지경을 넓히고 있다.

정리하면 평신도 연구 참여자 3개의 유형 모두는 자신의 일을 통해 세상의 일터에서 복음의 증인 된 삶을 살고 있다. 이들은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각자의 직업을 통해 섬김(service), 좋은 관계(peace), 복음사역(evangelism)을 나타내며 구체적인 사역을 실행한다.²⁸⁶⁾ 결론적으로 3명의 평신도 연구 참여자들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난 특성은 일터선교지에 대한 뚜렷한 인식과 복음전함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이들의 선교적 환대는 섬김과 친밀한 관계, 그리고 이 모든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이 ‘복음’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이들의 소명의식과 환대의 실천 방안은 복음을 전하는 데 구체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위의 내용은 평신도 3명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난 일터선교지 인식에 대한 분석 결과이다. 다음은 평신도 각각의 유형별로 나타난 선교적 환대의 실천적 특성을 에믹 관점으로 분석한 내용이다.

4.1.2 선교적 교육 유형: 가찬미²⁸⁷⁾

선교적 교육의 영역에서 북한이탈주민 청년들의 정착을 돕고 있는 가찬미는 자신의 일터의 공간과 일상에서 선교를 실천하고 있다. 가찬미

285) “더 브릿지 황진솔 대표” [CTS 피플앤 이슈]

<https://youtube.com/watch?v=90WdTkDuecI&feature=share>. (2023.04.22) 접속.

286) 방선기·임성빈·송인규, 『급변하는 직업 세계와 직장 속의 그리스도인』 (서울: Ivp, 2013), 50.

287) 가찬미 대리는 선교단에서 신앙 훈련을 받은 이후 선교사의 꿈을 키우며 지내던 중 현재는 탈북민취업센터에서 대리료 근무하며 북한이탈주민 청년들의 입시코칭과 대학입학을 돕고 있다. 가찬미, 『청년, 통일하자』, 108.

는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한 취업지원복지사로 일하면서 “탈북민들에게 취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이후 본격적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의 취업을 돕는 일을 시작해 현재 제3국출신의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에게까지 입시 코칭을 진행하고 있다.

가찬미의 선교적 행동의 특성은 한마디로 북한이탈주민 청년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친밀한 관계 형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선교적 실천 방법은 일방적이지 않으며, 상호적 관계 안에서 이루어진다. 가찬미는 북한이탈주민 청년들을 동등한 친구로 바라보며 친밀한 교제를 통해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러한 가찬미의 환대의 실천에서 예수께서 실천한 ‘친밀한 선교적 리더십’을 발견할 수 있다. 예수께서 자신의 백성들과 상호적(“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이며, 친밀(“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나도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²⁸⁸⁾하셨던 것처럼 가찬미가 보여 준 ‘친밀한 교제’는 북한이탈주민들을 정착시키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가찬미의 선교적 실천은 두 가지로 범주화 할 수 있다. 첫째는 ‘친밀한 교제’이며, 둘째는 ‘공감과 수용’이다. 자료 분석 결과 가찬미에게 가장 많이 나타난 코드는 “재밋는”이다. 북한이탈주민들과 가깝고도 친밀하게 교제하며, 그 속에서 환대를 실천하고 있는 가찬미에게 나타난 선교적 환대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4.1.2.1 친밀한 교제

가찬미가 실행한 친밀한 교제는 아래와 같은 사례를 통해 예증된다. 여기서 친밀한 교제의 본질은 상호성이다. 북한이탈주민과 동등한 관계

288) John R. W. Stott/ 한화룡·정옥배 역,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 (서울: Ivp, 2016), 374.

안에서 실행한 일상적 환대의 실천은 환대가 어떠한 특별한 영역에서 전문적으로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더욱 선교적으로 실행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애가 컴퓨터를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지금 (신청)기간도 촉박하고 해서 그때 마침 제가 재택근무 중이었는데 또 집도 가깝고 하니까, 갈까 고민을 하다가 간 거예요. 개네 집에 가서 그거(장학금신청) 하는 거 도와주고, 그래서 맛있는 거 사라고 했죠. 그래서 그 친구가 또 엄청 과하게 쓰더라구요. 그래서 맛있는 거 사라 그랬더니 돈을 써서 (조금) 그랬는데 하여간 맛있는 중국음식 먹었어요.(사례1)

가찬미에게 나타난 “친밀한 교제”의 첫 번째 특징은 ‘상호적 교제 안에서의 친밀함’이다. 가찬미가 북한이탈주민 학생들과 소통하는 모습은 권위적이거나 일방적이지 않고, 상호적 교감이 이루어지는 친구사이의 친밀감으로 형성되어 있다. **Q. 북한이탈주민들과 함께 일하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선입견은 어떠한가?**

이에 대해 가찬미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기보다 서로 간의 차이를 느낄 때, 그것을 최대한 ‘개인적인 차이’로 본다고 답했다. 가찬미는 북한이탈주민을 집단이 아닌, 한 명의 개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한국 사회의 일상 속에서 뿌리 깊게 작동되고 있는 분단 이데올로기의 경계는 북한이탈주민을 이주자 그룹들 안에서 가장 이질적인 타자 (the most distant other)로 위치시켜 개인이 아닌 구분적인 집단 (categorical group)으로 인식²⁸⁹⁾되기 쉽다. 따라서 남한 사람들과 북한이탈주민을 개인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은 서로 다른 이질감을 좁히고, 차별

289) 김성경, “분단체제가 만들어낸 ‘이방인’, 탈북자,” 44-45.

없는 친밀감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된다. 이와 관련해 가찬미는 북한이탈주민 청년들 또한 남한 친구들과 친밀하게 어울려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며, 북한이탈주민 친구들과끼리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남한 친구들과 서로 교체하는 것이 영육 간에 더 유익할 것이라고 언급했다.²⁹⁰⁾ 가찬미가 보여 준 경계를 낮춘 관계형성은 일방적이지 않으며, 상호적인 소통으로 친밀함을 유지하게 해준다.

북한이탈주민 정착 문제와 관련해 가장 큰 비극은 상호적 관계가 아닌, 일방적인 도움이 만들어 낸 부작용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환대는 한 사람의 자아가 타인의 자아에 전적으로 덧씌워버리는 폭력성을 거부하는데 그 폭력은 바로 한 사람의 생각대로 타인을 멋대로 구성하려고 강제하는 것²⁹¹⁾이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도움을 주는 행동은 진정한 환대라고 할 수 없으며, “상대방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나 자신을 그에게 맡기는 깊은 사귄과 교체”²⁹²⁾로 나타날 때 비로소 환대라고 할 수 있다.

탈북민(북한이탈주민)들에게 무조건 도움을 주는 것만이 정답은 아닌 것 같다. 그들이 우리에게 베풀 수 있는 그들만의 달란트, 재능들을 찾아 주어 그 재능을 한껏 발휘할 수 있도록 장을 만들어 주고, 함께 누리며 기뻐해 주는 것. 이것이 정말 탈북민(북한이탈주민)들이 필요한 일 아닐까?²⁹³⁾

가찬미에게 나타나는 친밀한 교류 중 두 번째는 ‘기회를 제공하는 친밀함’이다. 가찬미의 경험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 청년 충성(가명)이는 두부밥을 잘 만든다. 그래서 가찬미는 충성을 교회로 초청해 두부밥을 만들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했고, 서로 함께 두부밥을 만든 경험을 가지

290) 가찬미, 『청년, 통일하자』, 120.

291) Boersma, 『십자가, 폭력인가 환대인가』, 57.

292) 김의혁, “북한이주주민을 향한 환대의 선교,” 165.

293) 가찬미, 『청년, 통일하자』, 119.

고 있다. 이후 충성이는 스스로 여러 번 찾아와 두부밥을 만들어 주었고, 이 일을 매우 좋아했다. 가찬미는 충성이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함께 동행해 주는 친구 역할을 감당하며 친밀함을 유지했다. 이러한 환대의 실천은 “말없이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남을 돕고, 남을 메어 주는 섬김”²⁹⁴⁾으로 나타나 한 명의 북한이탈주민 청년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왔다. 가찬미는 북한이탈주민 청년들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며 그들이 외로움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남한 사회 정착을 위한 정보만을 전달하기보다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 줄 사람을 붙여 주는 것이 훨씬 중요”²⁹⁵⁾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혐오와 갈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세상을 교회의 원수로 규정하거나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그들(비그리스도인) 모두를 생명의 유업을 함께 받을 예비된 형제·자매로 만들어야 하는 것에 있다. 결국 교회 밖의 사람들을 멸망 받을 이방인으로 대하거나 그러한 무례함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없다는 것²⁹⁶⁾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선교적 환대를 실천하는 평신도들은 모든 사람을 구원의 대상으로 보고, 차별 없이 동등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가찬미는 북한이탈주민 청년들의 정착을 도우며 그들의 특징을 공통적으로 발견했다. 그 특징은 열정·변화·가능성·잠재력으로 멀리 지속적으로 끝까지 가려면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다.²⁹⁷⁾ 이와 관련해 홍정길은 “탈북민(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건강한 삶을 잘 못 산

294) Bonhoeffer, 『신도의 공동생활』, 132.

295) 가찬미, 『청년, 통일하자』, 118-119.

296) 한기채, 『한국 교회의 7가지 죄』, 172.

297) 가찬미, 『청년, 통일하자』, 133.

다”²⁹⁸)는 것을 지적하며, 북한이탈주민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가찬미는 북한이탈주민 청년들이 스스로 잘 할 수 있는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기회를 주는 방법으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북한이탈주민 청년들에게 작은 일에도 성취감을 통해 자신감을 상승시켜 주었다. 특히 “가족이 되어 줄 누군가가 절실히 필요”²⁹⁹)한 북한이탈주민 청년들과의 관계에서 가찬미에게 나타난 친밀한 교류는 친구처럼 대하는 것, 기회를 주는 것, 함께하는 것, 그리고 동등하게 대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4.1.2.2 공감과 수용

가찬미는 분명 자신만의 방식을 가지고 있지만, 북한이탈주민 청년들을 수용하고, 공감하기 위해 매 순간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선택을 했다. 가찬미의 공감과 수용 방식의 첫 번째 특징은 ‘자기성찰’이고 두 번째 특징은 ‘차별 없는 관계성’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선교 방식은 현재에도 많은 북한이탈주민 청년들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Q. 자립을 시킬 수 있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장기전으로 가야 되고, 계속 관리해줘야 되고, 실제 그 생활에 필요를 채워주다 보니까 힘든 점도 많지 않으세요?**

그 친구들이 그렇게 행동할 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당장은 내가 나도 나의 틀이 있는데 그거에 벗어난 행동을 했을 때는 좀 답답하고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지만, 어쨌든 이해를 해야죠. 이해가 안 되지만, 개네들이 그렇게 할 때는 이유가 있다. 그렇죠. 다시 또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도움이 많이 돼요.(사례1)

298) “굿 윌 스토어 양천 점, 화재 이겨내고 도약 다짐,” 「크리스천투데이」 (2023.03.24.)

299) 가찬미, 『청년, 통일하자』, 117.

가찬미는 북한이탈주민 청년들을 최대한 공감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내 상식과 내 틀(“애네는 이렇게 해야 돼”)에서 돌이키는 방식인 ‘자기성찰’을 통해 극복하고자 노력했다. 이러한 선교적 행동에 대해 스토트는 “만족을 주며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자신을 발견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섬김³⁰⁰⁾이라고 정의했다. 다시 말해 가찬미는 북한이탈주민 청년들에게 도움을 주는 섬김을 통해 자신을 성찰하는 단계로까지 나아갈 수 있었다. 때로 북한이탈주민과의 갈등의 상황을 마주할 때 가찬미의 해결방안 또한 자기성찰³⁰¹⁾이다.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아 소통이 되지 않을 때 “내 상식과 내 틀로 ‘애네는 이렇게 해야 돼’라고 생각”했다는 것을 매 순간 인지하고, 다시 타자 중심의 섬김의 자리로 돌아왔다.

누가 탈북민인지, 교회 안에 이렇게 교회 안에서는 없고 이렇게 있어요. 부서가 따로 없었고, 그냥 다 섞여서 조로 나뉘가지고, 그래서 다 돌아가면서 다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그리고, 조장이 탈북민인 조도 있고 아닌 조도 있고 그냥 그렇게 다 섞여서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사례1)

두 번째 특징인 ‘차별 없는 관계성’은 북한이탈주민 청년들을 공감하고 그들의 삶을 그대로 존중하고 수용한다. 그리스도인의 참된 환대는 주체와 객체 사이의 일방적인 구도가 아니다. 하나님의 주도적인 환대 가운데 나와 타자는 하나님의 환대의 수혜자이자, 참여자일 뿐이다. 따라서 더불어 서로 의존하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것³⁰²⁾이 진정한 환대이다.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가찬미는 환대의 주체가 하나님이란

300) Stott, 『현대 사회 문제와 그리스도인의 책임』, 257.

301) “내 상식과 내 틀로 ‘애네는 이렇게 해야 돼’ 라는 그런 틀로 생각을 했구나! 그러면서 이제 돌이키죠” (사례1)

302) 김의혁, “북한이주주민을 향한 환대의 선교,” 166.

사실을 우선적으로 인식해 환대의 실천자와 수혜자 사이에 차별 없이 동등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북한이탈주민이 환대를 경험해야 할 장소가 우선적으로 교회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교회는 북한이탈주민을 집단적으로 따로 구분시켜 그저 도와주어야 할 대상으로 한정짓는 경우가 많다. 흔히 남한성도와 북한이탈주민의 관계는 상호적 관계보다 상하관계의 수직적 구조에 가깝다. 그 결과 북한이탈주민은 스스로 자립하기보다 지속적으로 도움을 주어야 하는 대상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가찬미가 강조하는 교회의 북한이탈주민 사역의 모습은 이러한 남북한의 차이를 두는 구조에서 벗어나 ‘함께’ 어우러지는 차별 없는 관계를 말하고 있다.

제 책에도 보면 이렇게 일방적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제가 그 친구한테도 맛있는 거 사. 이렇게 하는 게 어쨌든 미안할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을 좀 없애줘야 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맛있는 거 먹고 어차피 그냥 평상시에도 맛있는 거 먹어야 되는데 그런 거 도와줬으니까요. 제가 쓸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같이 먹고 그러면 (친구처럼 그냥 똑같이) 그런 관계인 거지..(사례1)

‘차별 없는 관계성’은 타자를 공감하고 수용하는 것으로 주체와 객체의 의미가 아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기 위해 기울이는 우리의 노력조차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다.”³⁰³⁾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을 단지 구제의 대상이나 선교의 대상으로 바라본다면 상호적으로 동등한 관계를 맺기에는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그들을 한국 사회에서 형성된 자아의 합리적인 범주화에 맞추기보다, 북한이탈주민을 개별적인 존재로서 지속적으로 포착하려는 실천적 태도³⁰⁴⁾가 구현되어야 한다.

303) Volf, 『베룩과 용서』, 174.

304) 모춘홍·이상원, “타자와의 조우,” 112.

북한 선교하려면 북한에 내가 목숨 걸고 가야 되는데 못 가잖아요. 근데 애네들이 목숨 걸고 와줘서 너(회)들이 내 꿈을 지금 이루고 있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하거든요. 이렇게 기회가 있을 때 그래서 내 꿈이 이제 “북한 선교하고 이런 게 내 꿈이었는데 너희들이 목숨을 걸고 와줘 가지고 내 꿈을 이루고 있는 거야. 나는 지금 내 꿈을 이루고 있어” 이렇게..(사례1)

북한선교에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통일의 때’를 기다리며 북한에 교회를 세우고, 북한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꿈을 꾸다. 그러나 정작 한국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33,857명(남 9,492명, 여 24,365)³⁰⁵⁾의 북한이탈주민에게는 무관심하다. 그러나 가찬미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을 위한 환대를 실천하며, 이미 북한선교의 꿈을 이루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 중에 자신과 만난 청년들을 환대하면서 그 꿈을 성취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다가올 통일의 시대도 중요하지만, 현재 자신이 머물러 있는 곳을 선교지로 인식하고, 북한이탈주민들을 환대하고 있는 가찬미의 모습은 선교적 공동체로서 평신도의 핵심적인 실천³⁰⁶⁾사항을 수행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4.1.3 선교적 기업 유형: 권하연³⁰⁷⁾

선교적 기업을 운영하며 북한이탈주민 정착을 돕고 있는 권하연은

305) 『202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편람』, 8-9.

306) 가찬미는 북한이탈주민과 동등한 관점을 가지고 그들의 삶을 공감해 주고 자신 안으로 수용하는 것, 이러한 환대의 실천에 대해 “걱정스러운 시선과는 달리 이 일은 그리 어렵지 않다. 누구나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소소하게 실천해 나가며 한걸음씩 나아가면 된다”고 언급했다. 가찬미, 『청년, 통일하자』, 121.

307) 권하연 대표는 ‘블레스미 퍼스널컨설팅연구소’를 운영하며, 그 핵심가치를 ‘타자의 미(美)’에 두고 있다. 컬러를 통해 하나님이 창조하신 고유의 색을 가지고 인간의 존재 자체의 아름다움을 컬러와 융합시켜 표현하는 것으로 사람들의 자신감을 끌어올려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여성 제자를 양성하며 환대를 실천하고 있다. 권하연은 기독교적 영성을 가지고 자신의 일터를 선교적 기업으로 성장시켰을 뿐만 아니라, 미혼모와 여성들을 초월적 방법으로 섬기고 있다. 특히 북한이탈주민 여성을 자신의 일터 현장으로 환대해 지금은 독립된 형태의 강사로 배출했다.

권하연에게 나타난 환대실천은 ‘유연성 있는 태도’와 ‘진정성 있는 노력’으로 생성되었다. 북한이탈주민 여성과 문화적 차이, 갈등과 언어소통의 문제, 그리고 강사로 양성하기까지 예상하지 못한 여러 갈등의 상황에서도 권하연은 침착함을 유지하는 의연한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환대의 실천은 직장이라는 공간 안에서 이루어졌다. 직장 공간에서 실행되는 환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선교와는 다소 차이를 갖는데 직장이라는 구조 안에서 드러나지 않게 실천되는 ‘직장 속 선교’라고 정의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생계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실제 일터 현장에서 선교가 실행되는 것으로 교회나 타 선교의 현장과는 또 다른 차별성을 가진다. 이것은 분주한 일터 한 가운데서 복음이 전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 순간 긴장감이 팽배하다. 그러므로 직장 공간에서 환대의 실천은 지혜롭고 유연한 행동과 태도를 요구한다.

권하연에게 나타난 환대의 실천은 한마디로 깊은 ‘모성애적 성향’으로 드러난다. 한국 사회와 삶의 현장에서 보호 받아야 할 북한이탈주민에게 권하연의 실천적 방법은 선교적 기업을 꿈꾸는 리더들이 갖추어야 할 환대의 미덕(美德)으로 꼽을 수 있다.

권하연의 선교적 행동은 두 가지로 범주화 할 수 있다. 첫째는 ‘유연성 있는 태도’이며, 둘째는 ‘진정성 있는 노력’이다. 자료 분석 결과 권하연에게 가장 많이 나타난 코드는 “기다림”이다. 이러한 선교적 마인드로 북한이탈주민 여성 제자를 환대하며, 끈끈한 영적 모성애를 발휘하고 있

다. 무엇보다 진정성 있는 노력으로 북한이탈주민 여성을 정착시킨 권하연에게 나타난 선교적 환대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4.1.3.1 유연성 있는 태도

권하연이 실천한 선교적 지도력 중 하나는 유연성이다. 자신의 일터를 중심으로 사회에 속한 사람들과의 소통은 매 순간 유연성 있는 태도를 요구한다. 이것은 복음을 삶으로 실행할 때 타자 중심의 환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사회적 긴장감을 보여준다. 아래 일화는 권하연이 직장에서 경험하는 지도력의 한 면모이다.

어떻게 강의를 하는지 봐야 본인이 흉내를 낼 수 있으니까 “보조 강사로 오세요.” 이렇게 해서 “몇 월 며칠 몇 시 어디에서 만나요.”를 다(이야기)해요. 그래서 스케줄 픽스에 놓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네 대표님”했는데 이 사람 연락이 없어. 내가 운전해서 가고 있는데 그래서 전화하면은 자다 켜 목소리로 받고, 만나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스케줄을 메모하고 이런 것도 몰랐다고 하더라고요.(사례2)

권하연의 선교적 리더십은 끈기 있는 인내심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북한이탈주민 여성의 실제 삶을 정착시키고, 가능성을 발견하도록 꾸준히 돕는 환대로 실행되었다. 권하연의 유연성 있는 태도의 첫 번째 특징은 ‘세심한 가르침’이고 두 번째 특징은 ‘가능성의 발견’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선교 방식은 북한이탈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고 성공적인 자립으로 이끌고 있다.

퍼스널 컬러(personal color) 분야는 일반 한국 여성들이 배우기에도 다소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다. 더욱이 북한이탈주민 여성에게 컬러에

대한 낯선 언어를 배우고 가르치는 일은 양측 모두에게 많은 어려움을 초래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컨대 실제 북한은 무채색의 계열을 입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컬러와 관련된 단어나 이름의 범위가 매우 좁다.³⁰⁸⁾ 이와 관련해 권하연은 “한국에 온 지 1년여 만에 만났던 북한이탈주민 제자는 그레이 컬러가 무엇인지 몰랐을 정도”³⁰⁹⁾로 가르칠 것이 많았다고 언급했다. 비둘기색으로 불리는 회색을 이해시키고, 기본적인 색감과 용어에 대한 설명 등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해야 했다. 그러나 권하연은 끈기를 가지고 북한이탈주민 제자를 가르치고 이끌었다. 그 결과 북한이탈주민 여성 제자는 현재 독일의 BBC와 한국의 다양한 매체에서 인터뷰를 하러 올 정도로 성장한 강사³¹⁰⁾로 자립하게 되었다.

북한이탈주민 중에서도 특히 여성은 상처와 트라우마에서 회복되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³¹¹⁾된다. 북한에서도 자아존중감이 형성되지 못했고, 제3국을 통해 체류하는 기간에도 극심한 정체성 혼란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에서 겪는 북한여성들의 심각한 현실은 이들의 존재감은 물론 타자를 향한 적대감까지 형성해 남한으로 이주 후에도 인간관계와

308) 「자유아시아방송」 「탈북민 뷰티 컨설턴트가 어때서요」

<https://youtube.com/watch?v=FhdBh2LRKBA&feature=share>. (2023.05.10.) 접속.

309) 이와 관련해 윤미희는 “북한에는 무채색 계열만 입어야 되고, 컬러를(부르는) 단어나 단어가 이름이라던가 범위가 정말 넓지가 않고 좁다. 그래서 한국에 와보니 컬러의 신세계였다.”고 언급했다. <https://youtu.be/FhdBh2LRKBA>. (2023.05.13.) 접속.

310) 권하연, “컬러로 진정한 나를 만나다.” 84.

311) 북한이탈주민 여성들의 다양한 영역에서 경험되어지는 사회생활은 공포와 감시통제 하의 유사종교체험과 같다. 어린 시절부터 일평생 강요당하는 정치사상학습과 혁명교양, 그리고 계급 교양학습의 과정은 김일성주의 신자의 종교생활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공포 환경에서 북한 여성들은 서로서로 감시와 통제, 고발과 처벌, 비판과 비난, 불신과 경계 속에서 관계를 맺기 때문에 기본적인 인간관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되면서 신뢰를 잃어버린다. 이들은 탈북 이후 상당수 중국과 제3국에서의 생활 속에서 북송의 위협과 인신매매, 강제결혼으로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인 폭력을 지속적으로 경험한다. 북한을 이탈한 여성들은 안전지대를 찾아 한국에 입국하지만, 낯선 남한사회의 환경 속에 적응에 대한 압박과 이들을 바라보는 배타적인 시선,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과 외로움, 지속적인 이별과 상실의 아픔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들은 결국 트라우마 증상을 촉발시키는 단서로 작용하게 된다. 북한이탈주민 여성의 삶의 삶 자체가 폭력의 경험과 트라우마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김경숙, “탈북여성의 트라우마가 하나님 표상에 미치는 영향,”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29-1 (2018): 53.

사회적응에 큰 문제를 초래한다. 따라서 북한여성을 정착시키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심리적 접근만으로는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

네, 그러니까 되게 힘들었어요. 그니까 미희 선생님도 힘들었어요. 미희 선생님은 딱 항상 보면 표정이 앞에서 같이 얘기하면은 “네” 하는데 뭔가 딴 생각하고 있는 게 그게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내가 나중에 물어보니까,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몰라서 말뜻을.. 그러면은 그냥 대표님, 자기가 새터민(북한이탈주민)인 걸 제가 다 알고 있는데 처음부터 알고 있는데 얘기를 하면 될 텐데 그 말을 절대 안 해. 모른다는 얘기를..(사례2)

유연성 있는 태도의 두 번째 특징은 ‘가능성의 발견’이다. 권하연은 북한이탈주민 여성의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하는 통찰력과 안목을 가지고 낯선 타자를 꾸준히 양성했다.

북한이탈주민을 한국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쉽고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흔히 이론적으로 아는 것과 실제 현장에서 부딪치는 문제는 확연히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은 언어사용의 문제로 사회 정착에 큰 어려움을 겪는다. 이와 관련해 권하연은 언어소통의 문제를 겪으면서 실제 비즈니스의 현장에서 큰 어려움을 경험한다. 그러나 강의 진행에 큰 차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타자의 가능성에 집중하며, 북한이탈주민 여성을 또 다시 수용했다. **Q. 윤희희를 케어 하면서 힘든 부분이 있었겠지만, 나의 어떤 부분으로 지금까지 끌고 올 수 있었는지..**

새터민(북한이탈주민) 여성들도 어쨌든 이 사회에서 녹아들려면 이런 좀 한국, 한국 사람이라고 하기는 참 그렇지만, 그런 이미지로 보일 수 있는 스타일링과 그런 걸로도 열망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다못해 저도 일본 여행 갔을 때는 내가 일본 여성들이 하는 메이크업도 해보고 싶고, 스타일링도 해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하물며 여기 사는 사람은 더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

고, 근데 그거를 내가 (북한이탈주민들에게) 말하는 것보다 이 사람이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여성들한테 하는 게 훨씬 더 잘 스며들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 사람을 어느 정도까지는 세워주고 싶었어요.(사례2)

권하연은 윤미희 한 사람에게만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그 뒤를 따라오게 될 다수의 북한여성들을 바라보며 윤미희를 양성했다. 다양한 여성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고 싶다는 생각이 막연하게 있었지만, 북한여성 정착 분야에서는 오히려 윤미희를 통해 더 많은 북한이탈주민 여성이 자립하게 될 것이라 판단한 것이다. 이를 위해 윤미희의 정착을 지속적으로 도울 수 있었고,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었다. 윤미희 또한 자신을 수용해 주는 권하연의 ‘따스한 우정’에 나타나는 친숙성을 통해 세계의 친숙성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내면으로 관심의 전환³¹²⁾이 일어나 또 다른 타자를 위해 자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회복시킬 수 있게 된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의 사회 정착에 있어서 한국 국민들의 인식은 중요한 요인이 된다. 이를 위해 북한이탈주민 지원체계 전반에 대해 한국 국민들이 북한이탈주민들에게 갖는 인식과 태도를 고려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³¹³⁾ 특히 북한이탈주민을 대하기 전에 그들이 겪은 다양한 고통의 경험들을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 사회의 이해 부족 현상은 북한이탈주민들을 그저 도와주어야 할 대상으로 고착되어 있을 뿐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 사회와 교회의 북한이탈주민 정착문제는 타자 중심의 적극적인 환대의 방법들을 요구하고 있다. 뒤에서 더 언급하겠지만, 긴 시간 권하연이 보여 준 ‘포기하지 않는 끈기’와 ‘유연성

312) Emmanuel Levinas/ 김도형·문성원·손영창 역, 『전체성과 무한: 외재성에 대한 에세이』. (서울: 그린비출판사, 2019), 226-227.

313) 권숙도, “사회통합을 위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체계 개선방안 제안,” 71.

있는 태도’는 “계속 경험으로 몸으로 부딪혀 나가면서” 극복과정을 통해 지속될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권하연은 북한이탈주민 스스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며 끝까지 환대를 실천했다.

4.1.3.2 진정성 있는 노력

권하연의 진정성 있는 노력이 결실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고백을 보면 환대의 일상적 실천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짐작케 한다. 말없는 노력은 타자, 즉 북한이탈주민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키고 있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새터민(북한이탈주민) 제자가 한 명의 훌륭한 강사로 서기까지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저도 끈기 있게 붙잡고 함께 완성형을 만들었어요. 교육 과정 속에서 시행착오를 겪기도 했지만, 그분도 노력을 통해 점차 성장해 나갔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미지 컨설턴트라고 하는 직업은 타고난 감각과 재능도 중요하지만, 본인의 노력이 가장 필요한 일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노력밖에 없는 것 같아요. 노력을 계속해서 한계치를 넘고, 본인의 것으로 만들고, 그걸 통해 자신감을 느끼고 더 발전할 수 있는 거죠.³¹⁴⁾

권하연의 진정성 있는 노력의 첫 번째 특징은 ‘자기초월성’이고 두 번째 특징은 ‘함께 성장’이다. 이러한 선교 방식은 현재에도 꾸준히 실행되고 있으며, 북한이탈주민들의 삶을 성공적인 자립으로 이끌었다. 이러한 포기하지 않는 끈기와 진정성 있는 노력은 타자 중심의 섬김이 중심이 될 때 진정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운)미희 선생님이 먼저 저를 떠나지 않는 이상은 잡고 있을 것” 같다는 권하연의 확고한 신념에서 피조

314) 권하연, “컬러로 진정한 나를 만나다.” 84.

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속성과 여전히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선교를 베풀고 계신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게 된다. 성자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 성령을 보내신 성부와 성자 하나님의 전적인 선교 교리는 또 하나의 보내심을 포함해 확대되었다.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상 가운데 보내신 것³¹⁵⁾과 같다. 이와 유사하게 평신도 선교사로 세상으로 보냄 받은 권하연 또한 자신의 기업을 통해 윤희희 한 사람을 양육한 후 다시 북한이탈주민 여성들에게로 보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권하연의 환대의 실천은 하나님의 선교 방식을 구현해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처음부터 잘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하나 그 경험들이 쌓여서 그게 다 나의 것이 되는데 “이거 못할 거 같아요” 잠수를 타거나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고, 점점 나아지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던 것들이 저로 하여금 “그래도 이 친구는 잘 하겠구나!” 그런 부분에서 신뢰감이 생겼던 것 같아요.³¹⁶⁾

권하연의 진정성 있는 노력은 자기 초월적 환대의 실천으로 나타났다. 진정한 환대는 상대에게 왜 왔는지 또는 얼마나 머물 것인지, 머무는 동안 무엇을 할 것인지, 환대의 실천자에게 원하는 게 무엇인지, 묻거나 따지지 않고 환영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타자에게 그저 내 곁을 내어주고, 조건 없이 스스로 머물게 하는 것³¹⁷⁾처럼 권하연의 환대가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타자의 가능성에 집중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개인과 집단 사이에 연약을 지탱하고 갱신하기 위해서는 서로 자아 안에 타자를

315) David Bosch, *Transforming Mission: Paradigm Shifts in Theology of Mission*, (Maryknoll, NY.: Orbis Books, 1991) 399-400.

316) “[칭찬] 탈북민 뷰티 컨설턴트가 어때서요” 「자유아시아방송」
<https://youtu.be/FhdBh2LRKBA>. (2023.04.01.) 접속.

317) 최진우, 『환대』, 42-43.

위한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타자의 존재에 비추어 자아를 재조정하는 것이다.³¹⁸⁾ 다시 말해 자신의 기업의 공간을 통해 타자인 윤미회를 향한 권하연의 노력은 끊임없는 자아의 재조정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하나님의 선교는 그분의 포용을 먼저 경험한 평신도들이 그 안에 다른 이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 심지어 원수까지 초대³¹⁹⁾해 들여야 하는 것을 강조한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교를 실천하는 평신도는 자신의 힘이 아니라, 초월적인 기다림과 끈기를 가지고 선교적 삶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할 때 진정성 있는 노력은 성취되고, 환대를 먼저 경험한 수혜자로서 타자를 향한 하나님의 환대에 참여³²⁰⁾하는 특권을 누리게 된다.

제가 그런 과정을 하면은 이제 미회 선생님의 강의를 넣어줄 수 있잖아요. 제가 그런 일을 하는 이유는 제가 강의를 직접 하지 않아도 나한테 배운 사람들을 연계를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회 선생님도 하고 지금 P 대학교에서 강의하시는 강사님들은 다 저희 소속 강사님들이거든요. 그렇게 계속 이렇게 뻗쳐 나가려고..(사례2)

두 번째 특징인 ‘함께 성장’은 ‘타자중심’에서 기인한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직원들을 고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특히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는 몇몇의 비인격적인 고용주들로 인해 북한이탈주민은 직장에서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는다. 북한이탈주민은 한국 사람과 똑같은 직업적인 능력이나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남한 사람들과 똑같은 취업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이유로 인한 오해나 편견으로 고용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³²¹⁾ 그러나 권하연은

318) Volf, 『배제와 포용』, 244.

319) Ibid., 204.

320) 김의혁, “북한이주주민을 향한 환대의 선교,” 165-167.

북한이탈주민이라고 해서 차별하기보다 오히려 사회적인 일들을 연계해 강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것은 함께 성장하길 원하는 공동체의식으로 북한이탈주민이라고 해서 편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개인의 역량을 발견해 성장을 돕는 것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블레스미를 통해 나누고 돕는 삶을 살고 싶어요. 사회적으로 선한 영향을 주고, 고객들의 기억 속에 컬러로 나를 만날 수 있게 해주는 기업으로 남고 싶습니다.³²²⁾

권하연의 기업은 “비그리스도인들과 대부분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곳으로서 복음 전도와 변혁을 위한 거대한 기회를 제공하는 곳”³²³⁾이다. 이곳은 북한이탈주민 뿐 아니라,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출입할 수 있는 환대의 공간으로서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들을 돌보고 섬기는 일을 행한다. 이러한 환대의 실천은 상호적 관계 안에서 실천되며, 그렇게 할 때 타자의 존재성을 지켜줄 수 있다. 권하연은 가장 접근하기 힘든 경계에 놓인 북한이탈주민 여성을 통해 ‘함께 완성형’이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차별과 편견의 벽을 허물었다. “북한이탈주민의 개별적이고 이질적 삶의 모습은 타자의 얼굴을 있는 그대로 대면하고 환대”³²⁴⁾하는 평신도의 상호 협력과 끈기 있는 노력으로 가능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321) 프랑스 출신의 사진가 팀 프랑코(Tim Franco)는 북한이탈주민 15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본문은 그 내용의 일부를 발췌했다. “북한 이야기는 한국에서 터부시?...사진기에 담은 탈북민의 삶,” 「BBC」 (2023.02.17.)

322) 권하연은 필자와의 인터뷰에서 매순간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예전부터도 예배자, 나의 발걸음이 가는 그 모든 곳에서 그런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들을 알고는 있었지만, 또 요즘에 또 그게 되게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느 곳에 강의장을 가든 회사에 있던 친구 엄마들을 만나던 어느 곳에 있던 그런 예배자의 마음으로 있으면 또 그런 향기를 풍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사례2)

323) Dowsett, 『케이프타운 서약』, 70-72.

324) 모춘홍·이상원, “타자와의 조우,” 116.

4.1.4 선교적 비즈니스 유형: 황진술³²⁵⁾

가찬미나 권하연과 달리 이제부터 다루는 선교적 환대는 다소 복잡적이고 중층적이다. 개발도상국 사람들을 창업가로 훈련시키는 일에 투신하면서도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자립 정착을 돕는 데 오래 투신된 황진술의 사례는 평신도 선교적 환대가 얼마나 풍요롭게 결실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증시(證示)한다.

우리가 개발도상국의 사람들을 도와줄 때 그들을 불쌍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도와주기보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끄집어내는 것, 그들의 잠재 가능성을 보는 것, 그래서 그들 안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국제개발 협력을 해보고 싶다는 마음으로 시작했다.³²⁶⁾

황진술의 창업핵심가치는 “그대로를 존중”과 “수평적 협력”으로 나와 다른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생성된 관계를 통해 생산하는 수평적 협력을 강조한다. 이것은 지속 가능한 사회적인 문제를 발생시키는 사람들과 풀어가는 사람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지속 가능한 것을 효과적으로 풀어내는 것, 즉 가치나 잠재 가능성을 발견해 조직을 통해서 함께 협력해 나가는 것³²⁷⁾을 말한

325) 황진술 대표는 한국에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모습을 보면서 이들의 성장을 지원해 도와야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고민하던 중 지금의 더 브릿지를 창업했다. 더 브릿지는 개발도상국과 북한이탈주민들과의 수평적 협력을 통해서 지구마을의 잠재 가능성을 함께 높여가고 있는 글로벌 플랫폼이다.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국내외 취약계층의 가치와 잠재력과 가능성에 집중해 시민주도의 사회적 금융을 창출해 이것을 통해 자립을 지원하고 더불어 함께 성장한다는 미션을 가지고 있다. 「시사오늘」 [청년지침서3②] 황진술 “탈북민과의 협력 사례, 통일에 꼭 필요해,” (2020.02.12.)

326) “더 브릿지 CEO 황진술 대표 인터뷰” 「Goodtv News」
<https://youtube.com/watch?v=fCOXH0ZfLJU&feature=share>. (2023.04.05.) 접속.

327) “탈북민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임팩트 기부,’ 사회적기업 더 브릿지,” 「사례뉴스」 (2022.06.22).

다. 황진술은 북한이탈주민의 존재의 가치를 가장 귀하게 바라보고, 그들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것을 목표로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한국 사회의 부정적 인식은 북한이탈주민의 사회 정착에 큰 지장을 초래한다. 한국 사회는 북한이탈주민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거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보다 그들을 ‘도와줘야 하는 대상’으로 인식해 그들 안에 참된 잠재력과 가치가 발견되기 어렵다. 황진술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깨기 위한 노력으로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지속적으로 기회를 부여하고 무엇보다 ‘함께 성장’해 나가며 실제적인 자립을 목표로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황진술의 환대의 방법은 두 가지로 범주화 할 수 있다. 첫째는 ‘그대로를 존중’하는 것이고, 둘째는 ‘수평적 협력’이다. 자료 분석 결과 황진술에게 가장 많이 나타난 코드는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다. 이러한 선교적 마인드로 북한이탈주민을 환대하며 그들 안의 가장 귀한 가치를 이끌어 자립을 돕는 것은 평신도들에게 큰 도전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북한이탈주민을 그대로를 존중하고, 그들과 수평적 협력을 통해 사회 정착을 돕는 황진술에게 나타난 행동은 다음과 같다.

4.1.4.1 그대로를 존중

하나님의 형상회복이라는 간결하고 명료한 가치를 내걸고 개도국 지도자들의 훈련과 북한이탈주민 남한 정착을 체계적으로 돕는 황진술은 창세기 1:27-28에서 자신의 선교적 사명을 발견했다.

한국의 이런 취·창업을 통해 잘 자립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들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의 모습이 회복되어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게 이

제 저의 일터 사역인 거죠.(사례3)

황진술의 선교의 초점은 북한이탈주민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의 취·창업을 도우며, 그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환대를 실천하고 있다. 황진술이 말하는 ‘그대로를 존중’의 방식 첫 번째 특징은 ‘경험의 기회제공’이고 두 번째 특징은 ‘잠재력의 발견’이다. 이러한 환대는 현재에도 꾸준히 실행되어 북한이탈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고, 성공적인 자립으로 이끌고 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소중한 존재, 즉 하나님이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속성을 닮은 존재, 하나님의 창조사역에 영광스럽게 동참하는 하나님의 동역자”³²⁸⁾인 것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러한 선교적 평신도들은 북한이탈주민 또한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존재인 것을 아는 사람들이다. 황진술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북한이탈주민 안에 참된 가치를 발견해 주고 그들 스스로 자립하는 것을 통해 그들이 우리와 함께 협력하는 동등한 관계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잘 자립하거나 그런 사람들의 요구는 그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나 그냥 동등하게 대해줘. 내가 불쌍한 취급 받기도 싫고, 난 다 싫고,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만 대해줘. 그게 동일하게 저한테 전달되는 메시지인 거예요. 그리고 저를 좋아하는 더 브릿지를 좋아하는 탈북민(북한이탈주민)들이 저희를 좋아하는 이유도 그냥 그거예요. 더 브릿지는 그냥 동등하게 나를 친구처럼 대해주는 게 너무 좋다.(사례3)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북한이탈주민은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고정

328) 주승중, “선교적 삶을 향한 보내심(27): 일터에서 만나는 하나님 ①,” <https://youtube.com/live/RNjAk1V4vY?feature=share>. (2023.04.07.) 접속.

된 인식이 대부분이다. 북한이탈주민들과 마주하는 것이 “나와 다른 존재를 만나는 신비로운 사건이 되기보다 타자를 대상화하고 차별화하여 전체성으로 종속하는, 즉 타자에 대한 주체의 지배”³²⁹⁾적인 특성을 지니게 된다. 한국 사회에서 북한이탈주민은 우리와 동등한 존재이지만, 열등한 소수집단(minority group)³³⁰⁾으로 분류되어 특히 생계문제와 직결된 취업문제 등에 있어서 한국 사람들과 차별을 경험한다.

북한 사회는 밖에서 볼 때 무계급사회, 즉 평등사회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 남한보다 더 엄격한 신분제사회이다. 그러므로 북한이탈주민이 오랜 시간 동안 사회주의 체제에서 살다가 갑작스레 남한의 자본주의 체제에 살게 되면서 사고의 전환이 순조롭게 이뤄진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³³¹⁾ 더욱이 한국으로 이주 후 출신 성분 때문에 겪게 되는 갖가지 차별 경험은 사회 적응에 큰 어려움을 초래한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에서 왔다는 사실을 숨기거나 사람들을 회피하며 사회로부터 위축되는 경험을 반복적으로 축적하게 된다.

황진술은 북한이탈주민이 사회적 어려움을 딛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과 동등한 친구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들이 북한에서 왔다는 이유로 한국 사람들과 차별을 두거나 특별한 존재로 생각하지 않는다. 예컨대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무조건 불쌍한 사람으로 취급하면서 참아주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부분은 가르치기도 한다. 또한 일방적인 지원보다는 상호적인 관계 안에서 친구처럼 지내며 때로 북한이

329) 홍창현, “북한이탈주민과 한국 교회,” 337.

330) 권수현은 다수와 소수의 관점에서 수적으로 볼 때 북한이탈주민은 (한국 사회에서) 절대적 소수집단이며, 사회적 권력, 부, 지위 등에 있어서도 다수의 한국 사람과 비교해 열등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수집단이라고 보았다. 권수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남한국민의 태도,” 131.

331) 북한은 주민들 전체를 3개의 핵심계층(핵심·동요·복잡)과 51개의 성분으로 분류한다. 동요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은 교양 포섭하고, 적대계층에 속한 사람은 제재를 가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윤인진, “탈북자문제의 실태와 분석,” 10.

탈주민 친구들에게 밥을 얻어먹기도 한다. 이러한 상호적 관계 속에서 수혜자로만 머물렀던 북한이탈주민들은 자신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새로운 인식을 형성하게 된다. 결국 북한이탈주민은 환대의 수혜자에서 환대의 실천자로서 간접적인 경험의 기회를 제공받는 것이다.

나와 다른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그걸 바탕으로 생성된 관계를 통해 생산하는 것. 수평적 협력이 중요하다. 지속 가능한 사회 문제를 발생시키는 사람과 풀어나가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지속 가능한 것을 효과적으로 풀어나가는 것. 가치나 잠재 가능성을 조직을 통해 함께 협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³³²⁾

두 번째 특징인 ‘잠재력의 발견’은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북한이탈주민들 또한 사회에서 충분히 자신의 역량을 개발해 정착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북한이탈주민 개개인의 특성과 재능은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선물이지만, 그동안 북한이라는 체제에 억눌려 발견되지 못했다. 북한이탈주민의 잠재력 발견은 개인의 존재가치 회복은 물론 한국 사회 정착에 큰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황진솔은 “탈북민이나 개발도상국의 사람들을 가난하고 취약계층이라는 틀 속에서 바라보는 것을 넘어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 잠재력에 집중해서 극대화하여 가치에 집중”³³³⁾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젊은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자신들의 일상의 문제(직업, 건강, 복지, 교육 등)에 관심이 기울³³⁴⁾이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문제 또한 다양하게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332) “탈북민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임팩트 기부’, 사회적 기업 더 브릿지,” 「사레뉴스」 (2021.04.29).

333) “사단법인 더 브릿지 황진솔 대표님 인터뷰 현장 속으로~!” 「CSR YOUTH Forum」 <https://naver.me/FDXf91Jz>. (2023.04.30.) 접속.

334) 김성경, “분단체제가 만들어 낸 이방인 탈북자,” 57.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북한이탈주민의 이주 원인은 1990년대 식량위기의 환경적 재해의 피해를 넘어 더 나은 미래와 자기 발전을 통해 질 높은 삶을 살기 위한 ‘경제적 이주’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이다.³³⁵⁾

북한이탈주민은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존재’나 ‘경제적 수혜자’ 또는 ‘교회의 논리 강화를 위한 도구’³³⁶⁾가 아니다. 특히 하나님의 선교의 원리 아래에서 교회는 선교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종교적인 배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³³⁷⁾ 그러한 의미에서 황진술의 환대의 실천은 그들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킨다는 본질적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의 선교의 비전을 온전히 실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나님의 선교는 세상에서 일그러져 버린 사람들의 형상을 창조된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데 목적을 두기 때문이다. 따라서 황진술이 실천하는 북한이탈주민 안에 하나님의 형상 회복은 하나님의 선교에 입각한 환대의 실천이며, 타자 중심의 구체적인 선교적 환대라고 평가할 수 있다.

4.1.4.2 수평적 협력

황진술의 수평적 협력방식의 첫 번째 특징은 ‘좋은 친구’이고 두 번

335) 김성경은 북한이탈주민 관련 연구가 양적 방법에 치중되어 있는 것을 지적하며 “북한이탈주민의 정체성과 남한사회의 적응 여부에 대한 통계적 자료의 축적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을 수 있으나 가설의 범주를 인위적으로 설정하고 있는 양적 방법은 이주와 새로운 사회에서의 살아 가는 의미의 다층성을 포착해내기 어렵다는 점에서 한계가 분명하다”고 언급했다. 김성경, “북한이탈주민 일상연구와 이주연구 패러다임 신고찰,” 6.

336) 북한이탈주민은 한반도의 이슈와 관련해서 교단의 거대담론의 중심에서 정책과 북한과의 관계성 속의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기도 하고, 교회의 자기충돌적인 모습에 의해서 배제와 동화의 경험을 동시에 겪고 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은 선교를 위해 교회의 제공에 의해서 경제적 수혜자가 되기도 하고, 동시에 교회의 논리 강화를 위한 도구로 사용되기도 한다. 홍창현, “북한이탈주민과 한국 교회,” 350.

337) 김희권, “예레미야 29장 1-14절에 나타난 뿌리 뽑힌 이주 난민 생존전략 고찰(考察) 「신학과 실천」 78 (2022): 656.

째 특징은 ‘가능성 모색’이다. 이러한 선교 방식은 현재까지 꾸준히 실천되고 있으며, 북한이탈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해 주는 성공적 자립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주민 선교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성도들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지역사회의 이주민 현황을 살피고 우리 교회에 적합한 이주민 선교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사람을 움직이게 하셔서 당신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하나님의 선교를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³³⁸⁾

교회는 지속적인 성장과 유지, 내부 중심으로 치닫는 성숙이원론의 오랜 습관으로 세상과 점차 분리되었다. 이에 따라 교회 밖 성도들의 직장 and 일터의 현장은 세속적인 것으로 치부될 수밖에 없었다. 특히 교회에서 어느 정도 훈련된 성도들을 사회의 현장으로 파송해서 복음을 확장시켜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세상과 협력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황진술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을 거듭 강조했다. 세속 직업을 가지고 있는 평신도들과 직업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약자들과의 접촉점에서 협력적인 복음의 가치가 생성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즈니스의 상황은 비신자들과 꾸준히 일상의 관계를 맺게 해주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을 삶으로 보여주는 기회를 제공³³⁹⁾할 수 있게 해준다.

저는 그 관계성을 친구 관계를 형성하는 게 수평적인 관계를 형성시키는 게 제 미션이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하는 틀이 취·창업일 뿐이에요. 그래서 취업을 한다고 그러면 취업 관련된 이력서 쓰고, 자소서 쓰는 거를 친구로서

338) 김승욱, “이주민 선교에 활짝 열린 교회,” 「할렐루야 신문」 618 (2021): 20.

339) 이찬욱, “로잔운동의 총체적 선교와 선교지 Business As Mission 기업사례 간의 연속성 연구,” 「복음과 선교」 55 (2021): 333.

도와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창업한다고 그러면 창업 관련된 제안서를 같이 써주고 마케팅 전문성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함께 친구로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사례3)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를 그 일터로 보내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고, 우리 일터와 직장의 진정한 고용주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³⁴⁰⁾할 때 환대가 필요한 사람들과 수평적 관계 안에서 좋은 친구 관계를 맺을 수 있다. 평신도는 주로 교회의 조직 안에서만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일상 업무와 공공 생활 안에서 전문적인 기술의 능력을 사용하며, 선교에 대한 전적인 헌신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평신도 모두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모든 은사들을 사용³⁴¹⁾하면서 세상과 낯선 타자를 향해 환대를 실천해야 한다.

황진솔은 북한이탈주민들과 ‘좋은 친구’³⁴²⁾특히 취업과 창업지원을 도우며, 임팩트 기부를 통한 자금지원, 인큐베이팅 프로그램과 함께 통일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과 한 팀을 만들어서 기업의 성장을 돕도록 브릿징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과 한국인 취업 선배들이 서로에게 정서적 지지자,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연결해 준다. 황진솔은 그들이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언제든지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도록 “교회와 세상 사이의 다리 놓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황진솔의 세상에서의 누룩³⁴³⁾의 사명은 북한이탈주민들과의 연결점을

340) 주승중, “선교적 삶을 향한 보내심(27): 일터에서 만나는 하나님 ②,” <https://youtube.com/live/OHdN1GhCdyY?feature=share>. (2023.05.11.) 접속.

341) Norman Goodall ed., *Uppsala Speaks: Section Reports of the Fourth Assembly of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Uppsala 1968*, Geneva: World Council of Churches, 1968, 33.

342) 좋은 친구 관계에 대해 황진솔은 “필요한 어떤 자기 전문성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도울 수도 있고, 그런 좋은 수평적 관계성 안에서 그런 역할들인 거죠. 평신도도 할 수 있는 역할들”이라고 언급했다. (사례3)

찾으며 지속적으로 실천되고 있다.

일반 평신도들한테 이런 탈북민(북한이탈주민) 분들을 연결해 주고 어떻게 소통해야 되는지를 교육하는 게 저희의 미션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해를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탈북민(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도 떨어지고 어떻게 경제적으로 자립하거나 해야 하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역할을 하는 게 저희 역할이거든요.(사례3)

김현경은 정상인이 ‘사회’를 대표해서 ‘소외된 이들’을 찾아갈 때 그들을 덤석 껴안음으로써 자기가 그 사람들에게 대해 아무런 편견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과시³⁴⁴⁾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행동은 타자 중심의 환대가 아니라, 자기중심적인 환대로 대상 안에 있는 무한한 잠재력과 가치에 집중하기보다 그들을 ‘나보다 불쌍한 사람’, 또는 ‘도와주어야 할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잘못된 인식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우선적으로 타자와 동등한 관계 안에서 환대를 실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남는다. 이를 위해 황진솔은 평신도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선교를 실천하고 북한이탈주민, 개발도상국 사람들과 협력을 이루어갈 수 있을지 교육하고 있다. 이것은 교회에서 실행되기 미흡한 부분으로 실제 현장 경험을 통해 평신도들의 일터 선교를 도울 수 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더욱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기존의 선교방식은 수평적이고 동등한 관계를 형성하기보다 수직적이고 불평등한 구조 안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유익한 선교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평신도들에게 적절한 현장 교육과 실제적인 경험을 통해 선교적으로 준비시키고 파송하는 것은 일상 선교의 새로운 출발점이

343) 한국일, “선교적 교회의 실천적 모델과 원리: 한국교회 현장으로부터 배우는 선교적 교회,” 『선교신학』 36 (2014): 394-395.

344) 김현경, 『사람, 장소, 환대』 (서울: 문학과지성사, 2015), 123.

될 수 있다.

지속 가능한 사회 문제를 발생시키는 사람과 풀어가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지속 가능한 것을 효과적으로 풀어가는 것. 가치나 잠재 가능성을 조직을 통해 함께 협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³⁴⁵⁾

황진솔은 북한이탈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오히려 그들과의 상호관계 안에서 배울 점이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러한 공감과 책무는 결국 둘 사이에 연대와 공존의 가능성을 모색³⁴⁶⁾하게 해주는 데 황진솔의 환대의 실천은 철저히 타자 중심에 있기 때문에 진정성 있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그들과 좋은 친구관계를 형성했고, 자연스럽게 그들 안의 잠재력을 발견하는 것으로 실현되었다. 더 나아가 그 가치를 통해 사람들과 ‘함께’ 살아낼 수 있도록 수평적 협력 방식을 고안해 냈다. 이러한 선교적 실행은 가장 이질적인 타자(the most distant other)와의 이중적 상황³⁴⁷⁾을 뛰어넘는 실제적인 방법이라 평가할 수 있다.

4.2 북한이탈주민 사례분석 결과

평신도의 환대실천 분석의 에티컬 접근은 내부자인 평신도에게 나타난 환대의 실천사례 분석에 대해 외부적 시각을 도입해 연구자의 입장과 기존의 이론적 연구들에서 발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결과를 도출해 준다. 환대의 실천자의 행동을 환대를 경험한 수혜자의 관점에서 분석하

345) “탈북민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임팩트 기부, 사회적 기업 더 브릿지,” 「사례뉴스」 (2021.04.29.) <https://naver.me/xkqwYLN2>.

346) 김성경, “공감의 윤리, 그 (불)가능성,” 140.

347) 김성경, “분단체제가 만들어 낸 ‘이방인,’ 탈북자,” 44-45.

려는 시도는 일반적으로 인식하지 못했던 타자 중심의 다양한 환대의 실천방안을 발견하게 해주고, 조금 더 타자의 입장을 고려할 수 있도록 통찰을 제공한다. 다시 말해 타자 중심의 환대의 실제적인 방법은 환대 실천자와 연구자의 성찰을 촉구하고, 연구자와 연구대상자의 공감 (불)가능성의 의미를 확인³⁴⁸⁾할 수 있도록 한다.

본 연구는 환대의 수혜자가 되는 북한이탈주민의 면담에 나타난 전형적인 에티크 표현을 토대로 범주화 작업을 진행했다. 면담 내용의 전사 후 반복되게 나타나는 단어와 문장을 따로 분류하고, 비슷한 개념별로 묶어 하위범주를 구성했다. 이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인터뷰 범주 6개의 최종범주를 도출했다. 북한이탈주민의 면담내용에 대해 범주화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2] 북한이탈주민 인터뷰 범주의 구성

연구 참여자의 전형적 표현	참여자의 경험	키워드	주요주제	유형
눈높이에서 책 읽기, 포기하지 않게 만드는, 누군가 끌어주는 사람이 없었다면	체계적으로 이끌어줌, 부모역할, 포기하지 않음	끈기, 동기부여, 가족, 연결, 단호함, 진심, 책임, 관심	관심의 연결고리& 진정성을 겸비한 부모역할	가찬미
다 기다려 주고 존칭을 해서 불러주시고 더해보자 모를 수 있어 당연해	타자 존중, 포기하지 않음, 이끌어줌, 타자의 입장 이해	기다림, 끈기, 공감, 존중, 기대, 인정, 품격, 기회	포기하지 않는 기다림& 품격 있는 언어	권하연
한결같이, 장점을 더 부각해서 보고, 잠재력을	자신을 드러내지 않음, 가능성을	겸손, 통찰력, 만족, 실천, 긍휼, 지혜,	타자 중심의 자기성찰&	황진술

348) 김성경, “공감과 윤리, 그 (불)가능성,” 112.

보는, 필요한 부분을 계속 공급	발견해 연결, 필요를 파악, 실천적인 행동	순발력, 통로	지속적인 연결의 공급자	
-------------------------	-------------------------------	---------	--------------------	--

4.2.1 선교적 교육 유형: 가찬미

가찬미의 에딕 분석 범주는 친밀한 교제 & 공감과 수용인데 반해 에딕 분석은 관심의 연결고리 & 진정성을 겸비한 부모역할로 생성되었다. 북한이탈주민 이다은의 관점으로 볼 때 가찬미의 환대의 실천은 가족과 같은 친밀함으로 형성되었다.

가찬미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은 개인적이고 공동체적인 메시아적인 삶의 방식을 추구³⁴⁹⁾하기 때문에 낯선 사람과 친밀함을 유지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해 진정으로 자신 안에 타자의 공간을 만들어 지속적인 관심의 연결고리를 통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도록 한 것이다. 결국 가찬미는 자신의 일터 공간에서 펼쳐지는 일상적인 대면과 소통을 추구할 수 있는 북한이탈주민을 자아의 대상으로 격하시킨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나와 다른 독립된 존재로서 대했다.³⁵⁰⁾ 따라서 북한이탈주민 대부분이 한국 이주 초기에 경험하는 차별과 편견의 문제 속에서도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자아 정체성이 충분히 확립될 수 있었다.

평신도의 환대를 경험한 북한이탈주민 이다은³⁵¹⁾에게 나타난 정착 과정 패턴 범주는 경험·배움·다양성이다. 이다은은 한국의 정착 과정에

349) Jürgen Moltmann/ 이신건 역,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 메시아적 교회론』, 408.

350) 최진우, 『환대』, 56.

351) 이다은은 2019년에 한국으로 입국해 불과 4년 만에 어느 정도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고 있다. 이다은은 MZ세대로서 한국의 문화에 빠르게 적응하며, 오히려 한국을 이해하고, 현재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 물론 누구나 그렇듯 정착초기에 우여곡절을 겪으며 어려움에 봉착했지만, 그럴 때마다 “나답게, 너답게”를 외치며 현재 K대에 진학중이다.

서 경험의 중요성, 배움의 중요성, 다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첫째, 정착 초기 ‘다양한 경험’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래서 먼저 나는 선배들한테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잘 정착할 수 있을까? 무슨 일을 하면 괜찮을까? 또 나이 대별로 다 다르니까 그래서 언니들은 그래요 나이가 어리면 제일 먼저 와가지고 사투리부터 고치라고 왜냐하면 이게 말부터 네 티가 나니까..(사례1-1)

정착 초기 “언어도 그렇고 막 외래어도 많이 섞고 하니까 일을 하려면 많이 그 과정이 힘든데”도 불구하고 이다은은 “알바를 서비스 ‘말하는 거’ 많이 말하려고 많이 말하는” 일을 선택해 다양한 경험을 통해 상황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북한 언어를 사용하면 “누구한테 주목 받는다는 자체”가 싫었지만, 조선족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나의 신분을 내가 왜 조선족이라 해야 돼? 네, 저는 북한에서 왔어요”라고 당당하게 밝혔다. 이다은은 정착 초기 편견을 경험하면서 배움에 대한 갈망을 가지게 되었다.

교회에 가서 그때 당시에 제가 처음부터 대학교 가고 싶었었는데 나와서 좀 돈 벌고 싶다 해가지고 약간 회사 알바 다니고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다니다 보니까, ‘아 나 아무리 여기서 뭐 회사 다녀도 그냥 정직원으로 쓰겠다’고 했었거든요. 회사원이 어떠냐고 근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앞으로 일할 나이도 많고 하는데 아무리 여기서 평생 뭐 그런 거 없으니까 공부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겨서 그때 사이버를 생각했었어요. 그렇게 고민 중에 제가 교회에 나갔다가 우리 선생님을 만난 거예요.(사례1-1)

둘째, 이다은은 ‘정착 적응기’에 ‘배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다은은 배움의 길을 택하고 미래를 준비하며 고민하던 중 가찬미를 통해서 대학을 준비하게 되었고, 현재는 대학생이 되었다. 이다은은 그동안 쌓아

왔던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 오히려 대학생들의 현장에서도 자신감을 키울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남한 사람들을 이해하고, 나와 다른 타자로 바라보며, 자신의 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길러냈다.

대학교 가면(이제 두 달밖에 안 됐지만) 팀플도 많이 하고, 또 교제도 서로 소통도 많이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나만 잘났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또 그게 그래서 그냥 서로서로 내려놓고 같이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사례1-1)

셋째, 이다은의 ‘정착 안정기’는 ‘다양성을 깨닫는 것’이다. 이다은은 대학에 입학하면서 서로가 ‘함께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한국 정착 초기에는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이다은은 “처음에는 사실 ‘아, 나만 열심히 살면 되지’ 그랬었는데 이거 나만 열심히 살아서 되는 거 아니야 다 같이 잘 살고, 다 함께 해야 이게 잘 살겠다.”로 변화되어 ‘자기중심적 자아’가 ‘타자 중심’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보였다. 이다은은 또 다른 타자와의 관계를 높여가는 필요성을 느끼고, “다 같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공동체적인 마음을 지니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해 이다은이 경험하는 공동체성은 자발적이었다는 데서 북한에서 경험했던 관심을 사칭한 통제의 연결고리와는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4.2.1.1 지속적인 ‘관심’의 연결고리

가찬미의 ‘선교적 도구’인 교육 분야의 ‘진로 코칭’은 일시적이거나 한시적이지 않고 지속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리더십은 타자에게 신뢰를 형성하고, 타자의 삶을 관찰하고 관리하는 책임이 부여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서로 연합되는 특성을 지닌다. 이와 관련해 찰스 밴

엥겐(Charles Van Engen)의 저서 “하나님의 선교적 교회, God’s Missionary People”에 등장하는 리더십은 하나의 연합적인 사건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나아가 선교적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역에 성령으로 감동되어 동참하도록 하는 연합³⁵²⁾적 특성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대리님 만나서 이렇게 도와주고 이려고 하니까 또 저 같은 학생도 있고 또 그래서 나만 혼자서 잘 해서 될 일이 아니라, 다 같이 내가 또 잘 돼 내가 또 잘 돼야 또 나 같은 친구가 있으면 내가 얘기해 주고 또 이렇게 소개도 해주고 그리고 또 학교도 이번에 얼마 되지는 않지만..(사례1-1)

북한체제는 철저한 감시망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집단적 특성을 지닌다. 이러한 연결은 억압적 강제기구와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가 북한 주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을 통제하는 것으로 특히 주민들이 정치적인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거나 조직적, 집단적인 저항을 도모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사회이다.³⁵³⁾ 이와 같은 사회적 구조가 가져다주는 타자에 대한 감시와 비판, 불신으로 가득한 학습된 생활은 한국으로의 이주 후에도 다양한 사회적 부적응의 문제들로 나타난다. 특히 법적으로는 남한의 국민이 되지만, 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은 북한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혼란 속에서 살고 있다.³⁵⁴⁾

북한의 사회적 특성이 매우 자기중심적인 데 반해 가찬미가 실행한 관심의 연결고리는 철저히 타자 중심적이다. 록스버그(Alan J. Roxburgh)와 로마눅(Fred Romanuk)이 제시한 것처럼 선교적 리더십을 발전시

352) Charles Van Engen/ 임윤택 역, 『하나님의 선교적 교회』 (서울: CLC, 2014), 278-279.

353) 조정아, “북한 주민의 “일상의 저항”: 저항 유형과 체제와의 상호작용,” 『북한학연구』 7-1 (2011): 33.

354) 정병호 외 역, 『웰컴투 코리아: 북조선 사람들의 남한살이』 (서울: 한양대학교 출판부, 2006), 87.

키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회중이 여전한 대상’이라는 것³⁵⁵⁾인데 이것은 북한의 독재정권 체제 유지를 위한 ‘자기중심적인 리더십’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

제가 순순히 교회 가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대리님 만나서 대학교 가게 됐다. 그것도 내가 그냥 생각뿐이었지 이렇게 누군가가 막 이렇게 이끌어 준 사람이 없었으면..(사례1-1)

북한이탈주민은 이주하기 전 한국에 대한 기대와 열망을 가지지만, 현실에서 경험하는 한국에서의 삶은 무조건적인 자유와 행복만을 주는 것은 아니다. 직접적으로 부딪치는 차별과 편견의 반복되는 사회적 경험은 오히려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았다. 특히 한국 정착 초기에 심리적 어려움(무력감·희망상실·불면·정신증상 등)³⁵⁶⁾이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것은 북한체제와 전혀 다른 문화에 적응해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북한사람이라는 편견의 시선 때문에 사회생활을 회피하려는 회피적 저항(avoidance protest)³⁵⁷⁾형태로 볼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회피 현상이 사회와 다를 바 없이 교회 안에서도 나타나 북한이탈주민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심각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교회에서 드리는 ‘반복적인 예배’와 ‘일방적인 지원’ 방식은 상호적 관계 형성의 부재로 지

355) Alan J. Roxburgh & Fred Romanuk, *The Missional Leadership: Equipping Your Church to Reach a Changing World*. San Francisco: Jossey-Bass, (2006): 10.

356) 임태완은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에서 새로운 삶에 대처할 때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심리적 문제로 무력감과 희망상실, 불면증과 정신증상 등을 설명했다. 임태완, “남북통합 과정의 심리사회적 위기분석 북한이탈주민의 생애위기에 대한 질적 연구,” 27.

357) 박길성의 농민 저항 관련 논문은 일상적 저항이 사회역사적 조건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표현되는 것 중 회피적 저항 형태를 설명하고 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이것은 신비하고 마술적 저항의 종교 형성과 나란히 농민들의 고통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환상적 세계를 만들려는 시도”라고 언급했다. J. Scott, *Weapons of the Weak: Everyday Forms of Peasant Resistance*, New Haven: Yale Univ. Press, (1985), 245; 박길성, “일상적 저항의 정치: 농민의 생존전략, 계급형성, 그리고 사회변동” 『경제와 사회』 23 (1994): 248; 조정아, “북한 주민의 “일상의 저항”,” 48.

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은 자연스레 교회를 회피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김의혁은 북한이탈주민과 남한 성도들의 관계의 구도에서 발생하는 핵심적 요소를 문화상대주의적인 시각의 결핍으로 보았다. 특히 교회 안에 존재하는 율법주의적인 선과 악의 이분법적 관점이 북한이탈주민의 과거 삶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문화를 쉽게 악한 것으로 규정³⁵⁸⁾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결국 북한이탈주민들은 북한에서 왔다는 이유로 교회에서조차 공동체와 사람들로부터 구별되고 배제되는 경험을 반복하게 된다.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을 이탈해 우선적으로 가족해체를 경험한다. 가정 울타리에서 보호받지 못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관심은 일상의 소소한 관심으로 시작되어 작은 것들로 실천될 수 있다. 이러한 가족과 같은 상호적 관계 형성은 남북주민들 서로 간에 우호적이고 상생(相生)적인 연결을 지속하게 해주며, 그러한 경험을 공유³⁵⁹⁾할 수 있게 해 준다. 그런 의미에서 제도적 틀을 벗어나 개인의 일상으로 접근한 선교 방법은 소소한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데서 선교의 실제적 의미를 지닌다. 가찬미의 이런 연결은 일방적이거나 수동적이지 않고 상호간의 신뢰를 형성해주고, 가족과 친구와 같은 친밀한 관계로 발전시켜 주었다.

나의 성장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개발해 주니까 자꾸 따르게 되고 오히려 감사하고, 이 나이에 사실 이렇게 해서 내가 대학교 갈 수 있다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학교에) 2시간 어떻게 가’ 안 해도 그게 멀다고 생각 안 돼. 왜냐하면 멀다 하면 힘들겠지 여기 와서 내가 이렇게 대학교 가서 이런 친구들이랑 이렇게 문화도 알고 같이 앉아서 뭐 이

358) 문화상대주의는 각 문화의 고유성과 그 가치를 받아들이는 입장으로 다른 문화를 자문화중심적인 잣대로 판단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김의혁, “북한이주주민을 향한 현대의 선교,” 153.

359) 엄태완, “남북통합 과정의 심리사회적 위기분석 북한이탈주민의 생애위기에 대한 질적 연구,” 26.

렇게 텀플할 때도 그래도 은근슬쩍 나 진짜 잘 왔다.(사례1-1)

북한이탈주민들에게 필요한 리더십은 정권과 상관없이 일상에서 주권과 기본권에 위협을 느끼지 않고, 일상적인 삶 자체가 안정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기본적인 리더십이다.³⁶⁰⁾ 이다은은 자신의 삶이 발전되고 있다는 것, 잘 정착하고 있다는 현실의 상황을 직시했기 때문에 가찬미의 환대를 수용할 수 있었다. 이것은 북한의 지도층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람들을 집단적으로 희생시키는 것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가찬미의 환대는 북한의 리더십과 다르게 집단이 아닌, 이다은 개인을 중심으로 실행되었다. 이러한 선교적 실천은 실천자의 희생과 수고가 동반되어 타자의 삶에 유익을 주게 되고, 그것을 알아차리는 수혜자와의 사이에 신뢰를 형성한다. 따라서 가찬미의 리더십은 북한이탈주민을 수단화하는 종교적인 열망이나, 회심시키고 동화시키는 시도로 잘못된 타협과 비대칭적 권력관계를 형성³⁶¹⁾하지 않는다는 데서 철저히 타자 중심의 선교이다.

내가 바르게 살아서 나처럼 좀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꼭 긍정적으로 뭐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해매 일 때 어디선가 수렁에서 끌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도 되게 좋겠다.(사례1-1)

가찬미의 지속적인 관심의 연결고리는 이다은 한 사람에서 멈추지 않고 이다은을 통해 복음이 또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 들어가는 지속적인 특징을 지닌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교의 관점에서 “아들을 보내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을 보내시는 아들 하나님과 백성을 보내는 성령

360) 최진우, 『환대』, 130.

361) 김의혁, “북한이주주민을 향한 환대의 선교,” 162.

하나님의 역동적 선교 행위”³⁶²⁾에 나타나는 파송의 의미와 유사하다. 이와 관련해 이다은은 또 다른 제 3의 북한이탈주민에게 파송되어 “탈북인이라는 그런 걸 숨기려고 하지 말고 그냥 탈북민(북한이탈주민)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라는 말을 할 정도로 자기표현이 뚜렷해지고, 자발적으로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가찬미의 타자를 향한 지속적인 관심은 형식적인 제도 안으로 국한되어 있지 않았다. 이러한 실천은 자신의 삶의 일부의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내어주는 환대로 나타났다. 즉 북한이탈주민의 어려움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의미 있는 노력을 실행한 것으로서 상호간에 확인할 수 있다³⁶³⁾ 이러한 분석 결과는 두 가지의 특징을 가지는 데 하나는 철저히 타자 중심의 환대의 실천이라는 것과 북한이탈주민 한 사람의 정착을 통해 또 다른 사람을 정착으로 이끈다는 데서 파송의 의미를 담고 있다.

4.2.1.2 진정성을 겸비한 ‘부모역할’

북한이탈주민은 이주 과정 속에서 가족의 해체를 경험한다. 이들은 가족공동체 안에서 서로 부대끼며 살아본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족상에 대한 막연한 동경과 그리움은 가지고 있지만, 실제적인 정은 그다지 느끼지 못하는 편이다.³⁶⁴⁾ 더욱이 북한이탈주민은 다시 돌아갈 수 있

362) 김은수 외 공저, 『선교적 교회론과 한국교회』 (서울: 대한기독서회, 2015), 127.

363) 엄태완은 남북통합 과정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개인적이고 지역적인 차원의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준비는 북한이탈주민을 향해 남한 정부와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하며, 이러한 점을 서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엄태완, “남북통합 과정의 심리사회적 위기분석 북한이탈주민의 생애위기에 대한 질적 연구,” 26.

364) 나지영, “탈북 청소년의 구술생애담 속 가족의 해체와 탈북 트라우마,” 『통일인문학』 60 (2014): 117.

는 고향이 없다. 특히 이주 과정 중 중국과 제3국에서의 경험은 사람에 대한 신뢰보다 불신의 감정을 더 많이 확대시켰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으로 이주 후에도 계속 이어져 사실상 가족과 같은 사람을 만난다 해도 신뢰하고 따를 수 있는 경우는 드물다.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은 한국에서 의지할 사람이 많지 않고, 적응과정에서 겪는 차별과 편견의 경험으로 타인에 대한 불신을 안고 살아가게 된다.

우리 부모님이셨으면 너무 막 절하고 싶다는 그런 그 정도로 네, 그 정도로 이렇게 방치 안하고 너무너무 이렇게 계속 디테일하게 진짜 어찌 보면 저희가 이게 부모가 없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부모 역할을 해주는 부모 역할을 이렇게 찾을 때 있잖아요. 혼자니까 또 좀 자유로운 거 있잖아요. 근데 처음에 왔을 때 인연은 그게 필요했어요. 나 이럴 때 누군가가 ‘너 그러면 안 돼’ ‘그거 해야 돼’ 이렇게 붙들어오는 게 진짜 그게 그리웠거든요.(사례 1-1)

가족의 해체로 인한 트라우마를 경험한 북한이탈주민 청년들을 섬기는 가찬미의 두 번째 범주는 “진정성을 겸비한 ‘부모역할’”이다. 가찬미의 환대의 실천 방법은 가족처럼 편하게 북한이탈주민 청년들의 정착을 돕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다은은 가찬미에 대해 “진짜 뭐랄까? 진짜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가족”처럼 대해 주었다고 언급했다.

가찬미의 환대 실천 행동에서 “방치 안 하고, 너무너무 이렇게 계속 디테일하게” 대해주었다는 말은 진정성을 겸비한 ‘부모역할’에서 기인한다. 이다은이 표현한 ‘방치하지 않는다’는 것은 누군가 자신에게 끊임없는 관심을 갖는 것에 대해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관심은 북한이탈주민의 반감을 일으키는 ‘지나친 관심’과는 다르다. 예컨대 교회 예배³⁶⁵⁾ 참석을 이유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지나친 관심’에 대해

365) 북한이탈주민은 실제 기독교의 특성을 수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특히 예배 중 설교에

북한이탈주민은 구속이나 간섭으로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다. 반면 가찬미의 “계속 디테일하게” 대해주는 관심은 일방적인 강요가 아닌, 자신에게 유익을 주기위한, 다시 말해 “상황과 현실에 대한 이해와 배려”³⁶⁶⁾가 포함된 관심이란 차이점이 있다.

반면 “방치 안 하고, 너무너무 이렇게 계속 디테일하게” 대해주는 부모역할에 대한 행동 분석의 또 다른 해석은 북한체제의 트라우마에 입각한 심리적 불안으로 북한주민들은 스스로 자립하기보다 의지적으로 누군가의 도움을 끊임없이 갈망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혜란에 따르면 “북한체제트라우마’(NKST) 불안은 북한체제가 내포하고 있는 김일가의 조건반사적인 통치행태로 형성된 예기불안 악순환메커니즘으로, 스스로를 강박에 갇히게 하고 위험인지 요소강화로 두려움을 유발”³⁶⁷⁾시키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이주 초기 2년 동안 이다은에게 생성된 “너 그러면 안 돼,” “너 이거 해야 돼”라는 식의 갈망은 북한의 전체주의 가족체제 안에 내포되어 있는 강압적 경험의 영향으로도 해석될 수도 있다. 다시 말해 “북한이 김일가를 아버지로 칭하는 ‘사회주의 대가족’ 체제라는 점을 감안할 때 장기간(반세기 이상) ‘부모’인 두 지도자가 ‘자녀’인 북한주민들에게 미친 심리적 병리현상은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³⁶⁸⁾ 북한체제에서 학습되었던 심리적 요인들이 한국으로 이주 후에도 쉽게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대한 이해부족으로 나타났다. 설교가 이해되기까지는 최소 2~3년의 시간이 소요된 경우도 있다. 설교가 어려운 이유는 첫째, 이질화된 남한의 언어와 문화, 둘째, 낯선 기독교의 용어들과 성경에 대한 지식, 셋째, 북한이탈주민의 삶과 적절하게 연결되지 못하는 설교내용이다. 김의혁, “북한이주주민을 향한 환대의 선교,” 154-155.

366) 북한이탈주민들은 교회의 각종 예배와 모임에 참석할 것을 권유받을 때 자신들의 “상황과 현실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전혀 없는 일방적인 요구”로 받아들일 수 있다. Ibid., 153.

367) 유혜란, “탈북민을 통하여 본 ‘북한체제트라우마’(NKST) 불안연구,”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25-1 (2014): 122.

368) Ibid., 122.

북한 체제는 트라우마 불안과 억압적인 교육(부모, 보육원, 교육자) 문화로서 양육자로부터 정서적으로 ‘안전기지’를 제공받는 소지가 매우 희박하다. 이것은 북한사회의 팽배한 불신 문화로 형성되어 있는 주민들의 편집성향을 비롯해 국가의 경제적 빈곤과 가부장적 사고에 기초한 강압적 교육제도(부모, 보육원, 교육자)에 있다고 볼 수 있다.³⁶⁹⁾ 이러한 북한의 체제는 자기비판³⁷⁰⁾과 같은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 ‘나’와 ‘타자’ 사이에 불신을 형성하고 진정한 가족 공동체의 참된 의미를 퇴색시켰다.

혼자니까 또 좀 자유롭고 거 있잖아요. 근데 처음에 왔을 때 2년은 그게(부모역할) 필요했어요. 나 이럴 때 누군가가 ‘너 그러면 안 돼’ ‘그거 해야 돼’ 이렇게 붙들어오는 게 진짜 그게 그리웠거든요.(사례1-1)

그러나 결정적으로 가찬미의 환대실천 행동에서 나타나는 부모역할은 철저히 ‘타자 중심’에 있다는 것에서 북한의 ‘강압적 부모역할’과 차별성을 가진다. 여기에는 부모로서의 희생과 사랑, 타자를 향한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다은은 “나의 성장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개발해 주니까 자꾸 따르게 되고 오히려 감사”하더라고 언급하며, 가찬미의 환대의 행동이 타자성에 입각한 부모역할이란 것을 증명하고 있다. 더욱이 북한에서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데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에 오고 나서야 부모가 해 준 것이 사랑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³⁷¹⁾ 다시 말해 가찬미가 실천한 예수의 우정 안에서 이루고 있는 환대는 “자신의 친구를 위해” 자신의 생명도 거저 내

369) Ibid., 119.

370) 조정아는 북한이탈주민이 반복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자기비판에 익숙해지면 마음속에 없는 말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배양된다고 언급했다. 조정아, 『북한주민의 일상생활』 (서울: 통일연구원, 2008), 258.

371) 문은영·가요한, “북한이탈 여성의 커리어 발달과정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프로티언 커리어(Protean career)를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상담심리학회』 32-4 (2021): 121.

어주는 행위에서 비롯³⁷²⁾된다는 데서 북한체제의 강압적 부모역할과 완전한 차이가 있다.

내가 바르게 살아서 나처럼 좀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꼭 긍정적으로 뭐 하는 것보다 이렇게 헤맬 때 어디선가 수렁에서 끌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도 되게 좋겠다.(사례1-1)

가찬미의 진정성을 겸비한 부모 역할은 이다은이 또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이타적 사랑에 기인해 실행되었다. 이러한 부모의 기대와 사랑이 담긴 훈육의 환경은 회복탄력성³⁷³⁾을 길러 주었다. 가찬미의 진정성 있는 ‘부모역할’은 북한이탈주민이 사회에 정착한 후에 이타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한다는 데서 참된 선교적 의미를 지닌다.

북한은 철저히 타자를 비판하는 사회이고, 공동체의 특성 또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집단으로 연결된 하나의 강압적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분명 북한의 체제는 잘못되었고, 그 아래 장시간 학습된 북한이탈주민들에게 나타나는 행동이 한국의 문화 안에서 이질적으로 비춰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므로 북한이탈주민의 삶의 환경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따뜻한 가족 역할을 해줄 수 있는 환대의 방법들이 필요하다. 참된 환대의 선교는 북한이주주민을 일방적으로 규정하거나 동일화시키는 것에서 벗어나 그들의 고유성 자체를 받아들이고 인정해 주는 데에서 시작³⁷⁴⁾되기 때문이다.

4.2.2 선교적 기업 유형: 권하연

372) Moltmann,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 460.

373) 문은영·가요한, “북한이탈 여성의 커리어 발달과정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123.

374) 김의혁, “북한이주주민을 향한 환대의 선교,” 166.

권하연의 에틱 분석 범주는 유연성 있는 태도 & 진정성 있는 노력인데 반해 에틱 분석은 포기하지 않는 기다림 & 품격 있는 언어로 생성되었다. 북한이탈주민 윤미희의 관점으로 볼 때 권하연의 환대의 실천은 ‘답고 싶은 인격’을 형성했다. 권하연이 보여 준 행동과 언어는 윤미희의 삶에 흡수되어 강사로 자립하기까지 큰 영향을 주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태도를 보고 기독교를 평가한다.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떠한 말보다는 삶의 모습으로 더 진하게 전해져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교회가 선교적이라는 말은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것을 의미하고, 성육신적이라는 말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시간과 공간 속으로 더욱 깊이 참여하고(deep engagement) 동일시되는(being identified) 것을 의미”³⁷⁵⁾한다.

권하연의 환대 실천은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어 북한이탈주민 한 사람의 삶에 자신을 동일시하며 기다림으로 일구어낸 결과이다. 이러한 환대는 북한에서 수동적으로 살았던 윤미희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갈 때까지 충분한 역량을 길러주었다. 이에 따라 윤미희는 북한에서 억압되어 발휘할 수 없었던 자신 안에 재능을 발견³⁷⁶⁾해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다.

평신도의 환대를 경험한 북한이탈주민 윤미희에게 나타난 정착 과정 패턴 범주는 극복·변화·자신감이다. 윤미희는 한국의 정착 과정에서 극복의 중요성, 변화의 중요성, 자신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첫째, ‘정착

375) 최형근, “로잔운동에 나타난 일터신학의 선교학적 함의,” 236.

376) 윤미희는 어려서부터 옷과 화장을 좋아했다. 그의 고향인 양강도 해산은 중국 접경지역으로 밀수품이 많이 들어왔다. 윤미희의 어머니는 중국에서 유행하는 굵은 웨이브 머리를 했고, 옷감을 때서 생활비를 버는 소위 잘 나가는 여성이었다. 윤미희는 어머니의 영향으로 외모와 미용과 패션에 관심이 많았다. 대부분 무채색 계열이 많은 북한에서 윤미희는 노란색 재킷을 입었다가 규찰대 단속반에 불려가기도 할 만큼 패션에 관심이 많았다. 그렇지만, 북한에서는 이와 관련된 직업을 갖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없었다. “탈북민 뷰티 컨설턴트가 말하는 북한의 미용과 패션,” 「VICE New」 (2021.03.25.)

초기' '극복의 경험'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나도 이거를 이렇게 너무너무 하고 싶었는데 솔직히 주변에서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내가 누구하고 이렇게 선뜻 상의를 해가지고 지지를 해준 사람은 없지만, 또 옆에서 대표님처럼 이렇게 도와주시고 이제 한 마디라도 이렇게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한 번 해볼까?'라는 생각에 중간 중간에 계속 좀 어려움이 계속 있었어요.(사례 2-1)

북한체제트라우마의 불안으로 야기된 북한주민들의 '거짓자기'(false self)는 항시적인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려는 하나의 보호기제로 작용한다. 이에 따라 형성된 생리구조는 왜곡된 가치관(결과 지향형), 부정직한 태도(수단화 정향), 수치심(비난), 책임전가, 무기력(의존증), 의심, 이분법적 사고, 반동형성 등이 있다.³⁷⁷⁾ 트라우마로 빚어진 거짓자기는 한국 사회의 부적응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심리적 어려움으로 인해 특히 인간관계에서 나타나 방어적인 보호기제로 활동한다. 윤미희의 말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은 한국 정착 과정에서 누군가에게 상의를 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정착 초기 극복 방안으로 다양한 경험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남들 앞에서 내가 잘할 수 있고 나를 보여줄 수 있는 연습을 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북한에서도 마찬가지로 북한은 누구를 비판하거나 생활총화 같은 걸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건 “내가 잘했어”가 아니라,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사과해” 이런 방식으로 교육받다 보니까 남들 앞에서 나를(제대로) 표현하는 표현 방법을 몰랐던 것 같아요.³⁷⁸⁾

377) 유혜란, “탈북민을 통하여 본 ‘북한체제트라우마’(NKST) 불안연구,” 142-143.

378) 윤미희는 현재 평균 약 200회 이상의 기업 강의를 하고 있고, 개인 클래스 프로그램만 월 20~30회를 진행하고 있다. “탈북민 뷰티 컨설턴트가 어때서요” 「자유아시아방송」 <https://youtube.com/watch?v=FhdBh2LRKBA&feature=share>. (2023.04.30.) 접속.

둘째, ‘정착 적응기’ ‘변화의 경험’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북한의 생활총화(生活總和)³⁷⁹는 불신에 의한 만성적 의심과 대인관계를 왜곡시키는 특징을 가지고 병리적인 의존과 집착을 낳았다. 이에 따르는 왜곡된 가치관은 자기애적 책임전가로 인해 심리적 고립을 더욱 강화시켰다.³⁸⁰ 윤미희 또한 북한체제에 오랜 시간 학습되어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신을 표현하거나 타자와 상호적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북한의 부정적 영향으로 형성된 비판적 사고는 좋은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 개선될 수 있다. 특히 끊임없는 자기사랑과 자기표현은 잘못된 가치관을 새롭게 형성해 주고, 사회에 정착하도록 돕는다.³⁸¹

저와 같은 다른 분들을 제가 찾아서 같이 좀 연계를 하고 같이 이제 뭔가 무브먼트를 이끌어내는 그런 어떤 활동들이 좀 많아지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그래서 그런 형식적이 아닌 개개인이 진심으로 서로를 응원해 주고 끌어주는 이제 그런 활동들을 좀 많이 한다면 훨씬 더 그 사람들을 자존감도 높여주고, 많이 이렇게 본인들이 분야를 잘할 수 있게 뒷받침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사례2-1)

셋째, ‘정착 안정기’는 ‘자신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북한이탈주민 최초 이미지컨설팅 강사로 성장한 윤미희는 “근본적으로 남한사회에서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문화적 편견이 해소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며,

379) 생활총화(生活總和)는 북한사회 내부에 조직적이고 뿌리 깊게 내려 박혀있다. 이것은 개인 차원의 생활총화에서 간부들의 사업총화, 조직총화까지 해야 한다. 「나무위키」 <https://namu.wiki>. (2023.04.30.) 접속.

380) 유혜란, “탈북민을 통하여 본 ‘북한체제트라우마’(NKST) 불안연구,” 143-144.

381) 이와 관련해 윤미희는 “‘하고 싶다’라고 딱 결정을 했으면 주변에 도움을 좀 많이 받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고요. 내가 생각했던 분야가 뷰티 분야면 그쪽의 전문가들을 많이 만나고 그쪽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많이 찾으면서 그분들이 어떤 조력을 많이 받아서 스스로 성장이 아니라, 이제 좀 함께 같이 끌어 올리는 성장이 훨씬 더 배로 잘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절대 혼자서는 못하는 것 같아요.” 라고 언급했다.(사례2-1)

이러한 편견이 통일부의 정책만으로 해결되기는 어렵다고 언급했다. 윤미희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직장과 학교 등에서 받는 상처를 우려하며, 정착 초기에 심리 상담과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 교육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³⁸²⁾ 더 나아가 한국 또한 북한의 문화적 특성을 존중해 주는 교육 방안도 필요한 것은 마찬가지이다. 북한의 문화를 무조건적으로 무시하고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고유한 문화에 대한 이해와 수용이 요구된다.

4.2.2.1 포기하지 않는 기다림

북한은 철저한 사상 통제 국가로 주민들을 외부와 단절시키는 폐쇄적 성향을 띤다. 북한 주민들은 개인의 정체성을 존중하기보다 집단적 인식이 강하며, 개인은 당과 체제의 유지를 위해서만 존재한다. 유혜란은 북한 당국의 공포와 폭력적인 메커니즘이 북한 주민들의 정서를 억압하고 사회적 불안을 심화시켰다는 것에서 발생하는 트라우마를 북한체제트라우마(North Korean System Trauma)라고 명명했다.³⁸³⁾ 북한체제에서 한국으로 이주 후 북한이탈주민이 겪는 급격한 변화는 사회적 부적응을 넘어 심리적·정신적으로 큰 어려움을 초래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 사회에서 주어지는 많은 외부환경에 대해 방어기제로 나타나 계속적으로 트라우마 불안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게 된다.

382) “LiNK(Liberty in Nother Korea)의 애드보커시 펠로우(Advocacy Fellows)를 소개합니다!” 「통일부 공식 블로그」 (2021. 02.09.)

383) “트라우마(trauma)는 정신적인 외상을 뜻하는 정신의학 용어로 과거의 충격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이탈주민 중에서도 여성은 이러한 트라우마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 유혜란의 논문은 북한체제트라우마(NKST) 병리구조와 그것으로부터 파생된 불안성격을 현상학적으로 고찰해 NKST 불안 심리체계도를 규명해 북한이탈주민의 환경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체제상처의 치유를 위한 치료방안과 목회상담적인 접근모형을 제안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되었다. 유혜란, “탈북민을 통하여 본 ‘북한체제트라우마’(NKST) 불안연구,” 117-118.

누구 앞에서 서서 얘기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에서부터 이제 좀 남
들 앞에 서는 거를 꺼려 해가지고 “못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시작을 했는
데 대표님께서도 그러면 뭐 이제 “미희씨가 이제 지금은 못하지만, 나중에
라도 혹시 할 수 있으니까 조금 조금씩 배워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사
례2-1)

북한이탈주민은 오래된 통제와 억압 아래 지속적으로 학습되었기 때
문에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낯설고 불
가능 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자유에 기반한 삶을 살고 있는
남한 사람들과 본질적으로 큰 차이를 보인다. 이와 관련해 윤미희는 자
신이 한국 사람들 앞에서 무언가를 가르치는 일에 대해 생각해 본적이
없었기 때문에³⁸⁴⁾ 여전히 한계³⁸⁵⁾를 경험할 때가 많다고 언급했다.

계속 이제 해서 저를 어시스트로 이제 데리고 다니신 거예요. 이제 더 못
하겠다. 이제 여기까지 하자라고 하실 것 같은데 전혀 그런 이제 내색도 없
으시고 “할 수 있어요?”라고 이제 물어보시고 “좀 어렵지 않을까요?” 그러
면 “좀 더 해보자” 네, 항상 기다려 주시고..(사례2-1)

윤미희는 강사 초반 적응기에 언어 소통의 문제³⁸⁶⁾와 시간개념 문
제로 인해 약속시간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을 경험했다. 이러한 언어 소
통 문제는 윤미희 뿐 아니라, 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이 실제 직장과 사회
에서 북한사투리 때문에 해고되기도 하고, 한국말을 알아듣지 못해서 일
의 실수를 반복하는 경험들을 하게 된다.³⁸⁷⁾ 이와 관련해 이지영과 최경

384) “제가 이 한국에 있는 그 사람들한테 ‘내가 뭐를 가르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
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사례2-1)

385) “저는 강사보다는 배워서 그냥 나중에 조그마한 샵을 운영을 해서 직접 해주는 일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사례2-1)

386) “(처음에) 보조강사를 하기로 저와 약속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서..스케줄을 픽스해야 한다는
(말도 모르고) (뷰티쪽)전문용어를 사실 몰랐대요.”(사례2)

원의 연구는 북한이탈주민 직원을 둔 고용주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는데 특히 ‘출퇴근 개념부족’ 13.8%³⁸⁸⁾의 시간개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직장생활 부적응에 대한 직원 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은 오랜 기간 집단주의 체제에 익숙하게 살았기 때문에 자유주의 체제인 한국 사회에 조속히 적응하는 것이 실제로는 어려운 문제이며 한계적 상황을 경험한다.³⁸⁹⁾ 이러한 차이는 특히 직장에서 드러나는데 정작 고용주들은 이에 따르는 교육의 부재로 인해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권하연은 비즈니스에서 부딪치는 북한이탈주민의 부적응 문제를 초월적 선교의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다. 그들을 질책하기보다 기다림을 선택하며 “어쨌든 나는 이 사람을(강사로) 만들어줘야 하니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 걸음씩 이끌어주고 있다.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표면에 보이는 실수³⁹⁰⁾보다 그 속에서 발견되는 강사로서의 충분한 자질과

387) 윤미희는 한국에서 1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북한에서 태어나고 성장했기 때문에 북한의 문화에 더 익숙하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언어 문제도 그렇고 현재 한국에서 지속적으로 적응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북한이탈주민은 한국 입국 후 하나원을 통해 먼저 입국한 북한이탈주민들에게 한국 경험담을 듣게 되는데 본 연구의 인터뷰 대상자 중 북한이탈주민 참여자 3명 모두가 누군가로부터 들은 차별과 편견에 대한 경험을 언급을 했다. 예컨대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 식당에서 일을 하다가도 북한 사람이어서 조금 (말이) 어눌하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그래서 저도 그거를 들으니까 웬만해서는 (대화를) 차단을 하고 얘기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사례2-1)

388) 이지영과 최경원은 북한이탈주민 직장적응과 관련해 고용주들이 직원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고용주 110명(남한 고용주 65명과 북한이탈주민 고용주 4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북한이탈주민의 가장 큰 장점은 ‘자활의식과 자생력’이 가장 큰 장점으로 33.1%로 나타났고, 직무에 대한 헌신과 열정(28.1), 명확한 비전과 목표의식(16.9), 건전한 가치관과 태도(9.4%), 직원들과의 협동심(9.4%) 기타 (3.1%)이다. 반대로 단점은 사회적 및 직장적응 교육 부족이 (34.2%), 직원들과의 대인갈등 (27.6%), 직업능력개발 부족(15.1%), 출퇴근 개념부족(13.8), 직무에 대한 불성실태도(6.6%), 기타(2.6%) 순으로 지적했다. 이지영·최경원, “북한이탈주민 직장적응 실태 분석과 제언,” 68.

389) Ibid., 57.

390) 권하연에 의하면 “(윤미희가) 모르면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네 알겠습니다’를 하고 본인이 혼자 끄꿍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됐었어요. 저는 나중에 알았어요. 그걸 몰랐던 거 진짜 몰랐던 거를”(사례2) 이와 관련해 윤미희는 “스케줄이라는 그 단어 자체도 제가 이해를 못했었고 픽스라는 단어도 이해를 못했었고, 그래서 그 단어를 이해를 못하는데 다

가능성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권하연은 문제의 해결방법에 있어서 서두르거나 결과 중심의 조급한 방법이 아닌, “지금은 못하지만 나중에라도 혹시 할 수 있으니까, 조금 조금씩 배워보자”라고 말하며, 기다림의 방법을 선택해 본인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을 때까지 이끌어 주는 모습을 보였다. 이와 관련해 레비나스는 권하연과 같이 ‘다소 곳이’ 타자를 수용해 주는 모습에 대해 친밀성과 너그러운 환대를 제공해 세계를 표상하고 관리·통제할 수 있게 한다³⁹¹⁾고 언급했다. 다시 말해 권하연의 환대는 자기중심적인 강요와 강압이 아니라, 철저히 타자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매 순간 상황을 초월하는 기다림을 선택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타자는 그동안 북한에서 경험했던 질책하고 ‘고발하는 타자’에게 받은 위협에서 벗어나 내면에 닫혀 있던 세계로부터 무한히 열린 세계로 초월할 수 있는 존재³⁹²⁾로 변하게 되었다.

이 정도면 나도 힘든데 이제 배우는 사람도 너무 힘들어서 나도 포기하고 싶은데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요. 그러면은 모를 수 있어. 당연해.”라고 항상 얘기해 주셨어요. 근데 그 당연한 것을 당연하다고 느끼지 않고 이제 하나하나 또 이제 차근차근 배워가는 거지 분명 어제 배웠는데 오늘 모르는데 또 내일은 또 모르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괜찮아, 그럴 수 있어”라고 항상 이제 얘기해 주시니까..(사례2-1)

권하연의 환대의 실천은 “타자에 대한 이해를 포함하여 확장된 소통의 개념을 가지고 그 안에서 공감에 대해 살펴보는 노력”³⁹³⁾을 했다.

시 물어보기가 그래서 그냥 스쳐 지나갔는데..”라고 언급하며 언어소통의 문제를 드러냈다. (사례2-1)

391) Levinas, 『전체성과 무한』, 227-228; 강영안, 『타인의 얼굴』, 139-144.

392) 윤미희가 말하는 한국생활 중 가장 어려운 점은 무슨 일을 만났을 때 가족이나 친척 등 누군가 상의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것이다. 북한에서부터 혼자서 해결하는 것이 익숙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마음을 열고 상의하는 부분은 쉽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권하연을 멘토라고 부르며, 어려운 일들을 상의하고 조언을 구하며 내면세계에 닫혀 있던 문을 열게 되었다.

이러한 타자를 향한 공감은 인정이나 환대의 윤리적 실천이라고 볼 수 있다. 누군가로부터 진정성 있는 환대를 받게 된 타자, 즉 윤미희는 이와 같은 경험을 통해 보다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태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정서적인 결합을 촉진해 마음의 연대를 추동하게 된 것이다.³⁹⁴⁾ 만약 기다림의 초월적 방법이 아닌, 일반적인 질책과 갈등의 폭력적 방법이 동원되었다면 윤미희는 지속적으로 부적응과 거절감을 안고 살아갔을 것이다. 이러한 폭력은 물리적·사회적 강압을 통해 타인을 제압하고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려는 행위³⁹⁵⁾로서 과거 윤미희의 삶은 폭력적인 권력의 지배 아래 있었다. 이러한 지배계층은 많은 사람들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짓밟았을 뿐만 아니라, 권력의 유지를 위해 사람들을 수동적으로 몰락시키는 특성을 지닌다. 그러므로 평신도의 선교적 환대 실천은 이러한 잠재적인 가능성을 발견해 주는 통찰력을 가지고 타자, 즉 북한이탈주민의 폭력적 기억의 트라우마를 극복하도록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 주는 환대로 나아가야 한다.

이 대표님이랑 같이 뭔가를 한다고 하면은 나의 어떤 이제 단점들에 대해서 끄집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보완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고, 좀 더 이렇게 성장해 나갈 수 있게 코칭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이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사례2-1)

권하연은 “처음부터 잘 하는 사람은 없다. 하나하나의 경험들이 쌓여서 그게 다 자기 것이 되는데...”라는 신념³⁹⁶⁾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393) 홍성민, “타자와 공감영역: 인정과 환대의 사이에서,” 『한국프랑스논집』 107 (2019): 304.

394) 이형중, “마음의 연대를 위한 공감의 실천,” 113-114.

395) 전우택 외 공저, 『평화와 반(反)평화』 (서울: 박영사, 2021), 15.

396) 북한이탈주민이 다른 사회 문화에 익숙해지려면 보통 3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말처럼

때문에 윤미희의 실수를 하나의 경험으로 해석하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작은 요소들로 보았다. 윤미희 뿐 아니라, 북한이탈주민 모두 마찬가지로 개인에 따라 각자가 독특한 존재로서 자신이 속한 사회나 문화를 대표할 수 있는 구성원³⁹⁷⁾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윤미희와 같은 북한이탈주민 여성들의 정착 과정에 있어서 그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곁에서 묵묵히 지켜봐 주며, 격려해 주는 포기하지 않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따라서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평신도의 환대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으로 북한이탈주민 타자를 환대하고 수용해 이들이 전인적으로 지지를 받음으로서 긍정적으로 정체성을 형성해 결국 다른 사람을 향해 나아가도록 만드는 것³⁹⁸⁾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4.2.2.2 품격 있는 언어 표현

평화적인 모방은 자기중심성을 넘어서 이타적인 사랑을 지향한다. 특히 인간이 신의 차별 없는 보편적인 사랑을 모방하고자 하는 욕망은 외적 매개를 통한 욕망 중의 하나로, 이것은 폭력과 경쟁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평화와 사랑의 새 길을 열고 희망에 바탕을 두는 ‘사랑의 욕망’이라고 할 수 있다.³⁹⁹⁾ 신적 모방은 주체를 통해 타자에게 흘러 나아갈 때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될 수 있다. 그 중 언어는 사랑과 폭력이라는 대조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서 어떻게 모방하고 사용하는가에 따라 타자에게

윤미희가 기본적인 적응을 하는 데 걸린 시간은 3년이다. 이지영·최경원, “북한이탈주민 직장 적응 실태 분석과 제언,” 68.

397) 유철인, “생애사 연구방법: 자료의 수집과 텍스트 해석,” 『간호학 탐구』 7-1 (1998): 188.

398) 김희영, “북한이탈주민 여성의 여성형성과정 연구: 자기정체성과 자기초월을 중심으로,” 『선교와 신학』 49 (2019): 237.

399) 전우택 외 공저, 『평화와 반(反)평화』, 39.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래서 한 2년째부터는 그냥 대표님께서 처음에는 ‘미희 씨’가 됐다가 한 번 강의를 같이 나갔다 왔는데 ‘미희 선생님’이 이제 딱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또 존칭을 해서 불러주시고...(사례2-1)

권하연은 평화를 기반으로 한 언어 사용으로 타자의 지난 과거에 대한 폭력적 기억을 철폐하는 환대의 행동을 취하고 있다. 이것은 상호 배타적이거나 폐쇄적인 것이 아닌, 상호 포용적이고 개방적인 것으로 화합적으로 바꾸어 가려는 노력이다. 이러한 예의바른 언어는 북한과 서로 대비되는 모습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⁴⁰⁰⁾이며, 평화적인 언어의 표현을 통해 타자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독립된 형태의 자아를 마주하게 된다.

북한의 “정치사전”은 비판의 필요성에 대해 “사상투쟁을 벌여 사람들을 교양개조하기 위하여 모든 조직들과 단위들에서 비판사업을 강화하여 온갖 불건전한 사상요소들과 강한 사상투쟁을 벌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구자숙은 비판이 일상화 된 북한 체제 속에서 언어 역시 끊임없는 비판의 도구로서 기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적하며, 남북한의 심리적 통일과 화합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을 북한 언어의 폭력으로 꼽았다.⁴⁰¹⁾ **Q. 자신감이 부족한 면들이 북한 사회의 특성이예요? 아니면, 다 개인별로 다른가요? 그러니까, 무언가 도전해보고, 어떠한 일에 대해서 배워보고 끈기 있게 하는 것에 대해서 사회적인 영향도 있나요?**

400) 구자숙, “북한 언어의 폭력성,” 54.

401) Ibid., 41.

북한이라는 사회는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를 이제 일으켜 세워서 좀 깔아(까아) 내리고 이런 게 익숙한 사회이다 보니까 “저는 이거를 잘해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질문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자유자재로 하는 그런 시스템 속에서 자랄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있을 때는.. 그러다 보니까 주말마다 누구를 깔기(까아내리기) 위한 생활총화를 하기 위해서 바빴고, 그래서 그런 사회적인 환경에서 살다 보니까 내가 “할 수 있어”보다는 “너가 어떻게 할 수 있어?”라는 좀 이제 남을 먼저 이렇게...(사례2-1)

철저히 타자를 비판하는 체제 속에서 살았던 북한이탈주민들은 공통적으로 남한의 사회적 구조 안에서 그동안 자신이 사용했던 언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직시⁴⁰²⁾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직장에서 문제를 경험⁴⁰³⁾하게 되면 자신이 북한이탈주민이란 사실을 숨기기 위해 억양을 고치려고 노력하기도 한다. 이렇게 한국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언어 사용은 ‘교정’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마치 한국사회의 언어사용이 더 낫다는 것으로 평가⁴⁰⁴⁾되기도 한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언어 사용 패턴을 보면 과거 북한에서 모방한 비판적 언어를 한국에서도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후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자신이 사용했던 비판적 언어 습관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과 동시에 한국형 언어폭력⁴⁰⁵⁾에 노출되면서 또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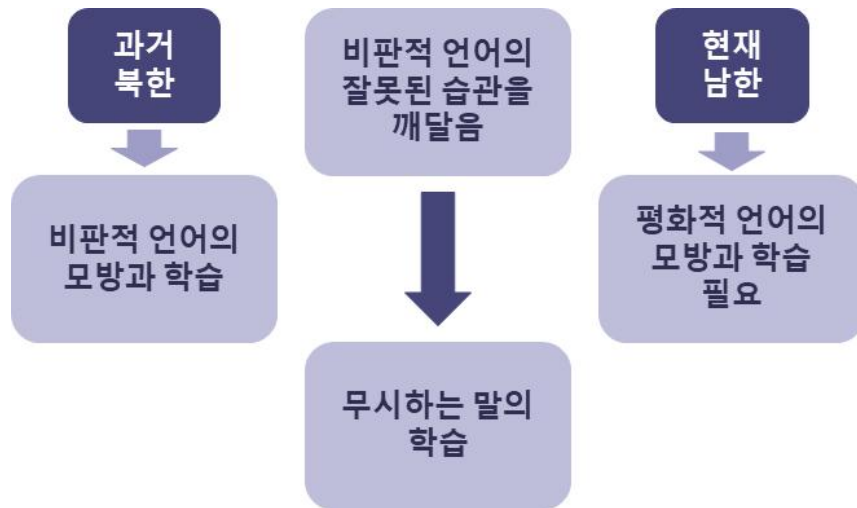
402) 북한이탈주민에게 북한의 언어가 폭력적인가를 질문했을 때 그들의 응답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그렇다면 북한에 있을 때도 그런 생각을 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별로 그러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Ibid., 53.

403) 한국 사회와 직장 등에서 차별을 경험한 북한이탈주민은 자신이 무시당했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 그것은 언어를 통해 전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북한이탈주민이 한국에서 경험한 말이 낸 상처들은 “제대로 못 먹었지?” “다시는 북한사람을 상대하지 않겠다.” “북한에서는 이런 거 못 먹었지?” “회사에 들어오면 적응하기 어려울 것” 등 대부분 타자를 비하하는 언어를 통해 전달된다. “북한이탈주민, 목숨 걸고 넘어왔지만... ‘차별’의 벽 높아,” [카톨릭평화신문] <https://naver.me/G8tJUtR4> (2023.02.01).

404) 김성경, “기획특집: 광복, 70년 그리고 통일,” 남한 사회의 새로운 구성원, 북한이탈주민,” 108.

405) 필자는 ‘한국형 언어폭력’에 대해 대표적으로 무시하는 말, 업신여기는 말, 가르치려는 태도로 본다. 북한이탈주민의 비판적 언어습관은 또 다른 종류의 폭력적 언어 환경에서 학습되어

른 비판적 언어에 지속적으로 학습되게 된다. 이에 따라 더욱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게 되고, 억양을 고치려고 노력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출신성분을 숨기며 살아가는 경우가 더 많다. 이러한 사회적 고립 현상은 대인관계의 결핍으로 나타나, 타인을 향해 좋은 말, 칭찬하는 말, 따뜻한 말을 전하는 소통의 부재가 발생한다. 따라서 직장과 교회, 그리고 사회와 학교 등에서 ‘평화의 언어’로 소통하는 상호적 관계가 필요하며, 이러한 존중받는 경험을 통해 북한 고유의 언어 또한 평화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림 4-1] 북한이탈주민 언어사용 패턴 분석⁴⁰⁶⁾

‘(처음에는) 미희씨’였다가 내가 이제 밟고 가는 그 과정들이 변화를 할 때마다 변화에 대해서 인정해 주시고, 또 그것들을 다시 잘 살려서 끌어내주

북한이탈주민에게 올바른 언어사용을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그러므로 북한이탈주민에게는 공감과 수용의 언어, 사랑의 언어, 용기를 주는 언어를 사용하면서 지속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언어사용 모델’이 필요하다.

406) ①과거: 비판적 언어의 모방과 습관 한국 이주 후 → ② 한국이주: 비판적 언어의 잘못된 습관을 깨달음 & 무시하는 말 학습 → ③ 현재: 평화적 언어의 모방과 학습 필요.

시고 뭔가 계속해서 도움 주시려고 하시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계속 제가 같이 이제 성장해 올 수 있는데 어떤 큰 이제 밑거름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사례2-1)

권하연은 윤미희가 강사로서 발전되는 과정을 보면서 점차 호칭을 바꾸어 사용했다. 처음엔 “미희씨”였다가 한 번 강의를 다녀온 후 “미희 선생님”으로 호칭을 변경해 불렀다. 비판적인 언어습관으로 익숙해져 있는 윤미희는 자신을 존칭으로 높여주는 권하연의 언어를 통해 자아존중감을 회복하고, 이것이 강사로 성장하는데 밑거름이 되었다. 즉 “북한과의 문화 교류를 통해서 남한 언어의 비폭력적, 화합적 성격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의 방법”⁴⁰⁷⁾이라는 말처럼 권하연의 이러한 품격 있는 언어 사용은 윤미희가 자신의 의사표현을 할 수 있도록 도왔을 뿐만 아니라, 고민되는 일을 혼자서 해결하려고 했던 모습에서 이제 고민을 나누고 함께 해결하려고 노력⁴⁰⁸⁾하는 모습으로 발전시켜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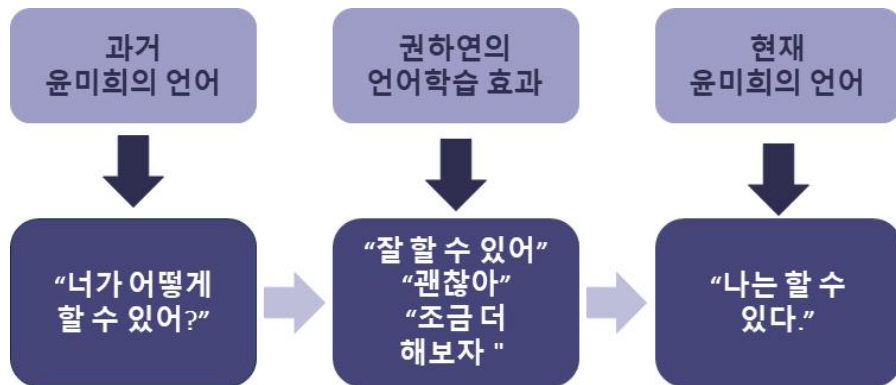
윤미희는 북한사회에서 지속적으로 경험한 비판적 언어습관이 빚어낸 일그러진 모습으로 한국사회를 마주했다. 이것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 없이 강제적으로 이루어진 북한 사회의 폭력적 행위의 결과이다. 이에 따라 권하연은 그 속에서 윤미희를 분리시켜 자신의 평화적 언어 안으로 환대했다.⁴⁰⁹⁾ 이러한 실천은 과거 폭력적 언어 습관을 잠재우고, 새

407) 구자숙은 “북한 언어생활에서 폭력성을 완화 혹은 제거하기 위해서는 북한 주민들이 일단 북한에서의 언어 사용이 폭력적이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깨닫게 할 필요가 있다”는 말을 남겼다. 구자숙, “북한 언어의 폭력성,” 54.

408) “옛날에는 힘들면 ”대표님, 너무 힘든데 이거 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제 고민하고 걱정을 좀 하면은 대표님과도 굉장히 밤에도 엄청나게 통화도 많이 하고, 카톡도 엄청 이제 길게 하고 그러거든요. 지금도 항상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게 고민이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면 좀 더 빨리 갈 수 있을까요?”가 지금은 대표님과 많이 상의를 하고, 방식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사례2-1)

409) 볼프의 말에 따르면 이러한 행위는 십자가의 핵심으로 “타자가 적으로 남아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며 자신 안에 가해자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겠다는 그리스도의 태도가 자리 잡고 있다.” Volf, 『배제와 포용』, 199.

로운 자아를 형성해 평화적인 언어를 사용하며 살아가도록 도왔다. 이와 관련해 레비나스가 말한 “타인과의 관계는 언어의 관계 속으로 스며든다”는 점으로 볼 때 “우리가 타자를 호명하자마자 타자는 자신의 이질성 속에서 스스로를 유지하고 스스로를 확증”하는 것을 보게 된다. 다시 말해 비록 윤미희가 북한 사회에서 비판적 언어의 습관으로 고착되었고, 남한에서 조차 무시와 편견의 말들을 듣는다 하더라도 “폭행당하는 바로 그 때 타자는 존중”받기 때문에 결국 윤미희는 비판과 폭력이라는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⁴¹⁰⁾ 결국 권하연의 평화적이고 품격 있는 언어 사용은 윤미희가 여전히 존중받는 존재라는 것을 일깨워 주는 도구일 뿐이다. 권하연의 품격 있는 언어 학습을 통해 윤미희의 변화 과정은 다음과 같다.



[그림 4-2] 윤미희의 언어사용 변화⁴¹¹⁾

410) 이와 관련해 레비나스는 “타자를 알고자 하는 그리고 타자에 가닿고자 하는 지망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성취되며, 이 타인과의 관계는 언어의 관계 속으로 스며드는데, 언어에서 본질적인 것은 호명이고 호격이다. 우리가 타자를 호명하자마자 타자는 자신의 이질성 속에서 스스로를 유지하고 스스로를 확증한다. 비록 우리가 말을 건넬 수 없다고 타자에게 말하기 위해서, 타자를 병든 자로 분류하기 위해서, 사형선고를 알리기 위해서 타자를 부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렇다. 사로잡히고 상처입고 폭행당하는 바로 그 때 타자는 ‘존중받는다.’ 불리어진 자는 내가 이해하는 그 무엇이 아니다. 타자는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타자는 내가 말을 건네는 자다. 그는 자신을 지시할 따름이다. 타자는 어떤 본질(quiddité)을 가지지 않는다. 그러나 호명의 형식적 구조는 전개해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Levinas, 『전체성과 무한: 외재성에 대한 에세이』, 89.

4.2.3 선교적 비즈니스 유형: 황진술

황진술의 에믹 분석 범주는 그대로를 존중 & 수평적 협력인데 반해 에틱 분석은 타자 중심의 자기성찰 & 지속적인 연결의 공급자로 생성되었다. 북한이탈주민 안윤희의 관점으로 볼 때 황진술의 환대의 실천은 ‘꾸준히 공급해 주는 신뢰’를 형성했다. 황진술은 실제 북한이탈주민이 한국에서 살아가는 방식에 민감함을 가지고 그들이 우리와 동등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환대를 실천을 하고 있다.

황진술은 세상의 한복판에서 자신의 일터를 통해 하나님의 선교를 실천하고 있다. 특히 세상과 교회를 연결하는 평신도의 선교적 사명을 토대로 실제 교회 안의 성도들과 교회 밖에 있는 북한이탈주민을 서로 연결해 주는 역할을 실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스스로 자립하게 된 북한이탈주민들은 ‘도움이 필요한 대상’에서 자신의 역량을 개발해 자립할 수 있는 ‘잠재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인식이 변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이탈주민과 남한 주민들이 함께 협력하고 성장하는 수평적 성장을 이루는 것으로 모두가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 존중하며 함께 동역할 수 있게 되는 결과를 가져 왔다.

411) ①과거 윤미희의 언어: “너가 어떻게 할 수 있어?” → ② 권하연의 언어학습 효과: “잘 할 수 있어,” “괜찮아,” “조금 더 해보자” → ③ 현재 윤미희의 언어: 나는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윤미희는 북한이 “그런(비판하는) 사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본인에 대한 자존감 문제도 있고, 다른 사람이 (잘)되는 것에 대한 뭔가 의심도 있고, 이제 그런 환경에서 좀 오래 사셨던 분들은 조금 이게 내가 스스로 “내가 할 수 있어”라는 마음을 가지기가 좀 쉽지 않을까(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또 한국에 와서 (무언가)하고 싶다고 해도 또 그 부분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다하더라도 “분명 뭐가 있을 거야”라는 생각이 먼저 들지 않을까 싶거든요.”라고 언급했다. (사례2-1)



[그림 4-3] 사람을 통한 교회와 사회의 연결

평신도의 환대를 경험한 북한이탈주민 안윤희⁴¹²⁾에게 나타난 정착 과정 패턴 범주는 **당당함·책임·리더십**이다. 안윤희는 한국의 정착 과정에서 **당당함의 중요성, 리더십의 중요성,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첫째, ‘정착 초기’ **당당함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차별은 어쨌든 있을 수 있고 시선 선입견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인간이 사는 동안은 없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변화는 나부터인 것 같아서 거기에 이제 너무 귀 기울이지 말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 집중하다 보면 그것을 응원해 주는 사람들이 있고, 그 응원해 주는 사람들을 더 많이 곁에 두는 거..(사례3-1)

안윤희 또한 한국 사회에 적응하면서 차별과 편견의 문제를 비껴갈 수 없었다.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에서 왔다는 사실로 인해 동정의 대상이 되거나 반면 한국 사람들과 실력적으로 동등한 위치에 있을 때 따가운 시선을 느끼거나 차별을 경험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해 안윤희는 비교적 수용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의치 않으려고 생각하는

412) 안윤희 대표는 10대에 북한을 떠나 중국에 머물던 중 의류회사에서 일하면서 무역을 배웠고, 이것을 계기로 자연스럽게 의류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창업의 목표를 가지고 있었지만, 신분 노출 위험 때문에 20대가 될 무렵 한국으로 왔다. 이후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언어 공부를 위해 미국에서 지내다 다시 한국에 와서 창업을 시작했다. 현재는 ‘류A’를 창업해 특히 북한이탈주민 여성들에게 일자리 창출을 위한 환대를 실천하고 있다. “인내는 쓰지만 열매는 달다, ‘류A’ 안윤희 대표,” 「남북소통 STORY」 https://blog.naver.com/nkrf_blog. (2023.04.24.)

이유는 자신의 잠재력까지 문힐 수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그 외에도 가끔 “탈북민 같지 않으시네요.”와 같은 이야기를 들으면 “그럼 탈북민은 어때야 하는 거지?”라는 생각이 종종 들기도 한다고 했다.⁴¹³⁾ 안윤희는 점차 한국 사회에 적응하면서 차별과 편견의 문제가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북한이탈주민 모두가 겪는 현실의 문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안윤희는 이러한 문제들을 수용하고, 오히려 더 당당한 모습으로 자신의 잠재력에 집중하면서 본인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 자신의 역량을 길러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남과 북을 모두 경험한 사람으로서 들었던 생각은 남북한 출신 사람들이 만나 어울릴 수 있는 장이 다양한 방면으로 여러 각도로 필요한 것 같아요. 남북한 사람들 모두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어울려야 할 사회 구성원들임을 잊지 않으면 좋겠어요.⁴¹⁴⁾

둘째, ‘정착 적응기’에는 리더십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안윤희가 강조하는 리더십은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남한 사람들의 인식은 개인적으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기보다, 북한이라는 사회체제의 틀로 쉽게 구분 짓게 된다. 그러나 안윤희는 한국의 사회적 분위기를 파악하고 이것을 수용했으며, 오히려 남북한 모두의 다양성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한과 북한이라는 구별보다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다름을 인정하는 다양성의 리더십이 더 많이 발견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데요. 제가 생각하는 양질의 일자리는 단순히 임금을 많이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잠재력을 끌어올릴 수

413) Ibid.

414) “북향민 자립지원” https://blog.naver.com/the_bridge. (2023.04.26.) 접속.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기업 내에서의 교육, 그리고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도움의 장을 마련하고 싶어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탈북민에 대한 사회적인 이미지도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⁴¹⁵⁾

셋째, ‘정착 안정기’ 책임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안윤희에게 북한이탈주민 여성들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보는 ‘책임리더십’이 발견되었다. 이와 관련해 안윤희는 북한이탈주민 여성들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며 일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 안윤희는 차별과 편견의 문제를 직시하고 그것을 수용하며, 다양성의 리더십을 발휘해 ‘나’만을 위한 기업이 아니라, ‘북한주민 모두’를 위한 꿈을 꾸게 된 것이다. 이를 위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법을 고안해 현재는 자신의 기업 안에서 북한이탈주민 여성들을 채용해 한국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안윤희는 “사업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하며 “혼자 아이를 키우는 미혼모 여성들에게 힘을 실어 주고자 성탄절 등 신생아복을 후원하는 등, ‘류A’의 경영철학을 실천”⁴¹⁶⁾하고 있다.

4.2.3.1 타자중심의 자기성찰

타자에 대한 편견은 자기중심적으로 타자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오류이다. 이것은 타자, 특히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정착에 대해 자신감 결여와 정체성 혼란을 가져온다. 황진솔이 다음에서 말하는 내용은 편견이 어떠한 태도로 나타나는지 면밀히 보여주고 있다.

대부분의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잘 모르기 때문에 오는 오해로 인해 사람을 예단하는 오류를 범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내가 들은 북한 사

415) “인내는 쓰지만 열매는 달다, ‘류A’ 안윤희 대표.”

416) “더 브릿지, 탈북민 창업가 이야기 ‘ON 장마당’ 진행,” 「크리스천투데이」 (2021.05.30.)

람은 이렇다던데?’와 같은 편견이 밑바탕에 깔려서 사람을 바라보고 아무 생각 없이 무례한 질문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동정의 대상으로만 바라봐서 그 개인의 잠재력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⁴¹⁷⁾

북한이탈주민의 존재성은 체계와 집단성의 구조로 환원할 수 없는 복잡성을 띤다. 그들은 ‘남한적 자아’가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북한이라는 폐쇄적인 사회체제에서 태어나고 자라면서 자신만의 인격을 형성한 사람들이다. 따라서 각기 다양한 개인적 욕구와 취향들을 가지고 있는 북한적 자아가 지니고 있는 개별성은 기존 삶의 방식을 이탈해 남한의 체제 속에서 형성되는 정체성과 혼종 된다.⁴¹⁸⁾ 그러므로 북한이탈주민 개인의 정체성 회복과 그들 고유의 특성이 한국 사회에서 잘 수용되고 이해되려면 타자, 즉 북한이탈주민이 겪는 현실의 문제들과 일상 속 경험들을 관심 있게 바라보고, 동등한 입장에서 그들의 삶을 수용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이탈주민은 분명 강압적인 사회의 체제 아래 살았지만, 개별적으로 존중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이며, 한국 사람들과 동등하게 살아야 할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황진솔은 북한이탈주민이 “불쌍하다는 편견을 넘어 우리와 다른 가치와 가능성을 가진 이들로 인식”⁴¹⁹⁾할 때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와 함께 동등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탈북민의 어떤 안 좋은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장점을 좀 더 부각해서 보고 잠재력을 보자 이 취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랑도

417) “북향민 자립지원” https://blog.naver.com/the_bridge. (2023.04.26.) 접속.

418) 북한이탈주민은 중국 등의 제3국을 경험하면서 기존 분단체제론이 상정한 한반도의 주민, 즉 남과 북 어느 일방의 체제적인 논리로 설명하기에는 중층적인 존재성을 가지고 있다. 모춘홍·이상원 “타자와의 조우,” 100-101.

419) ‘더 브릿지’ 황진솔 대표, “임팩트 기부, 투명한 기부모델의 마중물,” 「new1」 <https://www.news1.kr/articles/?2834388>. (2023.05.05) 접속.

되게 잘 맞았고, 이 분은 그래서 생색을 내거나 이리지도 않고 그리고 되게
제가 안 지가 꽤 됐는데 그래서 한결 같이 우리의 잠재력을 보시고..(사례
3-1)

북한이탈주민들이 한국 사회에서 정착하는데 근본적으로 어려운 문
제는 한국 사람들의 인식의 문제가 가장 크다. 특히 편견의 그늘 아래
북한이탈주민의 개인의 재능이나 과거 북한에서의 학력과 전공조차 한
국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은 북한이탈주민이
라는 집단적 체제 안으로 국한되어 개인적인 특성이 부각되지 못했기
때문에 개인의 잠재력 또한 발견될 수 없었다.

한국 사회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의 문제는 자본주의 국가
에서 피할 수 없이 누구나 겪는 문제이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을
깨고 싶어 이 일을 시작”⁴²⁰⁾한 황진술은 스스로도 편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밝히며 편견을 갖지 않기 위해 노력⁴²¹⁾하고, 북한이탈주민
들이 남한 사람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발견해 주는 일에 힘쓰고 있다. 이와 관련해 안윤희가 언
급한 ‘한결 같다’는 표현은 황진술의 환대의 실천이 타자중심에서 지속
적으로 행해지고 있다는 특징을 부각시킨다. “타자중심적 사유의 핵심은
존재를 접근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자아의 인식 체계가 지닌 동질화
의 경향으로부터 탈피하여 현실 속에서 존재자들이 보여주는 분리성과
개별성을 중시하는 것이다.”⁴²²⁾ 황진술은 북한이탈주민을 기존 인식 체

420) 황진술이 이 일을 시작하게 된 동기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을 깨고 싶어”서이다. 황
진술 더 브릿지 대표 “탈북 창업자들, 남북 경제 잇는 핵심 역할” 「매일경제」 (2020. 02. 11).

421) “그렇게 안 하려고 (편견을 갖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정도인 거지 저는 그런 실수를 되게 많
이 했거든요. 이런 일을 하는데도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걸 알게 되면서 되게 부끄러웠던
적이 몇 번 있거든요. 그냥 ‘그런 편견을 갖지 않으려고 노력 한다’가 제일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사례3)

422) 모춘홍과 이상원은 북한출신의 개인들이 지니고 있는 독특한 존재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타
자성의 관점에 대해 새로운 사유가 요청된다고 언급했다. 개인적이거나 집단적인 자이는 외부

계에서 분리시켜 존재 자체의 가능성을 보고 그들 안의 잠재력을 발견하는 일을 실천하고 있다.

다른 분들하고 확연히 정말 차이점이 있으시고 그래서 저희가 배워야 될 부분들이 많고 또 나를 드러내기보다는 좀 이분들이 진짜 실제 필요한 부분들을 좀 많이 채워주시고 일단은 좀 동등한 관계로 많이 생각을 하시는..(사례 3-1)

북한이탈주민의 존재는 남과 북을 아우르는 모호한 정체성⁴²³⁾을 가지고 있어서 그들에게 환대를 실천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다. 때로 타자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고안해 낸 것들도 오히려 자기중심에서 빚어진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김현경은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에 기대어 기독교의 사랑에 내포된 함몰점을 잘 지적했다. 김현경에 따르면 아렌트는 기독교적인 사랑에 대해 비판했는데 기독교적인 사랑이 타자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타자에게 무관심하며 어떤 의미에서는 타자를 이용하기도 한다는 것을 지적했다. 그러한 헌신 밑에는 증여를 통해서 자아의 결핍을 메우려는 욕망이 자리 잡고 있다⁴²⁴⁾는 것이다.

아렌트의 이런 경고를 의식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황진술도 일방적인 사랑퍼주기식의 방식이 북한이탈주민들에게 맞지 않고, 적지 않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처음의 시행착오를 극복하며 더 브릿지의 사랑표현방식을 더욱 면밀하게 숙고하게 되었다. 황진술은 “나는 당연히 적합하다고 생각한 프로세스가 탈북민(북한이탈주민)에겐 아

의 다름이나 차이를 동일한 이성적인 기준으로 환원시켜서 체계와 영역의 일부로 포착하려는 욕구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모춘홍·이상원 “타자와의 조우,” 101.

423) 이희영, “새로운 시민의 참여와 인정투쟁,” 208.

424) 김현경, 『사람, 장소, 환대』, 175.

닐 수 있었다”라고 말하며 자신이 지속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입장에 초점을 맞출 수 있게 된 계기를 말해주었다. 처음에는 일방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던 황진술의 이러한 내면의 갈등은 끊임없는 자기성찰을 통해 타자의 입장을 생각하고 반영할 수 있는 접착점까지 연구하게 된 것이다. 그 해결책으로 프로젝트에 북한이탈주민을 직접 참여시켜 함께 개발하는 협력적 방법을 고안해 냈다. 이러한 황진술의 환대는 북한이탈주민의 생각과 방식을 존중하는 행위로서 그들에게 주인의식을 심어주고 상호간에 신뢰를 형성할 수 있게 해주었다.⁴²⁵⁾

[표 4-3] 황진술의 자아성찰 연결의 특성

자기중심의 연결	북한이탈주민 특성	타자중심의 연결	북한이탈주민 특성
정착	의존적	자립	자기개발
북한이탈주민 수혜자	자신감 결여	북한이탈주민 기부자	자존감 회복
일방적인 프로젝트	수동적	북한이탈주민 참여시킴	잠재력 발견

안윤희가 말하는 황진술에게 나타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동등성과 상호적 책임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끊임없는 자기 성찰에 있었다. 다시 말해 황진술의 리더십은 오늘날 목회자들에게 요구되는 평신도와 동역하는 리더십, 자아성찰의 역량, 대(對) 세상에서의 봉사능력⁴²⁶⁾을 두루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환대를 현대 도덕철학적 영역으로 볼 때 근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성찰적 관점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성찰적 환대는 자신과 타자의 관계에서 은연중 벌어지는 일상 속 차별

425) 황진술, “탈북민과의 협력사례, 통일에 꼭 필요해.”

426) 김희권, “목회자의 자기 성찰과 성숙을 위한 소고(小考),” 『신학과 실천』 83 (2023): 487.

과 소회를 예리하게 인식하게 해주고, 타자를 동등한 존재로 바라보고 대하는 섬세한 노력⁴²⁷⁾을 말하고 있다. 다시 말해 황진술은 자신을 주체로 만들어내는 북한이탈주민과의 만남을 통해 자신을 깊이 성찰⁴²⁸⁾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다른 남한 사람들과 차별성을 가지고 있었고, 철저히 타자중심의 환대사역을 펼칠 수 있었다.

4.2.3.2 지속적인 연결의 공급자

선교적 환대에 있어서 사람과 사람의 연결, 장소와 장소의 연결은 일시적이거나 한시적이지 않고, 지속적인 특성을 지닌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사회정착은 이러한 지속성을 강조하며, 이것은 타자와의 관계에서 신뢰를 형성해 자신감과 용기를 불어 넣어 준다. 이러한 실천은 황진술의 꾸준하고 지속적인 환대의 행동에서 찾아볼 수 있다.

황진술 대표님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보니까 제가 보기에 그 연결점을, 접촉점을 굉장히 잘 연결을 해서 사람과 사람이 잘 연결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잘 해주시는 것 같아요.(사례3-1)

오늘날 ‘장소’를 갖지 못한 사람들, 즉 자신이 속한 곳 또는 자신이 있어야 하는 곳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또는 자신이 머물러도 좋은 자리나 점유할 수 있는 위치를 발견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장소상실(placelessness)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현실적인 위협⁴²⁹⁾이지만, 그 중 북한이탈주민의 생계를 위한 장소 찾기는 구조적

427) 김선일, “통일의 시대를 위한 환대의 실천신학,” 16.

428) 김성경, “공감과 윤리, 그 (불)가능성,” 138.

429) 김현경은 장소상실의 문제가 “한때는 특정 범주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예외적인 상황으

인 측면에서 더욱 불평등을 초래한다.

장소상실의 시대 가운데 안윤희가 본 황진술의 환대의 실체는 사람과 사람의 연결, 즉 타자에게 장소, 또는 자리를 내어주는 행위, 혹은 사회 안에 속한 그의 자리를 인정하는 행위로 나타났다. 이러한 환대를 받는 북한이탈주민은 한국 사회의 구성원이 되고, 권리들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된다.⁴³⁰⁾ 따라서 시·공간적 차원에서 새로운 권리들이 발전하고 있는데 그 중 공간에 대한 권리도 자율성을 요구하고 있다.⁴³¹⁾ 특히 북한이탈주민은 한국 사회에 정착하면서 자신의 일터 공간을 통해 안정을 얻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을 가지게 된다. 이것은 생계유지와 직결되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에게 공간적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

황진술은 안윤희를 포함해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을 위해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장소를 연결해 실제 생활 속에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역량을 길러주고, 존엄성을 회복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환대는 타자에게 장소를 내어주고 그 안에서 자율적으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돕기도 하지만, 신학적 차원에서 볼 때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에 이르는 과정의 목표⁴³²⁾를 가지고 있다. 황진술은 북한이탈주민들의 공간적 자립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것에 우선적으로 중점을 두고, “인간이 인간됨은 그가 하고 있는 일과 관련해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와 교제를 나누는 복되고 거룩한 시간에 눈을 위로 들어올릴 때에만 성취되는 것”⁴³³⁾이란 말에 따라 북한이탈주민들의 본질적 내면 회복

로 인식되었지만, 지금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현실적인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현경, 『사람, 장소, 환대』, 281-282.

430) Ibid., 207.

431) Michel Maffesoli·Henri Lefebvre/ 박재환 외 역, 『일상생활의 사회학』 (과주: 한울, 2010), 411.

432) 김선일, “통일의 시대를 위한 환대의 실천신학,” 30.

433) Henri Blocher, *In the Begining: The opening chapters of Genesis*, (Downers Grove, ENG: U.S.A: IVP, 1984): 57.

에 초점을 두고, 사람과 장소를 연결해 환대를 실천하고 있다.

또 중요한 거는 비즈니스 하면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냥 그 필요한 부분들을 계속 공급을 해주시려고 노력하시는 거 그런 게 되게 감사한 거죠.(사례3-1)

이러한 연결은 한시적이 아니라, 지속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안운희는 황진술의 지속적이고 꾸준한 행동을 통해 비즈니스에 필요한 부분을 현재까지 공급받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한국 이주 초기 사회적응을 위해 충분한 제공을 받지 못해 직장적응 실패사례가 빈번히 발생한다. 사후적으로 지속적인 직업교육이나 시민교육, 정규교육 등을 강조⁴³⁴⁾하지만, 여전히 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의 취업 정착 문제는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더욱이 북한이탈주민을 하대하고 한국 사람들과 차별을 일삼는 고용주들과 접촉하면서 굴욕을 경험하기도 한다.⁴³⁵⁾ 이에 반해 황진술은 북한이탈주민 개인의 삶에 집중해 실제 필요한 부분들을 세심하게 발견하고, 지속적으로 연결해주는 공급자로 평가된다. 북한이탈주민들이 사회적으로 차별과 굴욕적인 모욕을 경험하지 않도록 경제적 자립을 돕고 있기 때문이다.

황진술이 운영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은 임팩트 기부⁴³⁶⁾를 통해 기부

434) 이지영·최경원, “북한이탈주민 직장적응 실태 분석과 제언,” 56.

435) “신자유주의 하에서 모욕은 흔히 굴욕의 모습을 띄고 나타난다.” 그중 예고 없이 실직을 당하거나, 일한 대가가 터무니없이 적을 때 사람들은 굴욕을 느낀다. 여기서 말하는 굴욕은 모욕과 차이가 있는데 모욕을 당한 사람은 자신이 느낀 모욕감을 강조하면서 단호하게 항의할수록 효과적으로 자신을 방어할 수 있지만, 굴욕을 당한 사람의 최선의 전략은 가능한 한 태연한 표정을 지으면서 사건 자체의 중요성을 축소하게 된다. 김현경, 『사람, 장소, 환대』, 160.

436) 임팩트 기부는 “모금된 기부금 전액을 개발도상국 현지인의 자립 프로젝트에 전달하고, 기부 수혜자가 경제적으로 자립한 후 받았던 기부금을 재기부하는 방식이다. 재기부 된 자금의 50%는 첫 기부자에게 임팩트 포인트로 전달되며, 이를 사용해 다른 자립 프로젝트에 기부하는 ‘기부의 선순환’을 창출한다. “기부 받은 사람이 자립해 기부에 동참하는 ‘임팩트 기부’, 「연합뉴스」(2022.07.19.)

금을 모아 북한이탈주민 창업가에게 100% 전부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러한 운영은 일반적인 기부방식과 차별성을 가지는데 그것은 단순히 북한이탈주민이 도움을 받는 위치에 머무르지 않게 한다는 것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⁴³⁷⁾ 수혜 받은 북한이탈주민 기업가가 자립 후에 다시 기부자로 변화⁴³⁸⁾되면서 기존의 수혜자였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이 깨지고, 북한이탈주민도 기부자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새롭게 형성되기 때문이다. 그 결과 북한이탈주민의 자립능력 상승효과와 더불어 남한 사람들과 동등한 위치, 더 나아가 더 월등한 성공적인 경험을 하면서 “고립되어 있는 사회적 개인의 순수한 활동”⁴³⁹⁾을 펼치게 된다.

이번에 제가 이제 온라인 마케팅이 힘드니까 “이거를 포기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 지금 육아도 힘들고요. 그냥 사업을 그냥 접을까요?”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딱 저기 진서 대표님께서 사람을 연결해 줬었는데 그 분이 이제 자기 사업도 하면서 온라인 마케팅을 자기가 터득을 하신 분이거든요. 한 5년 정도 하셨대요. 그래서 2주에 한 번 정도 이제 코칭을 해주시거든요. 컨설팅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이 연결 연결을 이렇게 저한테 딱 필요했던 분이니까 해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고..(사례3-1)

안윤희는 창업한 지 4년 정도 되었지만, 한국 사람들과 경쟁하며 회사를 운영해 가는 것이 쉽지 않다고 언급했다. 특히 온라인 마케팅에서 어려움을 경험⁴⁴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황진술은 “창업 산업의 관점에

437) 황진술, 더 브릿지 대표 “탈북 창업자들, 남북 경제 잇는 핵심 역할” 『매일경제』 (2020.02.11).

438) 이와 관련해 안윤희는 “더 열심히 하게 되고 뭔가 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줄 수 있는 거다. 이거를 심어주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사용하는 건데 저 되게 좋다”고 언급했다. (사례3-1)

439) 카렐 코지크(Karel Kosik)는 이것을 관심으로 정의했다. “관심이란, 개인의 개별적이고 주관적인 관여의 입장에서 이해된 사회적 관계망 속에, 개인이 실천적으로 얽혀 있음을 말한다.” Maffesoli·Lefebvre, 『일상생활의 사회학』, 118.

440) “매 순간 도전인 것 같고 너무 똑똑하고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경력 경쟁도

서 기업가로서의 잠재력이 있는 사람은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는 데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⁴⁴¹⁾하다는 것을 강조하며 북한이탈주민 창업가들에게 끊임없는 도전을 주며 그들을 돕고 있다. 즉 김현경의 「사람, 장소, 환대」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람은 누군가의 환대에 의해서 사람이 되는데, 사람이 된다는 것은 자리와 장소를 갖는 것이며, 환대는 자리를 내어주는 행위⁴⁴²⁾인 것처럼 황진술의 지속적인 공급에 따르는 꾸준한 환대의 실천은 당위와 명분의 차원을 넘어 어떠한 원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실천되어야 하는지 방향을 제시해 준다.⁴⁴³⁾

교회가 선교적이 된다는 것은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것이고, 성육신적이라는 말은 세상 사람들의 시간과 공간 속으로 더욱 깊이 참여하고 (deep engagement) 동일시되는(being identified) 것을 말한다.⁴⁴⁴⁾ 황진술은 ‘더 브릿지’의 기부 연결을 통해 그들의 삶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안윤희의 말에 따라 황진술은 북한이탈주민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사람들을 서로 연결해서 북한이탈주민이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일⁴⁴⁵⁾에 탁월하다. 다시 말해 황진술이 실천하는 사람과 사람의 연결, 사람과 공간의 연결의 환대 방법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꾸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너무 치열하고 내가 이만큼 따라가면 저들은 이만큼 가 있고 하는 게 피부로 많이 느껴지고 또 그래야만 살아남으니까 그건 단순히 저뿐만 아니고, 이제 창업하시는 초보 분들은 다 많이 느끼실 것 같은데 저는 창업한 지 한 4년 정도 횡수로 3년 만으로 이렇게 됐는데도 어렵더라고요. 많이 어렵고 온라인 마케팅 이런 게 정말 어려워요.”(사례3-1)

441) “탈북자들이 창업의 꿈을 시험하다” 「GMNnews」 <https://www.gmnnews.com/>. (2021.10.02.)

442) 김현경, 『사람, 장소, 환대』,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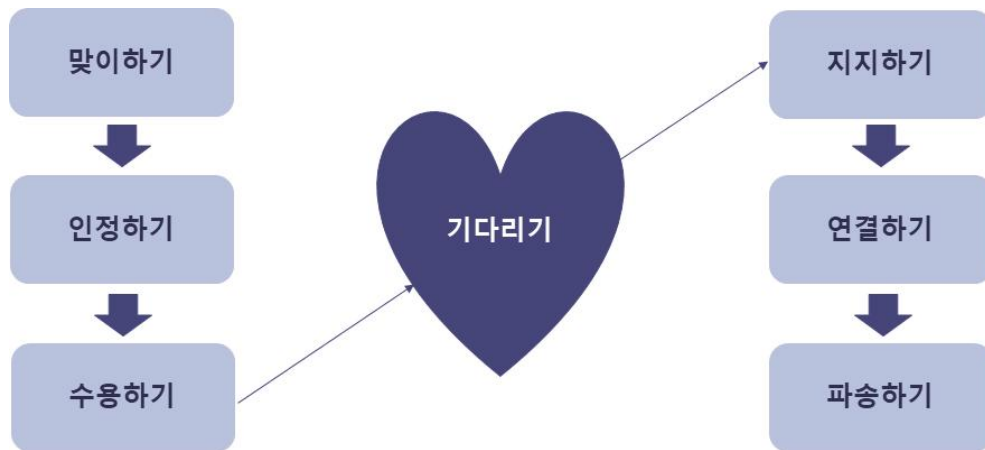
443) 김선일, “통일의 시대를 위한 환대의 실천신학,” 17.

444) 최형근, “로잔운동에 나타난 일터신학의 선교학적 함의,” 236.

445) 안윤희는 황진술에 대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려고 사람들 매칭(연결)시켜 주시고, 그런 부분을 감당하셔서 좀 더 이 사회에 우리가 잘 정착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언급했다.(사례3-1)

4.2.4 환대실천의 공통된 패턴 분석

지금까지 논의한 평신도의 환대의 실천 분석에는 공통적으로 7가지의 패턴이 발견된다. 평신도 3개의 유형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은 다음과 같다. ①맞이하기 ②인정하기 ③수용하기 ④기다리기 ⑤지지하기 ⑥연결하기 ⑦파송하기



[그림 4-4] 평신도의 환대실천 패턴

사회의 현장으로 보냄 받은 평신도는 자신의 선교지에서 타자를 환대하며 두 팔을 벌려 맞이한다. 그 속에서 타자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하며, 때를 기다려 주는 행동을 통해 선교를 실천한다. 이러한 기다림에는 포기하지 않고 붙드는 끈기와, 주저앉아 있을 때 재촉할 수 있는 행동이 나타난다. 이러한 과정에서 타자의 숨겨진 잠재력이 발견되는데 이것을 충분히 지지해주고 장소와 사람을 연결해주면 결국 북한이탈주민은 또 한명의 ‘환대의 실천자’로서 자립할 수 있게 된다.

4.2.5 환대실천의 공통된 상호관계 분석

본 연구의 연구 참여자 6명의 인터뷰 분석 결과 평신도와 북한이탈주민의 상호적 관계 안에서 나타나는 공통된 특성은 3가지로 생성되었다.

- ① 복음 전함의 뚜렷한 목적
- ② 일방적 지원이 아닌, 상호적 관계 형성
- ③ 타자 중심의 자기성찰

[표 4-4] 평신도 환대실천의 공통된 상호관계

평신도와 북한이탈주민 연구 참여자	복음 전함의 목적	상호적 관계 형성	타자 중심의 자기성찰
가찬미-이다은	“입시 코칭 마지막 날 하는 게 있어 근데 내가 너무 좋은 친구 소개해주고 주고 싶다.”	“애들이 되게 잘 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할 수 있게 해줘야지 일방적인 거는 정말 아닌 것 같아요.”	“내 상식과 내 틀로 애네는 이렇게 해야 돼라는 그런 틀로 생각을 했구나 그러면서 이제 돌이키죠”
권하연-윤미희	“누구나 다 그냥 저한테 오는 그런 그냥 모든 고객들한테 기회가 되면은 그 안에서 다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없는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고 기다려주고”	“정말 다양한 여성들한테 이런 기회 자신의 삶을 살어나갈 수 있고 그런 걸 하고 싶은 게 내 생각이지만, 새터민 분야에서는 오히려 내가 미희 선생님을 온전히 세워놔야..”
황진솔-안윤희	“탈북민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잘 회복되어지는 것이 저가 갖고 있는	“한결같이 우리의 잠재력을 보시고 또 중요한 거는 비즈니스 하면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잖아	“제가 막 밥 사달라고 그러면 되게 처음에 당황하면서 나중에 되게 좋아하고 그냥 밥 한 끼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 ⁴⁴⁶⁾	요. 그냥 그 필요한 부분들을 계속 공급을 해 주시려고 노력”	얼어먹으면 금방 친해져요.”
--	------------------------------	------------------------------------	-----------------

첫째는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뚜렷한 목적이 있다. 연구 참여자 3명의 평신도 모두 북한이탈주민에게 환대를 실천하며, 그 관계 안에서 복음에 대한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평신도가 세상에서 환대를 실천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다. 목적이 없는 환대의 실천은 복음과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의 구체사역으로 끝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교적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일터로 파송하시고, 그 속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실천되어야 할 선교적 삶의 최종 목적이기 때문이다.

둘째는 일방적인 지원이 아니라, 실천자와 수혜자가 상호적 관계를 이루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 3명의 평신도 모두 북한이탈주민에게 환대를 실천하며, 상호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들의 환대 실천의 특성은 일방적이거나 무조건적인 지원이 아니라, 동등한 관계 안에서 환대를 실천하는 것이다. 이것은 연구 참여자의 통찰력에 입각한 잠재력 발견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데서 조건적인 환대와는 차별성을 가진다. 평신도는 북한이탈주민의 외형적 모습이 아니라, 그 안의 잠재력에 집중해 역량을 길러주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한시적인 일방적인 지원보다 미래의 희망적인 실제 생활에 초점이 맞추어져 현재의 어려움에 집착하지 않으며,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 돕는다.

446) 일터사역에 대해 황진술은 “일터 사역이라는 것 자체가 흔히 얘기하는 복음을 전해서 넌 크리스찬을 크리스찬으로 만드는 사역으로 한정짓지 않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이것을 조금 더 광의적으로 해석해서 북한이탈주민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다시 말해 황진술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타자 안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것이다.(사례3)

셋째는 자기성찰에 입각한 타자 중심의 환대를 실천하고 있다. 연구 참여자 3명의 평신도 모두 자기성찰에 입각한 환대를 실천하고 있었다. 이들 모두의 환대는 철저히 타자 중심이며,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성찰할 수 있었다. 특히 자신의 생각과 북한이탈주민의 생각이 부딪치거나, 갈등이 발생할 때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을 줄 알고, 타자 중심으로 기다리거나, 공감하거나, 인내한다. 이러한 자기성찰은 환대의 실천자와 수혜자 사이에 공감대를 형성해 주고, 실천자가 우선적으로 자신을 낮추는 행동을 통해 수혜자의 신뢰를 얻게 된다. 평신도는 북한이탈주민과 자연스럽게 친구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 그들의 정착을 돕는 데 필요한 것들을 그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공급해 주는 환대를 실천했다.

4.3 연구결과의 타당성 검토

질적 연구는 기존 연구와 다르게 연구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 즉 자신의 고정관념이나 생각의 틀을 벗어나 연구 참여자의 관점을 반영하는 연구방법이기 때문에 연구의 신뢰도나 타당도의 확보는 중요하다. 따라서 연구의 형태와 상관없이 타당도와 신뢰도는 관심사가 된다. 이것은 연구의 개념에 보다 주의 집중해서, 그리고 자료가 수집·분석·번역되는 방식과 발견한 것을 제시하는 방식을 통해 접근⁴⁴⁷⁾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연구 결과에 대한 타당도 검토를 위해 링컨과 구바가 제시한 4가지 기준을 척도로 평가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4.3.1 사실적 가치(truth value)

447) Sharan B. Merriam/ 강윤수 외 역, 『정성사례연구방법론과 사례연구』 (서울: 교우사, 2021), 272-279.

질적 연구에서 사실적 가치는 신뢰성(credibility)으로도 언급된다. 이것은 연구자의 해석이 연구 참여자의 기준에서도 적합한 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현장에서의 사건과 연구 대상에 대한 기술이 연구자의 해석적 입장에서 타당한 지 연구 참여자의 입장을 반영해 연구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필자는 연구 결과의 신뢰도와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해 6명의 연구 참여자에게 검토 작업(member checking)을 수행했다. 연구 참여자들에게 분석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요청해 연구자의 해석에 대한 타당도를 재평가 하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결과적으로 연구자의 연구 분석과 해석이 사실적 내용에 입각해 실행되었다고 평가되어 연구의 신뢰성을 충족시킬 수 있었다.

4.3.2 적용성(applicability)

적용성은 양적 연구에서 외적 타당도에 해당한다. 이것은 한 연구의 발견된 내용을 토대로 다른 상황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정도와 관계가 있다. 다시 말하면 한 연구의 결과에 대해 얼마나 일반화할 수 있는가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적용성의 평가는 우선적으로 내적으로 타당한 연구에 의해 일반화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 링컨과 구바에 따르면 의미 없는 정보에 대해 일반화를 논하는 것은 불필요하기 때문이다.⁴⁴⁸⁾ 본 연구는 연구 참여자 외에 4명을 채택해 동료검토(peer debriefing critical friend review) 방법을 시행했다. 본 연구의 참여자 외에 실제 환대를 실천한 경험이 있는 평신도 2명과 환대를 받은 경험이 있는 북한이탈주민 2명에게 이 논문이 말하는 평신도의 환대 실천이 북한이탈주민을 정착시키는 데 적절한 선교 방법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하는

448) Yvonne S. Lincoln and Egon G. Guba, *Effective Evaluation*, (San Francisco: Jossey-Bass, 1988), 115.

절차를 가졌다. 결과적으로 평신도와 북한이탈주민 모두 자신이 경험한 것과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한다고 평가해 본 연구의 적용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었다.

4.3.3 일관성(consistency)

일관성은 자료수집부터 분석 결과까지 진실성이 있는지 평가하는 것으로 타 연구자가 유사한 맥락에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⁴⁴⁹⁾한다. 본 연구는 링컨과 구바가 제시한 감사추적(audit trail/expert audit review)⁴⁵⁰⁾을 실시해 연구자의 행적을 추적하는 것으로 연구에서 발견된 사항들에 대해 진실성을 밝히고자 했다. 따라서 실제 질적 연구의 경험이 있고, 전문가인 본교 기독교학과 교수 1명에게 사례연구 방법과 에릭·에틱 코딩 분석법의 적용성을 감수 받았으며, 질적사례연구 박사학위를 취득한 전문목회자 1명에게 연구 내용을 평가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의 이론적 내용과 사례 분석에 대한 일관성 여부를 검증받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연구 수행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4.3.4 중립성(neutrality)

중립성은 객관적으로 사실적 가치와 적용성 및 일관성이 충족될 때 확보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연구자는 자신의 관점을 최소화하고 객관적 입장을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편견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

449) Lincoln·Guba, *Naturalistic Inquiry*, 288.

450) 감사가 행해질 수 있도록 연구자는 탐구 전반에 걸쳐 ①자료가 어떻게 수집되었는가? ②범주들이 어떻게 도출되었는가? ③어떻게 결정들이 내려졌는가? 상세하게 서술해야 한다. Sharan B. Merriam/ 강윤수 외 역, 『정성사례연구방법론과 사례연구』, 283.

력했다. 연구 참여자 선정부터 면담의 진행과 결과 분석까지 최대한 연구자와 거리가 있는 사람들과 소통하고, 자료 분석 또한 다양한 참여자들을 통해 검토를 받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연구의 신뢰성, 적용성, 일관성을 유지해 연구의 타당도를 충족시켜 결론적으로 중립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사료된다.

제 5 장 결 론

5.1 연구 요약 및 함의

[표 5-1] 평신도의 ‘선교적 환대’에 관한 결론

유형/ 연구결과	가찬미(선교적 교육)	권하연(선교적 기업)	황진술(선교적 비즈니스)
환대의 대상(북한이탈 주민)	이다은	윤미희	안윤희
선교적 마인드	일터선교지 인식		
에믹분석 결과	친밀한 교제 & 공감과 수용	유연성 있는 태도 & 진정성 있는 노력	그대로를 존중 & 수평적 협력
에틱분석 결과	관심의 연결고리 & 진정성을 겸비한 가족	포기하지 않는 기다림 & 품격있는 언어	타자 중심의 자기성찰 & 지속적인 연결의 공급자
공통된 패턴	맞이하기→ 인정하기→ 수용하기 → 지지하기→ 연결하기→ 파송하기		
공통된 상호관계	① 복음 전함의 뚜렷한 목적 ② 일방적 지원이 아닌, 상호적 관계 형성 ③ 타자 중심의 자기성찰		

이 논문은 평신도의 일터 현장에서 발견되는 타자, 즉 북한이탈주민을 향한 선교적 환대의 삶을 규명하고, 이에 따라 분석된 내용을 토대로 평신도들이 교회 밖,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환대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기

를 촉구하고 있다. 필자는 이 논문의 서론에 제시한 연구문제에 입각해 평신도의 실제 삶을 탐색해 사례 연구를 시행했다. 이와 관련해 면담의 자료수집 후 언어학자 케네스 리 파이크⁴⁵¹⁾(Kenneth Lee Pike)가 제안한 에믹·에틱 개념을 사용해 평신도의 환대 실천에 나타나는 특성을 분석했다.

1차면담은 평신도(환대의 실천자)를 대상으로 한 에믹 분석(내부적)으로, 2차면담은 북한이탈주민(환대의 대상자)의 외부적 관점을 도입한 에틱 분석(외부적)으로 시행 후 최종적인 결과를 도출했다. 이러한 연구 분석 방법은 환대의 실천자와 환대의 대상자 양측의 입장을 동시에 도출하는 것으로 기존 연구 방법에서 더 나아가 타자중심의 실천방안을 탐색한다는 데서 큰 의미를 가진다. 이를 위해 필자는 환대의 대상자인 북한이탈주민이 평신도 연구 참여자와 동등한 입장에서 면담할 수 있도록 도왔다. 특히 연구자의 편견을 최소화하기 위해 타자 중심의 대화 면담을 시행해 결론적으로 북한이탈주민, 즉 외부자의 관점에 기인한 환대 실천 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다.

면담의 진행은 먼저 평신도 연구 참여자를 선교적 교육유형, 선교적 기업 유형, 선교적 비즈니스 유형으로 나누어 1차면담을 시행했다. 이들은 여성 2명과 남성 1명으로 30대~40대 초반의 사회적 역량을 가지고 있는 평신도들이다. 이들의 면담 자료를 전사하고 분석해 평신도 연구 참여자들의 환대 실천 대상이 되는 북한이탈주민 3명에게 2차면담을 시행했다. 이들은 한국 사회에 정착하고 있는 여성 3명으로 대학생, 강사, 창업주이며, 평신도 연구 참여자들에게 환대를 경험한 사람들이다.

연구 분석 결과 우선적으로 평신도 연구 참여자 3명 모두는 자신의

451) 파이크의 대표적인 저서는 다음과 같다. Kenneth L. Pike, *Language in Relation to a Unified Theory of the Structure of Human Behavior*, 2nd ed. (The Hague: Mouton, 1967), 1-730.

일터를 선교지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일터 공간을 환대의 장소로 사용하고 있었다. 그 속에서 발견된 실천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환대의 실천자인 가찬미의 사례에 대한 에틱분석 범주는 ‘친밀한 교제’와 ‘공감과 수용’으로 생성된 반면 에틱분석 범주는 ‘관심의 연결고리’와 ‘진정성을 겸비한 가족’으로 생성되었다. 실천자는 환대의 대상자에게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북한이탈주민을 공감해주고 그들의 문화와 특성을 수용해 주는 선교적 환대를 실천하고 있었다. 이러한 환대는 대상자인 북한이탈주민이 바라볼 때 가족과 같은 친밀함으로 나타나 상호간의 신뢰를 형성했다. 이들은 일상의 소소한 부분까지 공감대를 형성해 결국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정착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환대의 대상자인 이다은은 사회복지사를 꿈꾸며 K대에 입학해 현재 대학생으로 자립한 상태이다.

두 번째 환대의 실천자인 권하연의 사례에 대한 에틱분석 범주는 ‘유연성 있는 태도’와 ‘진정성 있는 노력’으로 생성된 반면 에틱분석 범주는 ‘포기하지 않는 기다림’과 ‘품격 있는 언어’로 생성되었다. 실천자는 대상자의 독특한 문화에 맞추어 유연성 있는 태도를 보였고, 포기하지 않는 노력으로 꾸준한 관계를 유지했다. 이러한 환대는 대상자가 바라볼 때 자신을 끊임없이 기다려주는 사람으로 비추어져 포기하지 않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왔다고 평가되었다. 더욱이 북한이탈주민에게 품격 있는 언어와 존칭을 사용해 존중해주고, 숨겨진 재능 또한 발견하게 해주었다. 환대의 대상자인 윤미희는 현재 강사로서의 자질을 충분히 개발해 자립한 상태이며, 북한이탈주민 1호 이미지 컨설턴트로 활동 중이다.

세 번째 환대의 실천자 황진술의 사례에 대한 에틱 분석 범주는 ‘그대로를 존중’과 ‘수평적 협력’으로 생성된 반면 에틱 분석의 범주는 ‘타자 중심의 자기성찰’과 ‘지속적인 연결의 공급자’로 생성되었다. 실천자는 대

상자의 존재 자체에 초점을 두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를 존중했다. 이러한 환대는 차별과 편견의 벽을 뚫고 둘 사이를 동등한 친구 관계로 발전시켜 주었다. 더 나아가 실천자는 대상자와의 관계에서 끊임없이 자기를 성찰하는 것으로 갈등을 해결해 나갔다. 이에 따라 평신도와 북한이탈주민의 관계는 지속적으로 연결되어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는 환대를 실천할 수 있었다. 환대의 대상자인 안윤희는 현재 창업주로서 회사를 경영하며, 이익을 창출해 기부자로서 활동하면서 북한이탈주민들의 정착을 돕고 있다.

연구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볼 때 3명의 평신도 연구 참여자의 환대의 실천 과정에서 공통된 패턴을 발견할 수 있었다. 환대의 실천자인 평신도는 먼저 환대의 대상자인 북한이탈주민을 맞이하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며, 수용하고, 기다리는 특성을 나타냈다. 이러한 기다림의 과정을 거치며 끈기 있게 이겨낼 때 서로 간의 신뢰가 형성되었고, 그것을 바탕으로 실천자는 북한이탈주민이 가지고 있는 숨겨진 재능을 발견해 지지해 줄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이들의 역량을 개발해주고, 사회의 현장으로 연결하고, 파송하는 단계까지 진입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연구 참여자들에게 나타나는 공통된 특성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이것은 본 논문이 주장하는 최종적인 연구 결과로서 선교적 환대의 실천적 함의를 담고 있다.

첫째, 환대의 실천자들은 복음에 대한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환대를 실천했다. 실천자들은 자신이 행하는 환대가 하나의 구체 사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복음을 전하는 최종 목표를 가지고 환대를 수행했다. 따라서 이들에게 일터는 중요한 선교 현장이 되었다.

둘째, 환대의 대상자에게 일방적인 지원이 아닌 상호적 관계 속에서 친밀한 교제를 유지했다. 이것은 실천자가 대상자를 동등한 관계로 바라

보는 것으로 차별과 편견에서 벗어나 행해지는 중요한 선교의 방법이다. 결국 수평적 관계를 이루는 친밀함이 선교를 확장한다는 함의를 담고 있다.

셋째, 환대의 실천자들은 철저히 타자 중심의 환대를 실천했다. 그동안의 자기중심적 환대는 일방적인 지원으로 나타나 환대의 대상을 그저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 인식했다면 타자 중심의 환대는 철저히 자신을 낮추는 것으로 실행되어 타자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립을 돕는 타자 중심의 환대로 실행되었다.

넷째, 환대의 실천자들은 자기성찰에 입각해 선교를 수행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연구 결과로 환대의 실천이 타자 중심의 방법으로 시행되어 결국 대상자들의 자립을 도울 수 있었던 것은 실천자의 철저한 자기성찰에 있었다. 이들은 매순간 자신의 생각, 의지, 방법을 내려놓는 것으로 타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그들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기다려주고, 지지해주고, 파송해 결국 본 논문이 말하고 있는 환대의 실천 성공 단계를 모두 수행했다. 이러한 자기성찰이 없었다면 이 논문이 말하는 환대는 실행될 수 없었다고 평가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평신도의 실제 일터 현장에서 실행되는 '선교적인 삶'을 면밀히 탐색했다. 이와 같은 현장 연구의 결과는 새로운 이론적 틀을 구성해 또 다른 연구 방안을 통찰하게 해주고, 평신도들이 실제 삶에서 선교를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공해주었다. 특히 평신도 연구 참여자 3명이 보여주는 선교적 환대의 실천 방식은 자기중심적인 신앙에 물들어 있는 한국 교회와 성도들에게 던져주는 함의가 크다. 특히 그들의 선교는 문화와 상황이 다른 북한 이탈주민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와 상황 안으로 동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타자인 그들만의 고유하고 독특한 특성을 수용하는 것으로 지속

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이것은 철저한 자기성찰을 통해 타자중심으로 실행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평신도 연구 참여자들은 우리와 같은 민족이지만, 전혀 다른 북한이탈주민을 선대하면서도 자신을 성찰했다. 이것은 현대 사회에서 발견하기 어려운 신앙적 태도로서 이들이 자신의 힘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시는 성령님의 이끄심에 따라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들의 선교적 실천이 우선적으로 문화적 갈등과 차이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매 순간 자신의 기준을 내려놓는 데 있었다. 이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성령님의 선교적 운행으로서 자기성찰을 통해 타자를 포용하는 단계로 진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시는 선교의 확장은 평신도 연구 참여자의 끈질긴 인내와 기다림으로 나타나 북한이탈주민을 정착시킬 수 있었다.

이 논문은 환대를 실천하는 평신도와 그 대상이 되는 북한이탈주민 사이에 발생하는 미묘한 부딪침을 유연하게 극복할 수 있는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타자중심의 자기성찰적 연구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던 것은 에릭·에릭의 분석 방법으로 실행되었기 때문이다. 이 연구 방법은 연구자가 미처 발견하지 못하는 외부적 입장을 함께 도출할 수 있다는 데서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즉 환대의 대상자가 되는 북한이탈주민의 관점을 도입해 실천자가 실행한 선교적 방안을 대상자의 입장을 포함해 분석했기 때문에 타자 중심의 분석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특별히 필자와 같은 연구자들에게 던지는 함의도 있다. 연구자는 현장에서 만나는 연구 참여자들을 면담할 때, 또는 이론적 내용을 분석하고 자신의 논문에 제시할 때 타자 중심의 관점을 고민하고, 자아를 통찰하는 것으로 연구 참여자들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이탈주민과 같은 낮은 타자에 대한 연구는 타

자의 고통에 참여할 수 있는 자기성찰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김성경은 북한이탈주민이 연구자의 언어로 재현되고, 연구자의 입장에서 대상화되는 것에 대해 윤리적 책임을 가져야 한다⁴⁵²⁾고 언급했다. 따라서 연구자는 북한이탈주민과 같은 취약한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는 자들을 연구할 때 지속적으로 자신을 성찰하는 것으로 책임 있는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오늘을 사는 사람들에게 ‘공감’이 중요시 되는 이유는 그만큼 타자에 대한 마음의 결여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특히 한민족이지만, 전혀 다른 낯선 타자인 북한이탈주민을 진정으로 공감할 수 있는 방법은 자기성찰에 입각한 철저한 타자 중심의 환대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선교적 환대는 치열한 삶의 현장을 살아내는 평신도들의 선교적 삶을 돕는 가장 중요한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평신도 선교사들은 우선적으로 자신의 일터를 환대의 공간으로 조성해 일터 선교를 실천해야 한다. 이것은 낯선 타자를 맞이하고, 인정하고, 수용하고, 기다리며, 지지하고, 연결할 때 파송하는 단계로까지 나아갈 때 구체적으로 실행될 수 있다. 이러한 자기 성찰에 입각한 타자 중심의 선교적 환대는 북한이탈주민과 같은 낯선 타자가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최선의 길이며, 평신도들이 선교적 삶을 구현해 낼 수 있도록 그 방안을 제시해 준다는 데서 의미 있는 함의를 담고 있다.

5.2 선교적 교회를 위한 제언

본 연구는 한국교회의 핵심 구성원이 되는 평신도들의 삶의 현장을 중심으로 그들이 삶에서 실천하고 있는 선교적 환대의 방안을 탐색하였

452) 김성경, “공감의 윤리 그 (불)가능성,” 136-137.

다. 연구자가 관찰한 평신도의 선교적 삶은 철저히 타자 중심으로 실행되었으며, 이것은 자기성찰에서 기인했다. 이들은 환대의 대상자를 향해 일방적인 지원이 아닌 친밀한 교류를 행하며 동등한 관계 안에서 환대를 실천했다. 필자는 이러한 ‘선교적 모델’이 되는 평신도들의 삶을 면밀하게 추적하고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선교적 교회의 다음 스텝을 감연(敢然)히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 교회는 본 연구에서 밝히고 있는 대로 평신도의 환대의 삶을 본보기 삼아 이러한 실천적 모델을 세워가는 데 실제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중심으로 교회를 새롭게 정립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이 말하고 있는 자기성찰과 타자중심의 상호적 관계를 교회와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우선적으로 적용해 본다.

먼저 목회자는 자기 주도적이거나 일방적인 방식으로 교회를 운영하려고 했던 것에 대한 자기성찰이 있어야 한다. 그동안 목회자에게 가려져 부각되지 못했던 성도들을 중점으로 그들의 다양한 은사와 재능을 발견하고 개발해 주는데 초점⁴⁵³⁾을 두어야 한다. 목회자는 성도들과 함께 창의력을 모으고, 함께 연합하는 사역을 통해 성도들의 삶을 깊게 공감할 수 있는 단계로까지 나아가야 한다. 성도들 또한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신앙생활에 대한 자기성찰이 있어야 한다. 교회 안에서만 기독교인처럼 살고 교회 밖에서는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을 돌아보아야 한다. 내가 속한 가정, 나의 자녀, 나 중심의 신앙을 버리고, 이타적인 삶으로 어려운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자신의 공간(시간, 마음, 물질)으로 환대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교회는 기존의 교회 중심의 프로그램을 개선해 교회 밖, 사회 선교지로 성도들을 파송하는 것에 목적을 두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성도들에게 발견된 재능이 사회와 일터에서 사용될 수

453) 스토트의 저서 『존 스토트가 말하는 목회자와 평신도』, 85-124를 참고하라.

있도록 돕고, 그들의 시선이 자신의 일터와 삶의 현장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둘째, 선교적 교회의 구체적인 선교 방법은 평신도들의 삶을 통해 실행되어야 한다. 교회는 성도들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현장 중심의 새로운 도전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예컨대 성도들은 자신의 일터에 복한 이탈주민과 같은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고용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선교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다. 다시 말해 그동안 교회의 공간에서만 실행되었던 환대와 섬김을 자신의 일터로 전환해 실천해야 한다. 타자를 맞아들이는 성도들이 많아질 때 사회의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교적 교회는 성도들이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생태계 보존, 지역사회 돕기, 일터선교, 구제사역 등)을 고안해 교회 안팎으로 본보기가 되는 평신도 선교사들을 지속적으로 양성해야 한다.

셋째, 앞서 논의한 대로 평신도는 삶에서 실천하고 경험한 것들을 서로 소통하며 나누어야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교회 내의 소그룹 운영은 매우 중요하다. 자신이 경험한 것들을 공동체 안에서 서로 나눌 때 일방적인 선교 방법이 아닌, 타자 중심의 선교적 방식을 통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선교적 교회는 공예배를 통해 들은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 나누며, 새롭게 도전받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일상의 나눔은 성도들이 자기중심적 신앙에 함몰되지 않고, 타자 중심의 가치관을 형성해 세상으로 파송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소그룹 운영 방식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성도들의 모임 자체가 ‘선교적 목적이 있는 그룹’으로 활성화 시켜야 한다. 그렇게 행할 때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며, 이러한 반복된 훈련은 사회적으로 좋은 선교적 모델을 지

속적으로 파송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넷째, 선교적 교회는 다음세대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는 환대의 장소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도전은 장년들의 철저한 자기성찰에 입각해 시행될 수 있다. 이기적인 민낯을 여실히 드러낸 한국교회는 다음세대를 잃어버리는 가장 큰 오류를 범했다.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급급한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도 이기심과 경쟁을 버리지 못했고, 다음세대들은 교회 안에서 여러모로 많은 기회를 잃어버렸다. 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며, 다시 그들을 모이게 하는 방법은 타자, 즉 다음세대 중심의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다. 이러한 실천은 반드시 장년층의 자기성찰에 입각한 희생이 또 한 번 필요하다. 교회 운영의 전반적인 핵심 자리에 다음세대를 세워주는 과감한 시도는 교회를 통해 탁월한 리더십을 발견하게 해주고, 결국엔 그들을 통해 더 많은 청년들이 일어나도록 도울 것이다. 따라서 선교적 교회는 무엇보다 다음세대에 집중하는 교회로서 환대의 공간을 조성하고, 이 일에 장년층과 시니어 세대가 마음을 모아 선조들의 희생과 헌신의 정신으로 다음세대를 섬겨야 할 것이다.

다섯째, 선교적 교회는 시니어세대의 다음 스텝을 준비시키고, 새로운 비전을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100세 시대를 지나 코로나19 이후 뉴노멀 시대를 살고 있는 현대 사회에 은퇴의 기준은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기회를 제공받는 시점이 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은퇴는 모든 것을 떠나거나 내려놓는 시기가 아니라, 선교적 사명을 다양한 곳에서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단초가 되어준다. 따라서 은퇴의 시점은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선교와 해외단기선교 등 다양한 곳에서 가장 겸손히 쓰임 받을 수 있는 적절한 선교의 시기로 평가할 수 있다. 이들은 젊은 날의 실수와 실패의 연단을 경험하며 단단한 하나님의 도구

로 빛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선교적 역량을 그 누구보다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타자 중심의 ‘선교 실천 도구’가 될 수 있다.

여섯째, 선교적 교회는 분립개척을 통해 교회를 확장시켜 나가는 일을 최선으로 감당해야 한다. 교회를 개척해 나가는 것은 결국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으로 지상 최대의 명령인 복음 전파를 적극적으로 실행하는 일이다. 특히 대형교회는 교회의 유지 차원을 넘어 주변의 지역 교회들과 협력해 하나님의 선교를 함께 이루어 나가야 하며, 교회를 분립해 선교적 교회를 곳곳에 확장해 나가야 한다. 오늘날 교회분립은 모든 성도들이 지역으로 흩어져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성도들이 목회자들과 함께 동역하는 것으로 평신도 사역을 개발시킬 수 있는 의미 있는 선교적 방법이다. 따라서 선교적 교회와 목회자, 성도들은 함께 협력하며, 함께 흩어지고, 함께 파송되어 하나님 나라에 중점을 두는 교회의 분립을 지속적으로 실행해야 한다.

일곱째, 본 연구에서 밝히고 있는 연구 결과에 따라 교회 내부의 북한이탈주민 관련 부서는 자기중심적인 운영방식을 타자중심의 방식으로 전환해 북한이탈주민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신실한 환대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북한이탈주민 관련 부서는 무모하고 일방적인 지원에 대한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상호적 관계를 이룰 수 있는 친밀한 교제의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남한 평신도와 북한 평신도의 구별된 상하 관계의 조직도를 재정립하고, 북한이탈주민에게도 남한 평신도와 동등한 관계에서 사역의 기회들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북한이탈주민들의 다양한 가능성을 발견해 주고, 통일 시대를 준비하는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북한이탈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북한의 문화는 존중 받아야 하며, 북한에서 길러낸 개인의 재능과 학력 또한 한국 문화에 종속되어 무조건적으로 배제되면 안 된다. 분명 북한이탈주민은 우리와 동등한

입장에서 환대를 지속적으로 경험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선교는 타자 중심의 자기희생적인 사람들을 통해 교회를 운영해 가신다. 그렇게 구성된 선교적 교회는 또한 그러한 사람들을 배출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 그러한 의미에서 교회 공동체는 어두운 이 시대의 방주로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다. 이 곳에서 많은 평신도 선교사들이 세상으로 파송되고 있기 때문이다. 성도는 그러한 존재이다. 성도는 오늘도 세상을 지탱하고 교회를 지탱하기 위해 자신을 버리고, 고난을 참으며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는 이러한 성도들을 존귀하고 소중히 여기며, 이들의 선교적 사명을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 가찬미. 『청년, 통일하자: 우리, 일어나 통일 마중 나가자!』. 서울: 홍성사, 2016.
- 강영안. 『타인의 얼굴: 레비나스의 철학』. 서울: 문학과지성사, 2005.
- 강진령. 『APA 논문작성법』. 서울: 학지사, 2020.
- 김병로·김성철. 『북한사회의 불평등 구조와 정치사회적 함의』. 서울: 민족통일 연구원, 1998.
- 김은수 외 공저. 『선교적 교회론과 한국교회』.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5.
- 김현경. 『사람, 장소, 환대』. 서울: 문학과지성사, 2015.
- 김혜선. 『글로벌 이주와 초국가적 가족유대』. 파주: 이담, 2014.
- 김희권. 『자비 경제학: 구약성경과 하나님 나라 경제학』. 서울: PCKBOOKS, 2022.
- _____. 『하나님 나라 신학으로 읽는 요한복음』. 서울: 복있는 사람, 2020.
- 민성길. 『통일과 남북청소년』.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2000.
- 박성희. 『공감학: 어제와 오늘』. 서울: 학지사, 2017.
- 방선기 외 공저. 『급변하는 직업 세계와 직장 속의 그리스도인』. 서울: Ivp, 2013.
- 서용석·문형만. 『북한사회론: 북한사회의 범죄』. 서울: 나남, 1994.
- 윤인진. 『북한이주민: 생활과 의식, 그리고 정착지원정책』. 서울: 집문당, 2009.
- 전경수. 『문화의 이해』. 서울: 일지사, 1994.
- 전우택 외 공저. 『평화와반(反)평화』. 서울: 박영사, 2021.
- 정병호 외 공저. 『웰컴투 코리아: 북조선 사람들의 남한살이』. 서울:

- 한양대학교 출판부, 2006.
- 정승현. 『선교하는 교회에서 선교적 교회로』. 인천: 주안대학원대학교출판부, 2021.
- 이순형 외 공저. 『북한이탈주민의 종교경험』.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5.
- 조영달·박선운. 『문화적 민감성을 높인 질적 연구의 이론과 실제』. 파주: 교육과학사, 2021.
- 조정아. 『북한주민의 일상생활』. 서울: 통일연구원, 2008.
- 조천현. 『탈북자』. 파주: 보리, 2021.
- 최진우. 『다양성의 시대, 환대를 말하다: 이론, 제도, 실천』. 서울: 박영사, 2018.
- 최진우. 『환대 평화의 조건, 공생의 길』. 서울: 박영사, 2020.
- 한국일. 『세계를 품는 교회: 통전적 선교신학』.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2010.
- 한기채. 『한국 교회의 7가지 죄』. 서울: 두란노, 2021.

번역문헌

- Augustinus./ 성염 역. 『교부 문헌 총서 21: 아우구스티누스 삼위일체론』. 왜관: 분도출판사, 2015.
- Barth, Karl./ 박영범·황덕영 역. 『교회교의학 II/2: 하나님에 관한 교의 2-2-2』.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7.
- _____/ 박영범·황덕영 역. 『교회교의학 III/4: 창조에 관한 교의 4권』.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7.
- Bonhoeffer, Dietrich./ 문익환 역. 『신도의 공동생활』.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5.

- _____/ 이신건 역. 『성도의 교제: 교회사회학에 대한 교의학적 연구』. 서울: 대한기독서회, 2010.
- _____/ 정지련·손규태 역. 『신도의 공동생활: 성서의 기도서』. 서울: 기독교서회, 2010.
- Boersma, Hans./ 윤성현 역. 『십자가, 폭력인가 환대인가』. 서울: CLC, 2014.
- Bosh, David J./ 김만태 역. 『변화하는 선교』. 서울: CLC, 2017.
- Brueggemann, Walter./ 정진원 역. 『성경이 말하는 땅: 선물·약속·도전의 장소』. 서울: CLC, 2005.
- Calvin, Jean./ 원강연 역. 『기독교 강요(상)』. 파주: 크리스천다이제스트, 2017.
- Creswell, John W./ 정종진 외 역. 『연구방법: 질적 양적 혼합적 연구의 설계』. 서울: 시그마프레스, 2018.
- Creswell, John W·Poth, Chery N./ 조홍식 외 역. 『질적 연구방법론: 다섯 가지 접근』. 서울: 학지사, 2021.
- Denzin, Norman K./ 최욱 역. 『증거의 정치』. 서울: 아카데미프레스, 2014.
- Dowsett, Rose./ 최형근 역. 『케이프타운 서약: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복음주의 현장』. 서울: Ivp, 2014.
- Engen, Charles Van./ 임윤택 역. 『하나님의 선교적 교회』. 서울: 한양대학교 출판부, 2006.
- Glesne, Corrine./ 안혜준 역. 『질적 연구자 되기』. 파주: 아카데미프레스, 2017.
- Goheen, Michael W./ 이대현 역. 『21세기 선교학 개론』. 서울: CLC, 2021.
- Greear, J. D./ 정성목 역. 『담장을 넘는 크리스천: 교회 밖으로, 세상 속으로』. 서울: 두란노서원, 2016.
- Guder, Darrell L./ 정승현 역. 『선교적 교회: 북미교회의 파송을 위한 비전』. 인천: 주안대학원대학교출판부, 2013.
- _____/ 허성식 역. 『증인으로의 부르심』. 서울: 새물결플러스,

- 2016.
- Houten, Christiana Van./ 이영미 역. 『너희도 이방인이었으니』. 오산: 한신대학교출판부, 2008.
- Jipp, Joshua W./ 송일 역. 『환대와 구원: 혐오 · 배제 · 탐욕 · 공포를 넘어 사랑의 종교로 나아가기』.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9.
- Kuyper, Abraham./ 조계광 역. 『기독교와 사회문제』. 서울: 생명의말씀사, 2005.
- Koenig, John./ 김기영 역. 『환대의 신학』.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2.
- Kraemer, Hendrik./ 홍병룡 역. 『평신도 신학』. 서울: 아바서원, 2014.
- _____/ 조계광 역. 『기독교와 사회문제』. 서울: 생명의말씀사, 2005.
- Levinas, Emmanuel./ 서동욱 역. 『존재에서 존재로』. 서울: 민음사, 2005), 160.
- _____/ 김도형·문성원·손영창 역. 『전체성과 무한: 외재성에 대한 에세이』. 서울: 그린비출판사, 2019.
- _____/ 김성호 역. 『우리 사이』. 서울: 그린비출판사, 2019.
- _____/ 강영안 역. 『타인의 얼굴: 레비나스의 철학』. 서울: 문학과지성사, 2017.
- Maffesoli, Michel·Lefebvre, Henri./ 박재환 외 역. 『일상생활의 사회학』. 파주: 한울, 2010.
- Merriam, Sharan B./ 강윤수 외 역. 『정성사례연구방법론과 사례연구』. (서울: 교우사, 2021.
- Moltmann, Jürgen./ 이신건 역.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 메시아적 교회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7.
- Newbiggin, Lesslie./ 홍병룡 역. 『죄와 구원』. 서울: 복있는 사람, 2013.
- Pohl, Christine./ 정옥배 역. 『손대집』. 서울: 복있는 사람, 2002.

- Rifkin, Jeremy./ 이경남 역. 『공감의 시대』. 서울: 민음사, 2010.
- Russell, Letty M./ 여금현 역. 『공정한 환대: 서로 다른 사람들이 사는 세계에서
낮선 이들을 받아들이시는 하나님의 환영』.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2.
- Seidman, Irving./ 박혜준·이승연 역. 『교육학 · 사회과학 연구자들을 위한
질적 연구 방법으로서의 면담』. 서울: 학지사, 2022.
- Sheldrake, Philp./ 김경은 역. 『도시의 영성: 공간 공동체 실천 환대』. 서울:
Ivp, 2018.
- Stevens, R. Paul./ 주성현 역. 『일의 신학』. 서울: CUP, 2021.
- _____/ 홍병룡 역. 『21세기를 위한 평신도 신학』. 서울: Ivp, 2001.
- Stone, Howard W· Duke, James O./ 김상백·김용민 역. 『일상에서 신학하기』.
대전: 엘도론, 2015.
- Stott, John R. W./ 정옥배 역. 『현대 사회 문제와 그리스도인의 책임』. 서울:
Ivp, 2015.
- _____/ 정지영 역. 『존 스토트가 말하는 목회자와 평신도』. 서울:
아바서원, 2017.
- _____/ 한화룡·정옥배 역.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 서울: Ivp,
2016.
- Sunquist, Scott/ 이용원·정승현 역. 『기독교 선교의 이해: 고난과 영광에의
참여』. 인천: 주안대학원대학교출판부, 2015.
- Van Engen, Charles./ 임윤택 역. 『하나님의 선교적 교회』. 서울: CLC, 2014.
- Volf, Miroslav./ 김순현 역. 『베짱이와 용서』. 서울: 복있는 사람, 2018.
- Volf, Miroslav·Mcannally Linz, Ryan./ 김명희 역. 『행동하는 기독교: 어떻게
공적 신앙을 실천할 것인가』. 서울: Ivp, 2017.
- Vicedom, Georg F./ 박근원 역. 『하나님의 선교』.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0.

Wright, Christopher J. H./ 정옥배·한화룡 역. 『하나님의 선교』. 서울: Ivp, 2011.

미국심리학회./ 강진령 역. 『APA 논문작성법』. 서울: 학지사, 2020.

학위논문 및 학술지논문

강동완·박정란. “김정은 시대 북한사회 변화 실태 및 북한주민 의식조사.”

「북한학보」 39-2 (2014): 110-151.

구자숙. “북한 언어의 폭력성: 그 원인 및 심리적 영향.” 「서울대학교

심리과학」 8-1 (1999): 39-52.

권수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남한국민의 태도.” 「한국정치연구소」 20-2 (2011):

129-153.

권속도. “사회통합을 위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체계 개선방안 제안.”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22-2 (2018): 71-108.

금명자. “한국심리학회의 북한 및 북한이탈주민 관련 연구 동향: 한국심리학회지

계재논문 분석(2000~2003).” 「한국심리학회지」 34-2 (2015): 541-563.

김경숙. “탈북여성의 트라우마가 하나님 표상에 미치는 영향.” 「한국기독교상담

학회지」 29-1 (2018): 35-66.

김경은. “환대의 영성을 위한 레비나스(Emmanuel Levinas)고찰.”

「신학과 실천」 78 (2022): 159-183.

김명희 외 공저.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직업생활을 통해 바라본 남한

사회적응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사회과학논집」 53-1 (2022): 49-76.

김민희. “증언의 도구로서 평신도 사도직의 사회적 소명: 대럴 구더(Darrell L.

Guder)의 선교적 공동체를 중심으로.” 「선교신학」 66 (2022): 43-71.

- 김동노. “개인주의, 공동체주의, 그리고 한국사회의 공공성.” 「사회이론」 45 (2014): 77-110.
- 김석향. “남북한 언어 이질화 정도에 대한 집단별 인식의 차이 고찰.” 「현대북한 연구」 8-2 (2005): 85-124.
- 김선일. “통일의 시대를 위한 환대의 실천신학.” 「복음과 실천신학」 50 (2019): 9-39.
- 김성경. “기획특집: 광복, 70년 그리고 통일: 남한 사회의 새로운 구성원, 북한이탈주민: ‘환대’의 권리와 의무.” 「현대사광장」 6 (2015): 94-113.
- _____. “경험되는 북·중 경계지역과 이동경로 북한이탈주민의 경계 넘기와 초국적 민족 공간의 경계 확장 공간과 사회.” 22-2 (2012): 114-159.
- _____. “공감과 윤리, 그 (불)가능성: 필드에서의 연구자의 마음.” 「북한학연구」 12-1 (2016): 107-146.
- _____. “북한이탈주민 일상연구와 이주연구 패러다임 신고찰.” 「아태연구」 18-3 (2011): 1-21.
- _____. “분단체제가 만들어낸 ‘이방인’, 탈북자: 탈냉전과 대량탈북시대에 남한 사회에서 ‘탈북자’라는 위치의 한계와 가능성.” 「북한학연구」 10-1 (2014): 37-69.
- 김영택 외 공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요인 연구: 사회적 관계 적응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평화학연구」 21-4 (2020): 275-299.
- 김의혁. “북한이탈주민을 향한 환대의 선교.” 「선교신학」 47 (2017): 146-173.
- _____. [북한이탈주민의 이해와 한국교회 03] “낮설고 험난한 아랫동네 정착기: 북한이탈주민은 어떻게 정착하는가.” 「기독교사상」 753 (2021): 168-180.
- 김지윤. “타자들의 공동체: 타자들로 구성된 공동체의 가능성.” 「공간과 사회」 32-2 (2022): 71-102.

- 김화순. “고학력 북한이탈주민이 인지하는 차별과 직업계층 변화에 대한 인식.”
「통일과 평화」 2-2 (2010): 76-110.
- 김화순·최대석. “탈북이주민 정착정책의 인식과 과제: 정착지원을 넘어
사회통합으로.” 「통일정책연구」 20-2 (2011): 37-73.
- 김희권. “목회자의 자기 성찰과 성숙을 위한 소고(小考).” 「신학과 실천」 83
(2023): 487-516.
- _____. “사회선교의 정당성과 전망에 대한 고찰.” 「신학과 실천」 73 (2021):
749-786.
- _____. “예레미야 29장 1-14절에 나타난 뿌리 뽑힌 이주 난민 생존전략
고찰(考察).” 「신학과 실천」 78 (2022): 629-662.
- _____.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회의 선교전략: 지구 피조물 전체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교회,” 「선교와 신학」 59 (2023): 97-134.
- 김희영. “북한이탈주민 여성의 영성형성과정 연구: 자기정체성과 자기초월을
중심으로.” 「선교와 신학」 49 (2019): 220-221.
- 나동광. “21세기 도시 나그네를 위한 선교.” 「선교와 신학」 10 (2002): 97-117.
- 나지영. “탈북 청소년의 구술생애담 속 가족의 해체와 탈북 트라우마.”
「통일인문학」 60 (2014): 97-133.
- 모춘홍·이상원. “타자와의 조우: 북한이탈주민의 존재성과 분단체제의 현실
이해.” 「문화와 정치」 6-1 (2019), 93-121.
- 문시영. “바울의 제자도에 나타난 사회적 영성: 덕 윤리적 접근.”
「기독교사회윤리」 52 (2022): 9-39.
- 문은영·가요한. “북한이탈 여성의 커리어 발달과정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프로
티언 커리어(Protean career)를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상담심리학회」
32-4 (2021): 111-157.
- 박길성. “일상적 저항의 정치-농민의 생존전략, 계급형성, 그리고 사회변동.”

- 「경제와 사회」 23 (1994): 231-252.
- 박광택.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에 대한 연구 동향의 과제.” 「직업과고용서비스 연구」 9-2 (2014): 15-29.
- 박태순. “로잔운동으로 바라본 주안교회 ‘선교적 교회의 사명선언: 평신도들의 실천적 삶의 정의.’ 「미션네트워크」 8 (2020): 105-140.
- 성석환. “루터의 ‘만인제사장론’의 공적 의미와 현대적 실천 연구: 영미의 ‘선교적(형) 교회’ 운동을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신학논총」 107 (2018): 165-189.
- 신효숙. “기획1: 북한이탈주민, 통일미래의 동반자: “민주시민”으로 정착해야 통일 가교 될 수 있어.” 「통일한국」 363 (2014): 26-27.
- _____. “북한사회의 특성과 북한청소년의 일탈행동.” 「교정담론」 3-1 (2009): 30-45.
- 신효숙 외 공저. “북한주민, 탈북자, 북한이탈주민: 시공간적 경험 공유 집단 분석을 통한 북한이탈주민 속성 재해석.” 「통일인문학」 67 (2016): 41-80.
- 심상우. “통일의 정체성 확립의 요건으로서 우정(philia)과 환대(hospitaliom): 테리다와 레비나스를 중심으로.” 「기독교사회윤리」 47 (2020): 171-201.
- 양금희. “루터의 만인제사장 개념을 통해서 본 평신도교육 개혁.” 「장신논단」 49-1 (2017): 65-91.
- 양수경. “북한이탈주민의 언어적응실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3.
- 엄태완. “일반논문: 남북통합 과정의 심리사회적 위기분석-북한이탈주민의 생애 위기에 대한 질적 연구를 통해.” 「북한학연구」 7-2 (2011): 5-35.
- 오오현. “목회적 돌봄과 상담의 공간으로서 환대에 관한 소고.” 「신학과 실천」 38 (2014): 319-345.

- 오원환. “탈북민의 탈남현상에 대한 이해와 정과 친절의 정치학에 관한 탐색적 연구.” 「스피치와 커뮤니케이션」 18-1-40 (2019): 263-300.
- 유시은 외 공저. “북한이탈주민의 소득 수준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7년 패널 연구.” 「한국통일정책연구」 17-2 (2008): 117-153.
- 유철인. “생애사 연구방법: 자료의 수집과 텍스트 해석.” 「간호학 탐구」 7-1 (1998): 186-196.
- 유혜란. “탈북민을 통하여 본 ‘북한체제트라우마’(NKST) 불안연구.”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25-1 (2014): 117-155.
- 윤인진. “탈북자문제의 실태와 분석: 탈북과 사회적응의 통합모델.” 「통일농촌」 18 (2000): 3-32.
- 이경직.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만남: 한국사회와 기독교.” 「기독교사회윤리」 6 (2003): 131-155.
- 이민영.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한 정착지원에 관한 연구 동향 분석: 통합적 문헌고찰 방법을 활용하여.” 「한국가족복지학」 49 (2015): 39-69.
- 이상용. “김정은식 코로나 봉쇄, 정말 인민을 위한 조치인가?.” 「북한연구소」 607 (2022): 46-53.
- 이상근. “북한체제의 지속과 변화: 김정일 시대 체제 규범과 통치기제 운용을 중심으로.” 「현대북한연구」 20-3 (2017): 53-98.
- 이영미. “공정한 환대를 위한 열린 마당(레호브, רחב)로서의 교회.” 「신학연구」 73 (2018): 137-161.
- 이윤희. “2002년 월드컵 길거리 응원의 축제 공동체의 특성.” 「사회와 이론」 통3-2 (2003): 125-156.
- 이재열. “포스트 코로나! 신학과 교회의 역할과 과제: 포스트 코로나 사회의 미래와 변화의 전망.” 2022년 한국기독교학회 (미간행) 발표논문.
- 이지성. “한국 교회의 북한이탈주민 인식 전환에 대한 모색: ‘공감적 상상력’을

- 중심으로.” 「기독교사회윤리」 45 (2019): 95-122.
- 이지영·최경원. “북한이탈주민 직장적응 실태 분석과 제언.” 「대한정치학회」 29-1 (2021): 55-87.
- 이찬욱. “로잔운동의 총체적 선교와 선교지 Business As Mission 기업사례 간의 연속성 연구.” 「복음과 선교」 55 (2021): 315-363.
- 이형중. “마음의 연대를 위한 공감의 실천: 북한이탈주민의 공감경험에 대한 분석을 통해.” 「문화와 정치」 6-3 (2019): 105-146.
- 이희영. “새로운 시민의 참여와 인정투쟁: 북한이탈주민의 정체성 구성에 대한 구술 사례 연구.” 「한국 사회학」 44-1 (2010): 207-241.
- 임현주 외 공저. “북한이탈주민의 건강 관련 연구 동향.” 「지역사회간호학회지」 28-2 (2017): 144-155.
- 임희모. “타자와 환대의 선교: 레비나스 철학과 선교신학이 만남.” 「한국기독교신학농촌」 56-1 (2008): 189-211.
- 전현욱. “질적 연구에서 분석 작업의 성격과 과정.” 「교육인류학연구」 24-1 (2021): 1-37.
- 정승현. “윌버트 쉐크(Wilbert R. Shenk)의 선교적 교회론과 목회 선교학에 관한 연구.” 「선교신학」 58 (2020): 319-346.
- _____. “크리스텐덤 이해와 선교적 교회.” 「선교신학」 43 (2016): 187-220.
- _____. “하나님의 선교, 세상, 그리고 샬롬: 요하네스 호켄다이크의 선교신학.” 「선교와 신학」 24 (2009): 243-278.
- 정진리·유가현. “국민정체성 인식과 접촉 경험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다문화교육적 접근의 필요성.” 「다문화교육연구」 13-3 (2020): 85-111.
- 정현곤. “다문화사회의 이해와 선교적 접근 연구: 다중적인 정체성을 품는 신적 포용을 중심으로.”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 조수연·원지현.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 과정 관련 연구 동향: 심리 정서적 특성 중심으로.” 「한국 상담학회」 (2018): 3.
- 조완철. “북한이탈주민의 언어 적응을 위한 발음 억양 교육 실천사례 특성 분석.” 「현대북한연구」 21-1 (2018): 208-241.
- 조정아. “북한 주민의 “일상의 저항”: 저항 유형과 체제와의 상호작용.” 「북한학연구」 7-1 (2011): 25-74.
- 최형근 외 역. “로잔운동에 나타난 일터신학의 선교학적 함의.” 「ACTS신학저널」 42 (2019): 235-270.
- 한국일. “선교적 교회의 실천적 모델과 원리: 한국교회 현장으로부터 배우는 선교적 교회.” 「선교신학」 36 (2014): 355-401.
- 현한나. “‘이주와 난민 신학’ 기반 세우기: 그루디(Daniel G. Groody)의 신학과 메타포로서 환대적 선교.” 「선교신학」 55 (2019): 428-458.
- 홍성민. “타자와 공감영역: 인정과 환대의 사이에서.” 「한국프랑스논집」 107 (2019)
- 홍창현. “북한이탈주민과 한국 교회: 윤리적 환대를 향하여.” 「기독교사회윤리」 50 (2021): 335-361.

외국문헌

- Blocher, Henri. *In the Beginning: The Opening Chapters of Genesis*. U.S.A: Inter-Varsity Press, 1984, 57.
- Bosch, David. *Transforming Mission: Paradigm Shifts in Theology of Mission*. New York: Orbis, 1991.
- Burt, Donald X. *Friendship and Society: An Introduction to Augustine's Practical Philosophy*. Grand Rapids: Eerdmans, 1999.

- Collins, Thomas W·Noblit, George W. *Stratification and Resegregation: The Case of Crossover High School*. Memphis: Memphis State University, 1978.
- Goodall, Norman. ed., *Uppsala Speaks: Section Reports of the Fourth Assembly of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Uppsala 1968*. Geneva: World Council of Churches, 1968, 33.
- Merriam, Sharan B. *Case Study Research in Education: A Qualitative Approach*. San Francisco: Jossey-Bass, 1988.
- Migliore, Daniel. "The Missionary God and the Missionary Church," *The Princeton Seminary Bulletin, new series*, 19, no. 1 (1998): 14-15.
- Moltmann, Jürgen. *Hope for the Church: Moltmann in Dialogue With Practical Theology*. Nashville: Abingdon, 1979, 21.
- Newbiggin, Lesslie. *One Body, One Gospel, One World: The Christian Mission Today*. London: Wm. Carling & Ltd. 1958, 17-27.
- Pike, Kenneth L. *Language in Relation to a Unified Theory of the Structure of Human Behavior*, 2nd ed. The Hague: Mouton., 1967.
- Kraemer, Hendrik. *A Theology of the Laity*.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58, 19.
- Lincoln, Yvonne S·Egon G. Guba. *Effective Evaluation*. San Francisco: Jossey-Bass, 1988.
- Roxburgh, Alan J., Fred Romanuk. *The Missional Leadership: Equipping Your Church to Reach a Changing World*. San Francisco: Jossey-Bass, 2006.
- Yin, Robert K. *Case Study Research: Design and Methods*. (2nd ed.). Thousand Oaks, CA: Sage, 1994.

기타 자료

-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실태조사 연구보고서』.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2021.
- 『2022 자살예방백서』. 서울: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2022.
- 『2021 국가인권실태조사 연구보고서』.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2021.
- 『2021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조사』. 서울: 남북하나재단, 2022.
- 『2022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조사』. 서울: 남북하나재단, 2022.
- 『2022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 서울: 남북하나재단, 2022.
- 『202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편람』. 서울: 통일 정착지원과, 2022.
- 『북한주민 통일의식 2020』. 서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21.
- 『출입국 외국인 정책 통계월보』. 4 서울: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통계청, 2023.
- 권하연. “내외적 성장을 이끌어 쉼으로 진정한 나를 만나다.” 『위클리피플』 1075 (2021): 80-85.
- 김승욱. “이주민 선교에 활짝 열린 교회.” 『할렐루야 신문』 618 (2021): 1-32.
- 주승중. “주승중 위임목사님과과의 신년대담.” 『주안기쁨의샘』 308 (2023): 1-120.
- “북한이탈주민,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 동포사랑.” 『남북하나재단』 104 (2023): 1-117.
- “380조 쏟았지만 출산율 세계 ‘꼴찌’...현실로 다가온 ‘인구재앙.’” 『복지타임즈』 (2022.09.06.).
- “기부 받은 사람이 자립해 기부에 동참하는 ‘임팩트 기부.’” 『연합뉴스』 (2022.07.19.)
- “교회를 떠나는 탈북자들, 그 이유와 대책은.” 『크리스천투데이』 (2008. 06.09).
- “굿윌스토어 양친점, 화재 이겨내고 도약 다짐.” 『크리스천투데이』 (2023.03.24.)
- “남북 청년들 함께 모여 북한 사회문제 해결 아이디어 모색.” 『데일리NK』

(2023.03.03.)

“더 브릿지, 탈북민 창업가 이야기 ‘ON 장마당’ 진행.” 「크리스천투데이」

(2021.05.30.)

“북한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 원칙’ 전문.” 「데일리NK」 (2013.08.09.)

“북한 이야기는 한국에서 터부시?...사진기에 담은 탈북민의 삶.” 「BBC」

(2023.2.17.)

“북한이탈주민, 목숨 걸고 넘어왔지만...‘차별’의 벽 높아.” [카톨릭평화신문]

(2023.02.01.)

“세계 난민의 날: 이주자, 이민자, 망명 신청자 그리고 난민, 각 용어의 차이는?”

「BBC NEW 코리아」 (2022.06.15.)

“쉽지 않은 남한사회 정착, 종교단체 지원이 가장 큰 힘.” 「기독신문」

(2020.11.09.)

“우리 사회는 아직 이주민에게 차별적’ 54%...이주민과 공존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국일보」 (2022.12.03.)

“임팩트 기부, 투명한 기부모델의 마중물.” 「new1」 (2016.11.18.)

“탈북민과의 협력 사례, 통일에 꼭 필요해.” 「시사오늘」 (2020. 02.12.)

“탈북민 뷰티 컨설턴트가 말하는 북한의 미용과 패션.” 「VICE New」

(2021.03.25).

“탈북민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 「전북일보」 (2016.08.25.)

“탈북민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임팩트 기부.’ 사회적기업 더 브릿지.”

「사례뉴스」 (2022.06.22.).

“탈북 창업자들, 남북 경제 잇는 핵심 역할.” 「매일경제」 (2020.02.11).

“하나원 탈북민 대상 교재 살펴보니...북한 주민 비하 수두룩.” 「경향신문」

(2022.10.06.)